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 연구

202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호 창 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 연구

지도교수 윤 대 석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호 창 수

호창수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소설 읽기를 ‘허구 세계 구성’ 행위로 정의하고, 독자의 소설 읽기 양상을 분석하여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이 원리를 기반으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설계한다. 독자는 소설을 특정한 시공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로 인식한다. 독자가 허구로 된 소설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거나 삶에 대한 성찰이 가능한 것은, 내가 사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한다. 즉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허구적 대상과 독자의 인식이 혼재되는 경험이며, 이는 곧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겹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계 간의 겹침에 주목하며, 그 의미를 인지주의 서사학을 기반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독자의 소설 읽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가능 세계’가 작동한다. 먼저, 소설 속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 가능 세계’와 이야기 가능 세계 중에서 특히, 서술자로 인식되는 자를 통해 서술 행위가 발생하는 ‘텍스트 가능 세계’가 있다. 또한, 소설과는 별개로 독자가 현실을 매개로 재구성해 내는 ‘독자 가능 세계’가 그것이다. 이때 독자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의 가능 세계는 다시 여러 하위 양상으로 나뉘어 인식된다. 가령, 독자 가능 세계라는 것은 때로는 실재하는 사실로서 ‘독자의 현실 세계’일 수도 있고, 독자가 과거에 직접 체험한 것으로 기억하는 ‘독자의 경험 세계’일 수도 있다. 반면, 독자의 상상이나 반사실적 진술을 통해 추론되는 것으로서 ‘독자의 대안 세계’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중의 가능 세계는 독자가 속한 하나의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적 결합체로서 인식된다. 즉 독자의 현실 세계, 경험 세계, 대안 세계가 하나의 망처럼 얹히게 되고, 이러한 결합체를 ‘독자 유니버스’라는 확장된 세계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 가능 세계와 텍스트 가능 세계도 각각 인물과 서술자를 중심으로 한 ‘현실·경험·대안 세계’가 하나의 망을 이루어 결합하며, 각각 ‘이야기 유니버스’, ‘텍스트 유니버스’로 구성된다. 이렇듯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구성한 허구 세계는 각각의 유니버스가 중층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의미하며, 독자는 이러한 다중 유니버스의 구도 속에서 소설 이해를 시도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독자가 다중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작동시키는 메타인지를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설정한다. 소설 읽기에서 독자가 구성하는 가능 세계는 사실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수많은 관념과 의식을 생성하는 기제가 된다. 독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세계 체계’를 규정하는 독자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낯선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데, 이러한 이해는 ‘재중심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 이탈의 원리’에 입각한다. 재중심화란 독자가 가능 세계를 구성할 때, 낯선 세계와의 공유 지점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공유 지점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혹은 추론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세계 구성 방법을 최소 이탈의 원리라고 정의한다. 독자의 재중심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허구 세계 구성은 인지주의적인 사고의 작동이며, 독자와 소설의 서사 사이에서 작동하는 소통 구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소통의 구도를 리코르의 논의를 빌려 ‘삼중의 미메시스’에 대입하여 개념화를 시도한다. 소설 교육론의 일반화된 방법론인 삼중의 미메시스 구도는, 최신의 서사학 이론을 통해 도출한 이 연구의 개념과 원리를 소설 교육론의 내용으로 전환하고 문학 교실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을 제공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설 텍스트’, ‘소설 읽기’, ‘소설 이해’의 부면을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주목한다. 먼저, 허구 세계 구성은 소설 텍스트가 지닌 ‘허구성’과 ‘자기 반영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소설 읽기를 허구와 사실 사이의 변증법적 실천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이때에는 독자의 ‘허구적 인식 능력’이 작용한다. 또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독자의 ‘서사적 사고’가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독자가 소설의 근본적인 속성인 ‘서사성’, ‘픽션성’, ‘플롯’과 연관하여 각각의 유니버스에서 재중심화를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먼저, 독자는 소설이 지닌 서사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주목하여 이야기 유니버스를 도출하며, 이는 인물이 행동하고 진술하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허구 세계의 ‘시공간’은 개개의 인물에 따라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독자는 복수적 시공간을 하나의 이야기 유니버스 안으로 포섭한다. 이러한 작용을 ‘이야기 유니버스와 시공간의 중층성’이라는 수행구조로 제시한다.

또한, 소설에는 여러 ‘참여자’가 있고, 그중 하나의 참여자가 주도적인 목소리로 사건의 전모를 들려준다. 독자는 참여자의 목소리에 대한 감각을 통해 텍스트 속에 알려진 것과 은폐된 것을 판단하며, 이를 통해 소설의 픽션성이 도출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와 참여자 사이의 복수적 소통 위치가 확보되며, 이것을 ‘텍스트 유니버스와 참여자의 목소리’라는 수행구조로 제시하게 된다. 한편, 독자는 소설의 플롯을 통해 허구 세계의 ‘담론’을 도출한다. 이때 독자는 자기 유니버스에 내재하는 지배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그 담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이것을 ‘독자 유니버스와 담론의 체계’라고 하며 마지막 수행구조로 설정한다. 이 세 가지 수행구조는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이자, 더 나아가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원리 도출 및 교육 설계를 위한 기준이 된다.

위의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을 분석하여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모색한다. 먼저, 독자는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을 통해 허구 세계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개시한다. 이는 텍스트 대상화를 통해 표지를 생성하는 것과 일상 언어와의 대조를 통한 공진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독자는 ‘시공간’의 질

서를 포착하며, 허구 세계를 ‘재현’한다. 이때에는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크로노토프를 포착하고 텍스트 유니버스의 중층적 구조를 도출하며, 독자 유니버스와의 조응을 통해 소설의 서사성이 검토된다. 또한, 독자는 ‘참여자’의 견해를 토대로 허구 세계를 ‘판단’한다. 독자의 판단 작업은 이야기 유니버스의 중개자를 탐색하는 것과 그 중개자를 텍스트 유니버스의 서술자로 인식하고, 그 위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기 유니버스와의 접점을 통해 소설의 꺾진성을 추론한다. 한편, 독자는 ‘담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허구 세계를 ‘성찰’한다. 이러한 양상은 이야기 유니버스 내의 주요 사건을 선택하고, 텍스트 유니버스의 인과를 조직한 후 그 개연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기 유니버스와의 대별을 통해 소설의 플롯을 재구성한다. 이와 같은 전문 독자의 읽기 양상을 종합하여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도출한다. 이는 소설 표현 기법에 주목한 ‘세계 발견적 읽기’, 소설 서사성 체험을 통한 ‘세계 재현적 읽기’, 소설 꺾진성을 매개로 한 ‘세계 판단적 읽기’, 소설 플롯 재조직을 통한 ‘세계 성찰적 읽기’로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설계하기 위하여 목표 대상인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을 분석한다. 이때 전문 독자의 읽기 양상을 기반으로 한 소설 이해 원리는 독서 경험이 부족한 학습 독자에게 곧바로 전이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에서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마련한다. 이렇게 제안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 방법은 앞서 제시한 원리를 학습 독자에게 적합하도록 변형한 것으로서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발견적 읽기를 통한 ‘허구 표상’의 형성, 세계 재현적 읽기를 통한 ‘정보소’ 생성, 세계 판단적 읽기를 통한 ‘의미소’ 전환, 세계 성찰적 읽기를 통한 ‘해석소’ 도출이 그 내용이 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을 통해 학습 독자는 세계 발견 능력, 세계 재현 능력, 세계 판단 능력, 세계 성찰 능력을 신장하게 되며, 소설 이해를 위한 자기 유니버스의 재형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은 학습 독자의 능동적인 소설 읽기를 통해 서사적 사고를 신장하게 한다는 점, 학습 독자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조망하게 한다는 점, 소설 읽기의 인지주의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양상의 분석과 이론화, 교육에의 적용과 실재를 모두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설 교육의 새로운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요어 : 소설 이해, 허구성, 허구 세계, 가능 세계, 유니버스, 재중심화, 세계 체계, 미메시스, 시공간, 참여자, 담론, 서사성, 꺾진성, 플롯, 학습 독자, 소설 교육
학 번 : 2020-31859

목 차

국문 초록	i
목차	iv

I .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9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7
II .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 관한 이론	31
1.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개념	31
(1) 독자의 가능 세계 구성	32
(2) 인지주의적 사고를 통한 재중심화	41
(3) 서사 소통 구도의 확장	49
2.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전제	54
(1) 소설 텍스트의 허구성과 자기 반영성	55
(2) 소설 읽기와 허구적 인식 능력	59
(3) 소설 이해와 서사적 사고의 작동	63
3.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	68
(1) 이야기 유니버스와 시공간의 중층성	70
(2) 텍스트 유니버스와 참여자의 목소리	76
(3) 독자 유니버스와 담론의 체계	82

III.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	87
1. 전문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	87
(1)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과 허구 세계 발견	88
① 텍스트 대상화를 통한 표지 생성	91
② 일상 언어와의 대조를 통한 공진	94
(2) 시공간의 질서와 허구 세계 재현	96
① 이야기 유니버스의 크로노토프 생성	100
② 텍스트 유니버스의 중층적 구조 도출	101
③ 독자 유니버스와의 조응을 통한 서사성 검토	105
(3) 참여자의 견해와 허구 세계 판단	106
① 이야기 유니버스의 중개자 탐색	109
② 텍스트 유니버스의 서술자 위상 조정	110
③ 독자 유니버스와의 접점을 통한 필진성 추론	112
(4) 담론의 구조와 허구 세계 성찰	114
① 이야기 유니버스 내 사건의 선택과 강조	115
② 텍스트 유니버스 내 인과의 조직과 개연성 확인	119
③ 독자 유니버스와의 대별을 통한 플롯 재구성	122
2.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 도출	124
(1) 소설 표현 기법에 주목한 세계 발견적 읽기	125
(2) 서사성 체험을 통한 세계 재현적 읽기	129
(3) 필진성을 매개로 한 세계 판단적 읽기	132
(4) 플롯 재조직을 통한 세계 성찰적 읽기	135
IV.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설계	139
1.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과 한계	139
(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140
(2)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과 지체 요인	143

① 시공간과 소설 서사성에 주목한 반응	145
② 참여자와 소설 필진성에 주목한 반응	148
③ 담론과 소설 플롯에 주목한 반응	152
 2.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위한 시사점	155
(1)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목표	155
(2)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방법	160
① 세계 발견적 읽기를 통한 허구 표상의 형성	162
② 세계 재현적 읽기를 통한 정보소 생성	165
③ 세계 판단적 읽기를 통한 의미소 전환	170
④ 세계 성찰적 읽기를 통한 해석소 도출	175
 V. 결론	182
 참고 문헌	187
Abstract	195

표 목 차

<표 1. 연구의 절차 및 개요>	27
<표 2. 허구 세계 구성과 삼중의 미메시스>	53
<표 3.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 범주>	144
<표 4.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목표>	157

그 림 목 차

<그림 1.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한 독자의 재중심화 수행>	43
<그림 2. 허구 세계 구성의 사실 효과 작용 범위>	51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소설을 읽는 중에 독자가 구성하는 ‘세계(世界)¹⁾’를 중심으로 소설 이해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는 소설을 읽는 와중에 현실이 아니면서도 현실로 여겨지는 세계, 즉 허구 세계(Fictional world)를 구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구 세계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의식 속에 형상화된 ‘가능 세계(Possible world)²⁾’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허구 세계 개념을 전제하였을 때, ‘소설’은 현실의 재현이라는 속성을 넘어 독자가 추론하는 여러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 소통 작용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연구에서 소설 읽기를 ‘허구 세계 구성’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문학교육에서 소설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소설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한다.

허구적 서사문학의 한 장르로서 소설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여태까지 소설 교육에서는 있음직한 이야기라는 소설의 특성을 통해, 독자들이 현실 세계를 추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 교육 담론은 초기 문학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의미 규명을 기반으로, ‘해석학’을 적용한 다양한 읽기 방법론을 생산했다. 특히, 필진성을 전제로 소설 텍스트가 제공하는 수많은 표상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추출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결과적으로 학습 독자를 해석 공동체라

1) 이 연구에서 말하는 ‘세계’란 시간 축과 공간 축으로 이루어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또한 그 영역에 포함된 모든 존재를 뜻한다.

2) 가능 세계란, 서사 안에서 독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세계의 유형을 말한다. 이는 텍스트 내에 실재하는 것을 지시 대상으로 삼은 것일 수도 있고, 독자의 감각에 의해 실재하지 않는 것을 추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텍스트 내 인물이나 텍스트 바깥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 세계에 대하여 “실재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세계”라고 정의하는 허만(D. Herman)의 논의(D. Herman, etc(2005),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pp.446-447 참조)를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보충한다.

고 부르는 암묵적인 해석의 자장 속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다양한 읽기 전략을 제시했다. ‘해석 교육’을 표방한 소설 교육론은 독자의 위치를 문학 소통의 중심부로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독자의 오독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각각의 읽기 방법만을 강조하여 일종의 기예로서 해석학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있다.³⁾ 따라서 그간의 연구에서 소설 교육의 결과로 제시하는 학습 독자의 ‘해석 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독자는 수많은 서사 중에서 ‘무엇을’ 소설로서 인식하는가에 대한 답과 독자는 소설을 소설답게 만드는 장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답이 그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소설 해석 이전에 작동해야 할 선행 과제로서 ‘소설 이해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한편, 소설 교육 연구는 문학과 이론을 다루면서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응용학문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실천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설 교육에서 말하는 ‘읽기’란 무엇인지, 소설 읽기의 구조와 원리가 어떠한지, 이를 통해 특정한 교육적 처치로 어떤 전략을 활용하여 교육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소설을 매개로 읽기라는 소통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의 인지적 활동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무엇인가?’, ② ‘독자가 소설을 읽는 데 동원하는 인지 맥락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③ ‘독자는 어떻게 세계를 구성하고 사건과 연관시키기에 소설 속 이야기를 “내가 겪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인식하는 것인가?’, ④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절차화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가, 즉 문학교육을 위한 교수학적 변환이 가능한가?’, 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라는 일련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수행한다.

이때 가장 먼저 조명해야 할 개념이 소설의 ‘허구’와 ‘세계’에 관한 것이다. 먼저, ‘지어낸 이야기’라는 일반적 의미를 지닌 허구의 개념에서 두 가지 소설 교육적 함의가 포착된다. 첫째, 허구는 형상화된 언어로서 ‘의도된 표

3) 근래의 문학교육 연구자들에게는 독자로서 학습자의 위상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바, 학습자는 소설 교육 수행의 대상이 아닌 목표이자 주체로서 위상이 변화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소설 교육의 주축으로서 학습자 위상의 재검토를 위하여, 오히려 그간 등한시되었던 소설 갈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상' 이라는 것이다. 둘째, 지어낸 것이기에 실재하지 않는 것을 '지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설 교육에서 학습 독자에게 소설을 소설답게 인식하게끔 하기 위하여, 즉 허구적 텍스트를 '현실과 같은 허구'로서 인식하게 하는 특정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때 소설은 허구적 텍스트이기에 소설의 이해는 허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독자의 정신 구조는 허구와 사실 사이를 당연하게 넘나들며 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⁴⁾

먼저, 소설은 언어적으로 형상화된 개체이다. 언어에서 허구 개념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학교육의 당위성을 환기할 수 있다. 둘째, 지금의 학습 독자에게는 문학교육의 핵심인 해석을 위한 기초 능력으로서 허구와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훈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다매체 서사 장르의 발달로, 가상과 실재의 혼란을 겪는 미래 독자들이, 잠재적 생산자이자 문화 향유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문학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허구의 운용과 생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학교육의 본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가 허구적 인식을 바탕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과정을,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소설은 실체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독자들의 읽기 과정 속 의식 공간에 구성체로 존재한다. 소설을 읽는 행위는 텍스트의 구체적인 지점을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서술자에 의해 조직된 세계를 재구성하여, 세계 이면에 놓인 담론을 도출하는 활동이다. 소설 읽기를 행할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비계로서 허구 세계에 대한 온갖 '인지 맥락(cognitive context)' ⁵⁾을 적용하여 하나의 구성된 의미를 생성한다. 이때 인지된 여러 장치를 통해 의식 공간 속에 구성된 세계가 독자의 허구 인식의 실

4)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한용(2004), 「문학교육과 허구적 인식 능력」, 『국어교육연구』 14, 국어교육연구소, pp.8-9에서 제시한 문제 제기를 계승하는 것이다.

5) 스톡웰(P. Stokwell)에 따르면 인지 맥락은 문학 도식이라고도 정의된다. 이는 개별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전체 텍스트의 독해에 이르기까지, 언어 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많은 정보와 자질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 온 것을 말한다. 인지 맥락의 예시로는 도식의 보존(preserving), 강화(reinforcing), 분열(disruption), 첨가(adding), 쇄신(refreshment)이 있다.(P. Stokwell(2002), *Cognitive Poetics*, 이정화 외 역(2009),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pp.143-144 참조)

체가 된다. 특히, “세계는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현상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의미화”⁶⁾된다는 주장에 주목한다면, 세계는 독자가 ‘대상’으로 의식할 때만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소설 이해를 ‘어떤 개별적 문제 사태에 대한 특정한 동기로 구현된 세계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포착하는 행위’로 본다.

따라서 소설 교육은 소설 이해 과정에서 작용하는 독자의 무의식적 감각인 허구성을 포착하고, 특정한 목표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된다. 따라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는 스스로 빚어낸 세계의 신념과 동기, 감정을 포착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별한 장치인 ‘소설 언어’⁷⁾로 이루어진 소설의 허구 세계는 문자화된 표상들, 가령 인물의 말과 행동, 구체적인 시공간, 사건과 갈등으로 구성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허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거나, 나의 삶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사는 세계 외부에는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세계를 확인하는 일”⁸⁾과 같다. 허구를 통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소설이 특정 세계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독자가 이 특정한 구조로서의 ‘형상화’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세계를 독자의 인식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수행된다.

학습 독자가 그 자체로는 실재가 아닌 허구 세계를 목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표상된 세계와 자신이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현실 세계와의 적절한 비교·대조가 필요하다. 학습 독자에게 내가 발견하는 세계는 소통하는 주체로서 나의 인식 대상이 된다. 또한, ‘나’라는 소통 주체도 마찬가지로 세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인식 도구가 된다. 이러한 세계 양상의 비교·대조 작업은 세계 간 소통 구도로서 형성되며, 이 소통 구도를 내면화하기 위한 특정한 수행 전략이 요구된다. 즉, 소설 속에서 허구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행위는 독자로서 자아의 위상을 특정한 세계의 구도 안으로 위치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독자로서의 존재를 서사적 주체로 인식

6) 김근호(2009),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7.

7) 소설 언어란, 소설에서 표현된 문자 언어와 문자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암시하는 공백으로서의 언어를 모두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II, III장에서 보충한다.

8) 우한용 외(2001),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p.31.

하는 작업이며, ‘서사적 사고’ 9)를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학습 독자가 형상화하는 허구 세계를, 가능 세계 양상을 통해 유추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가능 세계는 “가정적 언어 상황에서 지각된 현실과는 다른 대체 현실이 존재하며, 이것이 상상을 통해 구체화된 것”을 의미하며, 양상논리학과 텍스트언어학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¹⁰⁾ 가능 세계를 통해 사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의 영역과 언어가 만들어 낸 현상의 측면을 구분하는 것이다. 어떠한 재현적 텍스트도 “실재를 그대로 투사한 것일 수는 없으며, 가능 세계의 영역과 실재 세계의 영역은 서로 다른 논리적 관점으로 구분”된다.¹¹⁾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허구 세계’를 여러 개의 가능 세계 양상으로 세분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허구 세계 구성을 통해 소설을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 단서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추론을 기반으로 하여 허구 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¹²⁾ 해석학적 접근에서 세계 구성은 텍스트를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사와 언어 인지 패러다임을 합치는 것이다. 서사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련된 것”¹³⁾이라는 오래된 정의를 염두에 둔다면, 허구 세계를 가능 세계로 세분화하는 것은 사실의 차원에서는 표현될 수 없던 물밑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필연적 기제가 된다. 이때 가능 세계는 “사실을 지시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대신, 가능성과 필연성의 논리에 의해서만 선택과 계열화를 수행하는 영역”¹⁴⁾이 되기에, 학습 독자는 소설 읽기에서 이 가능성을 계열화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의 발견과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독자에 의해 구성되는 허구 세계의 양상에 주목하는 것은 일종의 “서사 인지 프레임”을 구축하는 작업이기

9) 이때 서사적 사고는 허구 세계 안의 문제를 가상의 시공간으로 상상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보충한다.

10) 최성민(2013), 「서사텍스트의 가능 세계에 대한 서사공학적 연구」, 『시학과언어학』 25, 시학과언어학회, p.194.

11) D. Lewis(1986), *On the Plurality of Worlds*, Basil Blackwell, pp.3-4.

12) D. Herman(2003), *Story Logic*,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9.

13) G. Prince(1987), *A Dictionary of Narratology*, 이기우 역(1992), 『서사론 사전』, 민지사, pp.162-163.

14) 나병철(2014), 「가능 세계와 메타픽션」,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pp.27-28.

도 하다.¹⁵⁾ 독자가 허구 세계에 개입하는 것은 허구 세계의 “여러 창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택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독자의 소설 읽기에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허구 세계 구성 양상은 허구 세계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가 마련하는 구체적인 틀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허구 세계의 개념은 서사학에서 가능 세계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여왔다고 평가받는 라이언(M. Ryan)의 ‘유니버스(Universe)¹⁷⁾’를 바탕으로 한다. 유니버스는 다양한 가능 세계의 상위 범주를 의미한다. 유니버스에는 여러 가능 세계 양상(가령, 현실 세계, 경험 세계, 대안 세계)이 혼재해 있으며, 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세계의 합이라는 뜻의 온 세계(whole worlds)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또한, 유니버스를 ‘세계 체계’, ‘초월 세계’, ‘우주’, ‘세계관’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어떤 번역어이든 그 용어상의 오염으로 인해 ‘Universe’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¹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가능 세계의 추상적 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Universe’에 대한 별도의 번역어 대신 원어를 살려 ‘유니버스’로 사용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유니버스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허구 세계 구성의 구조화를 시도한다. 이는 서사 공간과 그 주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이야기 유니버스(Story universe), ㉡텍스트 유니버스(Textual universe), ㉢독자 유니버스(Reader’s own universe)로 구분한다. 먼저, 소설 속에서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 추론되는 사건과 관련된 것이자, 여러 인물의 세계가 중첩된 양상이 ㉠이야기 유니버스이다. 이때 이야기 유니버스 중에

15) 얀(M. Jahn)은 서사의 인지적 이해를 위해 가능 세계 이론을 활용한다. 그에 따르면,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특정한 형태로 활성화되는 선행지식 체계가 있고 이것을 ‘인지 프레임(cognitive frame)’이라 정의한다. 독자는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실생활 경험의 틀과 문학 관습에 대한 지식을 독서 과정에 동원한다.(A. Nünning & V. Nünning(2002), *Neue Ansätze in der Erzähltheorie*, 조경식 외 역(2018),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pp.340-341 참조)

16) 이때 창문은 서술자의 서술 또는 작중인물의 초점화를 비유한 것이다. (R. Scholes, etc.(1966), *The Nature of Narrative*, 임병권 역(2007), 『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p.477)

17) 유니버스에 대해서는 M. Ryan(1991), *Possible Worl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Theory*,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Indianapolis Press 참조.

18) 호창수(2023a), 「가능 세계 구성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9, 우리말글학회, p.271.

서 특히 작가에 의해 설치된 여러 장치(주로 서술자)를 통해 소설의 주제 의식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세계 양상을 ㉠텍스트 유니버스¹⁹⁾로 구분한다. 텍스트 유니버스의 주제, 즉 서술자의 성격에 따라 두 유니버스는 동질적일 수도 있고, 이질적일 수도 있다.²⁰⁾ 그리고 텍스트와 독자를 둘러싼 ㉡독자 유니버스가 있다. 이는 독자 자신이 속한 곳으로서 실생활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상의 체험역(體驗域) 전반을 관장하는 세계로 구성된다. 독자 유니버스는 소설 속 가능 세계(㉠, ㉡)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인지 프레임이다. 독자는 자신의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이야기 유니버스나 텍스트 유니버스의 시공간을 조직하거나 사건을 판단한다. 또한, 때로는 허구 세계에 대한 대안 세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전문 독자의 소설 읽기에서 허구 세계 구성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각기의 유니버스로 구조화한다. 이 과정에서 허구 세계 구성 원리가 도출되는데, 이는 학습 독자를 위한 소설 교육의 목표로 설정되며, 소설 이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존재하지 않는 실체에 대하여, 가능 세계라는 틀을 이용해 허구 세계를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소설의 이해를 완성하게 된다.

이 연구가 기존 소설 교육 논의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설 작품의 의미가 독자에 의해 다양하게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 의미의 생산을 소설의 가장 원초적인 속성인 ‘허구성’과 독자의 ‘허구적 인식’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소설 교육이 천착하는 해석 교육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작업이 된다. 진정한 의미의 해석은 문학 능력의 최상위 결과이며, 일반적인 독서 수준의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한

19) 텍스트 유니버스는 서술자에 의해 묘사되는 세계라는 점에서 ‘서술 유니버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사 이론에서 ‘작품(work)-텍스트(text)’를 구분하는 것처럼, 작품을 이루는 개개의 ‘story’와 누군가의 시선과 진술로 전달되는 이야기 속의 주요 이야기라는 뜻으로서 ‘text’를 구분하기 위하여 텍스트 유니버스라고 명명하였다. 과도한 번역어 사용은 오히려 기존 번역어의 선입견으로 인해 그 의미 전달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 이는 주네트가 서술 구분을 ‘동종제시(homodiegetic)’와 ‘이종제시(heterodiegetic)’로 나누는 것과 같다.(G. Genette(1972), *Discours du récit*, 권택영 역(1992), 『서사담론』, 교보문고, pp.237-238 참조) 이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보충한다.

문학 교실에서 성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설 해석 교육에 앞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원리로서 소설 허구성에 대한 인식이 학습 독자에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소설을 소설답게 읽는 독법을 학습한 후, 이를 인지 도식으로 활용하여 진정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성격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허구 세계 구성’을 개념화한다. 특히, 가능 세계 이론을 기반으로 논의를 구조화하고 인지주의 서사학에 기대어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전문 독자의 소설 읽기 양상을 분석하여,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허구 세계 구성과 소설 이해는 온전하게 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에 주목하여, 일종의 ‘세계 만들기’의 측면에서 해석 텍스트를 통해 추론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전문 독자의 해석 담론을 시공간, 참여자, 담론의 측면에서 각각 소설의 서사성(Narrativity)²¹⁾, 픽진성(Verisimilitude), 플롯(Plot)의 문제와 연관하여 분석하고, 그 구조화를 시도한다.

셋째, 허구 세계 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설계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학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여, 서사 소통의 구도를 확장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학습 독자의 실제 소설 읽기 양상을 통해 도출한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 방법을 구상한다. 이때 고등학생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과 이들의 근접발달영역으로 설정한 대학생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한다. 이를 적용한 교수·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작업은 소설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이론화 시도가 된다.

21) 이 연구에서 말하는 서사성(Narrativity)은 “독자가 하나의 텍스트를 서사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서사적 특성의 집합”이라는 정의(P. Abbott(2002),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외 역(2010), 『서사학 강의』 문학고지성사, pp.59-61 참조)와 “서술재현 전략으로서 비서술과 서술을 구별하고 담론의 서사적 속성을 드러내는 장치”라는 정의(J. Phelan & P. Rabinowitz(2005),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최라영 역(2016), 『서술이론Ⅱ』, 소명출판, p.569 참조)를 포괄한다. 그밖에 픽진성과 플롯은 소설론의 일반적 개념을 따르며, 자세한 것은 Ⅱ장에서 보충한다.

2. 연구사 검토

이 연구에서는 먼저, 소설의 ‘허구’ 문제를 ‘가능 세계’와 연관하여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읽기 방법론의 교수학적 변환을 위하여 서사론의 소통 문제와 연관하여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학습 독자의 읽기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인지주의 서사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소설 교육에서 허구 세계에 관한 것, (2) 소설 교육에서 서사 소통 구도에 관한 것, (3) 소설 읽기와 인지주의 서사학에 관한 것이다.

(1) 소설 교육에서 허구 세계에 관한 연구

소설 교육은 독자의 위상이 재검토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독자반응이론, 수용미학을 통한 학습자의 자율적 해석에 가닿은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²²⁾ 이때 주체적 독자로서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소설과 현실의 문제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 연구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허구’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허구의 문제는 독자에게 암시된 것으로서, 텍스트 수용의 발생적 차원과 연관이 있다.

먼저, 김혜영²³⁾은 소설 텍스트의 장르적 조건을, 소통 과정에서 발생적으로 규정된 ‘허구성’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독자가 소설 텍스트의 내적 준거만을 가지고서 텍스트 내용의 실제성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허구성은 텍스트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대비하였을 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허구성 판단의 근거로 소설 이해 도식을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다만 김혜영은 소설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탐색을 생략하고 추상적인 논의에 그쳤다

22) 이는 로젠블랫(R. Rosenblatt), 이저(V. Iser), 인가르덴(R. Ingarden) 등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한 연구를 말한다.

23) 김혜영(2004), 「소설 장르의 허구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청준 소설을 대상으로 개별 소설에서 어떻게 허구성의 발생적 계기가 마련되는지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우한용²⁴⁾은 문학교육의 생산론적 입론 가능성으로서 소설 이해의 방법을 허구적 인식 능력이라 명명하며, 소설의 기본적 속성인 허구성에서 그 틀을 마련한다. 이는 문학을 수용하는 독자의 위상을 의미와 텍스트의 잠재적 생산자로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허구의 실체 여부보다는 허구를 운용하는 주체의 인식론을 주요 연구 문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구상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우한용은 텍스트 속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허구와 대비하여 읽는 독서 과정에 주목하며, 독자의 허구성 인식의 수행성이나 구체적인 원리를 밝히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한용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허구적 인식 능력의 실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허구 세계에 주목한다. 이는 허구 안에서 형성되는 리얼리티의 문제를 읽기 원리로서 이론화하는 시도이며, 앞선 논의를 계승하는 것이다.

한편, 문학교육에서 허구 세계 개념의 이론적 정의를 시도한 연구가 있다. 김승환²⁵⁾은 서사 이론을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에서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작중인물이 속한 세계를 허구 세계로, 독자가 속한 세계를 현실 세계로 구분하여 작중 인물에게 부여된 세계 내의 한계에서 독자의 몰입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 역시 소설 읽기 공간을 현실과 허구의 가상으로 구분하고, 독자가 텍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다만, 허구 세계 개념을 서사 기법으로서만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앞서 김혜영과 우한용의 논의에서처럼 소설 읽기에서 허구의 문제를 발생론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김승환과 차이가 있으며, 가능 세계 이론을 기반으로 이야기 유니버스, 텍스트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로의 확장을 통해 그 실제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염창권²⁶⁾은 기호론을 바탕으로 허구 세계를 개념화한다. 그는 언어의 용법으로서 ‘동시성의 공유’와 ‘동시성의 일탈’을 제시하여 세계의 현존

24) 우한용(2004), 앞의 글.

25) 김승환(2017), 「소설텍스트의 현실과 허구를 나누는 선」,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6) 염창권(2003), 「문학교육에서 허구적 세계와 언어의 문제」, 『비평문학』 17, 한국비평문학회.

문제를 숨겨진 코드의 문제로서 바라보는데, 이는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동시성’이란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와 독자 유니버스 사이에 공유되는 지점으로서 현실의 존재 문제, 즉 독자가 작가 혹은 서술자나 작중인물과 언어 사용의 맥락을 공유하는 것과 같다. 이때 공유는 세계 내 현존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탈은 현존의 문제가 탈락하고 오로지 상상의 영역으로 치환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염창권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문학 언어의 특성을 살피는 데 그쳤지만, 그가 제시한 동시성의 공유와 일탈 개념이 학습 독자를 위한 소설 이해의 틀을 마련하는 데 여러 방편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허구 세계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 수용 문제를 다룬 것도 본 연구를 구상하는 데 여러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다. 이인화²⁷⁾는 소설 읽기에서 허구 세계에 대한 독자 간 의미 교섭에 주목하여, 허구 세계를 통한 소설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소설 해석을 둘러싸고 독자 간 소통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학습 독자와 전문 독자 사이의 읽기 양상을 비교하는 데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이인화는 해석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하여 허구 세계에 대한 논의를 독자 간 의미 교섭에서만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인화의 연구를 계승하여 독자의 의미 교섭 이전에 발생하는 의미 구성 과정, 더 나아가 의미 구성 이전에 작용하는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확장한다.

일반적으로 서사에서 허구는, 실현될 수 있는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다른 목적을 제시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소설의 허구 문제는 가능 세계에 대한 이론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양자물리학에서 태동한 ‘가능 세계’ 개념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확장한다. 지금까지 서사 연구에서 가능 세계 논의²⁸⁾는 라이언(M. Ryan)²⁹⁾이 제기한 재중심화(Recentring)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라이언은 허구 세계를 양상 체계

27) 이인화(2013b), 「소설의 허구 세계에 대한 독자 간 의미 교섭의 실천 체계 연구」,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8) 오혜정(2001), 「가능 세계 이론을 통한 허구성 탐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시도한 라이언 이론의 개념화는 이후 가능 세계 논의에 있어 상당한 기초가 되었다.

29) M. Ryan(1991), 앞의 글.

에 따른 개별 세계로 보지 않고, 텍스트상의 현실 세계가 중심인 유니버스(textual universe)로서 이해한다. 이때 낯선 가능 세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하나의 현실 세계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재중심화의 핵심인데, 이는 독자가 스스로 또 다른 세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의 구성,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재중심화 논의를 원용한다. 이는 가능 세계를 단순히 현실의 대체재(대안 세계)나 가상 현실(반(反)실재 세계)로만 보는 것을 극복하게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미우라 도시히코(三浦俊彦)³⁰⁾와 손병홍³¹⁾의 논의도 참조할 만하다. 분석 철학에서는 가능 세계를 어떠한 존재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양상 실재론과 양상 현실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양상 실재론은 가능 세계와 가능 개체가 현실 세계와 같은 방식으로 독립적이고 무수히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반면 양상 현실론은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 독립하여 실재하지는 않으며, 현실 세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 논의 중 양상 실재론의 정의를 따른다. 이외에도 가능 세계를 문학의 자장 안으로 끌어 오고자 한 연구³²⁾는 꾸준히 있었고, 이들은 소설 읽기에서 세계 개념을 정의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다만, 일부 연구는 대체 가능 세계 혹은 반실재로서 가능 세계만을 다루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궤를 같이하는 연구가 있다. 김정은³³⁾은 그 자체로는 현실이 아닌 문학 텍스트가 학습자의 삶에서 의미 있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가능 세계 구성을 통해 마련한다. 독자가 텍스트 세계와 자기 세계의 관계를 직접 형성하는 것을 일종의 문학 소통의 방편으로 본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김정은의 논의는 문학교육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가능 세계 이론을

30) 三浦俊彦(1995), 『虛構世界の存在論』, 박철은 역(2013), 『허구세계의 존재론』, 그린비;

三浦俊彦(1997), 『可能世界の哲学』, 박철은 역(2011), 『가능세계의 철학』, 그린비.

31) 손병홍(2004), 『가능 세계의 철학』, 소피아; 손병홍(2013), 「가능 세계 이론들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 70-3, 범한철학회.

32) 나병철(2014), 앞의 글; 오세정(2021), 「현대 문화콘텐츠의 서사 세계 연구」, 『기호학연구』 67, 한국기호학회; 우찬제(2002), 「버추얼 리얼리티, 가능 세계, 문학 이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이경순(2002), 「다른 세계들, 다른 텍스트들」, 『문학과영상』 3-2, 문학과영상학회; 정익순(2008), 「유토피아와 가능 세계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 『철학탐구』 23,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등.

33) 김정은(2022), 「가능 세계 구성의 문학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시론적 성격이 크다. 다만, 본 연구는 김정은과 달리 소설 장르의 본질적 속성인 허구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가능 세계를 다룬다는 점, 더 나아가 독자의 가능 세계 구성을 정교하게 이론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김정은은 초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능 세계 구성 양상을 살펴다 보니, 일반적인 소설 이해 양상이나 보편화된 세계 구성 원리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 독자, 일반 독자의 읽기 양상을 더하여 허구 세계에 대한 인식, 구성, 판단을 포괄하며, 그 이해의 전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위 연구를 확장하는 논의가 된다.

(2) 소설 교육에서 서사 소통 구도에 관한 연구

한편, 본 연구에서 말하는 ‘소설’은 서사(Narrative)의 관점을 취한다. 소설은 시간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사건의 결과와 의의를 특정한 ‘시간 축’에서 언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며, 이 시간의 종속은 서사를 만드는 핵심이 된다. 인간은 자신과 세계를 모두 시간 축 위에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존재’이다. 우한용에 따르면 서사는 “사건을 언어로 서술한 것으로 이야기 내용(story)”과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자(narrator)”의 개입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³⁴⁾ 즉 경험(Erfahrung)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경험을 ‘사건’으로서 체험(Erlebnis)하고, 이 체험은 시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세계를 만들어 가는 기본 원리가 되며, ‘서사’로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는 최신의 ‘서사학 이론(Narratology)’에서 서사 세계를 소통 구도로 재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이 활용된다.

먼저, 김근호³⁵⁾는 소설 읽기의 텍스트적 특수성에 주목하여 문학을 일상 언어의 논리로 보는 관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그는 소설 읽기의 공간론적 개념을 서사 텍스트, 서사적 형상화, 문학적 소통으로 설정하여 그 구체적 읽기 방법론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공간 단위의 서사 세계 인식, 다성적 담론에 의한 서사 세계의 중층적 이해 방식은 본 연구에서 허구 세계 구성 방식을 구

34) 우한용 외(2001), 앞의 책, pp.3-5 참조.

35) 김근호(2008), 「소설 텍스트 중층적 읽기의 공간론」, 『독서연구』 19, 한국독서학회.

상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근호의 논의에서 부족하였던 장르적 특수성으로서 소설 읽기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세계의 ‘시공간, 참여자, 담론’으로 범주화를 시도하고, 그 공간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한편, 정진석³⁶⁾은 소설 교육에서 서사 소통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는 문학이란 의사소통의 일종이며,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임에 주목한다. 그는 ‘작가-작품’, ‘현실 세계-작품’, ‘작품-독자’로 세분하는 ‘비평 분류식 실천 원리’와 독자의 능동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미학적 실천 원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소설 이해의 구도를 구상하는 데 이론적 기틀이 되었다. 또한, 소통 문제의 구체적 사례로서 서술자의 문제, 시점의 문제, 신빙성 판단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지향을 제공하는 것 역시 본 연구에서 소설 이해의 원리를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더욱 정치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황혜진³⁷⁾은 서사 텍스트의 주제 진술 방식에 대하여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리쾨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호명한다. ‘미메시스Ⅲ’로서 수용되는 것이 ‘현실 효과’가 된다는 점, 수용자가 자기화한 주제로서 진술 방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은 본 연구에서 허구 세계의 중층적 구조를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소설 텍스트에 대한 메타적 읽기를 구상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지점을 제공한다.

(3) 소설 읽기와 인지주의 서사학에 관한 연구

한편, 최근의 서사학 이론에서는 독자 혹은 작가의 ‘인지’에 관심을 둔

36) 정진석(2011),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정진석(2013), 「소설 시점 교육의 사적 고찰과 개선 방향 연구」, 『어문연구』 4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정진석(2014), 「소설교육에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9-1, 국어교육학회; 정진석(2016), 「소설교육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수용에 대한 인지서사적 고찰」, 『국어교육』 154, 한국어교육학회.

37) 황혜진(2006), 「서사 텍스트의 주제 진술 방식 연구」,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다. 본 연구는 소설 교육 연구를 표방하지만, 결국 서사학 이론의 실제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에는 최신의 철학과 문학 이론을 기반으로 서사학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영미·유럽의 내려톨로지 학파(A. & V. Nünning³⁸⁾, D. Herman, J. Phelan & P. Rabinowitz³⁹⁾, L. Zunshine⁴⁰⁾, M. Ryan 등)의 논의가 기반이 된다. ‘인지주의시학’⁴¹⁾이 소개된 이후, ‘서사’ 혹은 ‘이야기’의 차원에서도 인지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허만(D. Herman)⁴²⁾은 문학 이론에서 20세기까지의 흐름을 고전 수사학 즉, 구조주의·형식주의 지향 이론으로 정의하고, 이후의 논의를 문화학적·해석학적 논의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학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하여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매체의 매개성을 중심으로 이론화를 시도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독자의 소설 읽기 양상을 인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에 큰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논의로 다이스케(A. Daisuke)⁴³⁾가 있다. 그는 인지 체계의 관점에서 주네트(G. Genette)의 서사 담론 문제를 재해석한다. 서사를 둘러싼 행위 주체의 인지 체계를 서사화, 이야기, 담론의 문제로 구분하고, 그 구조화 방식을 서사적 범주를 활용하여 기억, 스토리, 시간, 사건, 관계를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양상을 일반화된 진술로 범주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해석학적 분석 방법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만, 다이스케가 시도한 인지 체계를 통한 서사의 구조화는 기계적인 분류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논의를 보충하였다.

소설 읽기에서 인지주의 문제를 다룬 국내의 연구로는 송민정⁴⁴⁾, 이정엽⁴⁵⁾,

38) A. Nünning & V. Nünning(2002), 앞의 책.

39) J. Phelan & P. Rabinowitz(2005),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최라영 역 (2015), 『서술이론 I』, 소명출판.

40) L. Zunshine(2012), *Why We Read Fic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41) P. Stokwell(2002), 앞의 글.

42) D. Herman(2003), *Narrative Theory and the Cognitive Science*, CSLI Publications.

43) A. Daisuke(2019), “Narrative structure in the mind: Translating Genette's narrative discourse theory into a cognitive system”, *Cognitive Systems Research* 58, Elsevier Science.

44) 송민정(2013), 「문학 연구의 인지적전환(1):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고전서사학과 인지적 서사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1, 한국독일언어문학회.

45) 이정엽(2015), 「인지주의 서사학 관점에서 본 게임학 연구: “스탠리 패러블”을 중심

노대원⁴⁶⁾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송민정은 인지주의 서사학을 본래의 문학이 시대를 반영하여 자기 변신한 것으로 본다. 인지주의 서사학을 재개념화하여, 인간, 삶, 문화, 언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한 시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읽기 양상에 대한 질적 분석이 독자의 허구에 대한 판단, 즉 소설 장르에 대한 인식 문제에 가닿는다고 보는 것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이정엽은 인지주의 서사학에서의 서사 개념을 텍스트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여, 작품의 수사나 문체 분석보다는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허구 세계를 발생론적 소통 구도에서 독자와 텍스트의 관계 맺기로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노대원은 다른 인지주의 서사학 논의를 구체화하여 독자적인 서사 인지론을 구축하였다. 그의 논의는 본 연구에 많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텍스트·이야기 유니버스를 서술자나 인물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에 기반이 되었다. 노대원이 구체화한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을 활용하면 작중인물에 대한 인지는 일상생활에서 독자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삼중의 미메시스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인지 체계와 유사한 개념이 된다. 또한, 독자의 인지 과정에 주목하여 고전적 서사 이론을 다시 호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성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소설 교육을 둘러싼 허구 세계의 문제, 서사 소통 구도에 관한 문제, 독자의 읽기 자체에 주목한 인지주의의 문제가 안정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개의 논의가 자아내는 학문 담론의 영역을 하나의 실제적인 읽기 방법으로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즉,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방법이라는 목적성을 지닌 수행적 읽기 방법을 목표로 하여, 가능 세계 이론과 서사 소통론, 인지주의 서사학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 독자와 전문 독자의 읽기 실체에 주목하여 소설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소설 교육을 위한 이해의 원리를 도출하고, 문학 교실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으로」,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46) 노대원(2023), 『몸의 인지 서사학』, 박이정.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소설 텍스트나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만을 연구 자료로 삼는 것과는 달리, 소설 작품, 해석 텍스트⁴⁷⁾,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⁴⁸⁾를 두루 살핀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틀을 참조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은 연역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나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를 통해 교육 원리를 도출하는 방식은 귀납적으로 진행된다. ‘허구 세계’ 개념과 소설 읽기 과정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주된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1차 자료로서 이청준의 소설⁴⁹⁾과 산문, 2차 자료로서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이다. 이 자료를 대상으로 III장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다만, 이 연구의 주된 목표는 일반화된 읽기 원리를 학습 독자에게 적절하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에 있기에,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에서 전문 독자와의 차이가 일어나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III장의 분석 대상 중 〈병신과 머저리〉, 〈벌레 이야기〉, 〈눈길〉의 전문에 대한 실제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경기도 소재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204편을 수집하였고, 이를 IV장에서 전문 독자의 해석

47)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해석 텍스트 개념은 “문학 텍스트를 읽고 그로부터 추상적인 인식과 감수를 끌어내 표현한 글”을 의미한다. 이때 분석한 해석 텍스트에는 비평문, 대담집, 학술 연구 등이 포함된다. 해석 텍스트의 개념을 단순히 하나의 비평문, 연구 논문 등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관점에 따라 독자의 이해와 사고가 반영된 모든 종류의 글을 해석 텍스트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소설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포함된 텍스트 속에 반영된 소설 이해 경험과 수행 과정에 주목하여 논의를 펼친다.

48)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에 대하여 학습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고 생산한 것으로서 감상문, 에세이, 질문 답변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의 이해 과정과 감상이 포함된 비평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문학 교실에서 활용된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반응 텍스트로 포함하기도 한다.

49) 이청준의 작품은 5차 교육과정부터 최근(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국어〉와 〈문학〉 등의 교과서에 항상 수록되었다. 이청준 소설은 다양한 문학교육 성취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며,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실재를 탐색하여 일반화된 원리를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표에도 적합하다.

텍스트와 대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고등학교 학습 독자의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대조군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은 대학생 독자의 반응 텍스트를 이용하였다. 서울 소재 2개 대학교에서 85편의 반응 텍스트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대학생 독자의 읽기 양상은 이 연구의 목표 대상인 고등학교 학습 독자를 위한 실제적 근접발달영역(ZPD)⁵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⁵¹⁾ 한편 모든 분석 대상 자료는 문자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 된 해석 텍스트와 반응 텍스트는 독자가 “세계에 관해 무언가를 의미한 것, 이 세계 안의 어떤 것을 지시한 것”⁵²⁾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간의 수행과 반응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질적연구에 적합한 분석 대상이 된다.

먼저, 이청준 소설을 이 연구의 자료로 삼은 것은 이청준 소설이 지닌 특성이 허구 세계라는 측면을 드러내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청준 소설은 “자기 반영적인 속성이 강하며, 중층 구조를 통해 다양한 세계창조의 가능성을 내포”⁵³⁾한다. 또한,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언어적 구조물에 불과할 터지만, 작가가 빚어낸 특유한 사건 제시 방식 덕에 단순한 언어적 피사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넘어서나.”⁵⁴⁾라는 소설 장르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이청준 소설은 학습 독자를 위한 소설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작품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설의 중층적 구조에 주목하여 허구 세계 구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청준 소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설은 독자에게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주며, 소설 교육은 이를 포착해 내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허구를 통한

50) 근접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비고츠키(L. Vygotsky)에 의해 소개된 교육학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의 일반적 개념을 원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독자의 읽기 양상을 고등학교 독자의 ‘실제적 발달 수준’ 혹은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설정하였다.(조연주 외(1998), 『구성주의와 교육』, 학지사, pp.209-210 참조)

51) 이때 연구 자료의 수집과 방법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 IRB)의 승인(승인번호: IRB No.2306/004-001)하에 모든 과정이 계획·수행되었다.

52) D. Polkinghorne(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김승현 외 역(2001), 『사회과학방법론』, 일신사, p.373.

53) 문장원(2017), 「문학교육의 정전으로서의 주해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문교육』 21,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86-89 참조.

54) 조남현(2004), 『소설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76-77 참조.

현실에서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이청준 소설을 연구 자료로 삼아 소설 교육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면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 능력과 능동적 해석 능력을 신장하는 데 유의미한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이청준 소설은 현재까지 한국 문단에서 정전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여러 작품에 대한 해석 텍스트가 다수 존재하며,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문학교육에서도 그 정전성을 인정받은 작가라고 판단되며, 모든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된 작가 중 하나⁵⁵⁾이기도 하지만, 그 복합적인 구조와 문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면적인 독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가르치기 쉬운 작품이 아니기도 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읽기 교육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작품군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로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설 읽기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이면서, 한편으로는 한 명의 작가와 그의 여러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소설 교육 정전으로서 이청준 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이청준 소설과 그 해석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소설-

- 이청준(1985), 〈벌레 이야기〉, 『비화밀교』, 나남.
- 이청준(1993), 〈매잡이〉, 『시간의 문』, 중원사.
- 이청준(1993), 〈병신과 머저리〉, 『시간의 문』, 중원사.
- 이청준(1993), 〈지배와 해방〉,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 이청준(1996), 〈축제〉, 『축제』, 열림원.
- 이청준(1998), 〈소문의 벽〉, 『소문의 벽』, 열림원.
- 이청준(1998), 〈잔인한 도시〉, 『소문의 벽』, 열림원.
- 이청준(1998), 〈퇴원〉, 『소문의 벽』, 열림원.
- 이청준(2000), 〈눈길〉, 『눈길』, 열림원.

-산문집-

- 이청준(1978), 『작가의 작은손』, 열화당.
- 이청준(1985),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55) 근래 교육과정(2022, 2015,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청준의 소설은 다음과 같다. 〈눈길〉, 〈병신과 머저리〉, 〈당신들의 천국〉, 〈매잡이〉, 〈선학동 나그네〉, 〈소리의 빛〉, 〈소문의 벽〉, 〈줄〉, 〈서편제〉, 〈축제〉,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아름다운 흉터〉 등.

-해석 텍스트-

- 권택영(1988), 「이청준 소설의 중층 구조」,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 김치수(1980), 「언어와 현실의 갈등」,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 김치수(1982), 「이청준과의 대화」,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 김 현(1979), 「장인의 고뇌」,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 김 현(1991),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 『이청준론』, 삼인행.
- 성민엽(1990), 「겹의 삶, 겹의 문학」,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 안삼환(1988), 「‘빛새’로 유랑하기/ ‘나무’로 서 있기」,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 우찬제(1995), 「자유와 질서, 말의 꿈, 반성적 탐색」,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 우찬제(1995), 「‘틈’의 고뇌와 종합에의 의지」, 김윤식·박완서 편(1995), 『한국소설문학대계: 이청준』, 동아출판사.
- 이경재(2019), 「이청준의 『축제』에 나타난 축제의 복합적 성격 연구」, 『어문학』 145, 한국어문학회.
- 이윤옥(2005), 『다시 태어나는 말』, 문이당.
- 이윤옥(2023), 『이청준 평전』, 문학과지성사.
- 정과리(1984), 「모범적 통치에서 상호 인정으로, 상호 인정에서 하나됨으로」, 이청준(1984),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 현길언(1991), 「문제 탐색을 위한 다층적 플롯」, 『이청준론』, 삼인행.

(2) 연구 방법

독자가 허구 세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독자 자신이 속한 실제 세계와 허구 세계를 관련시킬 수 있는 특정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 해결책이 허구 세계를 다양한 가능 세계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에코(U. Eco)에 따르면, 허구 논의에서 가능 세계는 독자의 예상에 대하여 말하는 데 필수적이다. 독자는 텍스트에 대하여 “자신의 예상을 명제로 진술” 하는데, 이러한 판단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이 “가능 세계 구성”이다.⁵⁶⁾ 이는 독자가 허구 세계를 실재하는 또 하나의 현실 세계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허구 세계는 작가나 다른 독자의 유니버스에 의해 부정될 때까지, 독자의 유니버스 내에 실재하는 세계로서 인식된다. 가능 세계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행위자, 행위자의 의도, 구체적인 상황, 변화, 원인, 정신적 상태나 감정 등의 여러 해석소를 제공하는 기제가 된다. 에코는 이를 “예상과 추론”의 과정이라 정의하며, “독자가 개연성의 분리를 인식하게 하는 문장, 허구 세계에 변화를 유발하고 사건의 새로운 과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장, 허구 세계에서 작중인물의 행위로 유발된 상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⁵⁷⁾

에코의 주장대로 가능 세계를 통해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텍스트와 독자 유니버스 사이의 관계 맺음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소통 과정이 된다. 단, 어떤 재현 텍스트도 그 자체로 현실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능 세계의 영역과 독자 유니버스는 어느 정도의 교집합을 지닌 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세계”⁵⁸⁾를 의미한다. 결국, 소설 읽기에서 구성되는 가능 세계는 서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한없이 자유로운 세계는 아니다. 동일성과 개연성의 인식 체계가 제한하는 의미 영역으로 한정된 것이자, 독자의 현실 세계로 인식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는 이야기·텍스트 세계와 독자의 현실 세계의 공유 지점에서 발생하며, 독자는 인물 혹은 서술자를 통해 대상이 되는 허구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가능 세계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독자가 인식하는 현실의 존재는 ‘가능성’의 영역이자 무엇인가의 인식과 이해로 가득 찬 세계, 즉 개체와 특성을 알아야 하는 충만한 세계”⁵⁹⁾라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개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능 세계 이론을 통한 개념 정립은 리코르(P. Ricoeur)의 미메시스 논의와 결합하여 문학교육 이론으로 전환될 수 있다. 리코르는 시간적 질서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간의 일상적 삶의 행위 영역’(미메시스 I)과 ‘일상적

56) U. Eco(1979), *Lector In Fabula*, 김운찬 역(2009),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p.189.

57) U. Eco(1979), 위의 책, p.174.

58) 최성민(2013), 앞의 글, p.195.

59) 이좌용(1994), 「가능 세계의 존재론」, 『철학』 41, 한국철학회, pp.98-100 참조.

삶의 행위 영역을 형상화하는 행위 영역' (미메시스Ⅱ), '독자가 형상화된 인간의 삶을 재구성하는 행위 영역' (미메시스Ⅲ)으로 구분한다.⁶⁰⁾ 이는 세계의 문제를 “특정한 현실 속에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와 더불어, 누구에게 맞서,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관계”⁶¹⁾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의 구분은 가능 세계를 통해 구현된 허구 세계의 여러 양상을 ‘독자 유니버스(미메시스Ⅰ)’,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미메시스Ⅱ)’, ‘재구성된 독자 유니버스(미메시스Ⅲ)’와 같이 구분할 수 있게 한다.

형상화 작업의 의미 자체는, 내가 미메시스Ⅰ과 미메시스Ⅲ이라 부르고, 미메시스Ⅱ의 상류와 하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작업 사이를 매개하는 위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중략) 따라서 해석학의 그 목적은 실천적 영역의 전형상화와 작품의 수용에 의한 재-형상화 사이를 매개하는, 텍스트의 형상화 작업의 구체적 진행 과정이다. 그 결과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독자는 자신의 행동(독서)을 통해 미메시스Ⅰ에서 미메시스Ⅱ를 거쳐 미메시스Ⅲ에 이르는 역정의 통일성을 책임지는 탁월한 조작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⁶²⁾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 보듯, 삼중의 미메시스를 작동하는 주체는 ‘독자’ 자신이며, 이때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를 통해 독자 유니버스를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리코르의 해석학 방법을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 적용한다면, 이 역시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된다. 독자가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 사이에서 포착하는 동시성의 공유 지점은 ‘리얼리티(reality)’를 지닌 현실로서 인식된다. 그 결과 독자 유니버스에 대한 재형상화 가능성이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의 소설 읽기 양상에 주목하여 원리를 도출하고, 소설 이해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소설 읽기의 전(全)

60) 삼중의 미메시스에 대한 논의는 P. Ricoeur(1983), *Temps et Récit, Tome 1: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김한식 외 역(1999),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를 참조.

61) 임경순(2003), 「경험의 서사화 방법과 그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1.

62) P. Ricoeur(1983), 위의 책, pp.126-127.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작용으로 보았기에 ‘인식하기, 판단하기, 해석하기, 추론하기, 의미화하기’로 수행되는 인지적 과정임에 주목하였다. 결국, 독자의 스키마와 텍스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종합하여 허구 세계를 자신의 특정한 언어로 의미화하는 작업이 핵심 과정이 된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설과 허구 세계에 대한 문예학적 분석과 현상학적 관점이 기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지주의 서사학을 연계하여 문학교육 이론으로서 재구조화하여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말하는 소설 이해란 소설 해석에 선행하는 것이며, 딜타이(W. Dilthey)와 리콥르의 ‘이해’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딜타이는 이해(Verstehen)를 해석(Auslegung)과 구분하며, 기술적인 이해에 도달했을 때를 해석으로 본다. 이해는 항상 자신의 대상에 대한 하나의 개체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는 과정이다. 또한, 이해는 항상 실천적인 삶의 관심 속에서 생겨나기에, 인간들 사이의 소통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해는 “개인들의 공통점들이 객관화되어 존재하는 객관 정신의 영역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며, “체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낯선 삶이나 “타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⁶³⁾

이를 기반으로, 리콥르의 논의를 보충하여 이해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리콥르는 딜타이와 마찬가지로 이해와 해석을 구분하며, ‘기호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추측으로서의 이해(Understanding)’와 ‘상상력을 통해 텍스트의 세계를 의미화하는 이해(Comprehension)’를 구분한다.⁶⁴⁾ 이 두 가지 이해 사이를 매개하는 과정이 ‘설명(Explanation)’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설명을 통해 상호 주관적인 관계는 제거되고 텍스트의 객관성이 확보된다.⁶⁵⁾ 이러한 ‘전이해-설명-이해’의 삼중 구도는 변증법적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자기 이해가 완성된다.⁶⁶⁾ 리콥르의 이해 개념은 ‘독자 유니버스-이야기 ·

63) W. Dilthey(1979),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이한우 역(2002), 『체험, 표현, 이해』, 책세상, pp.39-50 참조. ‘이해’의 개념 정의는 II장에서 보충한다.

64) P. Ricoeur(1986), *Du Texte a l'Action*, 박병수 외 역(2002),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pp.195-198; P. Ricoeur(1976), *Interpretation Theory*, 김윤성 외 역(1998), 『해석 이론』, 서광사, p.127.

65) P. Ricoeur(1986), 위의 책, p.199.

텍스트 유니버스-재구성된 독자 유니버스'의 삼중 미메시스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개념어로 적합하다.

한편,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따른다. 특히, 이 연구는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 분석과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 분석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먼저,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 분석은 소설 교육에서 질적연구방법으로서 자주 활용되는 콜레지(P. Colaizzi)의 현상학을 기반으로 한다. 콜레지에 의하면 일상의 체험 현상을 본연 그대로 접근하여 그 자체를 해명하는 방법이 현상학적 기술이 된다. 이에 따르면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화된 진술이 도출되어 범주화가 가능하게 된다.⁶⁷⁾ 이 범주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 1) **연구 자료의 검토:**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다.
- 2) **의미 있는 서술 도출:**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서 연구 문제와 부합하는 서술(허구 세계 구성과 관련한 것)을 선별하여 추출한다.
- 3) **일반화 시도:**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서 선별된 의미 있는 서술 중 공통으로 묶일 수 있는 서술을 다시 선별하여 추출한다.
- 4) **구성된 의미 도출:** 2)와 3)의 작업을 통해 일반화된 의미를 선별하여 제시한다.
- 5) **범주화 시도:** 4)를 통해 도출된 의미를 파악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주제 모음(clusters of themes) 중심의 하위 범주화를 시도한다.
- 6) **명료한 진술로 최종 검토:** 2)~4)를 반복하여 추출된 여러 속성을 5)를 통해 위계화를 시도한 후 분석의 결과로서 구조를 마련한다.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는 독자의 반성적 사고이자 2차 반응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와 범주화에 초점을 맞춘 현상학적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선정된 몇 개

66) 리코르는 전-이해(Understanding)에서 설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텍스트의 의미를 언어적 의미로 '추론'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설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 하는 작업이 일어난다. 또한, 이렇게 객관화된 텍스트는 다시 설명에서 이해(Comprehension)로 전환되는데, 이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접근, 구조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지금 여기'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가 포착된다.(P. Ricoeur(1986), 앞의 책, pp.200-205 참조)

67)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pp.44-45.

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담론 사이의 대화적 관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대상 작품 가운데 연구사적으로 활발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각종 의미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논의 사이의 교차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비평과 더불어 학술 연구 자료를 해석 텍스트로 포함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학습 독자의 자료는 해석이 담기지 않은 날 것의 반응 텍스트라는 점에서 전문 독자의 자료 분석 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반 매넨(M.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다. 반 매넨은 글쓰기라는 텍스트적 실천을 바탕으로 일상적 체험 영역을 교육학에 바탕을 둔 연구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반성하는 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반성 이전에 직접 겪는 세계, 즉 생활 세계를 연구한다.”⁶⁸⁾라는 측면에서, 2차 반응으로서의 해석이 아닌 학습 독자의 원시적 반응 텍스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에 적합하다. 또한, 반 매넨의 현상학적 연구는 의식에 나타나는 무엇이든 간에, 그 대상이 “현실적인 기술이든, 상상적인 기술이든, 경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주관적 느낌은 모두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⁶⁹⁾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학습 독자의 읽기 중에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반응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다.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이라는 것이 소설을 읽고 생산해 낸 일종의 체험 현상이라고 할 때, 연구자의 양상 분석 과정에서 기술하게 되는 진술은 학습 독자가 겪은 체험의 본질과 이면을 드러내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반 매넨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질적연구의 분석 방법인 ‘집중조명법·선택법·세분법’과 결합하여 하나의 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수집된 반응 텍스트에 내재해 있는 반응 양상을 집중조명법·선택법⁷⁰⁾으로 분석한다.

68) M. van Manen(1989),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 외 역(1994), 『체험연구』, 동녘, pp.24-25.

69) 문학에서의 경험적 기술은 현상학자가 실천적인 통찰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목할 수 있는 경험의 원천이다. 소설 속에서 독자는 기본적인 생활 경험을 마치 자기가 하는 듯이 경험한다. 우리 자신을 소설의 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느낌과 행동을 체험한다. 소설을 통해 독자는 인간 조건의 특정한 측면들에 대한 통찰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문학은 경험 자료의 원천으로서의 가치가 있다.(M. van Manen(1989), 위의 책, pp.98-99)

이렇게 편집되고 집중된 자료를 대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세분법⁷¹⁾을 적용하여, 각 반응의 문장 하나하나 혹은 문장 다발을 하나하나의 연계이자 묶음으로 판단하고, 이 문장이 현상이나 경험에 대하여 어떤 의미화를 시도하는지에 집중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의 주제를 도출하고 반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응 텍스트에 기술된 의미를 종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구조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⁷²⁾

- 1) 의미 있는 진술 목록을 만든다. (선택법: 개방적 코딩)
- 2) 진술 목록을 ‘의미 단위’ 등의 더 큰 단위로 묶는다. (집중조명법: 선택적 코딩)
- 3)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기술한다. (세분법: 선택적 코딩)
- 4) 현상에 대한 구조적 기술을 통합하여 그 ‘본질’을 추적한다. (개념화: 이론적 코딩)

위의 절차대로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학습 독자의 반응으로부터 의미를 추론하고 변형하여 재기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개방적 코딩-선택적 코딩-이론적 코딩’의 순으로 적용하여 정교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기대어 교실 현장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의 가설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II장과 III장에서 제시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이론과 원리가 IV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다시 IV장에서 학습 독자의 1차 반응과 교육 방법을 적용한 2차 반응 사이의 변

70) 집중조명법 혹은 선택법은 선택적 글 읽기의 방법으로 한 텍스트를 여러 번 읽고, 어떤 진술이나 어구가 기술된 현상에서 본질적인지를 따진 후 이 진술들에 강조점을 두는 현상학적 방법을 말한다.(M. van Manen(1989), 앞의 책, p.128)

71) 세분법은 사건의 다발을 연계시켜 판단하는 것으로, 텍스트에서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 진술을 분리하고, 체험을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바꾸는 작업이다.(신경림 외(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249-251 참조)

72) J. W. Creswell(199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흥식 외 역(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pp.229-230 참조.

화에 주목하였다. 즉 II, III장을 통해 도출한 수행구조와 원리에 따라 IV장에서는 학습 독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소설 텍스트로 인식하고, 허구 세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여 인식하는 과정을 교차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연구는 아래와 같이 설계하여 진행하였고, 자세한 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절차	연구 내용				
연구 설계	-선행 연구 검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한 연구 과제 및 절차 구상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대상 학교, 대조군 등 선정				
연구 실행 · 자료 분석	(1) 전문 독자(목표군: 평론가, 연구자) -콜레지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원리 도출 시도 (2) 학습 독자(실험군: 고등학생 독자) -반 매년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반응의 일반화 시도				
	순번	수집 시기	자료 수집 대상	활동 내용	연구 자료
	예비 실험	2021. 11.	경기도 S고 2학년 22명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전문 읽기 후 반응 텍스트 작성	-감상문 -설문지
	본 실험	2022. 9.	경기도 S고 2학년 26명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전문 읽기 후 반응 텍스트 작성 -허구 세계에 대한 주제로 조사지 응답 작성	-감상문 -설문지
		2022. 12.	경기도 S고 2학년 24명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와 〈벌레 이야기〉 전문 읽기 후 반응 텍스트 작성 -허구 세계에 대한 주제로 조사지 응답 작성	
		2023. 3.~5.	경기도 S고 1, 2학년 132명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와 〈벌레 이야기〉, 〈눈길〉 전문 읽기 후 반응 텍스트 작성 -허구 세계에 대한 주제로 조사지 응답 작성	
	추가 실험	2023. 10.	경기도 S고 2학년 25명	-이청준, 〈눈길〉 전문 읽기 후 교육 내용을 적용한 교수·학습 진행 후 반응 텍스트 작성	-감상문 -설문지 -활동 결과지

	(3) 일반 독자(대조군: 대학생 독자)				
	-반 매년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반응의 일반화 시도				
	-일반 독자의 양상은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와 교차하여 근접발달영역으로 설정				
	순번	수집 시기	자료 수집 대상	활동 내용	연구 자료
	사전 실험	2020. 5.~6.	서울 소재 Y대 38명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전문 읽기 후 반응 텍스트 작성	-감상문 -설문지
예비 실험	2022. 4.	서울 소재 K대 11명			
본 실험	2022. 10.	서울 소재 K대 17명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와 〈벌레 이야기〉 전문 읽기 후 반응 텍스트 작성 -허구 세계에 대한 주제로 조사지 응답 작성	-감상문 -설문지	
	2023. 5.	서울 소재 K대 19명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와 〈벌레 이야기〉, 〈눈길〉 전문 읽기 후 반응 텍스트 작성 -허구 세계에 대한 주제로 조사지 응답 작성		
분석 결과 검토 · 이론화 · 적용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 대한 이론 정립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 도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설계				
	단계	하위 연구 절차			연구 방법
	Ⅱ장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화	(ㄱ)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개념 정립 -가능 세계 이론, 인지주의 서사학, 문학 소통론			-문헌 고찰 -해석 텍스트 분석
		(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전제 마련			
		(ㄷ)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 도출			
	Ⅲ장 소설 읽기 실제 분석	(ㄹ) 전문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실제 분석			-해석 텍스트 분석 -반응 텍스트 분석
		(ㅁ)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 도출			
	Ⅳ장 소설 교육 방법 도출	(ㄴ)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실제 분석 및 한계 도출			-문헌 고찰 -해석 텍스트 분석 -반응 텍스트 분석
(ㄷ)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위한 시사점 마련					

<표 1. 연구의 절차 및 개요>

연구 주제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차례의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전 실험은 질문지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소설에 형상화된 세계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게 하는 문항과 소설에 형상화된 세계를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구분해 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허구 세계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위 활동 이후 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감상문을 수집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예비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마련하였다. 예비 실험에서는,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과 아무런 조건 없는 감상문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고등학생 학습 독자와 대학생 독자, 전문 독자를 구분하여 소설 이해 양상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5회에 걸쳐 진행된 본 실험은 위 예비 실험을 통해 추가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예비 실험에서 설계한 조사 문항과 추가로 소설 읽기와 허구 세계 구성에 대한 독자의 인식 정도를 묻는 설문을 함께 진행하였다. 본 실험이 종료된 후 연구의 문제를 정교화하였고, 독자군별 소설 이해의 양상 차이에 주목하여 학습 독자 양상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전문 독자의 읽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특수한 읽기 능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전문가 집단만의 특성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역량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조군이자, 학습 독자의 근접 발달 영역으로서 대학생 독자를 설정하였다. 대학생 독자의 읽기 양상은 고등학생 독자에게 적용될 교육 방법을 통해 도달해야 할 실질적인 목표 양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독자군별 양상 분석을 통해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는 일종의 교수학적 변환으로서 이루어졌으며, 학습 독자에게 교수·학습을 통해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수행 절차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소설 이해에서 허구 세계 구성 논의와 관련한 이론적 전제를 마련한다. 가능 세계 이론과 인지주의 서사학, 서사 소통론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소설 텍스트의 성격과 소설 읽기의 속성, 더 나아가 소설 이해에 작용하는 문학 능력의 측면에서 그 전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허구 세

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를 도출한다. III장에서는 실제 소설 읽기에서 전문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양상에 주목한다. 이때는 소설의 주요 부면인 소설 언어, 서사성, 픽진성, 플롯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양상 분석의 결과 중에서 학습 독자를 위해 소설 교육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할 부분을 포착하여 소설 이해 원리로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설계하여 소설 교육론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발견한 양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구안한다. 이는 III장에서 제시한 소설 이해 원리를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⁷³⁾’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문학 교실에 적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독자의 변화된 반응 양상을 통해 그 결과와 효과를 검증한다.

73)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은 쉘만(L. S. Shulman)에 의해 제시된 교육학 개념으로, 교수·학습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교수자(教授者)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인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L. S. Shulman(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 Harvard Education Press. p.8 참조)

II.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 관한 이론

이 장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근거를 마련한다. 소설을 소설답게 읽는 것은 소설의 장르적 속성인 ‘허구’에 주목했을 때 가능하다. 이때 허구의 인식은,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허구 세계 구성을 통하여 소설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능 세계 이론에 주목하여 개념화를 시도한다. 또한, 독자의 읽기 과정에서 수행되는 총체적인 인식에 주목하여, 텍스트 구체화이자 재중심화(Recentring)로서 인지주의적 사고를 검토한다. 이어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는 가능 세계 사이의 소통 구도라는 점에 주목하여, 리코르(P.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를 통해 그 양상을 유형화한다.

둘째,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전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설은 어떠한 장르적 속성을 지니기에,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허구 세계 구성 행위를 소설 텍스트, 소설 읽기, 소설 이해의 부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셋째, 앞서 정의한 개념과 전제를 기반으로 소설 교육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이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가 되며, 허구 세계의 시공간, 참여자, 담론의 구분을 통해 제시된다.

1.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개념

소설에 형상화된 허구 세계는 소설 허구성에 의해 창조된다. 본래 허구의 문제는 형식주의적 전통 안에서 문학 작품의 내적 속성으로만 여겨졌으나, 점차 문화적 맥락으로 외연이 확대되어 철학적 탐구 대상으로 그 논의가 확장되었다.

따라서 허구 세계는 전통적 문학 이론의 관점, 철학의 의미론적 접근, 화용론적 이해, 수사학적 양상으로서 허구성 개념에 기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소설의 허구성은 소설 언어의 특성, 텍스트의 내적 특질, 맥락과 분절된 표지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반면 화용론적 관점에서는 문학 텍스트 역시 화행의 일부로서 작가와 독자 사이의 문학적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통해 규명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허구 세계 구성을 가능 세계 이론에 기대어 정립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지주의 서사학에서 가능 세계 이론이 어떤 위상에 놓여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어서 허구 세계 구성은 텍스트 내에서 포착된 여러 인지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가 하나의 메타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임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소설 텍스트 수용에서 여러 맥락과 요소를 중층적으로 접목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문학 소통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밝힌다.

(1) 독자의 가능 세계 구성

소설은 허구 세계가 서사적 질서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독자는 허구 세계에 대하여 서사로 형상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실체로 인식한다. 하지만 허구 세계가 실재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 특정한 진술(récit)로서 실현된 구성체일 뿐이다. 따라서 허구 세계는 참과 거짓이라는 이항 대립적 진술을 넘어 “다양한 양상 논리”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¹⁾ 허구 세계는 일정한 개연성을 갖추었기에 실재하지 않음에도 현실 세계와 대등한 위상을 지닌다.²⁾ 따라서 자율적인 세계 도식을 지닌 허구 세계는, 가능

1) M. Ryan(1991), *Possible Worl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Theory*,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Indianapolis Press, p.3.

2)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관계는 하이데거(M. Heidegger)가 현존재의 공간성과 세계-내-존재의 공간성을 구분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적 논의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현존재는 세계-내-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의 ‘세계’를 발견한다. 세계-내-존재는 공간적인 존재로서 방향을 부여하고 거리가 없어짐으로써 만날 수 있게 되는 장소를 말한다. 세계-내-존재가 세계 내부에서 다른 존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로는, 그 존재자들에게 ‘공간’을 주어야 한다. 공간은 항상 세계 안에 있으며, 현존재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대

세계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 할 수 있게 된다. 독자는 ‘현실 세계(actual world)³⁾’ 와의 관계 속에서 각각의 가능 세계 양상을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능 세계를 자기충족적 체계를 지닌 특정한 현실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 세계를 ‘허구 세계로 구성되기에 앞서, 여러 가능성 상태에 놓인 세계 양상’으로 정의한다.

소설의 독자는 소설 텍스트 속 허구 세계를 현실 세계로 인식하는 “재중심화(Recentering)를 통해 새로운 실재성의 체계를 구축”⁴⁾한다. 이는 믿는 체하기(make-believe)와 같은 특정한 정신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텍스트 내의 인물의 정신적 행위(가령, 믿음, 상상, 착시)가 생산해 낸 표상들이 그 내용 영역이 된다. 독자는 소설 읽기 중에 텍스트 속 미결정 요소와 논리적 모순에 대하여 허구 세계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기보다는 텍스트의 형식적 완결성이나 수사적 효과를 위해 소거해야 할 정보로 인식한다. 이때 필요한 개념이 라이언(M. Ryan)이 제시하는 ‘최소 이탈의 원리’이다.⁵⁾ 라이언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이 구성하는 허구 세계가 독자 유니버스의 규범과 어긋나거나 불일치할 때, 허구 세계의 존재 자체에 대한 폐기를 택하기보다는 독자가 알고 있는 바를 투사하여 텍스트를 조회한다.⁶⁾ 이러한 투사의 결과는 “텍스트

상이 된다.(M. Heidegger(1927), *Sein Und Zeit*, 전양범 역(1992),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pp.143-145 참조) 이렇게 본다면, 세계-내-존재의 공간론적 지위는 본 연구의 현실 세계와 동치되며, 현존재의 공간론이 허구 세계의 문제에 가닿는다.

3) 가능 세계에서 말하는 현실 세계는 라캉의 실재계(la reel)로 이해할 수 있다. 상징계(언어), 상상계(이미지)로도 추론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이 실재하는 현실 세계이며, 현실 세계는 현존할 수 없다. 오로지 독자의 ‘현실 세계에 대한 추론’이나, ‘경험 세계를 통한 재인’, ‘대안 세계를 통한 상상’으로서만 추정될 뿐이다.(김석(2010),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의 초대』, 김영사, pp.116-117 참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모두 ‘독자의 현실 세계’를 지칭하는 말이 된다. 텍스트의 현실 세계와 이야기의 현실 세계 역시 결과적으로 ‘독자’의 현실 세계 감각으로서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오혜정(2000), 「가능 세계 이론을 통한 허구성 탐구: M. 라이언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9-30.

5) 최소 이탈의 원리(The Principle of Minimal Departure)는 라이언(M. Ryan)의 가능 세계 양상 이론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M. Ryan(1999), “Immersion vs interactivity: Virtual reality and literary theory”, *SubStance* 28(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122-125을 참조.

를 조희함으로써 조정되며, 조희 결과 텍스트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소거함으로써 텍스트를 의미화” 하는 것이다.⁷⁾ 이는 독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텍스트 속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텍스트 현실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최소 이탈의 원리이며, 본 연구에서는 독자가 낯선 세계와의 공유 지점을 만들어 낼 때, 자신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 혹은 현실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을 기반으로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소설 읽기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기호와 자기 유니버스 사이의 규범성을 조희하기 위한 인지적인 행위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가 지시하는 세계와 독자 유니버스의 이질성을 허물고, “허구와 독자 현실의 내적 연관성을 형성”⁸⁾한다. 이것이 가능 세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다양한 세계의 양상을 새롭게 생성하거나 파괴하기도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기대하기도 한다. 허구 세계에 내포한 가능 세계는 중층적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소설의 제 목표인 뫼비우스성에 대한 포착과 그 이면에 놓인 허구성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 속에 삽입·교섭될 때, 가능 세계는 독자의 현실 속 특정한 방식으로만 지각된다. 하나의 허구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능 세계는 “낯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비계(Scaffolding)”로 작용한다.⁹⁾ 독자가 여러 가능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 사이의 교섭을 시도함으로써 하나의 총체적 세계인 허구 세계가 인식된다. 이때에는 미우라 도시히코(三浦俊彦)가 제시한 대로, “텍스트의 불완전성”¹⁰⁾으로 인하여 소여 정보에 포함하게 된 “불확정적인 내용과 잉여 정보, 그리고 논리적 모순”¹¹⁾을 해소해야 하며, 이는 앞서 제시한 최소 이탈의 원리에 따른

6) M. Ryan(1991), 앞의 책, pp.54-58 참조.

7) 이인화(2013b), 「소설의 허구 세계에 대한 독자 간 의미 교섭의 실천 체계 연구」,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p.366.

8) 김정은(2022), 「가능 세계 구성의 문학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2.

9) 호창수(2023b), 「메타픽션 읽기의 문학교육적 가능성」, 『국어교육연구』 83, 국어교육학회(since1969), p.335.

10) 불완전성은 이저(V. Iser)의 ‘빈자리’ 개념이나 인가르텐(R. Ingarden)의 ‘특정적 잠재태(characteristic potentialities)’ 논의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허구 세계 구성에 발생하는 텍스트 정보의 불완전성을 소거하는 전략이 소설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점이 될 수 있다.

재중심화를 통해 수행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원용하는 ‘가능 세계 이론’은 세계의 복수성을 인정하는 다중세계 관점에 기반한다. 이때 가능 세계에 대한 정의는 ‘양상 실재론’과 ‘양상 현실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먼저, 양상 실재론은 가능 세계에 대하여 인간이 실재하고 있는 우주로서의 세계와 동종의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가능 세계는 현실 세계와 독립하여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반면, 양상 현실론의 입장에서 가능 세계는 단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상으로서 추상적 개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실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허구 세계는 이 중에서 양상 실재론을 따른다. 대표적인 양상 실재론자인 루이스(D. Lewis)에 따르면 양상 실재로서 가능 세계는 아래의 세 논제에 부합해야 한다.¹³⁾

- ㉠ 가능 세계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 ㉡ 무수한 가능 세계가 존재하고, 각각의 가능 세계는 유니버스의 다양한 존재 방식을 나타낸다.
- ㉢ 가능 세계는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과 동종의 존재이다. 따라서 가능 세계와 현실 세계는 형이상학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따라 허구 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가능 세계는 현실 세계와의 공유 지점을 지니며,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 또한, 하나의 가능 세계는 또 다른 현실 세계가 될 수 있고, 현실 세계의 영역은 서로 다른 가능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가능 세계에서는 우연성과 필연성과 같은 양상 개념”¹⁴⁾이 ㉡에 따라 별도의 유니버스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리적 법칙에 지배받는 현실 세계 속 모든 개체는 “시공간적, 인과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11) 재중심화 과정에서 가능 세계의 불완전성에 대한 것은 三浦俊彦(1995), 『虛構世界の存在論』, 박철은 역(2013), 『허구세계의 존재론』, 그린비, pp.40-53과 pp.114-115를 참조.

12) 본 연구에서 말하는 ‘가능 세계 이론(Theory of Possible Worlds)’이란, 가능 세계와 가능 개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 모든 연구를 의미하며, 가능 세계 이론의 분류는 손병홍(2004), 『가능 세계의 철학』, 소피아를 따른다.

13) D. Lewis(1986), *On the Plurality of Worlds*, Basil Blackwell, pp.3-4.

14) 손병홍(2004), 위의 책, p.43.

따라서 각각의 가능 세계 역시 “물리적 세계” 이기에, “하나의 가능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상호 연결” 된다.¹⁵⁾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세계의 복수성이 인정된다면, 가능 세계 구성이란 허구 세계를 여러 세계 양상의 집합으로 새롭게 조직하는 작업이 된다.

허구 세계는 수많은 가능 세계로 구성되며, 독자의 소설 읽기 과정에 주목하였을 때 크게 세 가지 국면에서 가능 세계가 도출된다. (ㄱ) 이야기 가능 세계(story world), (ㄴ) 텍스트 가능 세계(textual world), (ㄷ) 독자 가능 세계(reader's own world)가 그것이다. 먼저, (ㄱ) 이야기 가능 세계는 세계 내의 ‘인물’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며,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맺게 되는 국면을 지칭한다. 이때에는 주로 소설 속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 추론되는 사건의 생성이 주요 기제가 되기에 인물의 가능 세계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제시한 소설 언어를 통해 독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인 ‘서술자’가 속한 가능 세계이다. 이를 (ㄴ) 텍스트 가능 세계라고 명명한다. 이는 작가에 의해 설치된 여러 장치를 통해 소설의 핵심 사건이 전개되고, 구조적 완결성을 지니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때 텍스트 가능 세계에는 독자가 판단하기에 작품이 생산된 시점의 현실 세계 국면, 독자가 작품을 읽고 있는 시점의 현실 세계 국면, 작품 속에 묘사된 시공간 법칙에 지배받는 현실 세계 국면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된다. 이러한 텍스트 가능 세계를 인물의 가능 세계 중 선택된 이야기, 즉 서술자의 가능 세계(narrated world)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ㄱ)과 (ㄴ)은 서술자의 지위 문제에 따라 동일할 수도, 이질적일 수도 있다. 단, 서술자와 인물이 일치하는 동종 제시 서사라 하더라도 소설의 주요 국면을 이야기하는 서술자인지에 따라 즉, 서술자의 신뢰성이나 위상에 따라 두 가능 세계는 다시 구분될 여지가 있다.¹⁶⁾ 한편, 이야기와 텍스트를 읽고

15) D. Lewis(1986), 앞의 책, pp.199-203 참조.

16) 이는 주네트(G. Genette)가 제시하는 디에게시스(diegesis)와 미메시스(mimesis)로도 설명된다. 디에게시스가 ‘서술자에 의한 서술’, 미메시스가 ‘외부 대상의 모방 혹은 재현’을 의미한다면, 디에게시스로 포착된 가능 세계가 ‘텍스트 가능 세계’의 영역이 되고, 미메시스로 포착된 것은 ‘이야기 가능 세계’의 영역이 된다. 다만, 주네트가 디에게시스와 미메시스를 사건의 서술에 나타나는 두 측면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두 개념의 차이는 말하기의 정도 차이를 따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듯 두 개념은 논의 상의 성격 차이

자기 세계와 연관시키는 (c) 독자 가능 세계가 있다. (c)은 독자 자신의 ‘세계-내’ 영향이 미치는 곳으로, “생애사, 경험, 다양한 인지 도식을 통해 도출되는 내가 속한 시공간에 대한 감각 전반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c)은 심지어 독자 자신의 소망과 대체 현실의 영역일 수도 있다. 독자는 (c)을 통해 텍스트를 “유의미한 가능 세계로 구성” 하기 위해 “자신의 인식”을 활용한다.¹⁷⁾

특히, 독자 가능 세계는 (ㄱ)과 (ㄴ)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점이 된다. (ㄱ), (ㄴ)에 형상화된 현실 세계 중에는 (ㄱ) 혹은 (ㄴ)에만 관계하는 가정된 현실이 표상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혹은 텍스트의 현실 세계에 대해서 독자는 최소 이탈의 원리에 의해 자신이 체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양상으로 서만 그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의 선지식으로서 세계 안에 포섭된 현실 세계(독자 현실 세계)는 (ㄱ), (ㄴ)에 대한 조회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

다만,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ㄱ), (ㄴ)은 작가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해 낸 ‘가정된 시공간’이라는 점이다. 물론, 독자가 비슷한 현실 세계 맥락 속에 존재하여 유사한 경험 맥락을 지니고 있다면, (ㄱ), (ㄴ)에 대한 조회가 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공간적 거리가 크다면, 독자의 (ㄱ), (ㄴ)에 대한 조회와 탐색은 자기의 ‘세계 체계(World-system)¹⁸⁾에 기인한 제한적 인식이 된다.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가능 세계 범주(ㄱ), (ㄴ), (c))는 아래 소설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① 화폭은 이 며칠 동안 조금도 메워지지 못한 채 넓게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돌아가 버린 화실은 조용해져 있었다. 나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형이 소설을 쓴다는 기이한 일은, 달포 전 그의 칼끝이 열 살배기 소녀의 육신으로부터 그 영혼을 후벼내 버린 사건과 깊이 관계가 되고 있는 듯했다.

정도로만 구분할 필요가 있다.(G. Genette(1972), *Discours du récit*, 권택영 역(1992), 『서사담론』, 교보문고, p.19 참조)

17) 호창수(2023a), 「가능 세계 구성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9, 우리말글학회, pp.273-274 참조.

18) 라보캇(F. Lavocat)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 체계(World-system)는 수많은 가능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세계’ 이자 기준이 되는 틀을 의미한다.(F. Lavocat(2019), “Possible Worlds, Virtual World”, A. Bell & M. Ryan(2019), *Possible Worlds Theory and Contemporary Narratolo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274) 이러한 세계 체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니버스(universe)에 의해 형성된다.

- ②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서랍에서 헤인의 편지를 꺼내어 잠시 손가락 사이에서 부피감을 느껴 보다가 봉투를 뜯었다. (중략) “내일 저와 식을 올릴 분은, 선생님의 형님 되시는 분을 6.25 전쟁의 전상자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요즘의 병원 일과 소설을 쓰신다는 일, 술(놀라시겠지만 그분은 선생님의 형님과 친구랍니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갔어요.”
- ③ 형의 경험은 이 소설 속에서 얼마만큼 사실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혹은 적어도 이 끝부분만은 형의 완전한 픽션인지도 모른다. 형은 나의 추리를 완전히 거부해 버리고 있었다.
- ④ ‘나’는 관모가 나타날 때까지 동굴을 들락날락하고만 있다. 드디어 관모는 동굴까지 올라왔다.
- (이정준(1993), <병신과 머저리>, 『시간의 문』, 중원사, 숫자는 인용자)

인용된 부분을 통해 독자가 구성하는 허구 세계는 어떤 양상들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독자는 위 인용을 각각 ‘나(동생)’의 이야기, ‘형’의 이야기, ‘헤인’의 이야기, ‘형’의 소설 속 ‘나’의 이야기라는 서로 다른 ‘(ㄱ) 이야기 가능 세계¹⁹⁾’로 구분하여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서술자(‘나’ 혹은 독자가 인식한 내포 작가)가 빚어낸 ‘(ㄴ) 텍스트 가능 세계’가 있다. 이때는 소설 속 여러 장치를 통해 추정되는 6.25 전쟁, 1960년대 한국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현실 세계²⁰⁾’가 텍스트 가능 세계 중 하나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능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자의 인지 과정 속의 세계, 혹은 위 가능 세계를 통해 새롭게 도식화된 세계의 모습이 소설을 읽는 중에 생성된 ‘(ㄷ) 독자 가능 세계’에 해당한다.

라이언은 위의 사례처럼 세분화된 가능 세계 양상에 대하여, 독자나 텍스트에 의해 인식된 여러 “가능 세계는 하나의 종합된 세계의 망(網)”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니버스(Universe)’라고 정의한다.²¹⁾ 다중세계로서

19) 독자는 소설 속 인물의 말과 행동, 서술자의 보여주기와 말해주기를 통해 구체적인 세계상(世界像)을 형성한다. 인용된 <병신과 머저리>의 경우에는 서술자(‘나’)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통해 구성되는 ‘텍스트 가능 세계’와 각각의 인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혹은 사건을 통해 추론되는 ‘이야기 가능 세계’가 그 양상이 된다.

20) 이때 현실 세계란, 독자가 인식 속에서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텍스트 이해를 위해 동원한 상상되고 추론된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다.

21) A. Bell & M. Ryan(2019), *Possible Worlds Theory And Contemporary Narratolo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30 참조.

유니버스는 낯선 허구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해 도식으로 사용되며, 구성적 조직체로서 인식될 수도 있다. 유니버스는 이야기·텍스트 가능 세계와 독자 가능 세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세계 양상의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야기 유니버스(Story universe), 텍스트 유니버스(Textual universe)와 독자 유니버스(Reader's own universe)를 다음과 같이 하위 범주의 가능 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㉔ 이야기의 현실 세계: 인물의 이야기에 투영된 현실 세계

•이야기 유니버스(Story universe) ┐㉕ 이야기의 경험 세계: 인물이 직접 경험해서 아는 세계

└㉕ 이야기의 대안 세계: 인물이 소망하거나 상상한 세계

┐㉔ 텍스트의 현실 세계: 서술자의 텍스트에 투영된 현실 세계

•텍스트 유니버스(Textual universe) ┐㉕ 텍스트의 경험 세계: 서술자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세계

└㉕ 텍스트의 대안 세계: 서술자가 소망하거나 상상한 세계

┐㉔ 독자의 현실 세계: 독자가 추론하는 현실 세계

•독자 유니버스(Reader's own universe) ┐㉕ 독자의 경험 세계: 독자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세계

└㉕ 독자의 대안 세계: 독자가 소망하거나 바라는 세계

가령, 앞서 〈병신과 머저리〉를 다시 예로 들었을 때, 소설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한국사에 기록된 사실로서 ‘6.25 전쟁’은 〈병신과 머저리〉의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²²⁾에서 다시 세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령 “형님 되시는 분을 6.25전쟁의 전상자라고 하더군요.”라는 대목에서 발견되는 소설 속 6.25

22) 여기에서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은, 텍스트 유니버스는 이야기 유니버스 중 하나이며, 독자에 의해 어떤 인물이 서술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그 구분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병신과 머저리〉에서 ‘형’의 목소리를 서술자로 파악한 독자에게는 ‘형’의 세계가 곧 텍스트 유니버스가 되며, 일반적으로 서술자로 파악되는 ‘동생’의 세계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하나로 포섭된다.

전쟁이라는 배경은 ㉡·㉢ ‘이야기·텍스트의 현실 세계’가 된다. ㉡·㉢는 하나의 소재이기에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며, 역사 사실로서의 ‘6.25’와는 결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형’의 소설 속에서 표현되는 ‘6.25’라는 시공간에 주목해 보자. 이는 인물·서술자의 경험으로 인식된 것으로서의 현실, 즉 ㉣·㉤ ‘인물·서술자의 경험 세계’가 된다. 한편,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에는 인물이나 서술자의 말을 통해 ‘형’이 관모를 진짜 총으로 쏘았을 경우와 같은 추측, ‘형이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과 같은 반사실(counterfactual) 진술을 통한 대안 세계가 제시될 수 있다. 이를 ㉣·㉤ ‘이야기·텍스트의 대안 세계’로 구분한다.²³⁾

마찬가지로 독자 역시 다양한 가능 세계 양상을 통해 자기의 유니버스를 구축한다. 가령, 역사적 사실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 사실로서의 ‘6.25’ 즉 ㉣ ‘독자의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세계가 구성될 수 있다. 또는 독자 자신이 ‘6.25’를 직접 겪었기에 그 세계에 대한 감각을 재인·회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 ‘독자의 경험 세계’가 될 것이다. 반면, 소설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독자 나름대로 ‘6.25’ 체험을 달리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는 ㉣ ‘독자의 대안 세계’가 된다. 이렇듯 추론을 통한 ‘현실’, 재인을 통한 ‘경험’, 상상을 통한 ‘대안’ 세계가 결합하여 온 세계를 이루었을 때를 유니버스로 본다.

유니버스 개념은 언제나 추상의 결합으로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양태라는 점에서 가능 세계 구성 주체의 관념 영역에 놓인다. 따라서 독자의 재중심화는 각기의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 세계를 상호 조화하는 과정에서 자기화를 시도하는 것이 되며, 이는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한편, 양상 논의로서 가능 세계는 “형식적 자율성과 현실 내용의 반영을 중시하여 형식미학과 내용미학의 요구를 모두 허용”²⁴⁾하는

23) 가능 세계 이론을 활용하는 서사 이론 중에서는 (이야기·텍스트·독자의) 현실 세계와 경험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경험 세계’로만 정의하기도 한다. 이들의 논의는, 현실이란 특정한 주체의 경험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주장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주체가 현실로 인식하는 것에는 경험되지 않았으나 추론이나 상상을 통해서 현실인 듯하게 인식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 세계를 온갖 인식 과정을 통해 ‘추론’된 영역으로 정의하고, 경험 세계는 과거에 실재하던 영역으로서 ‘재인(再認)’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현실과 경험을 구분한다.(호창수(2023a), 앞의 글, pp.278-279 참조)

성격을 지닌다. 이를 통해 가능 세계는 결국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와 현실의 반영을 중시하는 리얼리즘 미학을 둘 다 충족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을 가능 세계 양상으로 읽어냄으로써, 독자 유니버스와의 연관 속에서 “문학이 위치할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며, 사실의 세계를 벗어나 기존의 현실 개념을 확장”²⁵⁾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잠재적 양태로서 세계를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의 균형보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성을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칭성에 입각한 문학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²⁶⁾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가능 세계 구성이란 허구 세계를 이루는 여러 양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의 유니버스 속에서 독자적인 가능 세계로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독자는 각각의 유니버스에 대한 인식을 수행하며, 특히 독자 유니버스를 기초로 하여 서로 다른 가능 세계를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양상의 가능 세계가 종합될 때 독자는 소설 읽기에서 허구 세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소설 이해를 수행하게 된다. 더 나아가 독자 유니버스나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감각은, 소설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된다.

(2) 인지주의적 사고를 통한 재중심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소설을 매개로 ‘읽기’라는 소통 현상에서 일어나는 독자의 인지적 활동이다. 허구 세계를 이루는 다양한 가능 세계 양상의 조화와 대조, 결합의 작업은 독자의 인지주의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텍스트 구체화로서 ‘재중심화’로 정의할 수 있다. 소설은 ‘있음 직한’ 이야기를 소재로 독자의 허구적 인식에 기대어 허구 세계의 지배 원리를

24) 이좌용(1994), 「가능 세계의 존재론」, 『철학』 41, 한국철학회, pp.119-120.

25) 나병철(2014), 「가능 세계와 메타픽션」,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pp.27-28.

26) 윤대석(2020), 「대칭성의 문학 교육 시론」, 『선청어문』 47, 서울대 국어교육과, p.553.

구현한다. 결국, 허구 세계의 구성이란 독자의 내면 공간을 추적하여 독자들의 ‘지금 여기’의 경험이 허구 세계 속으로 어떻게 치환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 사건, 인과관계 등 “이야기를 구성하는 지식이나 믿음에 대하여 독자가 심적으로 추적하는 도정 전체를 바라보는 작업”을 의미하며 독자의 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이해’에 해당한다.²⁷⁾

한편, 소설이 현실의 재현이라는 점에 주목했을 때, 현실 세계 속 인간의 동기에 대한 이해는 허구 속 인물에 대한 이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채터(N. Chater)에 따르면 서사에서 숨겨진 깊이 즉 내면과 그 세계가 포함하는 “신념, 동기, 그리고 두려움은 상상력의 산물”이 된다. 소설은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순간 실재하는 것”이 되며, 독자는 마치 “자신이 외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지각 능력을 바탕으로 내면을 추론한다고 착각”한다.²⁸⁾ 하지만 내면은 객관적인 자기성찰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고안해 내는 순간적인 과정에 불과하며, 자기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해명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로서 이해는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현재를 창의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 볼 수도 있고, 누적된 스키마와 텍스트, 작가가 제공한 정보를 조합하는 능력이자 현재적인 구성물로 볼 수도 있다. 이때의 이해 작업은 인지주의 서사학을 기반으로 논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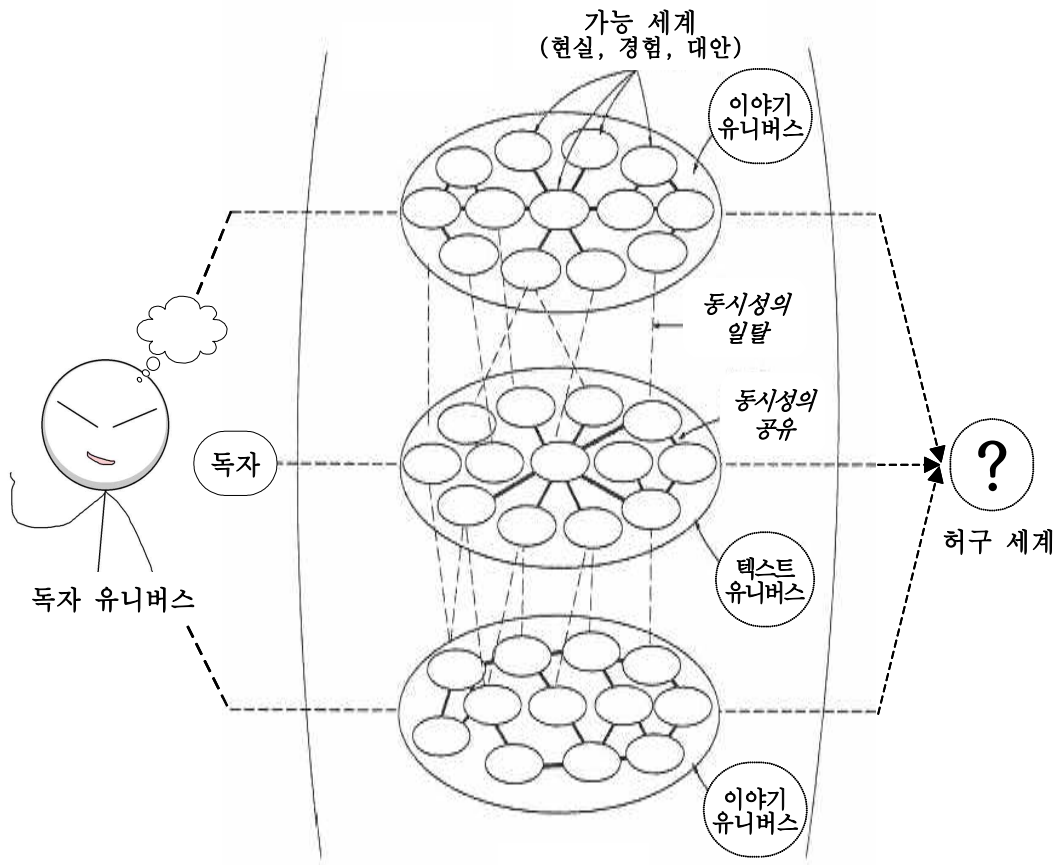
독자의 소설 읽기 과정에 인지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독자의 읽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능 세계를 독자 스스로 지각하여 인출하는 작업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각각의 가능 세계를 분리하여 구조화하는 작업인 ‘재중심화’의 구체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를 앞서 논의한 가능 세계 구성 양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허구 세계를 이루는 수많은 가능 세계 양상은 독자에 의해 개개의 유니버스 안으로

27) C. Emmott(1997), “Narrative Comprehension”,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pp.351-352. 여기에서 애뎃은 서사적 사고를 서사의 여러 특성 중 ‘특정 세계에 대한 지식’, ‘주제적 의미’, ‘정서’, ‘장르 지식과 세계 유형’, ‘서사 세계로의 몰입’, ‘서사의 언어학적 특질’, ‘독자’ 층위로 나누어 분석한다.

28) N. Chater(2021), *The Mind is Flat*, 김문주 역(2021), 『생각한다는 착각』, 웨일북, pp.12-15 참조.

포섭된다. 이때에는 독자 유니버스와의 조회를 거쳐 몇 가지의 구성체로 묶이게 되는데, 그 유니버스의 주체를 서술자에 둘 것인지, 인물에 둘 것인지에 따라 각각 텍스트 유니버스, 이야기 유니버스로서 도출할 수 있다. 각각의 유니버스 사이에서 직접적인 교섭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즉, 각각의 유니버스는 서로 바로는 전이될 수 없다. 대신 유니버스 바깥에 놓인 독자 유니버스의 소여 정보를 이용해서만 서로 공유될 수 있다. 아래의 도식²⁹⁾을 통해 독자의 재중심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더 한다.



<그림 1.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한 독자의 재중심화 수행>

29) 이 도식은 三浦俊彦(1997), 『可能世界の哲学』, 박철은 역(2011), 『가능세계의 철학』, 그린비, p.206에서 제시하는 ‘가능 세계의 존재 방식’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변형한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각각의 유니버스 안에 놓인 가능 세계는 재중심화를 통해 서로 전이되기 위해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동시성의 공유’와 ‘동시성의 일탈’로 제시한다.³⁰⁾ 이는 독자가 형성한 가능 세계 내부에서 혹은 가능 세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동이다. 먼저, 동시성의 공유는 서로 다른 세계 구성 주체가 텍스트 이해의 맥락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맥락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계의 현존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세계의 법칙하에 놓여 있는 미시 세계 범주를 총체적으로 포괄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며, 이를 통해 하나의 유니버스가 구성된다. 즉, 어떤 지각 행위가 두 주체 사이에서 실제로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동시성의 공유 과정에 해당한다.

가령, 위 도식에서 하나의 텍스트 가능 세계 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세계 양상은 서술자라고 하는 세계 구성 주체의 성격, 상황, 맥락에 따라 공통된 세계 체계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신과 머저리〉를 다시 예로 들자면, ‘형’이라는 인물의 세계에는 소설을 쓰는 누군가, ‘관모’와 모종의 사건을 겪는 누군가, 병원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누군가가 중첩되어 있으며, 이는 ‘6.25’ 체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 세계, 즉 어떠한 동일한 세계 법칙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를 통하여서만 서로의 연관성이 이해될 수 있으며, 인물의 경험 세계는 소설을 관장하는 시공간의 동시성을 공유하게 된다.

반면, 동시성의 일탈은 하나의 가능 세계와 관계하는 세계의 맥락을 유보한 채로, 이를 가상 공동체 영역으로 전이시켜 두 세계의 교섭을 수행하는 것이다.³¹⁾ 가령, ‘형’이 겪은 관모와의 모종의 사건은 ‘형’의 소설을 통해

30) 동시성(Simultaneität)은 가다머(H. Gadamer)가 미적 의식에 대한 속성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가다머는 미적 의식에 대하여 타당하게 여겨지는 것은 모두 자기 내부에서 동시성으로 고양함으로써 그 자신을 동시에 역사적 의식으로 규정한다고 본다. 또한, 하나의 미적 의식은 역사적 지식을 포함하고 그것을 미적 의식의 징표로 사용하기도 하며, 내용상으로 규정된 모든 취미의 해소, 미적 의식의 해소를 통해 역사적인 것으로 전환한다고 본다. (H. Gadamer(1960), *Wahrheit und Methode*, 이길우 외 역(2009), 『진리와 방법 1』, 문학동네, pp129-130 참조) 이러한 동시성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 세계 범주에서 세계 맥락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공유와 일탈의 범주로 변형하였다.

31) 이와 유사하게 염창권은 언어적 용법의 측면에서 동시성의 공유와 일탈을 논의한다.(염창권(2003), 「문학교육에서 허구적 세계와 언어의 문제」, 『비평문학』 17, 한국비평문학회, pp.201-202)

‘나’에게 추론될 뿐이며, 이 두 세계 사이의 연관은 독자가 나름으로 추론한 ‘현실 세계’를 매개하여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두 가능 세계 사이에 매개된 상상의 영역을 빌려 지각을 실행한다면, 이는 동시성의 일탈에 해당한다. 가령 위 텍스트 가능 세계의 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 유니버스에서 특정한 담론이나 추론을 빌려와 그 유사성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세계의 양상을 조화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이는 유니버스를 통해 하위 가능 세계를 새로운 공동 공간으로 모아서 인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듯 가능 세계를 조화하는 작업은 뉐닝(A. Nünning)의 주장대로 일종의 “인지 프레임을 구축”하여 허구 세계의 “담론을 이해하기 위한 모형화(modeling)”를 시도하는 작업이다.³²⁾ 결국, 허구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텍스트 단서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추론을 기반으로 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³³⁾이 된다. 동시성의 공유·일탈 범위가 확대될수록 독자의 재중심화가 활발해지며, 허구 세계 구성의 범주도 확대된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허구 세계를 이루는 가능 세계의 구성은 텍스트를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사와 언어 인지 패러다임을 합치는 작업이기도 하다. 독자가 다양한 세계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은, 이야기로서 소설을 회의(懷疑)하게 하는 것이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남으로써 특정 세계가 부여하는 어떤 장르 관습과 담론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설 속 가능 세계의 ‘사실들’이 텍스트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이해되는지 혹은 텍스트로부터 추론이 가능한 무엇의 토대 위에서 의존적으로 이해되는지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없으며, 독자들은 추론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만 관심을 쏟는다.³⁴⁾

따라서 허구 세계 구성에서 재중심화의 계기로 작동하는 사건, 행동의 수는 독자에 의해 다시 말해질 가능성과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때 허구 세계 구성은 소설의 형식에 대한 성찰을 동반한다. 소설 허구성은 뚜렷한 문화적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형식적 관점에서보다는 기능론적, 수사학적 관점에서 더 잘 이해된

32) A. Nünning & V. Nünning(2002), *Neue Ansätze in der Erzähltheorie*, 조정식 외 역 (2018),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pp.313-320 참조.

33) D. Herman(2003), *Story Logic*,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9.

34) 三浦俊彦(1995), 앞의 책, pp.126-133 참조.

다. 이렇게 보았을 때, 허구성은 “현실 세계의 소통 구조 내에서 직접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필수적인 수사학적 원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³⁵⁾을 의미한다. 하나의 허구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가능 세계의 양상은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여러 정보를 소설 이해를 위한 의미의 원천으로 만드는 작업이 된다. 이는 에코(U. Eco)가 제시하는 텍스트 이해 도식을 통해 설명된다.

에코는 독자의 텍스트 이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의미소(素)(Sememe)’와 ‘공(共)텍스트(Co-text)’, ‘해석소(Interpretant)’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먼저, 의미소는 “관념이나 실질 의미를 드러내는 언어적 요소”³⁶⁾를 말하며 에코는 이를 어휘, 문장 차원을 넘어 텍스트, 서사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사용한다. 이때 그 의미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 공텍스트이며, 이는 발화 행위의 상황들에서 “서로 다른 맥락을 결정짓거나, 그 맥락적 선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포된 의미”³⁷⁾를 말한다. 해석소는 의미소를 바탕으로 독자의 심리적 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관념”³⁸⁾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을 독자의 재중심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성립된다.

먼저, 독자의 소설 이해는 텍스트 곁에, 텍스트 위에, 텍스트 뒤에 존재하는 독자가 텍스트 안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텍스트에 언표화된 표지 중에서 의미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텍스트 정보로 속아내는 작업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별된 정보가 ‘정보소(Informant)’가 된다. 따라서 인지주의적 사고를 통한 재중심화는 개개의 가능 세계를 탐색하고, 여기에서 잠재적 의미소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이해에서 독자에 의해 추출된 소설의 가능 세계 속 정보소가 의미소로 전환된다는 것은 텍스트가 말하지 않거나, 가정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동시성의 공유·일탈의 과정을 거쳐 내포된 진술로 변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는 가능 세계 간의 조직과 연결을 위해 수행되는 독자의 기호론적 텍스트 이해 작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출된 공텍스트에 ‘암시된 문맥과 텍스트적 상황(내포된 의미망)’을 대입하여 그 의미소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인용했던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를 다

35) J. Phelan & P. Rabinowitz(2005),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최라영 역 (2015), 『서술이론 I』, 소명출판, pp.292-293.

36) U. Eco(1979), *Lector In Fabula*, 김운찬 역(2009), 『이야기 속의 독자』, p.31.

37) U. Eco(1979), 위의 책, p.27.

38) U. Eco(1979), 위의 책, p.44.

시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생성할 수 있다.³⁹⁾ 먼저, 이야기 유니버스 측면에서 여러 사건이나 인물의 행위, 인물의 말 등이 정보소로 추출된다.

(사건 1) 형이 소설을 쓴다는 기이한 일은, 달포 전 그의 칼끝이 열 살배기 소녀의 육신으로부터 그 영혼을 후벼내 버린 사건과 깊이 관계가 되고 있는 듯했다.

(사건 2) 형은 땃돌을 타고 앉아서 그 원고 몽치를 한 장 한 장 뜯어내어 불에 다 던져 넣고 있었다.

(이청준(1993), <병신과 머저리>, 『시간의 문』, 중원사)

위 인용에서 ‘형의 소설 쓰기 사건’ 과 ‘소설을 불태운 사건’ 이 독자가 텍스트에서 추출한 정보소가 된다. 이때 ‘소설 쓰기’ 와 ‘불태우기’ 를 하나의 의미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사건 사이, 혹은 이야기 유니버스에 내포된 의미망을 추론해야 한다. 위 소설 속에서는 아래와 같이 내포된 의미망이 도출된다.

(내포 1) 6.25 전쟁이라는 텍스트 가능 세계 내의 배경

(내포 2) 의사라는 형의 직업 정보

(내포 3) 텍스트 유니버스 속 형이라는 인물과 관모라는 인물의 관계

(내포 4) 전쟁 중 낙오 시 일어난 살인 사건

(내포 5) 의료 사고로 발생한 환자의 사망

이때 (사건 1)과 (내포 1·2·3)을 조합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공텍스트는 ‘트라우마’, ‘괴로움’, ‘책임감’ 등이다. 그렇다면 ‘소설 쓰기’ 는 곧 ‘트라우마적 행태’ 라는 의미소로 전환된다. 마찬가지로, ‘불태우기’ 라는 사건과 내포된 정보(내포 4·5)를 통해 드러나는 공텍스트는 ‘비밀의 유출’, ‘해방감’ 등이다. 그렇다면 ‘불태우기’ 는 곧 ‘트라우마의 극복’, ‘현실로의 회귀’ 와 같은 의미소로 전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일련의 추론을 통해 ‘형’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소는 텍스트 유니버스를 이루는 핵심적인 사건으로 작용한다.

채트먼(S. Chatman)은 사건을 서사구조의 속성에 따라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39) 이 사례는 에코(U. Eco)가 제시하는 내포적(connotativo) 표시의 해석 사례를 변형한 것이다.(U. Eco(1979), 앞의 책, pp.28-29 참조)

지에 따라, ‘핵 사건(Kernels)’ 과 ‘주변 사건(Satellites)’ 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핵 사건은 해석학적 약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충족시키며 플롯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의미소로의 전환은 독자 스스로 핵 사건을 추출하는 작업이 된다. 핵 사건은 “사건들에 의해 취해진 방향으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서사적 계기” 40)이다. 핵 사건은 이처럼 서사적 논리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는 형식적 기제로 볼 수 있다. 41) 물론 위 사례는 기호론의 입장에서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나,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에 대한 감각은 이처럼 텍스트 인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형’의 가능 세계, ‘나’의 가능 세계를 상호 대조하는 동시성의 공유·일탈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조회는 독자의 유니버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독자는 자신에게 투영된 텍스트를 토대로 하여, 동일한 시공간에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형과 동생이 거주하는 세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텍스트에 제시된 지시적 표상을 통해 형과 동생을 외부 세계의 실체로 가정하는데, 이때에는 작가와 공유하는 이전 경험을 토대로 그 적절성을 판단한다. 또한, 독자는 텍스트 내의 한정적인 설명으로 인하여 추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출한다. 이러한 ‘추론’은 텍스트 해석의 재료가 되지만, 텍스트의 코드(code)에 의해 분명하게 부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의미소를 확장하여 해석소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 정보소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차원에서 선별된 정보들이고, ㉡ 의미소는 텍스트 구체화를 통해 핵 사건으로 선별된 텍스트 유니버스의 차원이었다면, ㉢ 해석소는 독자의 유니버스가 개입되어 재구성된 것이자 소설 이해의 결과로 도출된 것을 의미한다. 해석소는 “하나의 대상이 의미를 발생시키는 관념의 영역이자, 인간의 삶과 소설 이해에 하나의 제약”으로도

40) 핵 사건은 한두 가지 가능한 길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서사적 진전을 끌어나가는 분기점, 혹은 구조 안의 마디나 관절과도 같은 것이다. (S. Chatman(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2003),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pp.63-64)

41) 한편, 주변 사건은 제거된다고 해도 서사 플롯의 논리적 혼란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들을 말한다. 주변 사건은 선택을 수반하지 않으며, 단지 핵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을 완결시킴으로써 미학적으로 풍부함을 발생시킨다.(S. Chatman(1978), 위의 책, p.64)

기능한다.⁴²⁾ 이러한 의미화는 또 다른 재현을 시도하는 것이자 하나의 가능 세계를 또 다른 가능 세계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독자의 유니버스는 텍스트 구체화 및 재중심화 과정에 모두 개입하며, 정보소, 의미소, 해석소 도출을 위한 기본 관념이자 기제인 ‘공텍스트’를 제공한다.

(3) 서사 소통 구도의 확장

독자는 가능 세계를 구성하고, 소설을 매개로 다양한 메타적 해석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유니버스의 애매모호와 미종결에 대한 해답 찾기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는 소설 세계에 이미 진술되어 ‘주어진 것’과 독자 혹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것’을 구별해 내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세계의 발견, 세계의 해석, 세계의 창조와 재생산 체험”이 소설 교육의 목표⁴³⁾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기존의 문학 소통의 장을 확장하는 방법이 된다.

허구 세계 구성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가치 판단의 행위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구성되며, 특유의 소통 구도로서 구성된다. 소통 구도의 전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사학이나 서사론에서의 개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소설을 읽는 ‘독자’는 세계 구성의 주체로서 누군가의 의도를 추론하고 그 방법과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소통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어떤 구도에서든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소통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작용”⁴⁴⁾이라는 점에 근거했을 때, 소설 교육에서 주로 다루는 소통의 구도는 서사에 대한 수사적 접근과 유사하다. 이 수사적 접근은 “구성, 시점, 문체 등 소설 내적 요소를 작가의 소통 방식으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하게 하는 것”⁴⁵⁾에서 비롯한다. 다만, 단선적인 소통 구도를 넘어

42) U. Eco(1979), 앞의 책, p.51.

43) 류수열 외(2014), 『문학교육개론Ⅱ』, 역락, pp.133-135 참조.

44) S. Chatman(1978), 앞의 책, p.165.

45) 정진석(2014), 「소설교육에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독자가 소통 관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이것이 현재의 수용미학 중심의 소통 구도이다.⁴⁶⁾

여기서는 수용미학 중심의 소통 구도에 따라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에 주목한다. 소설 이해는 특정한 방향성을 전제하지 않고,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텍스트를 읽는 와중에 독자, 텍스트, 이야기 유니버스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는 “서술 주체와 독자를 대비시키면서 독자의 저자성을 강화하는 전략”⁴⁷⁾이기도 하다. 텍스트에 나타난 세계의 언어적 형상을 바탕으로 작품 바깥 세계와 관련시키는 작업은 바깥 세계에서 쉬이 발견할 수 없는 진실이나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 이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동시에 이행하는 작업이 되며, 책 안의 세계와 책 밖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⁴⁸⁾ 결국 허구 세계에 대한 탐색이 소통 관계 안에 존재하는 독자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허구 세계를 구성함에 있어 독자 스스로 교섭하는 작업이 필요”⁴⁹⁾하다.

독자는 최소 이탈의 원리와 재중심화에 따라 자기의 유니버스와 텍스트 유니버스 사이의 이탈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존재하며 여기에서 소통의 필요성”⁵⁰⁾이 발생한다. 특히 독자가 재중심화를 시도하는 요소는 주로 인물의 행동, 가치관, 윤리적 타당성 문제, 허구 세계 담론에 대한 문제들이다. 또한, 독자는 인물에게 실재하는 인간의 자질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즉, “독자는 허구

학연구』49-1, 국어교육학회, pp.595-596.

46) 수용미학의 소통론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독자의 기대 지평을 구성하는 삶과 문학에 대한 가치관, 선입견, 지식 등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빈 곳을 구체화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서는 차봉희(1993), 『독자반응비평』, 고려원을 참조.

47) 김성진(2007),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내용 연구: 메타소설화를 통한 수용과 창작의 통합」,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pp.162-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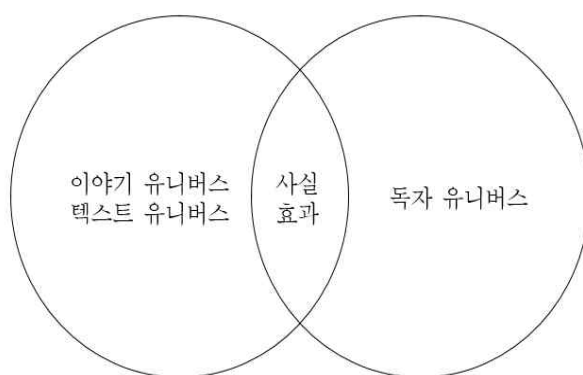
48) 인가르텐(R. Ingarden)은 독자를 둘러싼 세계를 둘로 나누며, 동질적 대상(homogeneous object)과 이질적 대상(heterogeneous object)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책의 세계를 재구축하거나 현실 세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독서 행위라고 본다.(R. Ingarden(1965), *Das literarische Kunstwerk*, 이동승 역(1985), 『문학예술작품』, 민음사, pp.43-47 참조)

49) 이인화(2013b), 앞의 글, p.367.

50) 이인화(2013a), 「소설 교육에서 해석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5.

를 사실로 전환하여 수용”⁵¹⁾하기에 주체가 사실에 반응하는 방식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소통 구도는 ‘작가-텍스트-독자’의 구도 속에서 각각의 가능 세계가 경유하는 방식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독자는 자기의 유니버스를 통해 텍스트가 참조하고 있는 세계를 추론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동시성의 공유·일탈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독자 자신이 투사하는 현실 세계의 양상은 텍스트 가능 세계에 투영된 것, 혹은 다른 독자가 상상하는 또 다른 현실 세계와 동일시될 수도, 일치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독자의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와 중첩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독자의 문학 소통 구도를 확장하는 방식이 된다.



<그림 2. 허구 세계 구성의 사실 효과 작용 범위>

위의 도식에서처럼 독자는 자기 유니버스와의 대조를 통해 이야기·텍스트 세계 내의 배경 묘사의 세밀함, 사건의 현실적 유사성, 인물의 구체성과 현실성,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역사적 맥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계 체계를 통해 자신의 가능 세계 토대 위에서 “중첩되는 지점”을 파악한다.⁵²⁾ 이 중첩된 부분이 허구 세계 내에서 사실 효과를 드러

51) 우한용(2007), 「소설 문체론의 방법 탐구를 위한 물음들」, 『현대소설연구』 33, 한국현대소설학회, p.11.

52) 최성민(2013), 「서사텍스트의 가능 세계에 대한 서사공학적 연구」, 『시학과언어학』 25, 시학과언어학회, p.203.

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소통 구도는 서로 다른 가능 세계의 영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순환적이다. 이 순환 구도는 재중심화의 작동 순서를 결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소설 읽기에서의 가능 세계 소통을,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독자의 소설 읽기에서 우선, 이야기 유니버스의 세계 내·세계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핵 사건이 선별된다. 이 핵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곧 텍스트 유니버스이고 여기에서 다시 세계 내·세계 간 소통이 전환된다. 독자는 이렇게 중층화된 유니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 유니버스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다만, 독자 유니버스는 단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루이스(D. Lewis)가 제시하듯 서로 다른 양상으로 실재할 수 있는 복수적 세계이다. 이는 독자의 현실 감각이 이야기의 현실 세계와 텍스트의 현실 세계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수적 세계 간의 소통 구도는 리코르(P. Ricoeur)가 제시하는 삼중의 미메시스(Mimesis) 개념을 통해 확장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⁵³⁾ 리코르는 경험과 서사에 대하여 “시간 체험”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근원을 논한다. 이때 시간 체험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리코르는 경험과 시간 체험에 대한 변증법적 관계를 ‘전형상화-형상화-재형상화’의 계기에 대응시키며, 각각을 ‘미메시스Ⅰ-미메시스Ⅱ-미메시스Ⅲ’로 나눈다. 앞서 가능 세계 양상 간의 상호 소통이 중층적으로 매개되어 있듯, 리코르가 제시하는 미메시스 역시 상호 연관된다. 또한, 여기서 각각의 형상화 주체는 ‘독자’이며, 독서 행위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는 재구성된다.⁵⁴⁾ 독자는 시간적 질서 속에서 순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러한 소통 구도는 결과적으로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호명하며, 서사 이론을 통한 소설 교육의 생성이라는 본 연구의 논의를 보완해 준다.

허구 세계의 사건은 그 자체로 고립되어 일어나는 물리적인 운동이 아니다.

53) 삼중의 미메시스에 대해서는 P. Ricoeur(1983), *Temps et Récit, Tome 1: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김한식 외 역(1999),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pp.128-195를 참조.

54) 정래필(2013), 「기억 재형상화 원리 중심의 소설 읽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

사건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세계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특정한 상황과의 관계 속에 놓인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즉, 리콴트가 말하는 실천적 이해는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를 내포한 개념이 되며, 세계의 문제가 특정한 유니버스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니버스 체계의 소통 구도와 일치한다. 미메시스를 중심으로 한 허구 세계 구성의 서사 소통 구도는 아래와 같이 종합된다.

	미메시스Ⅰ (전형상화)	미메시스Ⅱ (형상화)	미메시스Ⅲ (재형상화)
관련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1)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2)
세계의 양상	일상적 세계	세계의 형상화	세계의 재형상화
세계의 성격	준(準)-사실	허구	사실 + 허구

<표 2. 허구 세계 구성과 삼중의 미메시스>

위 도식에서 미메시스Ⅱ(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는 세계 형상화의 구체적 대상이 되며, 전형상화(독자 유니버스(1))와 작품 수용에 의한 재형상화(독자 유니버스(2)) 사이를 매개한다.⁵⁵⁾ 독자는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해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에 표현된 소설 언어에 주목한다. 형상화는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자리이며, 작가와 텍스트,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소설에 형상화된 세계의 모습을 기존에 관습화된 것으로서 독자 유니버스(1)을 통해 추론한다. 이때 서술적 형상화란, 사건 또는 인물의 일상과 스토리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다. 이때의 매개는 ‘마치 ~같은’의 어법에 따른 허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스토리는 사건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서사성을 지닌다.

55) 독자 유니버스(1)은 주로 ‘일상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독자 경험 세계에 해당한다. 독자 유니버스(2)는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와의 중첩을 통해 재형상화된 결과이며, 독자 현실 세계와 독자 대안 세계를 포함한다.

다만, 단순한 사건의 나열을 넘어 행동 주체, 수단, 목적, 상호작용, 상황 등의 이질적인 요인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계열적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열적 통합은 미메시스 I 을 통해 내재된 것으로, 스토리를 끝맺는 방식이 되거나 도식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플롯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편, 전형상화는 “암묵적이거나 내재적인 상징성을 통해 형상화 속 사건이나 행동에 내재하는 계기에 대한 이해를 작동”⁵⁶⁾시킨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세계의 재구성을 경험한다. 미메시스Ⅲ은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와 독자 유니버스가 교차하게 된 결과물이다. 즉, 독자의 재형상화는 독자가 이해한 가능 세계의 의미망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는 행위이며, 독자에 의한 형상화 시도이다. 이때, 재구성된 독자의 형상화는 다시 또 다른 전형상화에 기대어 새로운 재형상화를 위한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증법적 구도는 해석학적 순환의 계기가 되며, 서사 소통 구도는 끊임없이 연속되고 확장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를 복수적 세계 구성을 통한 상호작용적 순환 구조로 정의하는 데 기반이 된다.

2.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전제

여기서는 독자의 소설 읽기에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읽기의 대상’, ‘읽기의 수행’, ‘읽기의 결과’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살핀다. 먼저, 자기 반영적인 소설 텍스트는 허구 세계에 개입하는 현실의 문제 사이에서 간극을 만들어 낸다. 또한, 소설의 독서 과정은 텍스트의 구성과 속성이 허구인가 아닌가를 인식하는 작업이 된다. 즉 독자는 허구적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허구와 진실 사이의 변증법적 실천을 수행한다. 한편, 독자의 허구 세계에 대한 감각은 그 특성에 기반한 이해로서 이루어지며, 이는 서사적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학 능력의 결과에 해당한다.

56) P. Ricoeur(1983), 앞의 책, p.159.

(1) 소설 텍스트의 허구성과 자기 반영성

소설 장르의 조건으로서 텍스트의 허구성은 현실이 아니면서도 현실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허구는 작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형성된 이야기이다. 허구의 양식이 창조된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된 소설적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작가가 초점화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해 일정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 그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현실과 현실 아닌 것에서 허구성을 규정하는 것은 소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부터 발생하는 것”⁵⁷⁾이다. 그러나 허구는 독자의 ‘상상력’⁵⁸⁾에 의해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인식되는 예술적 장치이기도 하다.

소설에서 ‘리얼리티(reality)’라고 부르는 속성은 우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으며, 독자는 허구를 통해 만들어진 이 가상의 리얼리티를 직면할 때 현실감이 있는 것이나, 개연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즉 소설의 독자는 허구적인 혹은 소설적인 약속을, 소설을 읽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다. 따라서 현실이 아니더라도 독자가 현실과 같은 느낌을 지니고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구성은 독자의 텍스트 수용에까지 가닿는다. 소설을 소설답게 읽도록 하는 계기로서 소설의 리얼리티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하는 의지에서 발현한다. 이때 소설의 허구성이란 “삶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형식적 변형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⁵⁹⁾가 된다. 즉, 소설의 허구성은 현실의 영역을 통한 추론이 아닌 소설의 의미를 만드는 방식에서 마련된다.

57) 김혜영(2004), 「소설 장르의 허구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p.49.

58) 소설 교육에서 말하는 상상력은 이성과 정서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 정신 능력이자 구성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 구성적 능력으로서 상상력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행위규명의 표준을 정하는 능력인 과학적 인식의 능력과 대립적인 뜻을 갖는다. 이 상상력은 다시 ‘인식적 상상력’, ‘조응적 상상력’, ‘초월적 상상력’으로 나뉘며, 인식적 상상력을 통해 세계에 대한 형식화, 문학을 통한 세계 개시의 능력을 보여주고, 조응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과 문학을 통한 세계와의 상호조정 작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세계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담보한다.(우한용(1998), 「상상력(想像力)의 작동구조(作動構造)와 상상력(相象力)의 교육(教育)」,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71-76 참조)

59) 김혜영(2004), 위의 글, pp.62-63.

이때 한 텍스트가 허구임을 지시해 주는 소설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텍스트 안이나 밖에서 텍스트가 명백하게 고안된 것임을 공포하는 작가의 의도된 논평이 있는 경우, 둘째, 서술자가 명백히 고안된 인물일 경우, 셋째, 소설 등의 장르 명칭을 달고 있거나 문학사적 지식으로 그 작품을 허구적 텍스트로 알고 있는 것, 또는 텍스트가 관습적으로 허구로 표시된 경우이다.⁶⁰⁾ 결국, 허구란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어떤 장치를 통해 리얼리티가 부여된 모종의 ‘소통 과정’을 의미한다. 독자는 자기의 유니버스와 텍스트 유니버스 사이의 대조를 통해 독특한 양상을 직시한다. 이때 소설이 형상화한 소설적 공간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허구적 상상에 기반하여 “대화적 잠재성(Dialogic potential)을 드러내는 작업”⁶¹⁾이 된다. 이 대화적 잠재성은 소설이 만들어 낸 다양한 가능 세계에 대하여 독자가 수행하는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유니버스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세계의 양태를 재구성하게 한다. 이는 허구 세계가 “자기충족적인 체계로서 제시되는 특정한 현실로서 간주”⁶²⁾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허구 세계는 실재하는 것으로 인지된 현실과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독자적인 리얼리티를 부여받게 된다.

허구성은 텍스트 내의 작동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 독자와 작가 사이에서 일종의 규약으로 받아들여진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화용론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허구의 생산자로서 작가는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 “가장된 단언(pretended assertion)”⁶³⁾을 행한다. 이때 가장하는 행위는 작가의 의도된 언표 행위를 통해서, 독자를 허구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다. 아래 소설 대목을 사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한다.

아내는 알람이의 돌연스러운 가출이 유괴에 의한 실종으로 확실시되고 난 다

60) 정향균(2002), 「픽션의 특성과 지위에 관한 고찰」, 『독일문학』 81, p.276.

61) P. Waugh(1984), *Metafiction*, 김상구 역(1989), 『메타픽션』, 열음사, p.20.

62) 남지현(2019), 「서사교육의 빅 아이디어와 본질적 질문 연구: 허구성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3, 한국문학교육학회, p.135.

63) 송지연(1995), 「화행으로서의 허구의 이론」, 『불어불문학연구』 30-1, 한국불어불문학회, pp.639-640 참조.

음에도 한동안은 악착스럽게 자신을 잘 견뎌 나가고 있었다.

(이청준(1990), 「벌레 이야기」, 『비화밀교』, 나남)

위 소설의 서술자는 소설 도입에서 ‘알람이라는 인물의 실종’, ‘유괴된 것으로 추정’, ‘비극에도 견뎌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가장하여 단언한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사실의 문제에 대한 진위 판단을 가하지 않는다. 작가는 작품 내용의 진실에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독자를 속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단언을 통해 “어떤 세계 속에 알람이라는 인물이 있고, 알람이는 알고 보니 유괴당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주십시오.”라는 요청 혹은 지시(Directif)의 화행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네트(G. Genette)는 독자의 잠재적 협력을, “요청 이전에 전제되었거나 이미 얻어진 것으로서 단지 허구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다.⁶⁴⁾ 이는 하나의 서술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을 전제하는 겹쳐있는 화행이자 일종의 ‘간접화행’의 양상을 띤다. 이러한 비지시적 담화로서 허구성은 그것이 실재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현실 세계에 어떤 면모를 리얼리티를 통해 자기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소설이 자기 반영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허구 세계 구성이란, 텍스트 유니버스를 독자의 현실로 끌어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가능 세계에 기대어 본다는 측면에서 허구 세계 속에서 비지시적으로 ‘겹쳐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소설 읽기의 계기가 된다. 서사 자체에서 현실적 상황을 언어적 상황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주목하면, 언어란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투명한 렌즈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창조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환기된다. 결국, “리얼리티도 언어를 통해 조정되고 구성되는 허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⁶⁵⁾이 부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독자의 소설 이해를 규명하는 데 하나의 구조적 계기로 작용한다.

소설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은 언뜻 작가 혹은 작가가 속한 실재가 과잉

64) G. Genette(1972), 앞의 책, pp.217-224 참조.

65) 손유경(2001), 「최인훈·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텍스트의 자기반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표출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는 작가 혹은 현실 속 누군가를 표상하는 인물을 내세워 철저히 현실 모방의 양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설의 자기 반영은 모방과는 다르다. 반영적이라는 것은 독자에게 자기 작품이 어디까지나 허구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허구성을 자아낸다.⁶⁶⁾ 가상의 서술자를 통해 허구 세계만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는 현실 관련성과는 사뭇 다른 감각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해와 해석의 복수성이 확보된다. 독자는 자기 반영적 속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세계가 어떻게 또 다른 가능 세계를 생성하고 사건화하며, 여러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목격한다. 이를 통해 한 명의 개인이 인물로서 반영되는 것을 넘어, 시공간, 세계관, 담론, 플롯 등 다양한 서사적 요소 역시 가능 세계로서 반영되고 표상된다.

한편, 소설의 핵심이 ‘핍진성(逼真性)’에 있다고 한다면, 소설의 자기 반영적 속성은 문학교육 측면에서 더 유의미한 지점을 제공한다. 현재, 소설 교육에서는 주로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학습 대상으로 삼는다. 학습 독자는 핍진한 인물과 세계를 통하여 현실에서도 있음직한 사건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포착하는 것으로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 다만, 이때 “텍스트가 지닌 ‘낮춤’, ‘시공간적 거리감’을 학습 독자에게 어떻게 전유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은 상대적으로 부재”⁶⁷⁾하다.

소설은 실제 작가, 실제 세계, 실제 사건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재현적(mimetic)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결코 실제 그 자체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기호적(semiotic)이다. 기호란 흔히 “기표와 기의로 구분되는 표상이나 상징”이기도 하지만 늘 “세계의 재현이라는 문제와 관계하는 근본적인 형식”이다.⁶⁸⁾ 즉, 소설 텍스트의 허구 세계는 재현적인 현실과 기호적으로 허구화된 현실 사이에서 혼재하는 두 가지 욕망을 분별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① ‘소설 내부에 투영된 세계와 독자 자기 세계와의 관련성’, ② ‘두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어떠한 논리나 방법의 발견’, ③ ‘시

66) 김옥동(2008), 『포스트모더니즘』,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05-109 참조.

67) 호창수(2023b), 앞의 글, pp.328-329.

68) 노태훈(2017), 「구보의 픽션: 박태원의 메타픽션」, 『구보학보』 17, 구보학회, p.273.

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열린 텍스트 세계에 대하여 독자 유니버스에 부합하는 규칙성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허구 세계를 자신의 인식 안에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소설 텍스트의 허구성과 자기 반영성에 대한 독자의 감각은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한 전제이자 기초적인 실천 단위가 된다.

(2) 소설 읽기와 허구적 인식 능력

소설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온전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⁶⁹⁾이다. 그런 점에서 소설 독서는 누군가와 대화이자, 주체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구성 행위이다. 하지만 소설은 언어적 구조체임과 동시에 예술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소설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언어 운용에 대한 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설은 독서 공간 속에서 독자의 허구적 상상 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즉, 소설 “독서 현상은 ‘수용자·작가-작품-독자·생산자’라는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⁷⁰⁾ 독자는 작가가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이용하는 여러 양식을 인식의 틀로 삼아 독서를 수행한다.

윌튼(K. Walton)은 ‘믿는 체하기(make-believe)’라는 관점을 통해 예술에서 재현에 대한 허구적 상상의 작동 원리를 제시한다.⁷¹⁾ 소설은 허구적 개체를 지칭하고, 그것에 대하여 진술한다. 독자는 소설이 말하는 바를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 허구적 개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허구적 인식은 가장하기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과도 같다. 앞서 예로 들었던 〈벌레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독자는 실제로 ‘알람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알람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지칭하는 체한다. 독자가 ‘알람이’를 잃은 ‘아내’에 대한 연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 역시 진정한 주장이나 실제

69) 우한용(2004), 「문학교육과 허구적 인식 능력」, 『국어교육연구』 14, 국어교육연구소, p.10.

70) 우한용(2011), 『소설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177.

71) K. Walton(1990), *Mimesis as Make-Believe*, 양민정 역(2019), 『미메시스: 믿는 체하기로서의 예술』, 북코리아, p.74.

대상에 대한 감정이 아닌, 준-감정(quasi-emotion)이 된다.⁷²⁾

윌튼에 따르면, 지시 대상에 대한 ‘-인 체하기’의 관계는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대상적(對物, De re) 믿음’과 ‘대언적(對言, De dicto)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⁷³⁾ 대상적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 속성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대언적 믿음은 내용을 구성하는 언어적 존재자인 특정 “‘명제’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⁷⁴⁾ 이때 대상적 믿음은 실제 속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속성에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상 자체의 존재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대언적 믿음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표상 방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속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의 존재가 보장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소설 독서에서 독자가 구성하는 허구 세계에 대한 믿음은 대상적 믿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의 논리 도식으로 이해해 보자. 먼저, 소설 독서 수행 과정에서 독자 A가 일으킨 준-감정에 대하여, “독자 A가 〈벌레 이야기〉를 읽고, 자식을 잃은 아내를 불쌍하다고 믿는다는 것은 허구이다.”라고 이해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믿는다’라는 것은 대상적으로, ‘허구이다’라는 것은 대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명제를 대상적, 대언적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⁷⁵⁾

(ㄱ) 대상적 이해의 공식

$$\text{“이것은 허구이다.”} \Rightarrow X \begin{cases} \text{(ㄱ) 자식을 잃은 아내가 있다.} \\ \text{(ㄴ) 독자 A는 그녀를 불쌍하다고 믿는다.} \end{cases}$$

72) 호창수(2023a), 앞의 글, pp.275-276 참조.

73) 언어철학에서 언어 표현상 의미 차이를 서술하는 개념으로 ‘De dicto, De re, De se’를 구분한다. ‘De dicto’는 언표 양상이라고도 하며, ‘말해진 것’으로서 대언(對言)적인 특성이 있다. 반면, ‘De re’는 사물 양상으로, ‘대상에 대한 것’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대상(對象) 혹은 대물(對物)적으로 표현한다. ‘De se’는 대자(對自)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K. Walton(1990), 앞의 책을 참조.

74) 오종환(1999), 「허구의 인식적 특성과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 『미학』 27, 한국미학회, pp.100-101.

75) 이 수식은 오종환(1999), 위의 글, pp.101-102에서 제시하는 《안나 카레니나》에 대한 이해 공식을 변형한 것이다.

(L) 대언적 이해의 공식

“독자 A가 믿는 것은 허구이다.” $\Rightarrow$ X $\begin{cases} \text{(가) X는 자식을 잃은 아내이다.} \\ \text{(나) X는 불쌍하다.} \end{cases}$

이때, (가) 대상적 이해로 보는 경우에는 허구적인 것의 대상은 문장 자체가 된다. 그 허구 속에서 독자 A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존재하는 X라는 매개항이다. 이러한 대상적 이해에서 독자 A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X라는 매개항의 존재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상의 존재 여부는 독자 A의 믿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L) 대언적 이해의 공식으로 보는 경우, 대상의 존재 여부가 독자 A의 믿음의 범위 안에 포섭되게 된다. 이때에는 독자 A의 믿음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것의 존재 자체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대상적 이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튼의 논리대로 허구적 대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에, 현실 세계에서는 대상적으로 지칭될 수 없지만, 허구 세계 안에서는 대상적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독자가 허구 세계를 구성할 때 소설 속의 진술만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극복하게 한다. 독자가 소설 속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소설 속 진술을 통해 아는 것은 현실 세계의 인식 법칙을 따르지만, 일단 독자가 허구 세계 안의 논리를 대상적으로 인식한다면 그 인식의 지배 논리마저도 허구가 아닌, 허구 속 현실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소설의 진술이 참이든 아니든, 독자가 허구 세계를 구성할 때는 소설 속의 인물과 사건을 그 지배 원칙에 따라 지칭한다. 이러한 대상적 이해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독자의 독서 수행이 바로 허구적 인식 능력이다. 이에 따라 텍스트 유니버스의 체계 내에서도 독자의 유니버스의 맥락이 반영될 수 있다.

소설의 독자는 일정한 텍스트 전략을 전제로 허구의 경험 조건들에 대하여 현실적인 인식 행위를 수행한다. 이저(V. Iser)는 독서 행위를 현실과 분리된 가상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현실 속의 독자에 의해 구축되는 미적 경험으로 실현” 76)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는 텍스트

76) W. Iser(1974), *Der Akt des Lesens*, 이유선 역(1992),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가 독자에 의해서 구체화된다는 측면에서 ‘내포 독자⁷⁷⁾’의 개념으로도 설명되는데, 독자의 허구적 인식 능력은 내포 독자로서의 독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허구 텍스트가 독자에게 허용한 예비 기준, 즉 문화적 문법에 따라 소설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소설 독서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이나 실재라기보다는 허구적으로 구축된 서사를 다시 그 허구의 맥락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이다. 소설 텍스트의 허구성은 “독자가 막연하지만, 각종의 외적 표지로 인해,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소설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소설적 규약을 수용한 자리에서 시작”⁷⁸⁾된다.

독자는 허구 세계를, 누군가 그것이 현실 세계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독자가 속한 세상과 일치한다고 가정”⁷⁹⁾한다. 허구적 서사가 만들어 내는 세계는 ‘텍스트 그 자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경험적 현실 세계’와 일치한다고 여기는 독자의 무의식적인 가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서사의 수많은 틈을 채워 나가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따라서 소설의 찰진함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 생성된 일종의 기호’로서 그 범위 내에서만 허구적이게끔 된다.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인물, 작가, 독자 층위에서 내적 욕망을 탐색하고 대조함으로써 내포 독자와 서술자, 독자와 인물, 독자와 작가 사이의 관계를 동일시와 비동일시, 괴리와 혼재의 구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 독자를 위한 하나의 소설 독법이 된다.

“……왜 쓰는가— 글을 왜 쓰는가. 작가는 무엇 때문에 소설이라는 것을 쓰고 또 써야 하는가. 작가의 소설은 어떤 동기와 욕망과 충동의 힘에 쫓겨지며, 그것은 또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에서 쫓겨지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략) 그러므로 이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 이야기의 출발을 글을 쓰는 사람 자신의 동기와 인간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략) 지옥은 한 손에 담배

pp.166-167.

77) 내포독자 개념은 텍스트 자체가 독자에게서 어떤 방법의 반응을 유발하도록 구조적으로 한정시켜 주는 독자를 의미한다.(G. Genette(1972), 앞의 책, p250)

78) 우한용(2004), 앞의 글, p.32.

79) P. Abbott(2002),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외 역(2010),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p.287

를 피워 들고 누워서 머리맡 녹음기 테이프에서 흘러 나오는 말소리에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녹음 테이프의 말소리는 근래에 제법 정력적인 작품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정훈이라는 젊은 소설가의 이야기였다.

(이청준(1993), 「지배와 해방」,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위 인용에서 소설가 ‘지옥’은 또 다른 소설가 ‘정훈’의 문학론을 듣는 행위를 한다. 텍스트 유니버스 속 지옥은 작가이자, 이 소설을 독자에게 전하는 서술자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이야기(‘정훈’의 이야기)의 독자라는 중층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소설의 언어는 “현실의 제약을 넘어서고 싶어 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⁸⁰⁾이라는 작가 이청준의 말에서 유추하듯, 지옥의 발화는 허구에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면서도, 작가 이청준의 욕망에 대한 자기 고백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발화란 “언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투명한 매개인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드러난다.⁸¹⁾ 이는 “언어가 외적 실재를 지시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대신할 텍스트를 지시함으로써 언어의 환기력을 복원하고자 하는 소설적 장치”⁸²⁾라고 볼 수 있다. 즉 재현과 비재현의 사이에서 허구 세계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것은 언어 자체, 혹은 텍스트 자체를 지시하면서 당대 현실 세계와의 의미망을 복합적으로 탐색하는 별도의 인식 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허구적 인식 능력이라 정의하며, 허구 세계 구성의 작동 기제이자 소설 이해의 전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소설 이해와 서사적 사고의 작동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해’란, 해석이 수행되기 이전 단계를 의미한다. 딜타이(W. Dilthey)는 ‘체험(Erleben)’과 ‘표현(Ausdruck)’의 관계망 속에서 이해(Verstehen)를 설명한다. 그에게 체험이란 삶의 현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신의 기본 단위로서 세계를 인식하는 출발점이다. 특히 나에게 인식된

80) 김정수(1996), 「메타픽션적 영화소설?」,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pp.323-324.

81) 호창수(2023b), 앞의 글, p.333.

82) 배지연(2016), 『최인훈 소설의 메타적 글쓰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

것만 체험이 되는데, “모든 자연법칙은 인간의 의식에 예속되는 한에서만 존재”⁸³⁾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허구 세계에 관한 감각이 딜타이의 체험 개념과 같다고 본다. 무엇보다, 딜타이에게 체험 안에서의 사유, 감정, 의지 등과 같은 내면적 행위들은 “하나이자 전체로서 결합하여 구조적 통일체”를 이루며, 시간성에 종속된다. 따라서 각각의 “체험을 이루는 사건은 동적 통일성에 따라 의미화”⁸⁴⁾된다. 이는 리쾨르의 미메시스에 대입해 보았을 때, 형상화(이야기 유니버스·텍스트 유니버스)의 주요 계기로 작용하는 전형상화(독자 유니버스)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딜타이는 체험에 대하여 인간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음에 주목한다. 체험은 시간에 따른 ‘연관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개인적이다. 이러한 체험이 보편의 영역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며, “외부 세계에 객관화된 것이자 ‘삶의 표출’로서 나타날 때”만 이해의 대상이 된다.⁸⁵⁾ 이때 삶의 표출이 곧 ‘표현’이다. 이러한 개념 정립은 소설 언어로 이루어진 스토리, 스토리의 사건을 배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담론의 영역으로서 서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부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 이해는 “텍스트의 목적, 지향, 의도를 알아내는 작업이자 일종의 인식적 상상력의 작용”⁸⁶⁾을 의미하게 된다. 소설을 이해한다는 것은, 소설에 형상화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며, 이는 독자가 자기 세계 안에서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세계와 자아의 상호 관계에 주목한 것이자 서사적 사고의 수행에 해당한다. 허구를 만들고, 또 허구를 읽어내는 작용을 허구적 상상이라 한다면, 독자가 이 허구적 상상을 이용하여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소설의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독자의 독서 과정에 개입하는 허구적 상상을 텍스트 이해를 위한 메타적 장치로 활용한다면, 소설의 언어와 사건을 인식하고, 인물을 판단하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실천 단위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83) 정상원(2018), 「정신과학적 이해로서의 추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고찰: 문학교육의 전회(Kehre)를 기원하며」, 『한국어문교육』 26, pp.199-200.

84) 정상원(2018), 위의 글, pp.202-203.

85) W. Dilthey(1979),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이한우 역(2002), 『체험, 표현, 이해』, 책세상, pp.40-41.

86)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132.

독자로서 어떤 주체성을 지닌 채 허구 세계를 구성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메타적으로 도출해 내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의 의미 도출을 통해 자아의 세계 연관을 끌어내는 작업은 “시간상으로 불화의 상태에 있는 것을 조화의 상태로 전환” 하는 일이다.⁸⁷⁾ 이때의 조화는 텍스트의 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발견되는 것으로서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적 사고는 소설 이해를 위해 다른 세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필요한 개념이 ‘서사적 사고’이다. 서사적 사고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그 사태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방식”⁸⁸⁾을 의미하며, 주체의 세계 만들기, 즉 허구 세계 구성의 기초가 된다. 이때 참조할 만한 것이 브루너(J. Bruner)의 정의이다. 브루너는 서사적 사고를 과학적 사고와 대비하여,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의도를 문화적 규범과 연관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한다.⁸⁹⁾ 즉 독자가 허구 세계에 직면하여 인물과 사건, 그 배경을 구성하는 과정은 일종의 서사 만들기 와 같다. 이때에는 특정한 시간성, 인과성, 구조적 특질에 대한 감각이 포함된다. 허구 세계 구성에서 서사적 사고의 대상은 소설에 내재한 사건이 되며, 소설 이해는 독자에 의해 인식된 사건에서 비롯한다.

소설에 존재하는 여러 사건에 대하여 독자는 본인이 지닌 삶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특정 사건을 전경(Figure)으로 선택하고, 그 외의 사건들은 배경(Ground)으로 배제”⁹⁰⁾한다. 허만(D. Herman)은 전경과 배경 논의를 통해 서사학에 대한 인지주의적 전환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허구 세계를 형상화한 ‘서사 진술’⁹¹⁾은 독특한 감각에 의하여 서사성을 부여받는다. 이때 서사성

87) P. Ricoeur(1983), *Temps et Récit, Tome 1: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김한식 외 역(1999),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pp.52-55 참조.

88) 사고란 주체가 지식, 경험, 정서를 바탕으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의미를 구성, 판단, 산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신 활동의 일체를 말한다.(이삼형 외(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p.167)

89) J. Bruner(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Harvard University Press, p.45.

90) 김태호(2013), 「서사적 사고의 작용 방식 연구: 플롯 구성을 통한 삶의 인식 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1, 한국문학교육학회, p.178.

91) 서사 진술을 허만(D. Herman)이 제시하는 용어로 구분하면 스크립트(Script), 시퀀스(Sequence), 스토리(Story)로 나눌 수 있다. 스크립트가 특정한 장르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구조를 지닌 진술이라면 이 스크립트에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도록 짜인 감각적, 행동

은 사건의 진술, 독자의 기억 속에 내면화된 배열 방식, 서사가 내재하고 있는 패턴 등으로 드러나며, 특히 독자에 의한 전경화를 통해 수행된다. 결국, 전경화라는 것은 독자 유니버스에 구성된 인지적 스키마와 외부 유니버스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은 독자 유니버스에 잠재한 세계 이해 도식에 따라 잠재적인 배경으로 반향(反響)하며, 이러한 영향 작용은 독자가 속해 있는 현실 세계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때 독자는 서사적 사고를 통해 시간을 사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소설 이해를 시도한다. 서사는 “인간이 시간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 낸 상징물”이다.⁹²⁾ 허구적 시간 경험은 체험된 시간성과 세계의 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진 시간을 연결한다. 이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자 결코, 다가오지 않는 미래라는 시간 경험의 아포리아”⁹³⁾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부여한다. 이렇듯 독자는 서사적 사고를 통해 체험된 사건들을 배열한다. 가령, 전체적인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개별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경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경화 방식은 일종의 계열로서 성격을 지닌다. 서사는 시간의 연쇄로 진행되는 사건들의 구성체로서, 상황 맥락, 인물 등이 시공간적 계열 속에서 구조화된다. 즉 독자는 자신의 해석 공동체를 바탕으로 허구 세계 내에 구조를 부여하고, 그 계열화를 중심으로 소설 이해를 시도한다.

이때 독자의 소설 이해에 작용하는 서사적 사고를 에코(U. Eco)의 독서론을 토대로 개념화할 수 있다. 에코는 독자가 상호텍스트적으로 독서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독서 행위를 협력적 텍스트 해석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며, “가능 세계에 대한 독자의 추론을 통해 허구 세계의 구조가 도출”⁹⁴⁾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때 에코는 독자가 허구 세계를 구성할 때, 가능 세계를 통해 “자신의 예상에 대한 말하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예시를 보자.

적, 인지적 지식과 기술로서 스키마가 전제된다. 시퀀스는 독특한 규칙과 관습에 의한 서사의 배열 문제이며, 스크립트와 시퀀스의 유기적 결합체가 스토리이다.(D.

Herman(2002), *Story Logic*,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85-115 참조)

92) P. Ricoeur(1985), *Temps et Récit, Tome 3: Le Temps Raconte*, 김한식 역(2004),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지성사, p.245.

93) P. Ricoeur(1985), 위의 책, p.248.

94) U. Eco(1979), 위의 책, pp.6-15 참조.

형은 노래 같은 소리를 내다가는 뭐라고 중얼중얼 혼자말을 하기도 했다. (중략)
 붉은 화광이 창문에 비쳤다.
 — 무엇을 태우고 있을까.
 종이 찢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청준(1993), 「병신과 머저리」, 『시간의 문』, 중원사)

위 진술에서는 소설 속의 ‘나’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소설 속 ‘형’이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을 통해, ‘형’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독자가 하도록 유도한다. 독자는 다음 진술에 대한 가능성을 명제적인 태도로 형성한다. 가령, ‘나는 형이 무언가를 태우는 것을 말릴 것이다.’ 라든지, ‘형은 태우는 것을 멈추고 나를 때릴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 이는 독자의 유니버스가 개입한 것이자, 일어날 법한 개연성을 지닌 명제로 이루어진다. 이야기 유니버스에 대하여 독자는 “작가에 의해 부정되기 전까지는” 자기 현실 세계의 법칙에 따라 그 “개연성을 추론” 한다.⁹⁵⁾ 허구 세계에서 사건의 의미를 예상하고, 추론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에 대한 가설 전개를 뜻한다.

이때 허구 세계는 기호학적으로 텅 빈 세계가 아니라, 무엇인가의 맥락으로 계열화된 충만한 세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사적 사고는 철저하게 맥락 의존적이다.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의 계열화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 의미는 “인간적 의미의 맥락에서 행위, 지식, 감정의 세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사이의 연속적 상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⁹⁶⁾한다. 무엇보다 이때의 통합은 독자 유니버스와 다른 가능 세계 사이의 관계 맺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사적 사고는 사물의 현 상태를 지향하기보다는 독자가 판단하기에 “사물이 그렇게 되었어도 좋을 법한 상황이나,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태를 향해 있다”⁹⁷⁾라는 점에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위한 전제로 마련된다.

95) U. Eco(1979), 앞의 책, pp.189-190.

96) 최인자(2021), 「내러티브 사고력 중심의 융합교육 방법-내러티브 발견 학습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81, 청람어문교육학회, p.137.

97) J. Bruner(2003),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강현석(2010),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p.145.

3.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란 ‘독자가 나름대로 가능 세계를 구성하며, 자신의 읽기 과정을 메타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는 허구 세계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하여, 이것이 구체적인 소설 이해의 원리이자 교육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로 제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허구 세계를 여러 층위의 가능 세계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유니버스를 구분하였다.

- └ ㉠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세계: 이야기 유니버스
- └ ㉡ 서술자로 인식된 목소리에 의해 서술이 발생하는 세계: 텍스트 유니버스
- └ ㉢ 소설 읽기에 사용되는 독자 자신의 인식 세계: 독자 유니버스

이때 소설 이해를 세계의 발견과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허구 세계의 구체적인 국면으로 인식되는 이야기 유니버스, 텍스트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는 각각 공간론적, 주체론적, 담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국면은 앞서 보았듯, 복수의 시공성을 향한 독자 인식의 확장 문제와 결부된다.

먼저, 이야기 유니버스의 대표적인 속성이자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인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 대하여 독자는 ‘시공간의 중층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이어서 허구 세계에 내재한 인물 중 서술자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목소리 문제,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은 소설의 주요 사건과 인과를 부여하는 참여자에 관한 판단 문제와 관련한다. 따라서 텍스트 유니버스의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이해는 ‘참여자의 목소리’에 대한 지각으로 수행된다. 한편, 모든 완결된 이야기는 플롯을 갖게 되며 독자의 세계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플롯 재구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따라서 독자 유니버스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에 대한 감각으로서 플롯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담론의 체계’를 성찰하는 것으로 수행된다.

유니버스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서 제시하게 될 허구 세계 구성의 수행구조는 독자의 일반적인 소설 읽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독자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재중심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때 ‘가능 세계 서사학(Possible Worlds Theory and Contemporary Narratology)’⁹⁸⁾이 논의의 기반이 된다. 가능 세계 서사학은 돌레첼(L. Doležel)⁹⁹⁾을 계승하여, 서사학의 가능 세계적 전환을 시도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월시(R. Walsh)가 제안한 것이자 가능 세계 서사학에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허구 세계 ‘시공간(Spatiotemporality)’¹⁰⁰⁾에 주목한다. 이는 서사학의 ‘시간과 공간(Time and Space)’의 문제를, 세계를 관장하는 하나의 복합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이어서 허만(D. Herman)에 의해 구체화된 허구 세계 ‘참여자(Participant)’¹⁰¹⁾ 개념을 살펴본다. 참여자 개념을 통해 서사학에서 제기하던 인물 혹은 목소리의 문제를 세계 구성원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가능 세계 서사학에서도 허구 세계 ‘담론(Discourse)’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앞서 라보캇(F. Lavocat)이 제시한 ‘세계 체계’¹⁰²⁾ 개념을 바탕으로 재개념화한다. 이렇게 제시된 ‘시공간’, ‘참여자’, ‘담론’을 통해 도출된 수행구조는 소설 교육의 목표 대상인 학습 독자를 위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 변환될 것이다.

한편, 소설 이해의 수행에 있어 ‘소설 언어’와 ‘표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설 표현 기법에 주목한 소설 이해는 유니버스

98) A. Bell & M. Ryan(2019), 앞의 책.

99) 돌레첼은 가능 세계 이론을 서사학에 적용한 최초의 서사학자로 평가받는다. L. Doležel(1976), “Extensional and Intensional Narrative Worlds”, *Poetics* 8, pp.193-212 참조.

100) R. Walsh(2017), “Beyond Fictional Worlds: Narrative and Spatial Cognition.”, P. Krogh, etc(2017), *In Emerging Vectors of Narratology*, Walter de Gruyter, pp.461-478 참조; C. Bartsch(2019), “Escape Into Alternative Worlds and Time(s) in Jack London’s *The Star Rover*”, A. Bell & M. Ryan(2019), 앞의 책, p.193 참조.

101) D. Herman(2003), 앞의 책, pp.152-155 참조; M. Caracciolo(2019), “Ungrounding Fictional Worlds: An Enactivist Perspective on the ‘Worldlikeness’ of Fiction”, A. Bell & M. Ryan(2019), 위의 책, p.120 참조.

102) F. Lavocat(2019), “Possible Worlds, Virtual World”, A. Bell & M. Ryan(2019), 위의 책, p.274 참조.

에 기반한 허구 세계 구성 과정에서만 도출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수행구조로 제시하지 않는다.¹⁰³⁾ 여기에서의 논의는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현상학적 원리를 밝히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에, 그 성격상 기술적(descriptive)이다.

(1) 이야기 유니버스와 시공간의 중층성

먼저,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소설에 투영된 사건에 대한 감각에서 시작된다. 발(M. Bal)은 소설의 사건에 대하여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경험되는 한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의 전이”¹⁰⁴⁾라고 정의하는데, 이때 전이는 사건이 하나의 과정이자 변화를 담보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에 더해 리몬-케넌(S. Rimmon-Kenan)은 “사건 안에 ‘상태’ 개념이 내재하고 있고, 한 사건은 무한수의 중간 상태로 분절될 수 있는 것”¹⁰⁵⁾으로 재정의한다. 이들의 논의에서처럼 사건이 복수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야기 유니버스를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된다. 이야기 유니버스에는 수많은 사건이 존재하고, 독자는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모색한다. 이때 사건은 인물이 활동하고 진술하는 데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 영향을 받으며, 이야기 유니버스는 이러한 사건의 다양성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 겹쳐져 이루어지는 독서 공간이 된다. 따라서 이야기 유니버스 차원에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로 허구 세계 ‘시공간’을 제시할 수 있다.

월시는 서사적 감각과 가능 세계 구성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서사를 “선

103) 다만,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라는 것도 결국은 소설 읽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이 필연적으로 선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설 언어와 표현에 대한 독자의 인식 문제는 소설 읽기 양상과 원리, 교육 내용에는 선행 단계로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III장의 양상 및 원리, IV장의 교육적 시사점에서 별도로 다룬다.

104) M. Bal(1978),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한용환 역(1999),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p.31.

105) S. Rimmon-Kenan(1983),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1999), 『소설의 현대시학』, 예림기획, p.34.

형적 시간 순서의 반동적 발화”로 보고, 세계 구성을 “공간 인지의 다른 방향이자 공간과 시간의 상호 축소 불가능성”¹⁰⁶⁾이라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허구 세계에 대한 독자의 감각에서 시간에 대한 이해는 공간 패턴에 의존하여서만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야기 유니버스에 드러나는 시공간의 양상이 독자 유니버스와 구별되는 하나의 세계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느냐에 놓인다. 양상 실재론에 따르면, 하나의 허구 세계 안에는 수많은 양자의 태동이 가능하기에 시공간의 복수성은 이야기 유니버스 안에서 또 다른 세계의 생성을 전제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유니버스 안의 개개 세계 양상이 서로 동시성의 공유를 이룰 수 있는지, 또 이야기 유니버스(‘형상화’)를 매개로 독자 유니버스(‘전형상화’)와의 대조를 통해 또 다른 세계로 전이될 가능성(‘재형상화’)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오래도록 소설론의 기초가 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주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논의로 다뤄졌다.¹⁰⁷⁾ 특히, 배경(Setting)은 “묘사, 상징, 사실, 목적 등, 텍스트를 이루는 하나의 장치”¹⁰⁸⁾ 정도로 인식되었다가 점차 인물과 사건의 의미 도출을 위한 맥락 차원으로 확장되어, 독자가 독서 행위 과정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재개념화되었다.¹⁰⁹⁾ 채트먼은 시간의 문제를 “사건의 제시 순서”,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과 “서술하거나 읽는 데 걸리는 시간”, “사건이 발생한 횟수나 서술된 빈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해서도 “담론 차원에서 드러나거나 감춰지는 영역”으로 정의하며, 의도적인 표현을 통해 인지되는 것으로 본다.¹¹⁰⁾ 따라서 이야기 유니버스 속 등장인물의 인지 가능한 서사적 술어 즉, “직접적인 표현이나 일반화된 속성”¹¹¹⁾을 통해 제시된 것만이 이야기 속 공간이 된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따를 때,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배경이나 구성 방식

106) R. Walsh(2017), 앞의 책, pp.473-474.

107) 소설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이해하는 논의는 신비평에 기반을 두며, 주로 소설의 물질적 배경인 ‘장소’를 배경으로 본다.

108) G. Prince(1992), *A Dictionary of Narratology*, 이기우 역(1992), 『서사론 사전』, 민지사, p.239.

109) 주네트(G. Genette)와 채트먼(S. Chatman)은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배경을 인물, 사건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주제의 형상화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본다.

110) S. Chatman(1978), 앞의 책, pp.78-100 참조.

111) S. Chatman(1978), 위의 책, pp.131-132.

의 영역을 넘어” 점차 독자가 “독서 행위를 통해 구성”¹¹²⁾하는 이야기 유니버스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이야기 유니버스 속에서 시공간은 여러 시공성이 겹쳐있는 상태, 즉 중층적인 관계로 인식돼야 한다. 이야기 유니버스에는 다양한 시공간이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소설 속의 시간과 소설을 읽는 흐름의 시간은 서로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독자가 소설의 사건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즉, 기존의 전경과 배경 차원에서의 시공간 개념을 넘어 “행위, 사건, 서술과 관계 맺는 ‘공간화하기(Spatialization)¹¹³⁾”로 시공간을 개념화하면, 독자의 소설 이해 구도를 인지주의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사건은 ‘인과’¹¹⁴⁾의 논리에 따라 구성되며, 독자는 자기 유니버스를 기초로 재중심화를 수행하고, 사건의 의미화를 시도한다. 즉 전형상화(미메시스 I)의 영향 아래에서 형상화(미메시스 II)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리코르가 미메시스의 개념 정립을 위해 사용한 ‘줄거리 구성¹¹⁵⁾’을 그 수행구조의 구체적 내용 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사건의 배열을 의미하는 줄거리 구성은 시간적 배열이 아닌, 논리적인 배열을 의미한다.

시작을 정의하는 것은 선행하는 것의 부재가 아니라 계기(繼起) 속에서 필연성의 부재이다. 끝이란 다른 것 다음에, 그러나 “필연성이나 개연성에 근거해서” 오는 것이다. 오로지 중간만이 단순한 연속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처럼 보인다.¹¹⁶⁾

위의 인용은 ‘시작-중간-끝’을 만드는 작업인 줄거리 구성에는 필연성과

112) P. Abbott(2002), 앞의 책, pp.305-330 참조.

113) D. Herman(2003), 앞의 책, pp.263-265 참조.

114) 들뢰즈(G. Deleuze)에 따르면 사건의 ‘인과’는 비물체적인 사건을 발생시키는 ‘물체 자체’가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과 비물체적인 사건을 발생시킨 또 다른 ‘비물체적인 사건’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G. Deleuze(1969),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1999), 『의미의 논리』, 한길사, pp.180-182 참조) 본 연구에서는 비물체적인 인간의 행위인 소설의 진술에 관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들뢰즈의 정의 중 후자를 따른다.

115) 서사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제시한 바 있는, 행동을 모방하는 행위인 미메시스(mimesis)와 사건의 배열이나 줄거리 구성 행위인 뮈토스(muthos)를 의미한다. 리코르에게 서사란 행동의 모방이며,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는 ‘삶과 시간’의 문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서사의 줄거리를 통해 시간의 아포리아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마련된다.(조현일(2005), 「리코르의 서사이론과 서사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p.6)

116) P. Ricoeur(1983), 앞의 책, p.97.

함께 ‘개연성(Probability)’ 이 작동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개연성은 사건을 현실화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독자의 ‘그럴 만하다’ 라는 지각을 통해 실현된다. 이때 시공간의 문제는 사건의 연쇄를 추동하거나, 사건 간의 논리적 연계, 소설의 여러 요소와의 관련성 사이에서 작동한다. 또한, 행동에 대한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줄거리 구성에는 전이해가 필수적”¹¹⁷⁾이다.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와 관련하여 사건에 투영된 행동의 구조적 특성, 즉 목적, 동기, 상황, 행동의 결과에 관한 확인을 통해 전이해를 마련한다. 이는 독자 유니버스의 공텍스트를 통해 마련된 관습, 문화, 윤리의 문제를 통해 밝혀진다. 즉, 이러한 작업은 동시성을 바탕으로 재중심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편, 이야기 유니버스의 시공간 개념은 소설의 구성 방식을 넘어 가능 세계 양상을 창조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바흐친(M. Bakhtin)이 제시하는 ‘크로노토프(時空性, Chronotope)’ 를 통해서도 설명된다.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 을 넘어 소설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역할 속에서 담론 주체의 행위 혹은 의식과 상호작용하는 것”¹¹⁸⁾을 의미하는바, 이 역시 허구 세계의 시공간을 구성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된다. 바흐친은 서사란 “사람·사건과 시간·공간의 관계를 가장 풍요롭게 발견해 온 것” 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소설의 “‘생생한 충동’ 과 ‘형식 창조적 이데올로기’ 를 규정하는 모든 가능성” 을 크로노토프라 정의한다.¹¹⁹⁾

즉 크로노토프는 가능 세계 내에 진술된 어떤 장치라기보다는 경험을 이해하는 ‘행위’ 라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행위로서의 크로노토프는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행위와 사건이 맥락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하위 크로노토프를 생성한다. 이러한 시공간의 복수성에 대한 인식이 허구 세계 구성의 내용이 된다. 크로노토프를 생성하는 맥락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형성되는 순환 구조를 지니게 되며, 이때의 시간과 공간이란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허구 세계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나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 형

117) 조현일(2005), 앞의 글, p.11.

118) 여홍상(1997),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p.152.

119) G. S. Morson & C. Emerson(1990), *Mikhai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석 외 역(2006),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pp.621-622.

상화되지는 않으며, 인물의 행동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독자가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¹²⁰⁾한다. 따라서 허구 세계 시공간을 크로노토프로서 이해하면, 이야기 유니버스의 시공간은 경험의 본질 탐색과 사건 재현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이렇듯 시공간을 개인, 사회, 문화가 지닌 세계에 대한 감각과 연결함으로써 독자 유니버스 재구성의 기틀이 마련된다. 이야기 유니버스의 주요 형상화 대상인 사건은 전형상화로 존재하는 독자 유니버스와의 대조를 통해 선이해로 변형되며, 이를 통해 세계의 줄거리 구성이 마련된다. 이러한 가능 세계의 순환적 구성을 통해 독자 유니버스의 재형상화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허구 세계 구성의 폭이 넓어진다.

한편, 허구 세계의 시공간은 “예술의 형식적 논의를 넘어서 작가를 매개로 인물이 살고 소통하면서 형성하는 구체화된 삶의 맥락¹²¹⁾”이기도 하다. 허구 세계 시공간은 ‘이야기된 시공간’과 ‘이야기하는 시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독자가 읽기를 수행하는 시공간은 후자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상상력에 의해 파악된 공간은 우리들이 사는 것이며 그 공간의 ‘실제성’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상상력의 모든 편파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¹²²⁾

위 인용에서 바슐라르(G. Bachelard)가 제시하듯, 시공간은 주체의 의식 속에 창출된 이미지이다. 이때 창출된 시공간의 이미지는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상상력에 기초한다. 열린 텍스트로서 허구 세계의 시공간은 상상적 체험 속에서 지향된 것이기에 독자와 작가는 각자의 상상력에 의해 시공간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를 형성”하면서도, “보편성에 기초하여 이를 공유”한다.¹²³⁾ 이러한 상호 주관적 요소로서 시공간에 대한 감각은 독자가 이야기 유

120) 선주원(2005), 「크로노토프를 활용한 타자 인식과 소설교육」, 『국어교육』 116, 한국국어교육학회, p.465.

121) 김근호(2008), 「소설 텍스트 중층적 읽기의 공간론」, 『독서연구』 19, 한국독서학회,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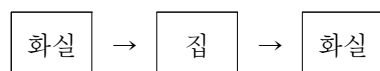
122) G. Bachelard(1957), *The Poetics of Space*, 한국소설학회 역(2002),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p.69.

123) G. Bachelard(1957), 위의 책, pp.8-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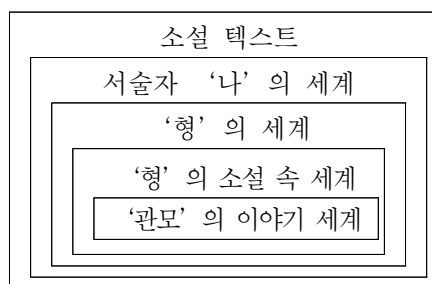
니버스 내 시공간의 보편적 이미지에 대한 교섭 가능성을 제기하도록 한다. 즉 독자의 시공간에 대한 감각은 철저히 ‘재형상화’를 지향하게 된다.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서, 독자는 형상화된 사건과 이야기에 대하여 시공간을 중심으로 계열화를 시도한다. 가령,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서술자 ‘나’의 세계, ‘형’의 세계, ‘형’의 소설 속 세계 등의 시공간이 복잡하게 겹층을 이루고 있다. 이 시공간 구성 방식은 ‘외부 사건 제시로서 시공간’과 ‘내부 심리 묘사로서 시공간’으로 나뉜다. 이때 허구 세계 시공간이 중층적으로 구성될수록 외부 사건 제시로서 시공간은 많은 소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 외부 사건 제시로서 시공간



(㉡) 내부 심리 묘사로서 시공간



위 도식에서 보듯 텍스트 형상화에서 중요한 지점은 외부 사건 제시로서 시공간보다는 내부 심리 묘사로서 시공간에 있게 된다. 이처럼 허구 세계 구성에서 시공간은 독자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인식되는 영역이어야 한다. 랠프(E. Relph)에 따르면, 개인과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공간의 의미나 분위기는 ‘장소성(Placeness)’과 ‘장소감(Sense of place)’으로 구분된다. 개개의 장소는 다른 장소와 차별성을 이루는 ‘장소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데, “장소화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보편적 정체성으로 형성된 것이 장소성”이며, “장소감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감각”을 말한다.¹²⁴⁾ 즉 장소성은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 되고, 장소감은 개인의 체험 영

124) E. Relph(1976),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외 역(2005), 『장소와 장소상설』, 논형, p.109.

역이 된다. 이렇게 시공간을 형상화 기제로 삼아 ‘이야기 유니버스 속 중층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이자 전형상화 기제인 ‘보편적 장소성’, 독자에 의해 재형상화된 ‘개별적 장소감’으로 구분한다면, 이 역시 삼중의 미메시스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에서 시공간의 문제는 한 가지 수행구조로서 타당하다. 독자는 중층적 시공성을 바탕으로 서술된 소설을 읽어가며, 구체적인 시공간적 특성을 포착해야 한다. 이때 이야기 유니버스 내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 배경의 조합을 통해 외부 사건 제시로서 시공간과 내부 심리 묘사로서 시공간을 구분한 후, 후자의 영역을 형상화된 시공간으로 추출한다. 이때 보편적 장소성은 독자 유니버스를 통해 도출되는 일반적 시공간을 의미하게 되며, 형상화된 시공간은 내부 심리 묘사로서의 시공간이 된다. 이러한 시공간의 중층화 시도는 한편으로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내 사건의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의 시공간이 도출되며,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텍스트 유니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이야기 유니버스를 허구 세계 시공간을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은 서사 구조를 범주화하는 작업이다. 독자는 허구 세계를 공간적으로 분할하고, 그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시 의미를 부여한 후 새롭게 시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소설 이해를 수행하게 된다.

(2) 텍스트 유니버스와 참여자의 목소리

이어서 제시할 수 있는 수행구조는 ‘텍스트 유니버스와 참여자’¹²⁵⁾이다. 텍스트 유니버스는 서술이 발생하는 세계로서, 인물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목

12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참여자(Participant)란, 허구 세계에 관여하는 모든 인격적 존재를 의미하며, 이는 허만(D. Herman)이 제시한 개념을 원용한다. 허만은 서술자에 대하여 과거 기호론자(바르트, 그레마스, 토도로프)가 사용하던 행위자(Actant) 개념이 문학 소통의 양상을 일방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기존의 행위자를 참여자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문학 소통의 범주를 확장하고자 한다. (D. Herman(2003), 앞의 책, pp.152-155 참조)

소리를 지닌 자의 세계에 해당한다. 독자는 허구 세계에 참여하는 여러 인물 중 서술자로 판단되는 누군가에게 텍스트 세계의 특권을 부여한다. 에코에 따르면, 명제들로 표현된 하나의 소설의 가능 세계는 “어떠한 ‘특성들’ 을 가진 ‘개체들’ 의 총체”로서 구성된다. 여기서 특성이란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의미 작용”이 되며, 소설의 가능 세계는 “누군가에 의해 알려진 사건들의 과정”이 된다. 이 사건들의 과정은 실제적이지 않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거나, 믿거나, 꿈꾸거나, 원하거나, 예상하는’ 누군가의 ‘명제적인 태도’에 의존”한다.¹²⁶⁾ 이때 ‘누군가’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이야기 유니버스 속 인물일 수도 있고, 세계 밖에 존재하며 목소리만 드러내는 자일 수도 있다.

허구 세계의 참여자는 서사 이론에서 제시하는 ‘서술자’, ‘초점화’, ‘목소리’ 개념을 통해 구체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사 소통 주체인 서술자, 내포 독자, 실제 독자의 개개 가능 세계가 구분될 수 있는지, 또 주체 간의 상호 주관적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의 ‘말하는 자’로서 참여자도 시공간과 마찬가지로 중층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그리샤코바(M. Grishakova)가 가능 세계 서사학으로 제시한 ‘가상의 목소리(Virtual voice)’¹²⁷⁾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샤코바는 허구 세계에는 독자가 만들어 내는 “가상의 목소리”가 있고, 이는 “다른 서사 참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가상의 화자에 기인한 가상의 목소리는 텍스트 현실 세계의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구 세계의 목소리는 “언어적 표현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으며, 정신적 행위의 존재론적 지위를 유지”한다.¹²⁸⁾ 대신 독자가 텍스트에 암시된 표지로부터 추론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하게 된다. 허구 세계 구성을 통해 소설을 이해할 때, 독자가 인식할 수 있는 참여자의 목소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¹²⁹⁾

126) U. Eco(1979), 앞의 책, p.199.

127) M. Grishakova(2018), “Multi-teller and Multi-voiced Stori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Pronouns”, A. Gibbons & A. Macrae(2018), *In Pronouns in Literature: Positions and Perspectives*, Palgrave Macmillan, pp.193-216 참조.

128) M. Grishakova(2019), “Interfere Ontologies: On The Possible, Virutal, and Hypothetical in Fiction”, A. Bell & M. Ryan(2019), 앞의 책, p.92.

129) 그리샤코바는 허구 세계의 목소리를 총 여섯 가지로 나눈다. 매개된 목소리

- (가) 비인격적인 대상이나 텍스트 바깥에서 들리는 목소리(이야기 · 텍스트 현실 세계)
- (나) 초점화된 서술자에 의해 매개된 목소리(이야기 · 텍스트 경험 세계)
- (다) 신뢰할 수 없는 자의 대안적 목소리(이야기 · 텍스트 대안 세계)

허구 세계 참여자의 목소리는 다성적으로 중층화되며, 서술자의 주관적인 말이나 생각, 인식의 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독자가 판단하는 가상의 목소리는 허구 세계에 대한 관점의 정립과 해석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허구 세계 구성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참여자의 목소리, 즉 서술자의 위상과 권위에 대한 독자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다. 텍스트 유니버스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위를 문제화하고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관점을 도입하고 타자성을 부여하여 대화”¹³⁰⁾를 시도하는 것은 참여자의 지위 판단, 즉 서술자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된다.

독자가 허구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자아와 다른 어떤 허구적 존재가 가정되어야 한다. 바흐친에게 “서술자의 서술은 ‘타인의 언어에 의한 타인의 말’ ” 이다. 즉, 소설을 통한 작가의 의사소통을 ‘간접 화법’ 으로 보는 것이다. 작가는 서술자라는 매개를 통해 독자와 의미를 소통하는데, 서술자는 그 “초점화의 한계”¹³¹⁾에 의해 허구 세계의 모든 국면을 말해주거나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허구 세계의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서술자는 일종의 가치 평가적 서술을 하게 된다. 서술자는 “저자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분명하게 달라진다.¹³²⁾ 독자는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서술자

(mediated or embedded voice), 가정된 목소리(hypothetical voice), 비인격적 목소리(impersonal voice), 투사된 목소리(projected voice), 메타적 목소리(metaleptic voice), 대안적 목소리(alternative voice)가 그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매개된 목소리와 가정된 목소리는 텍스트 유니버스에 실재하는 서술자의 것이기에 ‘텍스트 경험 세계’로, 비인격, 투사, 메타적 목소리는 텍스트 바깥에서 마치 서술자처럼 지배력을 가지기에 ‘텍스트 현실 세계’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목소리는 ‘텍스트 대안 세계’의 것으로 본다. 목소리 유형에 대해서는 M. Grishakova(2018), 앞의 글 참조.

130) M. Grishakova(2019), 앞의 글, p.96.

131) 이는 리몬 케년이 초점화를 지각적 국면, 심리적 국면, 관념적 국면으로 확장하고, 외적 초점자와 내적 초점자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S. Rimmon-Kenan(1983), 앞의 책, p.117-124 참조)

가 어느 정도 신뢰성의 수준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는지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또한, 의도된 신뢰성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은폐된 이야기에 대한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

텍스트 유니버스에서 참여자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 이용하는 서술 기법으로는 초점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소설에서 서술의 주체는 ‘대상에 대하여 말하는 이’와 ‘대상을 보고 지각하는 이’로 나뉘며, ‘누가 보는가?’ 혹은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 서술자와 초점자가 구분된다. 이때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의 구분은 텍스트를 향한 인식 및 지각 행위인가, 독자를 향한 언어적 행위인가”에 따라 다르다.¹³²⁾ 더 나아가 ‘누가 보는가?’의 문제는 항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보는 자는 서술자일 수도, 독자일 수도 있으며, 보이는 자는 등장인물, 때로는 서술자 자신일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자의 초점 대상에 대한 정보량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야기 유니버스와 텍스트 유니버스의 분별이 가능해진다. 가령, 서술되는 사건이나 행위, 인물에 대한 정보량이 ‘서술자 > 인물’인 경우 서술자 우위로 이루어지는 진술이 텍스트 유니버스가 되며, ‘서술자=인물’의 경우 제한된 시야로서 ‘누군가의 전망’이 되기에 두 유니버스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서술자 < 인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전망”¹³⁴⁾에 가까운데, 이때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주목하여 텍스트 유니버스 속 서술자에 대한 초점화를 시도할 수 있다. 소설의 서술은 대화적이기에, 텍스트 의미 소통은 항상 중층적이다. 서술자의 목소리는 “문법적 인칭으로서의 특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독자의 감각”에 있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서술되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¹³⁵⁾ 따라서 세계 참여자의 목소리는 그 참여자의 정체성 문제에 가닿는

132) W. C. Booth(1961), *The Rhetoric of Fiction*, 최상규 역(1999),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p.214.

133) 나병철(1998),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p.383.

134) G. Genette(1972), 앞의 책, p.177.

135) P. Abbott(2002),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외 역(2010),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pp.144-145

다. 이때 듣는 자로서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목소리가 자유롭고 유동적일 때, 서술자의 지위를 어떻게 상정하느냐 혹은 서술자를 하나의 개인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텍스트 유니버스에 형상화된 참여자의 목소리도 중층적 소통 구도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에서 ‘실제 독자’에게 서사 소통 주체의 권한이 부여된다. 이때 소통의 상대자는 서술자(인물)와 작가이다. 독자는 서술자의 소통 상대자로서 ‘서사적 독자’가 되어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인식을 수행하다가도, 실재하는 작가의 소통 상대자로서 ‘권위적 독자’가 되어 작가의 직접적인 호소에 반응하기도 한다.¹³⁶⁾ 즉, 독자는 서사적 독자로서 텍스트 유니버스 형상화에 대한 몰입 체험을 통해 인물에 대한 공감을 시도하기도 하고, 동시에 권위적 독자로서 자기 세계의 전형상화를 기반으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중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재형상화를 거쳐 실제 독자로서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인식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다. 이렇듯 텍스트 유니버스 참여자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독자는 삼중의 미메시스를 통해 소통 구도를 중층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를 진술하는 참여자의 신빙성 판단을 수행한다. 이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명하는 경우는 서사의 뽀진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텍스트 유니버스는 형상화의 기제로 작동한다.¹³⁷⁾ 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이 세계 참여자 측면에서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가 된다. 신빙성을 갖춘 서술자라는 것은, “스토리 제시나 스토리에 대한 논평”에 대하여 독자가 “신뢰할 만한 설명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참여자를 말한다.¹³⁸⁾ 뉐닝(A. Nünning)은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에 대하여 독자가 “텍스트의 모순을

136) J. Phelan & P. Rabinowitz(2005),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최라영 역 (2016), 『서술이론Ⅱ』, 소명출판, pp.127-128.

137) 반면,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거나 잘못된 세계관을 지닌 자로 설정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판명되는 경우도, 비협조적 서술자에게 뽀진성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이양하는 것일 수 있다.(P. Abbott(2002), 앞의 책, pp.150-153 참조)

138) 리몬-케넌에 따르면 독자가 스토리를 이해하는 정도나 스토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서술자의 서술 수준, 서술자의 스토리 참여 범위, 서술자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정도, 서술자의 신빙성 등이 있다.(S. Rimmon-Kenan(1983), 앞의 책, pp.168-181 참조)

발견하는 인지적 행위”¹³⁹⁾임을 강조한다. 이때 신빙성 판단에는 독자 유니버스의 세계 체계가 인지 도식으로 작용한다. 독자는 참여자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술자의 성격, 인물과의 관계, 사건의 실체를 선택적으로 부각”하는데 이는 독자 개인의 선호이자 사회·문화적으로 자연화된 관습으로 이루어진다. 독자는 실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적 담론을 해석의 자원으로 공유하고 특정한 선호와 읽기 방식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해석 전략을 학습”한다.¹⁴⁰⁾ 이러한 신빙성 판단의 다양성은 동시성의 공유를 작동하는 기제이자 재중심화의 방법이 된다.

이어서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스토리 진술을 추적함으로써 허구 세계 참여자에 관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이스케(A. Daisuke)에 따르면, 스토리는 “과거 사건의 복제이기보다는 내적으로 구조화된 정보로 인식”된 것이며, “일화, 현재 상황, 미래 예측, 예정되거나 상상된 미래, 그리고 공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심적 표상의 결합”이다.¹⁴¹⁾ 이때 텍스트 유니버스의 문제는 말해진 것보다는 ‘어떻게 서사화된 것’에 놓이게 된다. 독자는 텍스트에 투영된 서술자 위상에 대한 자기 판단을 통해 서사화된 것을 포착한다.

결국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얼마나 관여하고, 독자에게 어떤 윤리적 태도를 지향하는지를 찾아낸다. 이때 서술자의 목소리에 은폐된 지점이나 빈자리를 독자 스스로 채워 넣음으로써 능동적 독자로서의 위상이 확보된다.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 참여자의 소통 구도를 확장하기 위해, “예상을 재형성하고 부여했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¹⁴²⁾ 이렇듯 독자의 복수적 소통 위치 확보라는 수행구조는 허구 세계 구성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를 통해 독자의 소설 이해에 작용하는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된다.

139) 최라영(2016), 「암시된 저자와 (비)신뢰성 문제 고찰」, 『어문학』 133, 한국어문학회, p.390.

140) 정진석(2016), 「소설교육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수용에 대한 인지서사적 고찰」, 『국어교육』 154, 한국어교육학회, p104.

141) A. Daisuke(2019), 앞의 글, p.343.

142) R. Holub(1984), *Reception Theory*, 최상규 역(1999), 『수용미학의 이론』, 예림기획, pp.123-124.

(3) 독자 유니버스와 담론의 체계

독자는 서로 다른 양상의 가능 세계를 조회할 때, 독자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최소 이탈의 원리에 따라 재중심화를 수행한다. 이때 재중심화의 기준은 세계 체계로서 제시되는데, 상징, 관습, 윤리의 영역 등 인간사의 의미 공동체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그 근원이 된다. 또한,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인식은 독자 유니버스와 공유된 지점에서 그 사실 효과가 발휘된다. 사실 효과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세계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있음 직한’ 혹은 ‘존재할 법한’ 이라는 진술을 통해 ‘핍진성’과 ‘개연성’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독자는 무수한 가능 세계 양상에 대하여, 정형화된 형식이나 자기 세계 체계에 익숙한 구조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보편적이고 개연성을 갖춘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 체계는 일종의 세계 이해 도식으로 기능하며, “또 다른 가능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틀”¹⁴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독자는 낯선 허구 세계에 대한 만남을 익숙한 것으로부터 확인하고, 재조정하여 다시 불법한 세계로서 예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계 체계에 의해 부여된 개연성과 이에 따라 부각된 핍진성의 문제는 수사(修辭)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정형화된 양식으로서 ‘플롯’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가능 세계 서사학에서는 “서사 유니버스에 의해 구성되는 구조체”¹⁴⁴⁾를 플롯이라고 재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플롯은 ‘허구 세계를 작동시키고, 인물의 갈등, 행위, 진술 등의 기반을 마련하며, 세계의 담론을 생성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의 목표는 허구 서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사의 이면 혹은 내포된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인과적 배열을 지닌 세계 이해의 도식을 문학론에서의 논의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다중 시공성과 가상의 목소리라는 중층적 구도로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를 논의하였듯, 독자 유니버스로 개개의 가능 세계 양상을 통해 도출되는 중층적 플롯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다중 플롯을 상호 조회하는

143) F. Lavocat(2019), 앞의 글, p.274

144) A. Bell & M. Ryan(2019), 앞의 책, p.20.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개인이나 집단, 특정 문화권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적인 이야기를 지칭하는 ‘마스터 플롯’ (Masterplot)¹⁴⁵⁾을 세계 체계의 한 가지 양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마스터 플롯은 서사를 구성하는 일정한 조직이다. 서사란 “특정 패턴으로 사상(事象)을 조직하는 지각 활동” 이라고 했을 때, 패턴이란 시·공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처음, 중간, 끝을 가진 인과적 연쇄”를 말하며, 지각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¹⁴⁶⁾ 독자는 서사로 진행되는 이야기에 대한 지각을 ‘인과관계(causation)’에 기대어 수행하며, 이를 통해 마스터 플롯을 도출한다. 이전에 진술된 사건들과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 사이에서 필연적인 인과가 있을 것이라는 명제는 항상 참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인식에서 그러한 경험칙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 “인과성의 문제는 복수의 사건을 어떻게 연결하고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¹⁴⁷⁾ 이는 곧 의미의 질서를 수립하여, 독자의 의미 구성 도식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마스터 플롯과 관련한 또 한 가지의 속성이 ‘표준화하기’ (normalization)이다. 사건의 집합에 대하여 특정한 서사적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사건은 서로 연속하게 되는데, 연속에는 혼란보다는 질서가 안정적이라는 경험칙상의 도식이 자리 잡는다. 이렇듯, 정형화된 패턴으로서 마스터 플롯은 특정한 유니버스를 형성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독자의 서사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나, 윤리적 감성에 대한 성찰에서도 마스터 플롯은 영향사적 기준, 즉 세계 체계로서 작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마스터 플롯이 허구 세계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세계 체계로서 기능하게 되는지 에코를 통해 살펴본다. 에코에 따르면 가능 세계는 철저하게 “문화적인 구성물”이며, 만약 텍스트 유니버스가 독자 유니버스와 중첩하는 경우 독자는 자신이 속한 유니버스에 “특권”을 부여한다.¹⁴⁸⁾ 즉, 유니버스

145) 마스터 플롯은 연구자에 따라 마스터 내러티브(master narrative), 스토리 골격(story skeleton), 정전 스토리(canonical story), 원형(archetype)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P. Abbott(2002), 앞의 책, pp.100-101 참조)

146) 최인자(2003), 「모티프 중심의 서사적 사고력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pp.475-476.

147) G. Prince(1982),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 of Narrative*, 최상규 역 (2015),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예림기획, p.10.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 체계는 가능 세계를 초월한 동시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독자는 낯선 가능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유니버스에서 도출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 안에서 공통성을 추출한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에 대하여 본질적인 속성과 부수적인 속성을 위계화한다. 이 작업은 아래의 절차대로 수행된다.¹⁴⁹⁾

- (ㄱ) 핵심 인물의 가능 세계를 선정한다.
- (ㄴ) 개체에 부여된 특성을 선정한다.
- (ㄷ) 개체의 각 특성에 대하여, 어느 특성이 실제적 개체에 더 본질적인지를 판단한다.
- (ㄹ) 특성들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를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자는 (ㄱ) ‘형’이라는 인물의 내면세계, 즉 텍스트적 경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ㄴ) ‘형은 6.25 참전병이다.’, ‘형은 의사이다.’, ‘형은 낙오병이었다.’, ‘형은 소설 속에서 관모를 죽였다.’, ‘형은 소설을 쓴다.’, ‘형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등의 부수적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제시된 부수적 속성 사이의 우열을 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ㄴ)의 화소를 나열하여 ‘형’을 중심으로 한 소설의 플롯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때 (ㄷ)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스터 플롯이다. 일반적으로 전후 소설에서는 ‘죽음’, ‘죄책감’, ‘트라우마’와 같은 속성이 표준화된 인과관계를 지닐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독자는 (ㄴ) ‘형은 6.25 참전병이다.’와 ‘형은 사람을 죽였다.’, ‘형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는 속성을 본질로 내세우게 된다. 이를 통해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마스터 플롯은 ‘전쟁 체험=트라우마’라는 구조화된 패턴을 고착시키게 된다. 이렇듯 허구 세계 구성에서 본질적인 속성을 추론하는 것은 곧 마스터 플롯을 도출하는 작업이 된다. 다만, 독자가 특정한 마스터 플롯의 영향을 받는 서사를 지속해서 체험하게 된다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자는 자기 유니버스 안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마스터 플롯을 도출하고 이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소설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148) U. Eco(1979), 앞의 책, pp.209-210.

149) U. Eco(1979), 위의 책, p.220.

한편, 독자는 허구 세계 인과율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도 플롯에 대한 감각을 드러낸다. 독자는 소설 이해의 과정에서 ‘의미를 지닌 이야기’에 주목하여 문제 제기에 동참한다. 소설 내적 문제 상황에 독자가 동참하게 되는 것은 “기호론적 구조의 언어화, 즉 담론”을 통해서이며, 담론화된 소설 언어는 “언어를 통해 구현된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다.¹⁵⁰⁾ 소설의 언어는 ‘작가-작품-독자’의 층위 안에 ‘서술자-작중인물-피서술자’라는 이중적 소통 구조를 취한다. 담론은 주체들이 개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언어이다. 이를 통해 사상과 감정의 전달이라는 언어 운용의 목표를 넘어 상대방을 향한 일정한 의도를 지닌 메시지 전달 행위가 발생한다. 따라서 담론의 장에서 주체들은 상호 주관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 관계 속에서 독자는 담론화된 언어의 역동적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소설 이해를 위한 허구 세계 구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담론은 본질적으로 대화적이라는 것이다. 대화적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며 그 ‘관계’에 주목한다는 것으로, “전통과 권위에 대한 파괴”이자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형성”을 의미한다.¹⁵¹⁾ 이에 따라 담론화된 소설은 모슨과 에머슨(G. Morson & C. Emerson)에 따라, 평범한 발화이자 구성된 발화로서 “비종결적인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소설이 텍스트 그 자체로서 “형식 창조적인 장르”이자, “종결 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한다.¹⁵²⁾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마스터 플롯의 해체나 재구성은 플롯을 대화적으로 구성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소설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텍스트 유니버스 이면에 놓인 여러 표지에 대한 조합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설의 담론화는 철저하게 기호론적이지만 그렇기에 기호를 넘어선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독자 유니버스와의 대조를 통해 독자는 소설 이해를 위한 텍스트 구체화를 시도하게 되며, 이는 허구 세계 구성의 주요한 수행 구조로 제시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허구 세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독자는 이야기

150) 우한용(2011), 『소설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41.

151) G. S. Morson & C. Emerson(1990), 앞의 책, pp.107-112 참조.

152) G. S. Morson & C. Emerson(1990), 위의 책, pp.47-56 참조.

유니버스 속 시공간의 중층적 구조화를 시도하고, 텍스트 유니버스에 내포된 참여자의 다중 목소리를 분별하며, 독자 유니버스에 내재한 세계 체계로서 마스터 플롯을 재구성한다. 이때 허구 세계는 재중심화 기법을 통해 가능 세계간의 상호 조화를 통해 구성되며, 그 통합적 전제가 마련될 때 완성된다. 특히, 소설 수용의 국면을 이야기 유니버스, 텍스트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 차원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독자가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서사를 바라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도출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는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 분석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그 원리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행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한 소설 이해 교육의 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Ⅲ.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

이 장에서는 II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설 작품과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를 통해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모색한다. 특정한 시공간 축으로 형성된 허구 세계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과 그 영역에 포함된 모든 존재를 지칭한다. 허구 세계란 “인간이 어떤 사태의 이유로 의식의 대상으로서 선별” 하여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¹⁾ 이에 따라 독자가 자신이 그려낸 세계상을 하나의 현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세계 내부에서 나타나는 ‘존재’의 모습을 예견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²⁾ 따라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라는 것은 결국 세계-내-존재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가능 세계의 생성 가능성으로서 제시된다. 이에 대하여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를 기초로 하여 그 실마리를 모색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 독자를 위한 소설 이해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개별 작품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해석 텍스트를 검토하는 것은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위한 수행구조의 정합성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양상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론적으로 종합한 것이 II장의 이론화 작업이 되며, II장과 III장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1. 전문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

소설 읽기에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독자의 소설 읽기 과정에서 추론한 가능 세계 양상을 나누어 관찰한 후, 각각의 경험 방식에 대하여 인지주의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소설 이해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 독자와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

1) M. Heidegger(1927), *Sein Und Zeit*, 전양범 역(1992),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p.86.

2) 이때 ‘세계-내-존재’는 하나의 실존적 규정으로서 세계성을 기반으로 한다.(M. Heidegger(1927), 위의 책, pp.143-145 참조)

양상을 나누어 분석하였고 여기에서는 먼저 전문 독자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때 소설 이해에 작용하는 가능 세계는 서로 중층적으로 연결된 복수적 소통 구도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앞서 II장에서 제시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전제와 수행구조에 따라 양상 분석의 대상을 허구 세계의 ‘시공간에 기반한 이해’, ‘참여자에 기반한 이해’, ‘담론에 기반한 이해’로 구분하였다. 이때 각각의 부면에서 도출되는 소설 이해의 속성을 ‘서사성’, ‘뽀진성’, ‘플롯’의 측면과 결부시켰다.

한편, 세 층위에 앞서 ‘소설 언어’의 역동적 의미에 대한 감각이 선행한다고 보았다. 허구 세계 구성만을 위한 특성은 아니지만, 소설은 특수한 언어 운용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소설 언어도 양상 분석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양상 분석은 I장에서의 논의에 따라, 이청준의 작품과 이에 대한 해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가 허구 세계 구성에만 주목한 읽기가 아닐지라도, 그 안에는 가능 세계를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포착되게 마련이다. 한편, ‘가능 세계 서사학’에서 의도한 해석 텍스트와 이청준 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텍스트 사이의 구조적 동일성에 주목하여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가 온전하게 ‘허구 세계 구성’을 기반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구조로 설정한 ‘유니버스’의 조회 과정이 해석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 텍스트의 분석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소설 이해의 국면이 추출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콜레지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합하게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II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과 허구 세계 발견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가 곧 인물, 서술자, 작가, 독자 등의 중

충적 세계에 대한 인지주의적 서사 읽기라고 하였을 때, 소설 읽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설 언어의 영역이다. 소설 언어는 ‘말’과 ‘인간의 삶’의 동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말이라는 것은 소설의 일차적 수단이자, 삶의 어떤 양식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므로, 말을 찾는 것이 곧 삶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³⁾ 문학뿐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도 언어는 이미 그 사용 주체의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 이상의 것으로 인식된다. 일상 언어에서 소설 언어로의 선택과 변형은 작가에 의한 “말과 말의 질서를 통한 삶”⁴⁾의 재구성이다. 이때 소설 언어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라캉(J. Lacan)에 따르면 “주체의 의도나 진리에 따라 의미 작용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의미 작용에 따라 언어 체계 내에서 주체의 위치가 지정되는 문제”에 가깝다.⁵⁾ 따라서 허구를 이루는 소설적 표현에 대한 감각이 인물의 세계, 작가의 세계, 현실과 독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된다.

뒤프렌(M. Dufrenne)은 모든 작품에는 “하나의 ‘감각물’ (le sensible)로서 재료”가 있고, 이 “감각물을 진술하는 방식에 의해 재재가 선정”된다고 말한다. 재재란 “감각물을 ‘어떤 무엇’으로 이해하여, 대상을 구성하는 의식적 지향작용을 위한 수단”이 되는데, 소설의 언어는 “진술을 통해 ‘사태’를 그려” 내며, “부호로서 기능을 발현”한다.⁶⁾ 다만, 인간적인 사태는 어떤 국면에 가닿느냐에 따라 상이한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그 자체로 애매모호한 대상이다. 이때 작가에 의해 “미적 대상 내에 고도의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표현’”이다.⁷⁾ 표현을 통해 작품은 미적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편을 얻는다. 따라서 독자의 독서 행위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을 통해 누군가의 내적 ‘체험’을 읽어내는 작업이라면, 그 시작은 미감적 반응을 자아내는 소설적 표현에서 소설 언어의 특수성을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은 일종의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분석은 미적 대상이 그 통일성 내에서 자체의 의미와 더불어 포착되

3) 김경순(2017), 「이청준의 소설언어 형상과 치유적 관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5.

4) 이청준(1985), 「집단의 꿈과 개인의 진실」,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p.147.

5) 권택영 편(1999),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p.65.

6) M. Dufrenne(1967), *Phenomenologie de L' experience Esthetique*, 김채현 역(1991), 『미적 체험의 현상학 (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514-534 참조.

7) M. Dufrenne(1967), 위의 책, pp.542-551 참조.

록 하는 것” 이기에, 지각(知覺)으로 되돌아가게 한다.⁸⁾

소설 읽기에서 지각은 언술화된 행위, 누군가의 진술, 어휘나 문장의 연쇄, 이름으로 이루어진 대상물의 나열, 특수한 문체 등에 대한 감각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소설 사태에서 미적 대상물을 선별하고, 이에 내재한 형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독자의 상호 주관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언어사회학서설 쪽은 말의 본질적인 기능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도사람 쪽은 어떤 체험적인 세계를 생각한 것으로서 이 시리즈의 소설이 사실은 <용서>라는 한마디 말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소리를 체험하는 결과로써 얻어지는 용서라는 한 마디는, 폭력으로 변해버린 현대적인 언어 질서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수많은 말 가운데 단 한마디를 찾아내고자 하는 모색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남도 시리즈 속의 한마디는 언어사회학서설 쪽에서 폭력으로 변해버린 말의 가장 자유스런 한 원형을 찾는 것이 되는 셈이지요.”⁹⁾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 독자는 이청준 소설에 대하여 소설 언어에 기초한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용서’라는 단어를 텍스트 이해의 기반으로 삼는데, 이는 소설 읽기 속에서 텍스트 속에 보이는 미결정 부분에 대한 답 찾기의 사례이다. 이는 곧, 텍스트 내 다른 표지들과 연합된 후 일상 언어와의 대조를 통해 의미의 ‘공진(共振)’¹⁰⁾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과 허구 세계의 발견은 가능 세계 서사학에서도 다음과 같이 시도된다.

처음의 몇 문장은 풍부하게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행동이나 움직임에 암시하는 동사(“일했다”, “옷을 입다”, “툭 치다”, “달렸다”)는 일련의 붓질과 같은 허구적 현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려내는 구체화된 몸짓으로 나타납니다. 독자들은 “운동 공명(motor resonance)”이라고 알려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표지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등장

8) M. Dufrenne(1967), 앞의 책, p.556.

9) 김치수(1982), 「이청준과의 대화」,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p.212.

10) 공진은 문학 독서의 주체가 독서 상황에 개입하고, 동기화하며 상상적 체험을 통해 공감적으로 조정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최지현(2007), 「문학 독서의 원리와 방법」,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pp.74-75 참조)

인물의 과거 상호작용의 흔적을 현실과 결합함으로써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자들은 소설의 진술을 통해 허구 세계에 구체화된 본질을 반영하며, 독특한 세계 관념을 자아냅니다. (중략) 지각 패턴이 순수하게 지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¹¹⁾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 전문 독자는 레덤(J. Lethem)의 소설 〈Girl in Landscape(1998)¹²⁾〉의 서두 부분을 통해 허구 세계의 양상을 발견한다. 특히, 몇몇 언술 및 행위 묘사(“행동이나 움직임을 암시하는 동사”)에 주목하여 허구 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표지를 추출한다. 또한, 현실의 맥락과 결합하여 의미 변동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처럼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는, 기존의 서사학에서 제시하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하여 ‘세계’의 양상 측면에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서도 무의식중에 독자 유니버스와의 대조를 통해 가능 세계 중심의 이해를 시도한 것들이 있다. 여기서는 소설 언어 측면에서 이청준 소설에 대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해석 텍스트를 살펴본다.

① 텍스트 대상화를 통한 표지 생성

먼저, 독자는 소설 표현에 주목하여 허구 세계에 대한 텍스트 대상화를 시도한다. 이때는 소설 속에서 표현(언술, 단어, 행위 묘사 등)의 반복된 빈도(frequency), 지속(duration)의 문제라든지 특정 시간, 공간에 대한 묘사, 특정한 행위나 목소리 대한 지칭 등을 포함한다.¹³⁾ 구체적으로는 소설에 표현된 대

11) M. Caracciolo(2019), “Ungrounding Fictional Worlds: An Enactivist Perspective on the ‘Wolrdlikeness’ of Fiction”, A. Bell & M. Ryan(2019), *Possible Worlds Theory And Contemporary Narratolo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124.

12) 〈Girl in Landscape〉는 1998년 발표된 조나단 레덤의 소설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세계를 넘나드는 주인공을 제시하여 서양 문명에 대하여 타자성, 상실이라는 주제 의식을 적용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중층적 세계 구성과 메타픽션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이청준 작품에 대한 해석 텍스트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았다.

13) A. Daisuke(2019), “Narrative structure in the mind: Translating Genette's narrative discourse theory into a cognitive system”, *Cognitive Systems Research* 58, Elsevier Science, pp.345-347 참조.

화, 독백, 서술, 묘사와 같은 진술 방식에 주목할 수 있고, 작품 내의 방언, 계층어와 같은 부수적 표현에 대한 주목도 가능하다.

소설의 서두는 어느 작품에서나 단정적이고 확실한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불확실한, 그래서 소설 속에서 찾아가야 될 상황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의 진정한 의미가 소설의 결말에 가면 완전히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소설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차츰 밝혀질 뿐, 그 상황에 하나의 의미만을 작가가 부여하고 있는 않기 때문이다.¹⁴⁾ (밑줄은 인용자)

인용된 해석 텍스트는 우선 ‘소설의 서두’에서의 진술을 텍스트 유니버스의 전이에 있어 기초로 삼는다. 독자에게 소설 이해는, 이야기에 투영된 ‘화제(topic)’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는 작가에 의도적 선택에 의해서든, 독자가 읽어나가는 중에 수행하는 인지적 선택에 의해서든 어떤 중심이 되는 문제가 선별되어 인식된 것이다. 허구 세계 구성 역시 이야기에 투영된 화제에 대한 선별을 통해 개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아래는 소설 표현의 반복 문제가 서사 표지 생성의 계기를 마련한 사례이다.

(ㄱ) “눈을 뜨자마자 백지 창문이 덜컥 열리면서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가득히 방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강한 불빛이었지요. 불빛 뒤에선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채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왔어요. (중략) 거짓말 마라, 우린 다 알구 왔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누굴 따라간 게 틀림없는데, 따라간 사람이 누구 편이냐는 것이었지요. (중략) 전깃불의 정체만 알 수 있었다면 물론 대답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전깃불의 강한 불빛 때문에 그 뒤에 선 사람이 어느 편인지는 죽어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아 그 전깃불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군요.”

(이청준(1998), 「소문의 벽」, 『소문의 벽』, 열림원. 밑줄은 인용자)

(ㄴ) 소학교 3학년 때 가을. 나는 그 즈음 남몰래 즐기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광에 가득히 쌓아 올린 벚섶 사이에 내 몸이 들어가면 꼭 맞는 틈이 하

14) 김치수(1980), 「언어와 현실의 갈등」,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p.87.

나 나있었다. 나는 거기다 몰래 어머니와 누이들의 속옷을 한 가지 두 가지씩 가져다 깔아 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곳으로 기어들어 생쥐처럼 낮잠을 자곤 했다. (중략) 그런데 어느 날은 거기서 너무 오래 잠이 들어 있다가 아버지가 비춘 전깃불빛을 받고서야 눈을 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광을 나가더니 나를 남겨 둔 채 문에다 자물쇠를 채워 버렸다.

(이청준(1998), 「퇴원」, 『소문의 벽』, 열림원. 밑줄은 인용자)

(c) 한밤중에 웬 전깃불의 환한 빛줄기가 어두운 숲속을 장대처럼 이리저리 훑고 있었다. 빛줄기는 때로 나뭇가지들의 한 곳에서 곧게 고정되고 한 사내의 그림자가 그때마다 나무 위로 올라가 빛줄기의 끝에서 열매를 따듯 잠든 새들을 집어 내렸다 잠결에 빛을 맞은 새들은 눈먼 장님처럼 움짱달짝을 못했다.

(이청준(1998), 「잔인한 도시」, 『소문의 벽』, 열림원. 밑줄은 인용자)

이청준은 《소문의 벽》 연작에서 ‘전깃불’이라는 소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시킨다. 전깃불은 인물의 트라우마적인 체험을 환기하는 소재이자, 인물의 경험 세계를 텍스트의 현실 세계로 복귀시키는 억압의 단초로 이해하는데 매개가 된다. 이렇듯 이야기의 ‘연속’의 문제는 반복되는 서사화와 관련하여, “두 개 혹은 이상의 이야기나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축약거나 연합될 수 있음”¹⁵⁾을 의미한다. 허구 세계 구성에 있어 화제로 선정된 주요 제재는 위의 사례처럼 반복 제시를 통해 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반복 기법과 유사하게 하나의 소재를 ‘연쇄’시켜 다른 가능 세계로 삽입한 사례이다.

어쨌든 민형은 한 편의 소설을 쓴 셈이다. 그것은 내가 전에 직접 보고 들은 자료로 모든 정력을 기울여 써냈던 것 같은 이름의 소설에 비하여, 결말부로 가서는 순전한 민형의 상상력만으로 되어진 작품이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똑같다. 경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그리고 민형은 훌륭한 소설가였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중략) 이제 「매잡이」라는 이름의 소설이 세 편이나 나오게 된 이유가 모두 밝혀진 셈이다. 그리고 이제 민형을 위한 나의 증언을 끝내도 좋을 것 같다. 왜 민형이 그 소설을 처음부터 내게 내밀지 않고 나로 하여금 같은 제목으로 소설을 발표하게 했는가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청준(1993), 「매잡이」, 『시간의 문』, 중원사, 밑줄은 인용자)

15) D. Herman(2003), *Story Logic*,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55-56.

〈매잡이〉에서는 동명의 소설 세 편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제시되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를 취한다. 이 역시 서사 표지로서 소설 쓰기라는 ‘단일 행위’가 연속되는 과정에서 의미 도출의 실마리가 마련된다. 이렇듯 독자는 본격적인 소설의 이해와 해석 작용에 앞서 읽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지를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 마련한다. 소설 이해는 결과적으로 형상화된 텍스트 유니버스와 독자 유니버스 사이의 동시성을 상호 조화하여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최종 과제이다. 이때 상호 조화의 기준으로서 텍스트 혹은 독자의 세계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텍스트 대상화를 통한 표지 생성이다.

② 일상 언어와의 대조를 통한 공진

소설 표현에 주목하여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위한 표지를 마련한 독자는 이어서 해당 표지에 대하여 일상 언어와의 대조를 진행한다. 이는 본격적인 소설 이해의 전-이해(pre-understanding)로서 소설 이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일상 언어와의 대조는 결과적으로 소설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되는 대상, 이야기하는 자, 이야기하는 방식 등에 대하여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상의 언어와 다른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말하기의 성격을 검토하면서 하나의 가능 세계가 발견된다. 이때의 세계는 주로 작가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세계상(世界像)으로 드러나며,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인물, 서술자, 현실, 독자 자신 세계와의 공명을 시도하게 된다.

먼저, 소설 언어는 기본적으로 “자연 언어와 동질적” 이기에 특수한 문법의 구조 형식을 취한다.¹⁶⁾ 이야기의 문법은 인식할 수 있는 문장 조직이 추상적으로 구조화된 표면 구조와 그 이면에서 추상적 형식을 부여하는 심층 구조로 나뉘볼 수 있다. 가령, 〈병신과 머저리〉 속에서 ‘형은 소설을 쓴다.’라는 문장은 하나의 표면 구조를 지니지만, 그 이면에는 ‘형은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소설을 쓴다’ 라든지, ‘형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나와 달리) 소설을 쓴다’ 와 같이 서로 다른 심층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소설의 제한

16) S. Rimmon-Kenan(1983),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1999), 『소설의 현대시학』, 예림기획, p.24.

적인 구조에서부터 서로 다른 텍스트의 대안 세계가 빚어질 수 있는데, 가령 앞의 심층 구조에 해당하는 ‘하지 못한 말이 있는 형’의 경험 세계는 새로운 대안 세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그림그리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기거하는 세계 속에서의 행위, 사건, 가치 문제와 소설을 쓰는 ‘형’의 세계 사이의 교섭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듯 소설 언어에 대한 텍스트적 대상화와 독자 유니버스와의 공진은 독자의 서사적 사고의 발현에 따라 소설 이해의 폭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프라이(N. Frye)는 언어의 용법을 논하면서 인간이 자기가 처한 세계에 대한 의식과 자각을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언어’, 일상에서 수행하는 언어인 ‘실용적 감각의 언어’, 마음속의 모델을 구축하는 ‘문학적 언어’를 서로 구분한다.¹⁷⁾ 독자가 조용하게 되는 소설의 언어는 그중에서 문체를 지닌 문학적 언어에 가까우나, 인물 혹은 서술자로 투영된 작가 의식 표현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주목한 언어적 표지를 일상의 언어, 삶의 언어 등과 대조하면서 심층 구조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의 공진 문제에 대하여 이청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려면 그 정직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그 정직성이 회복되려면 우리들 모두가 설명어의 일방적 창궐과 횡포 앞에 심정적 고백어의 기능과 덕목을 충분히 평가하고 존중해나가는 것이 제대로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근자 어느 때보다도 그 같은 심정적 고백어의 덕목과 그의 필요성을 자주 절감하곤 한다. 하여 나는 설명어를 선호하고 그 힘을 신봉하는(심지어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심정적 고백어의 덕목과 그 힘도 함께 배우기를 희망한다. 심정적 고백어가 무성할 곳일수록 그 속사연과 말의 값을 더욱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 아니 누구보다 어떤 말보다 그들도 먼저 고백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그들의 설명어도 비로소 최소한의 진실을 담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끝이들을(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제3의 현장》에서 그 같은 심정적 고백어의 진실에 한 여자를 감히 순교시킨 것이다.

(이청준(1999), 「공리적 설명어와 심정적 고백어」, 『제3의 현장』, 열림원, 밑줄은 인용자)

17) N. Frye(1963), *Developing Imagin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pp.15-21 참조.

위 인용은 이청준이 《제3의 현장》에 대한 창작 후기에서 고백한 창작 동기이다. 이는 소설 언어의 표현은 공리적 설명어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의 법칙에서 심정적 고백으로서, 즉 자기표현 언어의 회복을 꾀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공리적 언어가 사실관계에 입각한 ‘구속하는 언어’라면, 심정적 고백은 진실 관계에 입각한 ‘감성의 언어’이다.¹⁸⁾ 작가는 이 두 세계의 언어가 서로 공명하는 곳이 허구 세계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미메시스는 독자의 허구적 인식 능력과 독자 유니버스와의 대조를 통한 ‘허구 세계에 대한 발견’에서 시작될 수 있다.

독자는 누구나 자신의 언어 감각을 바탕으로 소설의 언어 운용에 대한 인식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살펴본 대로 소설 언어의 표현은, 허구 세계에 대한 조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모든 전문 독자는 독자로서 자기 세계 속 관념에 부합하는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설 언어의 어딘가에 의도적으로 주목한다. 이렇게 감각된 표지들이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에는 독자 자신의 언어 능력, 언어에 대한 민감도, 문학 언어에 대한 능숙도에 따라 그 심층 구조 속 의미를 헤아리는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결국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소설 언어의 특수성, 소설 표현의 구조적 인식에 관한 교육 내용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설 언어를 통한 세계 발견적 읽기’를 통해, 텍스트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설 문법, 빈도, 반복, 연쇄, 특정 명사의 사용, 어투, 문장이나 역사적 사실의 언급 등 학습 독자가 발견할 수 있는 표지의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시공간의 질서와 허구 세계 재현

소설 표현에 대한 감각을 중심으로 허구 세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한 소설 이해의 국면을 마련한 독자는 이어서 본격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먼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유니버스를 도출하는데, 인물의 행위와 진술을 통해 진행

18) 김근호(2009),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1.

되는 사건에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가닿는다. 따라서 독자는 이야기 가능 세계의 국면이 발생하는 특정한 시공간(Spatiotemporality)을 하나의 속성으로 하여 텍스트 내 표지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시공간은 듀이(J. Dewey)의 경험 예술론을 통해 논의하자면, “모든 작품이 보유하는 통합된 시공간”¹⁹⁾을 의미한다. 이야기 유니버스 속의 시공간은 실재로서 존재하며, 함께 공존하여 작동한다. 이는 독자의 심미적 인식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재료 질성의 것들로서 질성(質成)”을 지니는데, 경험되는 것으로서 시공간은 소설이라는 “실체 속에서 그 질성을 부여” 받는다.²⁰⁾ 독자는 관념적 경험으로서 ‘세계 재현’을 통해 소설의 시공간에 부여된 질성을 인물이나 사건과의 관계 혹은 다른 가능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도출한다.

시공간에 주목한 소설 이해는 독자가 독서 행위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시공간의 중층적 관계 속에서 두드러진다. 이때의 시공간은 개별자로서 인물이 만들어 내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다. 뒤르켐은 재현된 혹은 표현된 시공간으로서 세계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 두기”가 있어야만 “관념적으로나마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본다. 세계는 이야기를 통해 실재하게끔 인식되지만, “정말로 실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²¹⁾ 이는 ‘있음 직한 세계’로서 세계 분위기 혹은 세계감 정도로 인식되는데, 이 분위기는 미적 대상 자체의 분위기로서 내포적으로 밝혀지는 계기이다. 이때 세계에 대한 감각으로서 시공간은 텍스트 안에서 세계 작동의 원리로서 기능한다.²²⁾

독자는 개인, 사회, 문화 등 집단으로 공유하는 감각(독자 유니버스)과 이야기 유니버스의 시공성을 결합하여 서사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의 행위를 포착한다. 따라서 인물과 사건은 어떤 특정한 시공간 질서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인물의 현실 세계로서 제시된다. 그러면서도 작가에 의한 텍스트적 장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적 논리를 지닌 별도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독자에 의한 질성(質性)의 부여를 통해서만 실재하는 시공간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삼중의 중층 구조를 지닌 복합체이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유니버스는 욕망을 은폐하는

19) J. Dewey(1934), *Art as Experience*, 박철홍 역(2016), 『경험으로서 예술 2』, 나남, p.45.

20) J. Dewey(1934), 위의 책, pp.49-56 참조.

21) M. Dufrenne(1967), 위의 책, pp.303-307 참조.

22) 이에 대한 개념은 II장에서 바흐친의 크로노토프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현실의 경유를 회피하여 간접적으로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가능 세계 서사학에서는 이와 같은 속성에 주목하여 소설 이해를 아래와 같이 시도한다.

하나의 동일한 서사가 종종 다른 종류의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복수의 시간성은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로버(The Star Rover)에서 주인공의 부자연스러운 시간 여행은 정신적인 것으로만 회귀될 수 있으므로, 시간 여행 서사에 일반적인 두 가지 다른 차원은 여기서 다른 세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현실 세계에, 다른 하나는 인물의 꿈 같은 사적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은 서사 세계 만들기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서사 이론, 특히 가능 세계 이론은 시간성의 개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중략) 이야기 수준에서 시간적 구성을 강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텍스트 세계의 청사진을 위한 필수 좌표가 되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장한 것처럼, 스타로버에서 허구의 영역을 지배하는 시간적 특이성을 해부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념적 도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²³⁾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잭 런던(J. London)의 단편 〈The Star Rover(1915)²⁴⁾〉에 대한 해석 텍스트의 일부이다. 이때 전문 독자는 소설 세계에 중층적으로 구성된 시공간에 대한 감각을 통해 허구 세계를 구성한다. 먼저, 주인공의 시공간(“주인공의 부자연스러운 시간 여행”)에 주목하여, 이야기 세계의 시간적 구조를 추론한다. 이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외부 시간과 개인적 시간”)의 시공간성이 중첩될 수 있음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구성을 통해 소설의 진행을 이해한다. 특히 본인이 도출한 시공간을 텍스트 현실 세계와 인물의 경험 세계에 직접 대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허구 세계 구성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공간의 질서와 허구 세계 재현’의 이상적인 사례가 된다. 이와 유사하게 이청준 작품에 대한 해석 텍스트에서도 허구

23) C. Bartsch(2019), “Escape into Alternative Worlds and Time(s) in Jack London’s *The Star Rover*”, A. Bell & M. Ryan(2019), 앞의 책, p.179.

24) 〈The Star Rover〉는 1915년 미국의 작가 잭 런던이 발표한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신비주의와 운회의 문제를 다룬다. 주인공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때 ‘재킷’이라는 ‘고문 장치’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전생을 경험하는 세계 이동 체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시공간의 질서가 서로 중첩됨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이는 이청준 소설에서도 종종 시도되는 것이기에 이 해석 텍스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세계 재현의 시도를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의사인 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게 된 후 방에 칩거하면서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은 의료사고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으나 형의 과거 속에 어두운 심연으로 자리잡은 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중략) 문제는 형의 소설이 김 일병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실패하며 그것은 사건의 실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본질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는 소설의 말미를 형과는 다르게 나의 ‘상상력’을 통해 제시한다. (중략) 증언하는 인물에 의해 기술되는 텍스트가 일정 정도 제한된 의미에서이지만 사실의 조각들로 구성되고 그 사실 자체는 의심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소설을 통한 사건의 기록은 그 사실의 조각들이 어떠한 관계로 해석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귀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확실성은 객관화될 수 없다.²⁵⁾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 속 전문 독자는 〈병신과 머저리〉에서 ‘김 일병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주목한다. 소설의 사건은 간접화되기에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주체의 상상력을 통한 노력으로써 재현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재현은 언제나 사실성에 잠재된 ‘빈자리’를 내포하며, 독자는 사건의 진술을 통해 추론하고 이야기 유니버스 속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밖에 없다. 사건의 ‘실재’는 이야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담론 주체에 의해 해석됨으로써 의미를 남길 뿐이다. 따라서 이야기 유니버스에 은폐되거나 부각된 사건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시공간적 감각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배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속 사실의 확실성에 대한 계기를 갖게 된다. 위 사례에서 독자는 ‘과거 형의 의료사고’와 ‘현재 형의 소설 쓰기’를 연관시키기 위해, 실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김 일병의 죽음’이라는 텍스트의 대안 세계를 다시 부각한다. 이 과정에서 ‘나’의 이야기를 대비시키며 ‘김 일병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이면에 놓인 의미 찾기를 시도한다.

이렇듯 중층적 시공간 질서를 바탕으로 세계를 재현해 봄으로써 독자는 여러 사건을 개개의 시공간 계기 안으로 고정하여, 상호 교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독자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공간에 대한 감각을 매개로 사건을 의미화한다. 특히,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공간은 외부 제시와 내부 묘사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

25) 이현석(2007), 「이청준 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1-32.

지며, 텍스트 형상화의 기제는 내부 묘사에 내포되어 있다. 이 내포된 의미 찾기를 통해 독자는 소설 이해를 위한 정보소(Informant)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① 이야기 유니버스의 크로노토프 생성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인물과 사건이 자아내는 세계 속에서 특정한 형상화 기준을 통해 사건을 위계화한다. 이러한 형상화 계기를 하나의 크로노토프라 말할 수 있으며, 크로노토프를 통해 시공간은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사진 기자 출신 작가 유종렬은 자기 사진을 통해 ‘시간의 문’을 열어 보고 싶어 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면서 흐르는, 결코 정지되지 않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작품화된 시간은 언제나 늘 멈춰 있고, 대상과의 공간적인 거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그는 늘 절망한다. 대상과의 ‘두꺼운 거리의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는 자연을 찍든, 사람을 찍든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중략) 하여 결국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던져 벽을 허물고 미래의 시간을 찾아 나선다.²⁶⁾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이 이야기 유니버스의 시공간적 감각을 바탕으로 크로노토프를 형성하는 사례이다.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장면이 펼쳐지는 중요한 지점에 크로노토프가 위치한다는 점에서 위 인용에서는 ‘시간의 문’, ‘사진 찍기’, ‘자기를 던지는 행위(자살)’와의 연관에서 ‘유종렬’이라는 인물의 유니버스가 이해된다. 독자는 ‘사진 찍기’라는 표지에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을 대입하여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이때 텍스트 내에 또 다른 표지인 ‘작품화된 시간’은 늘 ‘멈춰’ 있다. 위 소설 속 ‘유종렬’의 세계에서는 ‘사진 찍기’라는 행위가 시간에 대한 감각이자, 인식될 수 없는 ‘시간’의 문을 여닫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사진 찍기’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주요한 크로노토프로서 기능하며 독자는 찍혀진 사진을 통해 시간성의 변화 계기를 포착한다. 이러한 세계 재현에서는 ‘사진으로 고정된 과거의 시간, 사진을 찍고 있는 현재, 사진 찍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미래의 시간’이라는 정보소

26) 우찬제(1995), 「‘틈’의 고뇌와 종합에의 의지」, 김윤식·박완서 편(1995), 『한국 소설문학대계: 이청준』, 동아출판사, p.755.

가 도출될 수 있다. 이를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공간을 하나의 계기 안으로 엮어내기 위해 ‘죽음’이라는 소재가 선택되며, 이는 소설 이해를 위한 의미소(Sememe)로 전환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도 시공간의 측면에서 도출되는 크로노토프에 천착한 해석 텍스트이다.

여기서 소리는 우선 장인적 가치의 한 최고의 경지이며 놀라운 교감의 세계이다. 그 교감은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 삼십 년 전 “포구에 물이 차오르고 선학동 뒷산 관음봉이 물을 타고 한 마리 비상학으로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할 때” 노인과 그의 눈 먼 어린 딸이 소리를 하면 “선학이 소리를 불러낸 것인지 소리가 선학을 날게 한 것인지 분간을 짓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던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이 년 전 노인의 장성한 딸이 다시 선학동을 찾아와 소리를 하자 이미 마른 땅으로 변해버린 선학동이 “옛날의 포구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 선학이 그곳을 노닐기 시작”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장님 딸이 죽은 아버지의 유골을 암장하기 위해 선학동을 찾아들었다가 남몰래 떠나는 이 두 번째 경우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바 그 소리는 한을 푸는 일에 다름아니다.²⁷⁾ (밀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에서 독자가 주목한 이야기 유니버스의 화소는 ‘소리’, ‘과거의 선학동’, ‘현재의 선학동’, ‘부녀’, ‘노인의 죽음’ 등이다. 여기서 이청준은 ‘소리’라는 표지에 ‘삶을 풀어내는 방식’이라는 양식을 부여한다. 이는 ‘선학동’이라는 장소 표지 속에서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의 이야기 유니버스 속 삶의 변화를 암시한다. 이때 독자가 포착할 수 있는 정보소로는 ‘교감’, ‘선학’, ‘비상학’에서 ‘눈먼’, ‘죽은 아버지’, ‘암장’ 등의 표지가 있다. 이렇게 도출된 정보소를 통해 선학동이라는 공간은 ‘소리’를 매개로 ‘한풀이’의 장소라는 크로노토프를 부여받고, 이는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조회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의미화된 요소들이 누적되면 점차 작품에 대한 해석의 계기가 마련된다.

② 텍스트 유니버스의 중층적 구조 도출

앞서 이야기 유니버스를 통해 여러 정보소를 추출한 독자는 소설의 이야기를

27) 성민엽(1990), 「겹의 삶, 겹의 문학」,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pp.151-152.

소통의 주체인 서술자 혹은 내포 작가의 이야기로 전환하여 이해를 심화한다. 이때 어떠한 계기가 크로노토프로서 인식되느냐에 따라 텍스트 가능 세계의 양상이 달라진다. 크로노토프로서 시공간은 이야기된 공간과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나뉜다. 이야기 유니버스의 공간이 이야기된 공간이었다면, 텍스트 유니버스는 이야기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텍스트 유니버스를 이루는 인물 개개의 경험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큰 삶 혹은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중층 구조로 이루어진 텍스트 유니버스는 항상 다른 가능 세계에 의해 조직되고, 조직된 결과로 존재하게 된다.

그의 소설에서는 한 인물이 자신의 사고 질서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들에게 관찰당하고, 그 관찰의 결과가 종합됨으로써 존재할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작가는 한 인물에게 합당하다고 알려진 의식 체계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 인물을 둘러싼 관찰·보고를 종합함으로써 그를 존재하게 한다. 그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그런 의미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다.²⁸⁾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이청준 소설에 대하여 중층적 구조에 주목하여 텍스트 유니버스의 존재 양상을 탁월하게 설명한 사례이다. 모든 소설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으나, 서술자의 역할을 사건과 분리함으로써 텍스트 유니버스를 중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령, 이중구조의 텍스트에서 서술자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며,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추적할 뿐이다. 텍스트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가려져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줌으로써 인물의 경험 세계와 서술자의 경험 세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 이때 독자의 위치가 중요하며, 독자는 서술자와 세계 사이의 틈을 메우는 읽기를 통해 각각의 가능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종합할 수 있다.

반면, 서술자의 세계가 묘사되지 않는 경우 독자는 인물의 경험 세계의 우열을 가르기 위해 위계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독자 스스로 그려낸 일정한 인식의 궤도에서 텍스트 유니버스는 여러 세계로 중첩되어 구성된다. 이청준은 이런 중층적 구조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작가이다. 작가의 설명을 통해 중층적

28) 김현(1979), 「장인의 고뇌」,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p.163.

구조에서 세계 구성의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이때 안쪽에 담겨진 이야기는 대개 평면적 스토리의 전개로 한 인간의 경험과 삶의 태도에 관한 유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것과의 교유와 관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반성과 평가의 역을 수행해나가는 시선을 또 하나 바깥에 마련한다. 바깥에 마련된 관찰자의 시선은 그러니까 그 안쪽에 진술된 일회적이고 평면적인 경험의 유형을 최종적 진실로 확정지으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고 시험하며 반성하는 역할의 수행자로서 마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선은 언제나 일회적 경험에 대해서는 불신과 의심을 일삼는 부정적 태도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곧 그 지식가의 일회적 경험을 작가 자신과 독자들 공유의 총체적 세계안으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으로서 그 자신의 최종적인 판단을 겸손하게 유보해 버리는 자세를 취해 보인다.

(이청준(1978), 『작가의 작은 손』, 열화당.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텍스트 유니버스를 구성할 때 독자의 공유 지점이 주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소설 시공간의 복수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독자 유니버스-텍스트 유니버스-재구성된 독자 유니버스’ 사이에서 삼중의 미메시스를 작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²⁹⁾ 한편, 여러 이야기 유니버스 속에서 하나의 크로노토프가 상존하며 세계 구성 경쟁을 하는 구도도 발견된다.

「소문의 벽」의 주인공 박준은 자신이 보낸 소설들이 계속해서 잡지에 실리지 않자 끝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다.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배 체제에 대한 공포가 소문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벽이 되어, 창작자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세상에서 박준은 “진술공포증”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준은 「퇴원」의 ‘나’와 「조만득 씨」의 조만득처럼 병원으로 도피한다. 「소문의 벽」의 김 박사는 「조만득 씨」의 민 박사처럼 환자를 치유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명의식에

29) 반면, 이청준 소설의 중층 구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해석 텍스트도 있다. “이 씨가 이 작품(「매잡이」)에서 사용한 중층적 구조는 주제의 집요한 추구가 언제나 제공해 주는 박력을 치명적으로 둔화시킨다. 억지로 꾸민 듯싶은 복잡한 복선은 작중 상황의 어설픈 신비화에 기여할 뿐이며 그것은 결국 작품의 기본의도를 흐리게 하고 있다.” (염무웅, 「7월의 作壇-소설」, 『경향신문』, 1968년 7월 17일) 다만, 이는 작가의 의도에 대한 비판일 뿐, 이 해석 텍스트에서조차 독자 스스로 자신의 유니버스와 텍스트의 현실 세계 맥락을 대조하여, 텍스트 유니버스의 구조를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체의 의심을 거두고 그를 치료하지만, 그 결과는 「조만득 씨」와 일치한다. 그러나 「조만득 씨」에서 병원을 퇴원한 조만득은 존속살인을 저지르지만, 「소문의 벽」에서 병원을 나간 박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는다.³⁰⁾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은 이청준의 여러 텍스트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병원’이라는 표지에 주목한 상호텍스트적인 해석이다. 이때 각 세계(〈퇴원〉의 ‘나’의 세계, ‘조만득’의 세계, ‘박준’의 세계)는 자율적이면서도, 작가의 의미 지향성에 의해, 더 큰 전체로 수렴된다. 물론, 이는 상호텍스트적 공진을 시도할 수 있는 전문 독자의 사례이겠으나,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는 크로노토프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세계 시공간을 중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인용도 유사한 접근을 보인다.

축제에 들어가는 사람은 본래의 세속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의례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죽어 있는 신성한 시간 동안 그는 다른 모든 이들과 진정한 우정과 평등성을 획득하고 일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순간 시간의 흐름은 멈춰서고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곧 그는 현실적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 일상의 세속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의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의 삶과 그 상황을 거쳐 나온 개인의 삶의 양태는 많은 차이를 갖는다.³¹⁾ (밑줄은 인용자)

텍스트를 창작하는 경험 주체의 입장에서는 인물과 세계의 지평에 관해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된다.³²⁾ 역으로 독자 역시 인물의 과거 행적과 미래의 삶을 그려보아야 하며, 인물들의 세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텍스트 유니버스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비록 한 명의 인물에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단편의 경우에서도 텍스트 유니버스에 파생되는 여러 갈래의 삶의 영역을 추론하여 대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에 내재한 복수의 이야기 유니버스는 독자의 인지 과

30) 김남혁(2013), 「이청준 소설 연구: 자유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0.

31) 이경재(2019), 「이청준의 『축제』에 나타난 축제의 복합적 성격 연구」, 『어문학』 145, 한국어문학회, p.321.

32) 김근호(2009), 앞의 글, p.131.

정에서 무한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 유니버스를 규정하기 위해 독자는 자기 유니버스와의 조응을 시도해야 한다.

③ 독자 유니버스와의 조응을 통한 서사성 검토

앞서 보았듯,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도출된 크로노토프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복수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독자는 가능 세계 사이의 경쟁을 통해 허구 세계를 구성한다. 이때 세계 간 교섭을 통해 주도성을 확보한 크로노토프 양상이 텍스트 유니버스로 채택된다. 전문 독자는 소설 언어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을 도출하고, 허구 세계에 관여하는 여러 가능 세계 양상을 분별함으로써 허구 세계를 중층적으로 인식한다. 텍스트 유니버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세계 영역을 포착하는 계기는, 주로 현실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반영론적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이청준의 「공범」은 최일병 사건과 그를 구명하기 위한 여류 문인들과 언론의 활동을 소재로 삼고 있다. 실제 사건이 가공적 사실처럼 보이도록 이청준은 인물, 배경, 사건에 대한 세목을 다르게 서술했다. 서울대 문리대 천문학과를 다니던 최영오 일병은 소설에서 M 대학에 재학 중 학보병으로 입대한 김효 일병으로 등장하고, 사건이 있었던 1962년의 시간은 “195X년 9월의 어느 날”로 표기되며, 그를 구명하고자 했던 여류 작가들은 “여류 소설가이며 어머니회 회장인 K 여사”로 서술되고, 당시 대법원 판결 이상의 최종 판결권을 지녔던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대통령 L 노인’으로 표현된다.³³⁾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는 이청준의 〈공범〉에서 드러나는 텍스트 유니버스를 텍스트 바깥의 독자 유니버스와 조응시키고자 한다. 소설 속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표지(‘M 대학’, ‘학보병’, ‘여류 소설가’, ‘대통령’)를 통해 독자는 텍스트의 현실이 실제 사건을 반영한 것임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독법에는 ‘최 일병 사건’이라는 현실 사건이 텍스트의 현실 세계와 텍스트의 경험 세계(‘김효 일병’, ‘K 여사’, ‘L 노인’의 이야기 가능 세계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1960년대 ‘최 일병

33) 김남혁(2013), 앞의 글, p.47.

사건'에 대한 독자 자기의 경험 혹은 현실 사이에서 세계 경쟁을 발생시킨다.

이때 독자에 의한 허구 세계의 정보소 추출과 의미소 전환은 '주관적 확실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젝(S. Žizek)은 의심에 속박된 확실성으로서 "일상적인 진위의 기준, 앎과 무지의 기준에 적용되는 사태의 문제"를 '주관적 확실성'이라 정의한다. 반면, '객관적 확실성'은 하나의 현실 감각에 의존하는 일상의 태도를 통해 제시되는 것으로, "언제나, 거기에, 이미 있다고 동의된 것"이다.³⁴⁾ 독자의 소설 이해에는 객관적 확실성을 담보하는 세계 체계와의 조응을 통해 주관적 확실성이 객관성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재현이 완성되며, 독자는 허구 세계 구성의 기초로 작용할 소설의 서사성에 대한 감각을 획득한다.

(3) 참여자의 견해와 허구 세계 판단

다음은 참여자의 국면에 주목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이다.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중심이 되는 화자의 목소리를 서술자로 채택하고, 이 목소리를 통해 서사를 인식한다. 이야기 유니버스에 중첩된 목소리 중 발화의 힘이 가장 강한 목소리를 선택하여 그 인물의 세계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초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점화는 재중심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야기 유니버스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정보를 독자 유니버스와의 공유 지점을 바탕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서술자의 행위와 진술에 대한 독자 나름의 판단을 수행한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서술자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경우 서사 기법 측면에서 은폐된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도 판단의 내용이 된다. 이를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서술자 위상이 재조정되고, 그 결과 독자 유니버스의 재형상화가 시작된다.

허구 세계 참여자 측면에서의 소설 이해는, 주로 서술자 경험 세계를 통해 제시된 '보여주기'와 '말해주기'에 대한 객관적 거리 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독자는 관조적으로 서술자의 경험 세계를 조망한다. 이는 텍스트 유니

34) S. Žizek(1955), *Ils ne savent pas ce qu'ils font*, 박정수 역(2004), 『그들은 자기
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pp.350-352 참조.

버스를 구성하는 지식이나 믿음 일반에 대한 주관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주목하는 참여자의 목소리에는 경험 세계에 대한 ‘견해 (Ansicht)’가 담긴다. 인가르텐(R. Ingarden)은 “텍스트를 지각할 때 수용자의 견해가 반영”된다고 본다. 즉, 독자 개개의 견해는 텍스트의 경험 세계와 결합하여 재구성된다.³⁵⁾ 특히, 문학 작품에는 도식화된 견해가 존재하며, 서술자의 세계는 이 도식화된 견해에 지배하에 놓인다. 서술자의 인격적 정체성이 이 도식화된 개념과 상충할 때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서술자 세계의 지배 견해와 독자 유니버스의 지배 견해를 상호 대조하면서, 중층적 세계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유니버스의 꺾진성을 판단한다. 가능 세계 서사학에서도 다중 목소리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계 내 참여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허구 세계 구성을 시도하며, 아래가 그 사례이다.

스코틀랜드 작가 알리 스미스의 소설 〈The Accidental(2005)〉에서는 인물과 서술자로서 앰버(가명으로 알함브라)라는 모호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 ‘처음’, ‘중간’, ‘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분에서 스마트 가족의 네 명 구성원에 의해 광범위한 간접 발화가 3인칭 서술로 구성됩니다. (중략) 예를 들어 이브 스마트의 발화에서 그녀의 독백은 면접관으로서의 목소리와 1인칭 주인공으로서의 목소리로 분별됩니다. 이러한 정교한 전략은 비평가들로 하여금 이 소설이 한 명의 화자에 의한 서술인지 다섯 명의 서로 다른 서사적 목소리에 의한 것인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소설은 앰버(알함브라)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통해 몰입됩니다. (중략) 이러한 서사의 진술은 독자로 하여금 알함브라를 서술자와 동일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 인용된 독백과 같이 자유로운 간접 발화를 가진 등장인물의 진술은 매개된 것으로서의 목소리를 드러냅니다.³⁶⁾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알리 스미스(A. Smith)의 〈The Accidental(2005)³⁷⁾〉에 대한 해석

35) R. Ingarden(1965), *Das literarische Kunstwerk*, 이동승 역(1985), 『문학예술작품』, 민음사, pp.289-300 참조.

36) M. Grishakova(2019), “Interfere Ontologies: On The Possible, Virutal, and Hypothetical in Fiction”, A. Bell & M. Ryan(2019), 앞의 책, p.93.

37) 〈The Accidental(2005)〉은 스코틀랜드 작가 알리 스미스의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인물의 비밀스러운 정체성과 숨겨진 내면을 중층적인 목소리로 서술한다. 의도적으로 제시된 서술상의 모호성이 작품의 여러 의미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이청준의 작품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해당 해석 텍스트를 유사한 사례로 제시한다.

텍스트이다. 전문 독자는 허구 세계 참여자의 목소리 중에서 힘을 지닌 목소리를 분별한다. 다만, 이 작품의 서술자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정되었기에 어떤 목소리를 서술자의 것으로 판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 구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작업은 본 연구에서 제기한 참여자의 견해에 대한 감각을 통해 허구 세계를 판단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술자의 위상을 독자 스스로 조정하면서 허구 세계 구성의 다양한 가능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설 이해는 가능 세계 서사학의 관점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청준의 작품에 대한 해석 텍스트에서도 유사하게 참여자의 견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통해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다.

시대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청준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집단의 꿈과 개인적 진실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의 꿈은 깊은 개인의 진실에서 꿈꾸어진 소망을 통하여 도달되며 그 꿈의 조화와 총화로써 비로소 화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술이 그것을 분명히 해준다. (중략) 이 대목에서 그는 다시 한번 전체주의적인 경험과 엄정한 선을 긋고 개인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기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³⁸⁾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서술자의 경험 세계 속 견해가 독자 유니버스의 지배 견해와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텍스트 유니버스에는 서술자 개인의 세계, 인물 개인의 세계, 작가의 세계, 텍스트 내에 공유되는 세계 등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소설에는 텍스트의 현실 세계가 자기 반영적으로 반복되는데, 이청준 소설에서는 자의식의 배후에 의문을 품는 시선이 빈번하게 마련된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 외적으로 또 다른 가능 세계를 비계로 하여 소설에 투영된 “자기 반영적 세계를 허물고, 재창조하는 기회”를 얻는다.³⁹⁾ 이를 통해 허구 세계를 독자적인 세계로 재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세계 견해는 저항과 관조의 태도로 이루어진다.

38) 우찬제(1995), 「자유의 질서, 말의 꿈, 반성적 탐색」,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p.215.

39) 호창수(2023b), 「메타픽션 읽기의 문학교육적 가능성」, 『국어교육연구』 83, 국어교육학회(since1969), p.343.

① 이야기 유니버스의 중개자 탐색

이야기 유니버스를 통해 말해진 것 중에는 이미 말해진 것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는 담론을 형성하는 기제가 되는데, 독자는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얼마나 개입하는지, 혹은 독자에게 어떤 윤리적 견해를 지향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담론 형성 기제를 발견한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천남석과 이어도라는 어떤 징후가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양주호가 있고 이들을 취재하는 선우 중위가 있다. 자신이 속한 상황을 떠나고픈 갈망이 막상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에 되돌아오고픈 갈망으로 바뀌는 애증의 모순성, 이런 징후를 증거하는 양주호의 직관과 그가 선우 중위에게 보여주려는 진실에 이르는 길, 이에 비하여 가시적 현상에 매달려 사실에만 집착하려는 선우 중위의 한계 (“사실애의 봉사는 언제나 중위를 즐겁게 했다”) 등, 얼핏 천남석을 주인공으로 보게 되는 독자의 성급한 시선은 무대의 조명을 중층 구조의 사이로 비출 때 어떤 사건을 취재하며 이에 대응하는 선우 중위의 인간적 한계에 머무르게 된다.⁴⁰⁾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이청준의 <이어도>에 대한 전문 독자의 해석이며, 이야기 유니버스 중개자 탐색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크로노토프를 ‘이어도’라는 공간으로 한정하고, 이곳에서의 사건, 진술에 있어 중심이 되는 목소리를 구별한다. 이야기 유니버스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 (‘천남석’ , ‘양주호’ , ‘선우 중위’)는 서로 다른 세계 견해를 제시하는데, 독자는 이들 목소리 사이의 대조를 통해 어떤 목소리를 중개자로 선별할지를 판단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중개자의 탐색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이청준이 『당신들의 천국』에서 조백현을 이상욱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소설적 분위기에 젖어 있는 독자들에게 야릇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그의 중요한 중·장편소설은 대개 지식인을 그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그때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회의나 불안을 통해 그가 비평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순 그 자체가 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당신들의 천국』에서도 그런 그의 지식인 유형에 꼭 일치되는 한 인

40) 권택영(1988), 「이청준 소설의 중층 구조」,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p.171.

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상옥이라는 병원 보건과장이다. (중략)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현대 예술이 보여주어야 할 인간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청준이 이상옥을 『당신들의 천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조백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제목을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붙인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중략) 소록도에 진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천국은 환자들의 자생적 운명에 근거한 힘의 행사, 자유와 사랑에 기초한 힘의 행사에 의한 천국이다. 그 천국은 이상옥까지를 포함한 환자들 모두의, 일인칭 복수 우리들의 천국이다.⁴¹⁾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는 소설의 제목이라는 표지를 통해 추출한 정보소를 기반으로 이야기 유니버스를 주도하는 두 인물(‘조백현’, ‘이상옥’)의 위상을 비교한다. 특히, ‘조백현’이 아닌 ‘이상옥’이 서술자로서 기능하는 텍스트 대안 세계를 제시하면서, ‘병원’, ‘천국’, ‘소록도’를 중심으로 크로노토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조백현’의 세계 견해가 더 적합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허구 세계에 관한 판단은 본 연구에서 학습 독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도출하는 데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텍스트 유니버스를 관통하는 목소리의 문제는 결국 ‘있음 직함’(핍진성)에서 ‘그럴 법함’(개연성)이라는 판단의 확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목소리의 조직 문제에 가닿는 것으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한 텍스트 현실 세계의 진실함, 즉 핍진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② 텍스트 유니버스의 서술자 위상 조정

이야기 유니버스의 주요한 중개자로 추출된 서술자는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설 때 텍스트 유니버스의 주체로서 위상을 부여받는다. 서술자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는 허구적 참의 문제, 즉 허구적 세계 안의 논리에 따라서 참일 때를 말한다. 독자는 상상하기를 통해 허구에 참여한다. 이때 상상하기는 실제로 참인 것은 아니지만, 허구 안에서는 참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독자가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텍스트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서술자의 견해를 통해 텍스트 경험 세계를 조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텍스트 유니버스의 인물에 대한 감각은, 그 인물이 실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허구

41) 김현(1991),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 『이청준론』, 삼인행, pp.239-240.

세계 안에서 그 인물과 그 사건을 보고, 그 일을 겪었으리라 ‘믿는 체하기’를 통해 상상하는 것이다.⁴²⁾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서술자의 위상을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허구 세계의 의미 전달자로서 서술자는, 그 자신의 많은 면을 인물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위상을 지닌 절대자처럼 말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간주하는 것을 진술하고, 등장인물이 모른다고 간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어떤 경우에는 “서술자가 그 인물이 어떤 인식론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그 인식론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⁴³⁾ 이는 텍스트 유니버스에서 서술자의 위상이 생각보다 공고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감각은 이청준의 작가 노트를 통해서도 발견된다.

나는 한 편의 소설이 그것을 읽은 사람의 입장이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인용되어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인용의 폭이 넓을수록 그 작품은 보다 다면적인 진실의 결정체로 평가되어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이청준(1978), 「고통의 문학」, 『작가의 작은손』, 열화당. 밑줄은 인용자)

이청준은 스스로 텍스트에 절대적 서술자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독자 유니버스에 따라 언제든지 그 의미가 변형될 수 있는 것, 아니면 복수의 세계 관념에 따라 다성성을 이룰 때가 텍스트 유니버스 이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청준은 많은 작품에서 이야기 밖에서 다른 사람의 세계를 전달하는 형태로 서술자를 채택하여 텍스트 유니버스 내에서 목소리의 분별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독자는 허구 세계의 참여자에 대한 ‘믿는 체하기’를 통해 그들의 진술과 행위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 내에서 독자의 복수적 소통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는 ‘서술자의 제한된 지식’, ‘서술자 개인의 문제 진술’, ‘서술자의 문제가 있는 가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⁴⁴⁾ 이는 서술자의 나이, 서술자의 진술 방식, 서술자의 왜곡된 견해 등과

42) 앞서 II장에서 월튼(K. Walton)의 믿는 체하기를 통한 허구적 인식 능력을 논의하였다.

43) K. Walton(1990), *Mimesis as Make-Believe*, 양민정 역(2019), 『미메시스: 믿는 체하기로서의 예술』, 북코리아, pp.524-525.

44) S. Rimmon-Kenan(1983), 앞의 책, pp.177-178.

연결된다. 아래는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를 작가 자신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85년 초고를 쓴 1부는 몇 차례 손질 끝에 1988년 가을 상재(上梓)의 고(苦)를 치렀으나, 뒤에 다시 읽어보니 화자의 과도한 정보 독점으로 하여 이야기에 불필요한 혼란과 짜증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2부를 상재하는 김에 1부 내용에도 새로 적절한 정보 배분의 통로를 마련하였는바, 당초에 시도한 ‘비극적인 깨달음과 구원의 구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글의 ‘쉬운 읽힘’에도 상당한 도움과 편의를 더하게 되었기를 소망해본다.

(이청준(1991), 「작가의 말」, 『인간인』, 문학과지성사.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 이청준은 화자의 과도한 정보 독점 역시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에 가닿는다고 판단한다. 이는 독자뿐 아니라 작가도 또 하나의 독자로서 텍스트 경험 세계를 다시 조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텍스트 유니버스는 그 자체로 실재하는 가능 세계이기에 이 세계를 관장하는 서술자의 견해 문제는 소설 이해에 핵심이 된다. 다만, 이때 신뢰성 문제를 허구 세계 구성을 통한 소설 이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화제가 되어야 한다. 여태까지 소설 교육에서는 수사에 대한 감각, 서사 소통의 관점에서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굳이 서술자의 위상 문제를 재차 호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소설을 소설답게 읽는 방법이 허구 세계에 대한 감각을 독자 자신의 가능 세계로서 구상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는 허구에 대한 인식, 허구적 상상(믿는 체하기)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소설 언어로 이루어진 서사 장치는 모두 독자의 인지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훈련을 통해 소설을 기호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③ 독자 유니버스와의 접점을 통한 뫼비우스성 추론

허구 세계의 구성자로서 독자는 스스로 믿는 체하기를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의 문제를 자신의 현실 세계 문제로 끌어들인다. 이때 텍스트 유니버스 내 사건의 작동 원리는 독자 유니버스의 리얼리티를 형성하는 기체로서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텍스트 유니버스의 서술자가 매개하는 세계의 양상에서 독자가 리얼리

티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구 세계의 뽀진성이 보장된다. 독자는 이러한 세계 판단을 통해 자신의 유니버스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텍스트 현실 세계를 믿는 채하며 허구 세계의 뽀진성을 확보한 사례이다.

‘나’의 이 ‘무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이청준과 더불어 낯도 사람으로 태어날 필요는 없다. 뽀기밭 머리의 ‘지게터’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산과 바다의 품안에서, 푸나무꾼들의 노랫가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야만 할 필요도 없다. 1950년대 및 60년대에 고향과 자연과 어머니를 떠나 각박한 도회지 거리를 유랑하며 가난과 독재의 이중고에 시달렸어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는 “생활하는 자는 창작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⁴⁵⁾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에서 독자는 텍스트에 서술된 보여주기와 말해주기에 대하여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 채로 관조적으로 서술자를 인식한다. 즉,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지식이나 믿음 일반에 대한 객관적 추적을 시도하는 것이다. 전문 독자는 인물, 인물 간 관계, 서술자, 시공간, 사건, 인과관계, 작가 등 텍스트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지식이나 믿음 일반에 대한 객관적 추적을 시도한다. 이때 독자 유니버스와의 접점을 통해 허구 세계에서의 인식을 수행한다. 따라서 능동적 독자는 텍스트 대안 세계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징후적 읽기를 시도하게 된다. 징후적 읽기로서 텍스트 유니버스의 뽀진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독자 스스로 서술자에 의해 말해지지 않은 틈을 찾고 의미화를 시도하는 것이 있다. 다음의 사례는 틈 메우기를 진행한 해석 텍스트 사례이다.

천남석은 어째서 섬을 발견하지 못하냐 왜재를 불렀을까? 그 대답은 천남석이 선우 중위네 작전을 망쳐 놓았고, 그 작전에서 섬을 구해 냈다는 양주호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천남석은 이어도를 현실에서 찾으려는 섬 수색 작전을 망쳐 놓았다. 그는 처음부터 섬을 찾으려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알다시피 섬이 현실에 실재한다면 구원은 부재할 것이기 때문이다.⁴⁶⁾ (밑줄은 인용자)

작가는 짐짓 판청을 부리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천남석은 이어도에 도달했다. 그가

45) 안삼환(1988), 「‘빛새’로 유랑하기/ ‘나무’로 서 있기」,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pp.247-248.

46) 이윤옥(2005), 『다시 태어나는 말』, 문이당, p.190.

제주도로 돌아온 것은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다. 제주도가 이어도이고 이어도가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섬이 섬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알면서도 섬이 섬 밖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죽어서 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섬 안의 섬을 보고, 그 섬을 몸으로 사는 사람들만 살아서 두 섬을 넘나들 수 있다. 양주호와 ‘이어도’의 여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매일 이어도에 갔다 돌아온다.⁴⁷⁾ (밑줄은 인용자)

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선우 중위’에게 ‘천남석’은 여러 의문을 자아내는 존재이다. 독자 역시 이 대목에서 예상치 못했던 ‘천남석’의 반응에 의문을 품게 된다. 제주도민에게 이어도의 존재는 실재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재함으로써 실존하는 심리적 실재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필자가 소설적 알레고리에 익숙한 전문 독자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으나, 세계 판단의 핵심은 독자 유니버스에 합의된 리얼리티 기준에 따라 허구적으로 참이 되었을 때 허구 세계의 필진성이 부여된다는 것에 있다. 즉, 학습 독자가 수행한 서술자의 위상 검토를 통해 독자가 체험하는 허구 세계의 양상이 현실 세계나 문학 규범, 문화적 관습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면, 허구 세계 구성에 있어 리얼리티와 필진성을 판단하는 소설 읽기가 가능해진다.

(4) 담론의 구조와 허구 세계 성찰

서사 텍스트는 이중의 언어 작동을 통해 담론화된 언어를 생성한다. 이때 담론화는 텍스트 구조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독자가 허구 세계의 플롯을 구성하는 양상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플롯은 고정되어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독자의 정신 활동에 의해 구성되며, 작가의 정신 활동이 플롯의 정교한 패턴을 통해 예고된다.”⁴⁸⁾라고 보는 쿠코넨(K. Kukkonen)의 논의에 따라 독자들이 소설의 즐거움을 서술하는 장면에서 구성적 플롯의 양상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즐거워한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사건 중 핵심이 되는 사건을 추출해 서사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같은 작품을 두고 서로 다른 독자가 어떤 즐거움을

47) 이윤옥(2005), 앞의 글, p.199.

48) 정보미(2019), 『플롯 중심의 고전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5.

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독자의 재중심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독자 유니버스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사례가 된다.

또한, 플롯은 점진적인 구조화로서 이야기의 사건과 원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이음새를 지각할 때 고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과 사건 사이, 인물의 행위 사이, 인물의 진술 사이의 인과를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서사적 장치인 플롯에 대하여, 독자가 그 이상의 의미로 인과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과의 조직에 주목한 독자의 읽기 양상을 통해 어떤 논리적 배열과 구조가 세계 체계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힌다. 이는 독자가 ‘개연성’을 판단하는 방편이 된다. 허구 세계가 하나의 가능 세계로서 실재할 수 있는 것은 필진성과 개연성 때문일 것이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학습 독자의 유니버스 재형상화에 있어 중요한 작동 기제가 된다.

① 이야기 유니버스 내 사건의 선택과 강조

앞서 이야기 유니버스에는 다양한 가능 세계의 시공간이 중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시공간은 세계의 다층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공간은 여러 주체에 의해 다르게 존재하고,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이질적인 세계 간의 중층적 결합이다. 이때 플롯은 세계의 작동 원리로서 여러 가능 세계 중 가장 지배적인 하나를 택하여 텍스트 유니버스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선택된 텍스트 유니버스의 작동 원리를 구심력으로 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 유니버스는 하나의 견해로 혼용된다.

독자는 소설 텍스트에서 접하게 되는 사건을 가늠하여 의미화 작용에 필요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표상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서사 플롯을 형성하는 요소를 ‘핵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조적(線條的)으로 배열해 냄으로써 서사를 완성한다. 줄거리가 곧 행동의 재현이라면, ‘무엇에 의해’에 해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된다.⁴⁹⁾ 이는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우위에 두는

49) 앞서 살펴본 리코르의 미메시스를 줄거리 구성으로 본다면, 재현 행위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구상적(具象的) 작품 속에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한다. (P. Ricoeur(1983), *Temps et Récit, Tome 1: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김한식 외 역(1999),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p.85)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핵 사건이며 플롯을 끝어나가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대상이 ‘주변 사건’이다.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사건에 대하여 이청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설 기술상 소설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편의 소설에서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여러 정보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소설의 구성이란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략) 아무튼 이렇게 보면 소설이란 정보를 배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⁵⁰⁾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 보듯 이야기 유니버스에는 이미 작가에 의해 부여된 핵 사건과 주변 사건의 구분이 암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핵 사건이 대부분 서술자를 통한 텍스트 유니버스로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다만, 허구 세계 구성의 측면에서 독자는 다양한 대안 세계를 전제하여, 작가적 입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들이 과연 같은 사건을 놓고 같은 수준의 우열 판단을 하는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미 존재하는 플롯에 대한 탐색, 독자가 스스로 탐색한 플롯, 독자 유니버스의 마스터 플롯과의 대조를 통해 중층적인 플롯 재구성, 즉 플롯 다시 쓰기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독자가 세계의 플롯을 어떻게 중층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이청준의 〈비화밀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독자들이 어떤 점을 줄거리로 선정하여, 소설 이해를 시도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ㄱ) 「비화밀교」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묻는 소설이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돈과 권력의 지식인 것 같다. 많은 돈과 강한 권력과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그만큼의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 대다수는 그 힘을 믿고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믿는다.⁵¹⁾ (밑줄은 인용자)

(ㄴ) 「비화밀교」는 허물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화해의 조율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한 일종의 제의적인 소설이다. 남도의 작은 도시에는 대략

50) 권오룡·이청준(1999), 「대담: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p.29.

51) 이윤옥(2023), 『이청준 평전』, 문학과지성사, p.400.

동학 무렵부터일 것이라고 짐작되는 기이한 풍속이 전해져 내려온다. 선달 그믐날 밤에 그 도시의 안쪽 변두리에 있는 제왕봉 정상에 분지에 올라 불놀이를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서는 신분이나 성별, 노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의 지난 허물을 피차 용서하고 받아들인다.(이는 ‘우리들끼리의 용서’, ‘그 용서를 통한 서로의 하나됨’, ‘그 함께함으로부터의 모종의 힘의 탄생’ 등의 표현으로 제시된다.) 이 같은 화해의 제의는,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제의가 끝나면 그 누구도 발설할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이다.⁵²⁾ (밑줄은 인용자)

(ㄷ) 「비화밀교」 역시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작품은 증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서를 내용으로 하는 제왕봉에서의 제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이 세상에 작용한다. (중략) 그 소망과 힘의 내용은 용서이다. 제왕봉의 제의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의 자리인 것이다. 이 용서는 공동체적 용서인바, 말하자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사랑과 용서로써 해소하는 공동체적 장치인 셈이다.⁵³⁾ (밑줄은 인용자)

인용된 세 가지의 해석 텍스트는 모두 〈비화밀교〉에 대한 비평에서 첫 단락에 제시된 것들이다. 세 텍스트는 전문 독자의 평론이기에 그 의미론적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였고, 결론에 이르면 문제 제기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러 의미론적 가능성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 사건으로 인식하여 서두에 제시하였는지, 또 어떤 과정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거쳤는지에 집중해 본다. 인용된 대목만을 봤을 때, 세 독자가 소설 언어의 정보소를 통해 도출한 핵심 용어는 각각 ‘보이지 않는 힘’, ‘화해의 조율’, ‘용서’이다. (ㄱ)의 경우에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독자 세계 체계의 핵심으로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탐색이자 비판적 문제 제기의 과정에서 텍스트를 읽는다. (ㄴ)의 경우에는 이 소설의 제목에 집중하여 ‘비화’, ‘밀교’라는 행위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ㄱ)과 (ㄴ)·(ㄷ) 사이에 다소 차이가 보이는데, (ㄱ)은 텍스트 화소나 사건의 나열을 통한 줄거리 요약보다는 문제의식을 통한 줄거리 요약을 택한다. 이는 독자 세계 체계의 문제의식, 즉 독자 유니버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동시성의 공유를 시도하는

52) 우찬제(1995), 앞의 글, p.757.

53) 성민엽(1990), 앞의 글, p.156.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은밀한 고발이라는 플롯에 내재한 기저 욕망의 논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ㄴ), (ㄷ)은 플롯의 표층적 요인인 사건의 배열, 인과의 조직, 이를 통한 의미론적 접근이라는 전통의 방식을 취한다.

(ㄷ)은 (ㄴ)과 유사하게 밀교라는 용어를 통해 ‘제의’의 성격에 집중하여 텍스트 인식을 시도하는데, 이 둘에서는 ‘용서하기’라는 행위소가 유사하게 포착되나, 그 범위에 있어 (ㄴ)은 ‘참석한 사람들만이’ 아는 행위임에 주목하고, (ㄷ)에서는 이를 통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확장하여 이해를 시도한다. 물론 (ㄴ)에서도 중반부에서는 ‘화해의 조율’이 범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만, 세계 자체에 대한 첫 감각, 즉 인식의 계기로서 사건의 배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해석 텍스트 창작 기법상의 문제이자, 서두를 작성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학습 독자를 위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방법을 고안하는 데 있어, (ㄱ)과 (ㄴ), (ㄷ) 유형의 구분은 플롯 찾기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교수학적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이야기 속에서 현시적으로 재현된 요소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방법도 발견된다. 다음의 예시는 〈퇴원〉에 대한 해석 텍스트의 서두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퇴원」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은 ‘준’과 ‘미스 윤’이다. ‘준’은 일기에서 보았듯이 이청준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청준은 등단작부터 자신을 나타내는 인물을 ‘나’와 ‘준’으로 나누었다. 두 인물은 일화나 이름으로 볼 때 작가의 분신이며 동시에 서로의 분신이다. 소설 속 정보를 보면, ‘준’은 고등학교 때 ‘나’의 가정교사였다. 이청준은 고등학생일 때 중학생인 현영만의 가정교사였고, 중학생일 때는 성적이 나쁜 동급생의 입주 가정교사로 지내기도 했다. ‘나’와 ‘준’의 관계는 이청준의 중고등학교 때 가정교사 경험에서 나왔다.⁵⁴⁾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 독자는 〈퇴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시적 대상을 중심으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요약한다. 바로 작가 자신의 분신으로 보이는 ‘준’이라는 인

54) 이윤옥(2023), 앞의 글, p.269.

물의 실제 체험 고백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유니버스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위치시킨다. 작가의 분신으로서 서술자에 대한 강조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플롯 문제를 자전 서사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때 제안할 수 있는 허구 세계 구성을 통한 플롯 재구성은 ‘준’이라는 인물을 작가 세계 체계에 대한 대안 세계 인물로 설정하는 것과 작가가 소망하는 대상으로 변형하여 사건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텍스트 유니버스 내 인과의 조직과 개연성 확인으로 이어지며 그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텍스트 유니버스 내 인과의 조직과 개연성 확인

앞서 선별된 사건의 배열 문제는 곧 인과의 논리로서 이해된다. 플롯은 인물의 말과 행동의 연속을 통해 인과를 은폐한다. 따라서 서사 이해에서는 추론을 통해 숨겨진 인과성을 발견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된다. ‘사실인 듯한’이라는 뜻의 꺾임성은 ‘그럴 법한’이라는 개연성을 통해 확보된다. 따라서 텍스트는 어떠한 의도적 장치 혹은 독자의 추론적 이해를 통해 개연성이 확보될 때 꺾임하게 인식된다. 인과의 조직과 개연성 확인을 위한 서사 추론은 “구조 내 빠져 있는 정보의 빈자리 채워 넣기”로 이루어지거나, “주어진 사건을 다른 사건과 연결 지어 상위의 의미 조직을 만들어 내기”로 수행된다.⁵⁵⁾ 즉 심층적 의미 질서 파악을 위해 텍스트 유니버스의 ‘구조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조화란 에코(U. Eco)의 논의를 빌리자면, 독자가 서사 속에서 예상하고, 틈을 메워나가면서 “선택한 구조화의 결과”이다.⁵⁶⁾ 이때 독자의 개연성 확인은 대안 세계에 대한 예시로서 수행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는 사건이 전개될 방식에 대하여 ‘믿는다, 바란다, 원한다, 희망한다, 생각한다’와 같은 진술을 취함으로써 사건을 예지한다. 이는 일종의 “사건의 가능한 과정” 혹은 “가능한 상태”를 전제하며 추론하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예상된 상태는 독자의 대안 세계를 텍스트의 대안 세계에 접목하는 과정이 된다. 이때 텍스트 가능 세계 내

55) 최인자(2007),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 이해에 기반한 서사 추론 교육」,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p.442.

56) U. Eco(1979), *Lector In Fabula*, 김운찬 역(2009),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p.159.

57) U. Eco(1979), 위의 책, pp.176-177 참조.

의 인과의 조직이 발생한다. 프랭스(G. Prince)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명시되지 않고, 암시하는 방법”을 통해 독자 이해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해당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⁵⁸⁾ 따라서 텍스트 내의 인과에 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플롯을 구성하는 작업이 소설 이해에 필수적이다. 독자의 인과 탐색과 조직은 텍스트 유니버스의 질서와 독자 유니버스의 질서를 함께 참조하여 이루어지며, 이때에는 독자의 추론이 기반이 된다.

「이어도」의 플롯은 천 기자의 죽음을 해명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다. 이것은 단지 탐정소설처럼 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탐색을 위해서 사태의 탐색을 도모하는 곧 주제와 호응하는 플롯인 것이다. 이 소설 플롯의 특이성은 다원적인 사건 진행을 통해서 서로 얽혀있는 사태의 진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 플롯은 크게 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마는, 이어도의 실상과 관련된 여인의 이야기, 양 국장과 선우 중위의 이야기는 다시 겹쳐져서 처리된다.⁵⁹⁾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 독자는 〈이어도〉의 중층적인 세계 구성에 주목하여, 세계 내의 사건 배열의 원리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텍스트 유니버스의 의미 찾기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추리소설이라는 기법에 주목하여 소설 이해를 시도한다. 〈이어도〉는 이어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서로 다른 텍스트의 경험 세계, 가령 ‘천남석’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가능 세계, ‘양주호’가 상상하는 가능 세계, ‘술집 여자’의 노래 속의 가능 세계, ‘선우’ 중위의 가능 세계, 제주도민들의 세계가 겹쳤을 때 그 의미가 도출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현실 세계의 인과가 철저하게 감쳐있으며, 독자의 빈자리 채워 넣기라는 추론을 통해서만 플롯이 생성된다. 심지어 독자가 개개의 가능 세계를 종합해 ‘제주도인’에게 있어 ‘이어도’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텍스트의 가능 세계를 창조한 후, 이를 텍스트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 사이의 의미 질서와 연관시키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 자체가 이 텍스트의 플롯이다. 〈이어도〉처럼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인과를 독자 스스로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따라 그 개연성의 문제가 달

58) G. Prince(1982),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 of Narrative*, 최상규 역 (2015),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예림기획, p.65.

59) 현길언(1991), 「문제 탐색을 위한 다층적 플롯」, 『이청준론』, 삼인행, pp.225-226.

라질 수 있는 텍스트가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위해 적합한 소재가 될 것이다. 한편,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인과와 개연성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텍스트적으로 조회하고, 그 상위 조직을 발견한다.

현실의 억압상을 다룬 이청준의 소설은 얼마든지 많다. 「잔인한 도시」나 「빈방 -혹은 팔꼭질 주의보」, 『당신들의 천국』 등등의 작품에서 작가는 현실 원칙에 입각해 힘을 행사하거나 소유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억압의 양상을 예각적으로 주시한다.⁶⁰⁾

위 인용에서는 이청준의 서로 다른 작품 사이에서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플롯의 계기를 ‘현실의 억압 문제’에서 찾는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적 조회는 일종의 텍스트 대안 세계로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예지의 과정을 거친 추론적 이해이다. 독자는 여러 텍스트 가능 세계의 조회를 통해 공통된 담론 구조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 담론 구조가 텍스트 유니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역시 ‘플롯 찾아 읽기-플롯 넘어 읽기-플롯 다시 쓰기’라는 학습 내용 도출의 한 가지 내용 요소가 된다. 이처럼 독자가 텍스트 유니버스의 플롯을 이해하는 방식은 텍스트 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 이해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은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인과 조직과 개연성 확인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이다.

조원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섬으로 되돌아간 것은 그러한 상옥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소록도 내의 평범한 주민이 됨으로써 그곳의 주민인 나환자들과 운명을 같이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략) 3부의 조원장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바람의 완전한 실현이 아니라, 한 평범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동상 욕구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나무라는 대리물을 통해 그것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편, 그러한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토대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생활인의 모습이다. 작품이 윤해원-서미연의 결혼식 주례 연습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그 점에서 무척 시사적이다. (중략) 작가가 3부의 조원장의 변모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그러한 사정일 것이다.⁶¹⁾

60) 우찬제(1995), 앞의 글, p.204.

61) 정과리(1984), 「모범적 통치에서 상호 인정으로, 상호 인정에서 하나됨으로」, 이청준(1984),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pp.457-459.

위 인용에서는 텍스트적 표지를 정보소로 하여 ‘요약, 지향, 행위의 얹힘, 평가, 결과 및 해결, 종결부’를 추출한다. 각각에 대한 독자의 판단 작업은 텍스트 유니버스 이해를 위한 인지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개개의 인지소를 종합함으로써 인물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개연성이 도출되고, 이는 플롯으로 구성된다.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 위 인용에서와 같은 플롯 구성이 학습 독자를 위한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다.

③ 독자 유니버스와의 대별을 통한 플롯 재구성

지금까지 제시된 것이 텍스트 내적 원리에 입각한 사건의 배열, 인과의 조직을 통한 플롯 찾기를 시도한 사례였다면, 자기화된 이해를 위해 독자 세계 체계의 지배적 질서인 마스터 플롯과의 대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브룩스(P. Brooks)에 따르면 플롯은 “의미론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찾아내고 창안해 내는 능동적 작업으로서 ‘플롯 구성(plotting)’을 행해야”⁶²⁾ 한다.

우리들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새마을 운동이 태동할 때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을 택한 그가 간절히 원한 것은, 노동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였다. 지배권력이 중심이 된 우리들의 천국 건설은 당신들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당신들의 천국』은 특정한 독재국가에 대한 음울한 알레고리 그 이상이다.⁶³⁾

위 인용에서는 텍스트 유니버스 기저에 놓인 담론을 포착해 독자 현실 세계에 대한 반사실(counterfactuality)로서 텍스트 대안 세계를 제시한다. 이는 텍스트의 현실 세계를 독자 현실 세계의 대안 세계로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반사실로 플롯을 이해하는 것은 이야기 유니버스의 “패턴을 다양하고

62) P. Brooks(1984), *Reading for the Plot*, 박혜란 역(2011), 『플롯 찾아 읽기』, 강, p.71.

63) 이윤옥(2023), 앞의 글, p.346.

복잡하게 만들어 줌”⁶⁴⁾으로써 복수의 세계를 구상하게 하는 데 유효한 방식이 된다.

글쓰기 행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격화된 제도, 규율, 유용성 등과 같은 틀을 깨고, 그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설이 틀을 깬다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재생시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뭉땅 다 깨버리고는 새로 시작하기가 힘든 노릇일 테니 결국 틀을 깬다, 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서진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운동이고 긴장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문학이 제도화하는 것인데, 요즘 현실을 보면 비문학적인 억압 주체들이 제도화시켜 자기 안에 편입시키려는 경향마저 있는 것 같아요.⁶⁵⁾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도 이청준은 글쓰기 행위를 ‘규격화된 제도, 규율과 같은 틀’의 해체로 바라본다. 허구 세계가 현실 세계에 대한 반사실이라거나 기존의 마스터 플롯을 해체하는 대안 세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이 연구에서 세계 담론의 영역과 플롯을 엮어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화 기제인 플롯에 대한 발견과 해체 혹은 재구성의 작업을 거쳐서야 소설 읽기에서 해석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플롯 재구성의 이상적인 사례이다.

‘고된 진실에의 순례’ 길에 나선 그는 언제나 ‘틈’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밝음과 어둠, 정상과 이상, 자유와 억압, 해방과 질곡, 용서와 복수, 평화와 전쟁, 시골(고향)과 도시, 피해자(수난자)와 가해자,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 풀림과 맺힘 등등 여러 이항 대립적인 ‘벽’들의 ‘틈’ 속에서 고뇌하면서 ‘문’을 열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그의 소설적 말부름이 곧 그 고뇌를 풀어 보인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틈의 고뇌는 곧 새로운 종합에의 의지로 통한다. 갈라지고 쪼개져서 다투고 갈등하고 부조화를 보이는 세상의 문제적 질서를 끊임없는 반성적 시선으로 포착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 나서는 탐색의 도정 위에서 발현되는 종합에의 의지는 매우 소중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⁶⁶⁾

64) H. Danneberg(2008), *Coincidence and Counterfactualit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109.

65) 권오룡·이청준(1999), 앞의 글, p.38.

66) 우찬제(1995), 앞의 글, p.762.

위 인용에서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세계 참여자를 작가의 분신으로 바라보며,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중층적 세계 구조, 복수성의 논리는 이분법으로 갈라진 독자 유니버스의 모든 관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를 중개하는 자의 목소리로서 텍스트 경험 세계는, 틈 사이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종합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양상은 아래에서도 발견된다.

용순의 변모된 위상은 마지막에 헤림의 제안으로 용순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함께 찍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가족 간의 화해를 단순하게 용순이 준섭으로 대표되는 기존 가족에 순응하여 포섭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략) 이 모든 가족은 결국 고아가 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준섭을 포함한 가족이 결국에는 모두 고아, 즉 용순이가 됨으로써 하나가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장례라는 축제의 신성한 시간을 거치며, (중략) 가족의 당당한 중심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⁶⁷⁾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는 ‘축제’의 은유로 표현된 ‘장례’라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가 기존의 의미를 탈피하고 새로운 구성체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도출한다. 이는 독자가 소설 읽기 과정에서 다양한 유니버스의 재조합을 통해 플롯을 재구성하여 허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육 방법을 도출한다면, 학습 독자는 소설 이해 과정에서 플롯에 대한 발견과 재구성 훈련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혹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반사실의 허구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소설 이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2.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 도출

전문 독자의 읽기 양상을 통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란 독자가 의미 구성의 주체가 되어 텍스트에 형상화된 시공간, 참여자, 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능 세계를 구성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것임

67) 이경재(2019), 앞의 글, p.322.

을 확인하였다. 이때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은 자신에게 내재한 소설 이해 도식을 메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자 텍스트에 대한 수용 과정을 조망하는 작업이다. 여기서는 앞서 분석한 양상을 일반화하여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마련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설 교육에서 학습 독자를 위한 소설 이해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교수학적 변환 작업이 된다.

구체적으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는 총 네 단계의 절차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해란, 해석이 수행되기 이전 단계를 의미하기에, 허구 세계 구성은 ‘세계 발견-세계 재현-세계 판단-세계 성찰’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가능 세계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에 있어 “독자의 협상 과정에서 선택”⁶⁸⁾된 것이자, 양상 분석의 틀로 사용된 소설 언어, 시공간, 참여자, 담론의 층위에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소설 이해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독자는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소설의 ‘표현’, ‘서사성’, ‘뾰진성’, ‘플롯’을 매개로 허구 세계 구성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원리는 교육적 적용을 위한 체계화 시도라는 점에서 처방적(prescriptive)이다.

(1) 소설 표현 기법에 주목한 세계 발견적 읽기

이해란, 외부적으로 표현된 내적 ‘체험’을 읽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 이해는 소설의 허구적 계기로 인해 창조된 세계의 주요 체험 영역을 서사의 형식에 빌려 재현한 것에 대한 감각이다. 표현된 무엇에서부터 출발하여 내적 체험의 계기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이해는, 딜타이(W. Dilthey)의 정의를 빌려 ‘기초적 이해’와 ‘고차적 이해’로 구분된다. 기초적 이해란 “개별 삶의 표출에 대한 것으로, 표현된 것 자체에 대한 감각”이다.⁶⁹⁾ 이를 본 연구에서는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으로 치환하였다. 허구 세계를 이루는 다양한 가

68) P. Stokwell(2002), *Cognitive Poetics*, 이정화 외 역(2009),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p.162.

69) W. Dilthey(1979),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이한우 역(2002), 『체험, 표현, 이해』, 책세상, pp.45-47 참조.

능 세계 양상을 도출하기에 앞서, 독자는 언표화된 소설 언어를 지각한다. 이를 일상 언어의 맥락과 구별하여, 소설의 허구성을 자아내는 특수한 장치로서 인식한다. 이때에는 독자 유니버스가 마련한 여러 도식을 활용하여 소설 언어만의 개성을 발견하고, 스토리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독자 유니버스가 서사 안에서 다시 형상화될 수 있음을 자각한다. 이러한 기초적 이해를 통해 허구 세계 구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독자는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해 소설 언어로 이루어진 표현에 주목한다. 소설 언어는 장르 상의 다성성으로 인해, 이질적인 언어가 하나의 장르 안에 통합되고, 주체들과 이질적 언어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대화의 양상을 보인다. 소설 언어는 문학적 소통의 운용으로서 작가와 독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주체들의 개입을 통해 그 추동력을 얻는다. 이러한 언어 운용의 측면에서 소설 언어는 어떠한 단어나 문장으로 된 진술이든,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지닐 수 없으며 ‘발화 상황’ 속에서만 의미의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면서도 소설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로서 표현되기에, 독자는 소설을 사실로도 읽고, 때로는 허구로도 읽는다. 소설이 실제로 허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며, 독자는 허구를 사실로 전환하여 수용한다. 소설의 언어는 인간의 감수성을 고차원으로 표현한, 단일 언어 지향의 시의 언어와는 상이하다.⁷⁰⁾ 따라서 언어 층위 사이에서 대화 관계로 이루어지는 소설 언어는 다분히 ‘산문적⁷¹⁾’이며, 언어와 사물, 주체와 대상, 대상과 대상 사이의 엄격한 분리를 어렵게 만든다. 모든 소설 언어는 현실을 매개로 한 세계 속의 언어가 된다. 그렇기에 독자는 소설 언어를 통해 도출되는 세계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소설 표현에 대한 독자의 감각을 ‘세계 발견적 읽기’로 정의한다. 에코는 메시지에 담긴 정보의 양에는 “메시지의 출처에 관한 독자의 신뢰” 문제가 보장되어 있다고 본다.⁷²⁾ 그렇다면 해석자로서 독자는 작품을 의도된 메시지의 최종 산물로서 받아들인다. 독자는 메시지를 모으고 조직하여 저자가 의도한 대로 다시 짜맞출 수 있도록 한다. 메시지의 최종적 의미는 한결같

70) 우한용(2011), 『소설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7-10 참조.

71) 바흐친은 일상적 산문 언어의 특성을 지속적 행위의 영역, 즉 모든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창조성의 원천으로까지 확장한다.(G. S. Morson & C. Emerson(1990), *Mikhai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석 외 역(2006),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pp.60-61)

72) D. Crow(2003), *Visible Signs*, 서나연 역(2016), 『보이는 기호학』, 비즈앤비즈, p.166.

을 수도 있지만, 독자 개개인은 이해 과정에서 세계 체계를 이루는 문화, 배경, 경험에 근거한 개인적 관심을 끌어들인다. 이때 독자는 소설 표현을 통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 발견적 읽기의 원리>

- (a) 이야기된 사실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묻지 않는다.
- (b) 고유 명사 혹은 대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개체를 취사선택한다.
- (c) 인물 행위의 연쇄를 공간적으로 국한한다.
- (d) 인물의 다음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한다.

위의 방법이 독자의 ‘세계 발견적 읽기’로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첫 번째 원리가 된다. 이를 이청준의 소설 읽기에 대입하였을 때 독자의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은 아래와 같이 인지적으로 분석된다.

게자루 따위가 변변한 선물거리가 될 수도 없던 터에, 덜컥대는 찻길에 종일을 시달리다 보니, 자루 속의 게들은 이미 부스러지고 깨어져 고약스레 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 게자루가 그토록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것이 나의 물골이나 처지를 대신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친척집 사람들 앞에 자신이 그토록 남루하고 창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하여 그 친척 누님이 코를 막고 당장 그 상한 게자루를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렸을 때, 나는 마치 그 쓰레기통 속으로 자신이 통째로 내던져 버려진 듯 비참스런 심사가 되고 말았다.

(이청준(1994), 『키 작은 자유인』, 문학과지성사)

먼저 독자는 소설 표현에 대한 진위와 상관없이((a)), 서사 표지를 포착((b))한다. 가령, ‘게 자루’, ‘덜컥대는 찻길=기찻길’, ‘초라하고 부끄럽게’, ‘친척 누님’, ‘쓰레기통’ 등이 서사 표지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행위를 추출((c))하고 연쇄시킨다. 가령, ‘어떤 남자가 있다.’, ‘친척 집에 방문했다.’, ‘선물로 준비한 게가 상해서 다 버리게 되었다.’, ‘남루한 선물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끼게 되었다.’가 (c)에 해당한다. 이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게를 산 장소’, ‘기차’, ‘친척 집’이다. 마지막으로 ‘왜 남자는 게 자루가 상하여 친척에게 선물을 주지 못한 것을 창피하

게 느끼는가?’와 같은 질문((d))을 제기하며 서사의 다음 내용을 추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기 유니버스를 통한 인지, 세계 체계와의 대조를 통해 재중심화를 진행한다. 이렇게 구조화된 텍스트 표지는 더 나아가 이야기 유니버스 구성, 텍스트 유니버스 판단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표지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인식하느냐가 세계 발견적 읽기의 핵심이다. 같은 대목에 대하여 또 다른 탐색의 과정을 제시한다.

여기서 게자루((b))는 시골스러운 것((c)), 고향적인 것((c))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동일한 심상이다. 고향에서 그것은 나뭇의 향기를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도회지와 대면했을 때 그것은 ‘부스러지고 깨어져 고약스레 상한 냄새’를 풍길 따름이다. 하여 쓰레기통 속으로 내던져진다. 상황의 변주((d))가 있긴 하지만, 고향의 향기가 도회지에서 상한 냄새로 추락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못해 공포에 육박하는 심리적 체험((a))으로 전이된다.⁷³⁾ (밑줄 및 기호는 인용자)

위 인용에서도 전문 독자는 앞서 제시한 수행 기준에 따라 해석을 시도한다. 이 독자는 도회지와 시골이라는 공간적 지표를 바탕으로 재중심화를 시도하였다. ‘낯섦과 추락=공포’라는 도식이 최소 이탈의 원리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독자가 파악한 소설 언어, 세계 체계에 대한 인지의 폭에 따라 그 동시성의 공유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소설 언어에 대한 학습 독자의 예민한 감각 훈련, 일상 언어와 대별되는 소설 언어의 특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짧은 대목에 대한 인지적 분석에서는 세계 발견적 읽기란 일면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진술과 정보로 이루어진 소설 텍스트 전문에 대한 읽기에서는 기호화를 통한 텍스트 구체화 작업이 학습 독자의 인지주의적 읽기를 신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 독자는 세계 발견적 읽기를 통해 허구 세계를 인지와 감각의 영역으로 호명할 수 있게 된다.

73) 우찬제(1995), 앞의 글, pp.736-737.

(2) 서사성 체험을 통한 세계 재현적 읽기

소설 표현에 주목한 독자는 점차 서사 스토리에 대하여 공진을 일으킨다. 이때에는 허구 세계 시공간과 참여자에 대한 감각이 주로 발현된다. 이러한 이해는 앞선 기초적 이해와 구분하여 고차적 이해라 하며, 딜타이는 이에 대하여 “행위의 연관, 인물, 삶의 연관 자체로부터의 귀납추리와 같은 방식”이 포함된다고 보았다.⁷⁴⁾ 독자는 스토리의 여러 요소(가령, 인물, 사건, 배경)를 구성하며, 점차 이야기 유니버스·텍스트 유니버스를 도출해 낸다. 이때 이야기 유니버스는 사건이 시공성의 계기 속에서 구현되며, 독자는 이를 조합하여 크로노토프를 도출한다. 크로노토프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 유니버스 속에서 인물과 사건이 지니는 의미가 위계화된다. 이렇듯 시간의 계기를 기초로 ‘이야기’된 누군가의 일들은 ‘서사성’을 부여받으며, 독자는 이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 이해 작용을 거친다. 이러한 이해를 ‘세계 재현적 읽기’라 명명한다.

주네트(G. Genette)는 서사의 분석을 “인물의 행위와 상황들 사이에 얹혀있는 총체적인 삶의 형상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⁷⁵⁾ 따라서 이야기된 사건이 아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사건을 강조하는데, 이는 인물의 행위 그 자체, 혹은 사건이 서술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서사성에 대한 이해는 인물과 사건의 관계와 서술 행위, 인물의 행위와 상황과의 관계, 작품과 의미와의 상호관련성이 그 내용이 된다. 학습 독자는 서사성을 띠는 소설 텍스트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파악하는데, 그것이 인물에 의해 알려진 것이든, 학습 독자 스스로 그려낸 것이든 일정한 인식의 궤도에 따라 중첩한다. 그것은 보통 스토리의 전개와 해결, 예측되는 결말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는 나름대로 구도를 통해 이야기 유니버스를 구성해 낸다.

이렇듯 소설 서사성의 계기로서 크로노토프는 시공간을 경험의 본질로 삼아 사건 재현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장면이 펼쳐지는 주요한 지점에 크로노토프가 위치하며, 그 밖의 사건은 무미건조한 정보나 전달된 사실에 불과하게 된다. 크로노토프는 “공간 안에서 시간을 객관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서사 전체에 실체를 부여” 한다.⁷⁶⁾ 하지만, 크로노토프는 하

74) W. Dilthey(1979), 앞의 글, pp.48-52 참조.

75) G. Genette(1972), *Discours du récit*, 권택영 역(1992), 『서사담론』, 교보문고, pp.15-16.

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발생 맥락으로서 기능한다. 이야기 유니버스 내의 인물은 각기 다른 세계 내 지배력을 지니며, 이 지배력의 충돌은 크로노토프의 경쟁으로 이어진다.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중층적인 크로노토프를 인지하고, 그 사이의 위계를 정하여 소설을 이해하는 핵심 기제로 변형한다.⁷⁷⁾ 이때 선별되는 크로노토프는 텍스트 구체화 작업의 결과이자 소설 이해의 정보소로 기능한다. 이를 고려하여, ‘세계 재현적 읽기’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세계 재현적 읽기의 원리>

- (e) 이야기 유니버스 속 인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포착한다.
- (f) 이야기 유니버스 속의 서로 다른 인물이 속한 시공간을 확인한다.
- (g) 이야기 유니버스의 사건을 회상하고, 어떤 인물의 시공간이 중심이 되는지 확인한다.
- (h) 이야기 유니버스를 특정 인물의 시공간으로 한정할 이유를 세계 체계를 통해 설명한다.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 속의 주요 인물, 부수 인물을 나누어 그들이 속한 세계를 추적한다. 가령, 〈병신과 머저리〉를 다시 예로 들면, 서술자인 ‘나’가 등장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헤인’의 편지를 읽거나, ‘형’의 소설에 대해서 떠올리는 장소인 ‘화실’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e))이 있다. 이때 ‘나’를 둘러싼 크로노토프가 생성된다. 또한, 동시에 같은 시간대로 추정되는 때 ‘형’은 집((f))에 틀어박혀 소설 쓰기를 진행한다. 이때의 크로노토프가 있다. 또, ‘형’의 소설에서는 전쟁 중 낙오를 한 후

76) M. Bakhtin(1975), *Voprosy literatury I esketika*, 전승희 외 옮김(1998),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p.459.

77) 본 연구에서 원용하는 크로노토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G. S. Morson & C. Emerson(1990), 앞의 책, pp.624-627 참조)

- ①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융합된 감각이다.
- ② 크로노토프의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이다.
- ③ 인간의 외적 행위와 내적 심리는 모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조직해야 한다.
- ④ 크로노토프는 필요에 따라 변화한다.
- ⑤ 크로노토프는 행위의 토대로서 플롯을 가능하게 한다.

‘관모’, ‘김 일병’ 과 관계하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 크로노토프가 있다. 한편, ‘나’ 에게 전달된 ‘혜인’ 의 편지에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보고 들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크로노토프가 도출된다. 이러한 복수적인 크로노토프 중에서 학습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줄거리를 ‘나’ 와 ‘형’ , 특히 ‘형’ 의 소설 속에 발생한 사건과 연관((f))하여 구성하게 된다. 이는 크로노토프가 경합하는 와중에 핵심 사건이 도출((h))되는 것이다. 학습 독자는 시공간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 유니버스의 중층적인 구조를 인식하게 된다. 이런 중층적 구조에 대하여 이청준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밝힌다.

사실 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활발하지 않다, 작가에게 조종당한다.’ 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지요. 그런데 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결국은 작가의 분신이에요. (중략) 그러나 그러면서도 소설 구조가 중층적이 되는 것은 인물들이 비록 분신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과 작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합해야 하나의 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체를 만드는 건 인물만으로도 안 되고 작가만으로도 안 되고, 서로의 그림자가 비쳐야만 한다는 것이지요.⁷⁸⁾ (밑줄은 인용자)

이청준의 말에서 보듯, 인물과 사건, 인물의 관념으로 구성되는 서사성은 필연적으로 중층적이다. 이는 다시 인물 각각의 크로노토프를 생성하는 계기가 되며, 독자는 이 점에서 다양한 가능 세계의 양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세계 재현적 읽기는 시공간을 기반으로 서사의 복수성을 인지하여 소설을 삼중의 미메시스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형상화된 크로노토프 중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소설의 의미는 서로 달라진다. 또한,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이해로서 세계 체계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서사성을 논의하는 데에 전형상화로서 기능한다. 결국 독자는 다양한 인물의 시공성에서 텍스트 이해를 위한 정보소를 추출하며, 이 정보소에 우열을 둬으로써 텍스트 구체화를 실현한다. 이렇게 위계화된 텍스트 정보소를 바탕으로 의미화가 시작된다.

78) 권오룡 · 이청준(1999), 앞의 글, pp.29-30.

(3) 픽진성을 매개로 한 세계 판단적 읽기

한편,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 속에 복수로 존재하는 참여자의 목소리에 감응하며 의미화 계기를 모색한다. 이야기 유니버스는 여러 중개자의 상호 연관 속에서 서술자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독자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초점화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관찰한다. 이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경험하지 못했던 행위를 추체험하는 것이다. 딜타이는 이해의 요소로서 추체험에 대하여 “어떤 환경과 외적 상황에 대한 모든 생생한 현재화”를 통해 “자기 투입이 일어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⁷⁹⁾ 이러한 추체험으로서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이해는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술자는 실제로 있거나 있음 직한 사건을 선택하고, 삭제하고, 부풀려서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누군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 사건이 전개된 시간만큼의 서술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사건의 선택과 배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의 축약과 확장 속에서 허구성이 개입된다. 하나의 서술자에 의해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서술될 수 없고, 서술자의 역할이 어떻게든 개입되는 순간,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서술자에 의한 사건 전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가공 방식”이 “허구성의 본질”이다.⁸⁰⁾ 다만, 이야기의 독자에게 서술자 문제는 항상 본질적이다. 서술자가 사실적이냐 허구적이냐에 따라 읽기 방식 자체가 달라지며, 이는 서술자 신빙성 여부에 따라 허구성의 인식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독자에게 서술자의 위상 조정 문제는 사실의 생성과 관련되기에, 서술자의 문제는 소설의 픽진성 문제에 가닿는다.

통상 소설 읽기에서 독자는 서술자에게 위임한 권한 영역만을 사실로 수용하며 서술자의 서술 경험을 수용하는 와중에 텍스트 유니버스 내 인물의 행동, 신념, 욕망을 포착한다. 이때 독자의 인식 속에서는 소설의 인물이 실제 인물로 전환된다. 이렇듯 독자 유니버스와의 일체감에서 비롯되는 픽진성은

79) 정상원(2018), 「정신과학적 이해로서의 추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고찰: 문학교육의 전회(Kehre)를 기원하며」, 『한국어문교육』 26, pp.210-212 참조.

80) 우한용(2004), 「문학교육과 허구적 인식 능력」, 『국어교육연구』 14, 국어교육연구소, pp.19-21 참조.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세계관(世界觀), 가령 독서 경험, 독서 능력,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읽게끔 한다. 이러한 읽기에서 독자는 “편집성 있게 형상화된 작중인물의 행위나 태도, 사건에 공감”⁸¹⁾하면서 독자 유니버스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게 된다.

컬러(J. Culler)는 서사에서 편집성을 판단하는 계기를 ‘현실 세계와의 정합성에 따른 판단’, ‘문화적 관습에 따른 판단’, ‘문학 규범에 따른 판단’, ‘특수 장르(패러디, 아이러니)에 의한 판단’으로 구분한다.⁸²⁾ 이때 세계 참여자의 진술에 관한 판단 과정에서 편집성의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소문의 벽」의 서두에서 화자는 박준이라는 괴상한 자와의 하룻밤에 대해 살짝 운을 떼놓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다. 잡지사의 편집장으로서 원고가 잘 안 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박준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얹힌 징후를 증거하는데, 그 과정이 곧 원고가 왜 걸리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아니 그러면서도 그 이상의 것이다. 화자가 정신병원에서, 그리고 잡지사나 신문사 등지에서 거두어들이는 박준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흥미 있는 수법에 의해 서술된다. 박준 자신의 진술들인 거부당한 두 편의 소설, 인터뷰가 실린 신문지 조각, 미발표의 원고, 그리고 인터뷰 전모가 실린 신문 등이 중간 중간에 인용되고 그 사이에 조각난 자료들을 연결시키는 접합체인 양 박준의 정신 상태가 ‘어둠 속의 전깃불’이라는 메타포와 연결되어 조금씩 발전된다. 이런 서술 과정에서 화자는 탐정소설을 연상시키는 수법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했다가는 충족시키곤 한다. (중략) 그리고 그것은 전깃불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술해야 한다는 작가의 신념으로 발전되며, 결국 박준이 미칠 지경에 다다른 것은 그런 진술 의지를 좌절시키는 누구나의 전깃불, 즉 소문의 벽 때문이라는 내용이 화자의 추적에 의해 서술된다. 그런데 독서 행위의 초점을 이런 징후와 화자 사이에 맞추면 박준을 치료하려던 정신과 의사뿐 아니라 화자 자신까지도 또 하나의 전깃불 뒤의 심판관이라는 게 드러난다.⁸³⁾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세계 참여자의 진술 방식에 대한 추적을 통해 그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한다. 독자는 소설 속 인물이 겪는 상황과 서술자의 평가에 대한 의미화를

81) 선주원(2014), 「동화에 나타난 편집성 이해를 위한 동화교육 방법 연구」, 『청람어문교육』 51, 청람어문교육학회, p.298.

82) J. Culler(1975), *Structuralist Poetics*, Routledge, pp.164-187 참조.

83) 권택영(1988), 앞의 글, p175.

진행한다. 이때 의미화는 세계 재현적 읽기를 통해 도출된 정보소(가령, ‘잡지의 편집장’, ‘화자가 정신병원에서’, ‘탐정소설을 연상시키는’ 등)를 연합하여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의미소(‘화자 자신까지도 또 하나의 전깃불 뒤의 심판관이라는 게’)로 전환된다. 서술자의 성격, 행동에는 개별 인물의 세계를 관장하는 특정한 견해가 마련되어 있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독자가 이야기 유니버스의 정보소를 바탕으로 의미를 실현하는 작업에는 세계 체계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서술자의 텍스트 진술이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즉 소설 속에는 ‘합의된 리얼리티’라고 하는 재현의 단면이 존재하고, 이는 주체가 속한 세계 체계 안에서 현실인 것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야기는 언제나 말해지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는다. 사실은 왜곡되고 인물은 개선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이 첨가되며 사건의 순서도 뒤바뀔 수 있다. 따라서 말하는 자의 신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서사 수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서술자에 대한 감각은 참여자의 세계관을 판단하는 작업이 된다. 소설 읽기는 의사소통 행위의 구조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주체와 객체의 실천적 측면을 문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소설을 읽는 일은 의사소통 과정에 드러나는 행위 주체의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⁸⁴⁾ 이처럼 서술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 판단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소설의 꺾진성을 추론하는 이해의 과정을 세계 판단적 읽기로 명명한다.

독자가 텍스트의 여러 장치와 서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세계관을 조망하는 것이 세계 판단적 읽기의 핵심이다. 이러한 이해에는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원리, 혹은 세계 체계에서 리얼리티를 형성하는 합의된 지점과의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초점화된 읽기 대상으로서 텍스트 유니버스의 서술자는 결과적으로 독자 유니버스를 재형상화하기 위한 주요 기제를 마련해 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는 세계 판단적 읽기 원리를 다음과 같은 인지 과정을 거쳐 수행한다.

<세계 판단적 읽기의 원리>

- (i) 텍스트 유니버스를 관장하는 주요 목소리 포착하기
- (j)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주요 주장을 확인하고, 그 계기를 텍스트 가능

84) 우한용(1996), 『한국현대소설담론연구』, 삼지원, p.31.

- 세계에서 찾기
- (k)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에 의해 말해지지 않은 틈을 찾고, 의미화하기
 - (l)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신빙성 판단하기

먼저 텍스트 유니버스를 지배하는 주요 목소리를 포착((i))한 후, 세계 재현적 읽기를 통해 도출한 정보소를 바탕으로 이해를 진행한다. 이때 서술자로 판명된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주요 주장을 확인하고, 그 계기를 텍스트 유니버스 논리 속에서 찾는다.((j)) 또한, 서술자가 은폐하고 있는 부분, 혹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서사의 빈자리를 발견하여 의미화한다.((k)) 이렇게 전환된 의미들은 의미소로서 기능한다. 다음으로 독자 경험 세계가 만들어 낸 가치관, 독자 유니버스의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한다.((l)) 결과적으로 세계 판단적 읽기에서는 학습 독자가 수행한 서술자의 위상 판단을 통해 독자가 체험하는 허구 세계의 양상이 현실 세계나 문학 규범, 문화적 관습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합의된 리얼리티로 판명되면 소설의 픽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 플롯 재조직을 통한 세계 성찰적 읽기

한편, 독자는 이야기 유니버스나 텍스트 유니버스에서 독자 세계 체계와 유사한 지배 법칙을 추론한다. 딜타이는 ‘체험-표현-이해’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들 사이에 존립하는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합의된 공통성을 통해 이해의 확실성이 보장되며, 이때 제시되는 개념이 “객관 정신(Objektiver Geist)”이다.⁸⁵⁾ 객관 정신은 인륜, 법률, 국가, 종교, 예술, 과학, 철학 등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이해의 근저로서 공동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동형성을 의미하며, 이는 소설의 플롯으로 이해될 수 있다.⁸⁶⁾ 플롯은 서사의 담론을 자아내는 지배적 틀로서 “서사물이 내함하는 의미 자체의 열정”이기도 하고, 독자가 “서사물의 의미를 구하고자 일으키는 열정”이기

85) 정상원(2018), 앞의 글, pp.215-216 참조.

86) 앞서 논의한 마스터 플롯 역시 딜타이가 말하는 객관 정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도 하다.⁸⁷⁾ 즉, “작품의 의미를 내면으로 조직화하는 정신 활동을 말하기도 하며, 독자가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내적 인식의 원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⁸⁸⁾ 이에 따라 소설 이해에서 플롯은 이야기 유니버스와 텍스트 유니버스를 관장하는 독자 유니버스와의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플롯은 이야기된 스토리와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인과관계의 완결”을 부여한다.⁸⁹⁾ 플롯을 구성하고, 성찰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포착한 스토리에 대하여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플롯에서는 사건들이 작품 속에 제시된 엄격한 순서에 따라 배열되고 결합한다. 이러한 순서는 허구 세계의 인과율이자 세계 담론을 발생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이다. 가령, 스토리가 ‘이야기 자체’ 라면, 플롯은 ‘독자가 이야기 줄거리를 알게 되는 경로’에 해당한다. 하나의 이야기에서 순서를 결정하여 사건을 배열하는 작업은 인과관계의 의식을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텍스트 유니버스의 인과관계는 객관 정신으로서 세계 체계의 영향을 받으나, 세계의 ‘결말’을 단정해 준다는 점에서 독자 유니버스와 대별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플롯에서 제기되는 의미의 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결합하는데, 독자는 일관성, 동일성, 시간성과 같은 인식을 매개로 인과적 관계를 추측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형성은 인물이나 서술자의 감정적 연속일 수도 있고, 사건의 논리적 연속일 수도 있다. 학습 독자는 소설을 읽으며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어떤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플롯의 인식이다.

독자는 세계 담론을 생성하는 기체로서 플롯의 인식을 통해 소설 이해를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담론 문제에 관한 판단과 독자 유니버스를 재형상화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플롯 조회를 통한 소설 이해의 원리를 ‘세계 성찰적 읽기’라고 명명한다. 독자는 플롯 재구성을 통해 “소설의 개연성과 필연성에 대한 감각이자 시공성에 대한 감각으로서 줄거리 구성의 가능성을 부여” 받는다.⁹⁰⁾ 텍스트 내적인 인지와 이해에서 시작되는 플롯

87) P. Brooks(1984), 앞의 책, p.45.

88) 정보미(2019), 앞의 글, p.1.

89) K. Eagan(1978), “What is a Plot?”, 김병욱 편(2007),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 pp.302-305 참조.

90) R. S. Crane(1952), “The Concept of Plot and the Plot of *Tome Jones*”, 김병욱 편(2007), 위의 책, p.262.

재구성을 통해 허구 세계의 작동 양태에 대한 감각을 훈련할 수 있다. 소설 이해에서 독자의 ‘세계 성찰적 읽기’ 원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세계 성찰적 읽기의 원리>

- (m) 핵 사건과 주변 사건을 구분하고, 핵 사건의 인과관계 찾기
- (n) 텍스트 유니버스 내 사건 배열의 개연성 판단하기
- (o) 도출된 플롯을 마스터 플롯과 대조하기
- (p)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나만의 플롯 다시 쓰기

독자는 앞서 제시했던 ‘핵 사건’과 ‘주변 사건’⁹¹⁾의 구분을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 내 사건을 배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m))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 사건의 배열을 작동시키는 인과관계에 대한 감각이다. 이어서 이러한 핵 사건의 배열이 개연성을 지니는지를 판단한다.((n)) 이는 현실 세계 인과율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관습, 윤리, 상식 등에 대한 조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앞서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추출된 정보소와 텍스트 유니버스에서 전환된 의미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재구성된 플롯과 구성적 사건은 소설 이해의 ‘해석소(Interpretant)’⁹²⁾로 도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독자 자신만의 플롯을 다시 쓰는 행위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 이르러서야, 소설 ‘이해’를 넘어 ‘해석’이 진행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플롯에 대한 감각을 통해 세계 성찰적 읽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가시적 현상 질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배의 질서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음지의 힘에다 어떤 가시적 질서를 부여하여 그것을 논리화하고 증거해 보이면 그 순간에 그것은 현상의 세계로 떠올라와 그 가시적 현상 세계의 지배의 질서 혹은 지배의 논리로 합세해 버리거든. 드러나려는 것, 그래서 지배하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힘의 본능적 속성이기도 하

91) S. Chatman(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2003),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pp.63-64 참조.

92) 소설을 지배하는 해석소는 하나의 기호이자, 그것이 생산 또는 변경하는 관념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자유뿐만 아니라 제약도 문제가 됨을 의미하게 한다.(U. Eco(1979), 앞의 책, pp.51-53 참조)

지만 말일세. (중략)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나 이 세계는 논리와 논리 아닌 것, 혹은 일상의 삶의 덕목으로 선택된 질서와 그것이 아닌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실체와 그림자 그런 두 겹의 힘의 질서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게 나의 인식이니까. (중략) 어차피 한 번의 폭발로 모든 소망이 실현될 수가 없다면 내일의 세상에도 꿈만은 줄기차게 이어져 가야 하니까.

(이청준(1990), 『비화밀교』, 나남.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에서는 ‘양지의 질서’와 ‘음지의 질서’라는 논리적 구성 대립을 통해 독자 유니버스의 지배 법칙((o))을 논구한다. 이와 달리 변혁적 소망에 대한 서술자의 진술은 미묘한 알레고리를 일으키는데, 이 사례는 위의 원리에서 (p)에 해당하며, 새로운 플롯 구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 내부의 플롯으로부터 새로운 가능 세계를 도출하는 것은 플롯 재구성을 통한 독자 유니버스 재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독자는 플롯 찾기라는 텍스트 재구성 행위 속에서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플롯에 관한 성찰을 수행하고, 그 재구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를 자기 경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인다. 독자는 텍스트 내의 인과와 관습 규범을 파악하고, 이를 세계 체계를 통해 조회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전문 독자의 읽기 양상을 통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세계 발견적 읽기, 세계 재현적 읽기, 세계 판단적 읽기, 세계 성찰적 읽기’라는 네 단계의 절차적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이는 소설 언어와 허구 세계 구성의 핵심 요소인 시공간, 참여자, 담론을 중심으로 소설의 일반적인 속성인 표현, 서사성, 뽀진성, 플롯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원리는 소설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공한다.

IV.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이론(Ⅱ장)과 원리(Ⅲ장)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수·학습의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을 분석하고 허구 세계 구성의 한계를 발견한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앞서 제시한 원리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이때 학습 독자를 위한 교수·학습의 가능성은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 제시되며, 마지막으로 이를 문학 교실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교육적 의의를 밝힌다.

여기서 주목하는 소설 이해 교육이란 학습 독자가 텍스트를 둘러싼 여러 부면을 가능 세계로 바라봄으로써 소설을 확장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때,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가능 세계, 가령 인물의 가능 세계, 서술자의 가능 세계, 독자의 가능 세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여 개개의 유니버스로서 상호 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허구 세계가 형상화하고 있는 의미를 도출하고, 자기 세계를 재형상화할 수 있는 메타인지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서사를 매개로 한 도식의 생산이라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문학 수용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한 교육 방법은 결과적으로 소설을 소설답게 읽는 것으로서 허구에 대한 인식 능력을 신장하는 방법이 된다.

1.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과 한계

여기서는 고등학생 독자의 소설 읽기 양상을 살핀다. 이때 양상 분석의 기준과 방법은 Ⅲ장의 전문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을 통해 마련한다. 이때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의 대조군으로서 대학생 독자의 읽기 양상을 제시한다. 이는, Ⅲ장에서 분석한 전문 독자의 읽기 양상이 고도로

훈련된 문학 독서 경험의 결과일 수 있으며, 교수·학습의 대상군인 학습 독자가 바로 도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조군으로 선정된 대학생 독자는 어느 정도 문학 독서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국어국문학’ 전공 대학생 독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대학생 독자의 양상은 전문 독자의 양상과 학습 독자의 양상 사이의 차이를 매개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읽기 양상은 학습 독자가 도달해야 할 현실적 목표군이 되며, 학습 독자의 반응 지체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비게이자 근접발달영역(ZPD)으로 설정된다.

(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여기서는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을 전문 독자의 양상과 같은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전문 독자와 대비되는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을 수집하기 위하여 총 8차례의 실험¹⁾을 진행하였고, 고등학생 독자 204명과 대학생 독자 85명의 반응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반응 텍스트는 감상문 유형의 자료(289편)와 설문형 답변지(192편)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모두 경기도 소재 공립 고등학교 학생이며, 실험 당시 기준으로 1학년생 62명, 2학년생 142명이다. 대학생 독자의 경우, 서울 소재 국립대학 1곳의 38명과 사립대학 1곳의 47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²⁾

학습 독자의 소설 읽기 텍스트는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벌레 이야기〉, 〈눈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 독자는 작품의 전문을 모두 읽은 후 미리 준비된 양식의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양상 분석 문항은 (ㄱ) ‘감상문’, (ㄴ) ‘허구 세계 구성에 대한 질문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ㄱ) 감상문은 소설 독서 후 자유 연상에 의해 줄거리를 포함하되, 작품 속 ‘세계’에 주목하여 작성하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두었다.³⁾ (ㄴ) 허구 세계 구성에

1) 사전 실험 1회, 예비 실험 2회, 본 실험 5회. 자세한 실험의 개요는 I 장을 참고.

2) 실험 대상자 중 국립대학 1곳에 속한 학생은 모두 ‘인문학과’에 소속된 학생이며, 사립대학 1곳의 학생은 ‘국어국문학과’에 소속된 학생이다.

3) 감상문 작성을 요청한 발문은 다음과 같다. “작품을 읽고 난 후, 줄거리를 포함하여 감

대한 질문지는 감상문을 ‘작성한 후’ 진행되었다. 이때의 문항에는 본 연구에서 양상 분석 기준으로 제시한 ‘표현 기법과 소설 언어’, ‘소설 서사성과 시공간’, ‘소설 픽진성과 세계 참여자’, ‘소설 플롯과 세계 담론’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서술형으로 답변하게끔 하였다.⁴⁾

학습 독자의 자료는 해석이 담기지 않은 반응 텍스트로서, 반성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원시 반응 텍스트에 가깝다는 점에서 질적연구의 대표적 방법론 중 하나인 반 매넨(M.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원용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⁵⁾

본 연구의 목표는 문학 작품의 일반적인 이해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독자 스스로 허구 세계 구성을 시도하여 독자 유니버스에 대한 메타인지를 시도할

상을 서술하십시오. 이때 감상은 ‘세계’라는 말에 주목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이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사전 실험 결과 완전 자유형 반응에서는 줄거리 요약과 단순 인상 평가, 핵 사건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감상이 이루어진 양상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세계’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상태에서 감상문 작성을 요청하였다.

4) 학습 독자들에게 요구한 질문지의 물음은 아래와 같다. 학습 독자는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웹(web) 기반 설문 사이트(google docs)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통해 답변하였고, 모든 질문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이때 학습 독자에게 소설 언어, 시공간, 참여자, 담론에 대한 설명을 일절 하지 않았고, 아래의 개방형 질문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용어 제시로 인해 선입견을 부과하고, 반응을 의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설 언어: 표현’을 염두에 둔 질문(*학습 독자에게는 아래 질문만 제시)

- ▶ 이 작품의 어떤 부분이 이 작품을 소설로 느끼게끔 하나요?
- ▶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무엇인가요?
- ▶ 이 작품에서 가장 어색했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 ▶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을 작품 안에서 찾으면 무엇인가요?
- ▶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비교해서, 이 작품 속 언어가 다른 점이 있나요?

‘세계 시공간: 서사성’을 염두에 둔 질문 (*학습 독자에게는 아래 질문만 제시)

- ▶ 이 작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 ▶ 이 작품에 드러나는 세계는 어떤 시공간적 특징을 지니고 있나요?
 - ▶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느껴지는 대로 설명할 수 있나요?
 - ▶ 이 작품 속 인물이 사는 세계를 인물마다 구분해 볼 수 있나요?
 - ▶ 작품에 드러나는 세계와 당신이 사는 세계를 비교해 주세요.
 - ▶ 방금 생각했던, 당신이 사는 세계의 모습이 이 작품을 읽을 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학습 독자에게 내재한 문학 독서 관습에 따라 감상문을 먼저 작성하게 한 후, 허구 세계 구성과 관련한 질문지를 작성하게끔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이 먼저 작성한 감상문에서 허구 세계 구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허구 세계 구성에 대한 선이해를 보

‘세계 참여자: 펍진성’ 을 염두에 둔 질문 (*학습 독자에게는 아래 질문만 제시)

- ▶ 이 작품은 어떤 인물들의 세계를 드러내나요?
- ▶ 이 작품을 당신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나요?
- ▶ 이 작품은 등장인물 중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나요?
- ▶ 이 작품의 화자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 ▶ 이 작품을 들려주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이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인가요?

‘세계 담론: 플롯’ 을 염두에 둔 질문 (*학습 독자에게는 아래 질문만 제시)

- ▶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은 무엇인가요?
- ▶ 이 작품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 이 작품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 이 작품의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 ▶ 이 작품 속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 현재 당신이 사는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독자 유니버스의 재형상화’ 를 염두에 둔 질문 (*학습 독자에게는 아래 질문만 제시)

- ▶ 이 작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작품 속에 존재할 것 같은 세계의 모습이 있나요?
- ▶ 작품 속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에 다른 선택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 이 작품 속 인물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 ▶ 이 작품 속 인물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 ▶ 지금 당신이 사는 현실에서 작품 속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행동을 할 건가요?
- ▶ 당신이 작품 속 인물이라면 어떤 인물에 제일 가깝나요?
- ▶ 지금 당신이 사는 현실에서 작품 속 인물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 ▶ 당신이 이 작품을 쓴다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설정할 것인가요?
- ▶ 당신이 이 작품을 쓴다면, 어떤 부분에 변화를 줄 건가요?
- ▶ 당신이 이 작품을 쓴다면, 시공간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요?
- ▶ 당신이 생각하기에 세계란 무엇인가요?
- ▶ 그렇다면 당신이 사는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 (★) 감상문을 작성할 때와 이 질문을 마치고 난 후, 작품에 대해 바뀐 생각이 있나요?
- (★) 이 질문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적는다면, 어떤 부분을 다르게 작성할 것 같나요?

5) 자세한 연구 방법은 I 장을 참고.

완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학습 독자에게 허구 세계 구성에 대한 자신의 메타인지가 자연스럽게 숙달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위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소설 이해 방법을 환기할 수 있도록 분석 방법을 마련하였다.

(2)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과 지체 요인

여기서는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에서 유의하게 떠오르는 의미론적 반응을 범주화하였다. 학습 독자의 반응을 코딩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의미로 이루어진 반응을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반응 범주로 나누어 구조화하였다. 이때 ‘개방적 코딩-선택적 코딩-이론적 코딩’에 따라 점차 공통된 범주의 상위 코드를 부여하였다. 학습 독자의 반응을 빈도에 따라 범주화하고, 가장 대표적인 성격을 제시하였다. 일부 반응 텍스트에서는 몇 가지 반응을 복수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선택적 코딩과 이론적 코딩의 반복을 통해 가장 주요 화제가 되는 것을 재차 판단하여 하나의 반응 범주로 정하였다.

개방적 코딩을 위한 반응의 초기 범주는 앞서 제시한 허구 세계 구성에 관한 질문에서 예상 반응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때 ‘소설 언어’ 범주는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소설 이해의 시작점이자, 모든 범주에 두루 포함되는 것이기에 구별하여 반응을 범주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 독자는 해당 질문지 작성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설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이는 허구 세계 구성에 관한 질문지의 답변이,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작성하게끔 하는 조작적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 감상의 선이해로 작동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학습 독자의 원시 상태 소설 읽기에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가 얼마나 수행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에서 반응의 지체(遲滯)가 일어나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었고, 학습 독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지체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일종의 활성화 방법이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반응 양상 범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⁶⁾

반응의 범주	소설 이해 과정에서 발현된 반응 양상	빈도	기호
시공간과 소설 서사성 측면 (24%)	이야기 · 텍스트 유니버스의 시공성을 파악하는가.	10%	㉠
	이야기 · 텍스트 유니버스의 배경을 파악하는가.	13%	㉡
<선택된 범주> 세계 재현 시도 시공성 재형상화	이야기 유니버스를 중층적으로 이해하는가.	1%	㉢
	독자 유니버스를 통해 재중심화를 시도하는가.	0%	㉣
	독자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구성하는가.	1%	㉤
참여자 소설 편집성 측면 (26%)	이야기 유니버스와 텍스트 유니버스를 구분하는가	6%	㉦
	이야기 유니버스의 중개자를 탐색하는가.	16%	㉧
<선택된 범주> 세계 판단 시도 목소리 재형상화	텍스트 유니버스의 은폐된 지점을 포착하는가.	3%	㉨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가.	3%	㉩
	독자 유니버스 맥락에서 가능 세계를 판단하는가.	1%	㉪
담론과 소설 플롯 측면 (50%)	텍스트 유니버스의 핵 사건을 강조하는가.	40%	㉫
	텍스트 유니버스의 개연성을 파악하는가.	1%	㉬
<선택된 범주> 세계 성찰 시도 플롯 재형상화	텍스트 유니버스 이면의 기저 욕망을 파악하는가.	2%	㉭
	독자 유니버스의 지배 담론을 파악하는가.	2%	㉮
	독자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성찰하는가.	1%	㉯
독자 유니버스 재형상화 성공 사례	각종 대안 세계를 생성하는가.		㉰
	독자 유니버스의 인식 확장을 통해 담론을 만드는가.		㉱
	마스터 플롯을 허물고, 재구성하는가.		㉲
	새로운 소설 이해 도식을 생성하는가.		㉳

<표 3.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 범주>

- 6) 이 장에서 제시하는 학습 독자의 반응 양상은 다음처럼 기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고-병-7-㉠]는 고등학생 학습 독자의 〈병신과 머저리〉에 대한 반응 텍스트로 7번 학생을 의미하며, 이 반응은 ‘이야기 · 텍스트 유니버스의 시공성을 파악’ 한 것이다. 대학생 독자는 ‘대’ 로, 〈벌레 이야기〉와 〈눈길〉은 각각 ‘벌’ 과 ‘눈’ 으로 표시하였다.

학습 독자의 반응 중에서는 단순 줄거리만 구성한 반응 텍스트(㉔, 40%)가 최고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엄밀히 허구 세계 구성의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삼중의 미메시스 구조로서 가능 세계 구성 양상에 주목했을 때, 학습 독자들이 재형상화에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그나마도 대학생 독자의 반응 텍스트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과 재형상화를 위해서 별도의 소설 교육 방법이 인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때 주목할 것은 독자 유니버스로서 반사실적 진술이나 대안 세계에 대한 감각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세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기’, ‘독자 유니버스를 통한 재중심화 시도하기’, ‘세계에 은폐된 기저 욕망 파악하기’, ‘세계 체계를 통한 서술자의 신뢰성 파악하기’, ‘플롯 재구성하기’와 같은 양상은 고등학생 독자의 읽기에서도 일부 발견된다는 점이다. 학습 독자의 반응 양상에서 지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화된 교육 내용을 적용한다면 위와 같은 이상적인 양상의 형태는 대부분의 학습 독자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① 시공간과 소설 서사성에 주목한 반응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 중 허구 세계 시공간과 소설 서사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세계가 언제, 어디에서 존재하는 곳이며, 무엇이 일어나는 곳인가?”를 중심으로 소설 이해를 시도한 것을 말한다. 앞서 분석한 전문 독자의 읽기 양상에서는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가능 세계를 포착하고, 이를 중층적으로 인식한 후 세계 간 조화를 통해 재중심화를 시도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반면, 학습 독자는 소설 텍스트에서 몇 가지 표현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감정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시도한 후 인물의 가능 세계에 천착한다. 형상화된 개인들의 실현 가능한 세계의 현시라는 소설의 형식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 독자는 소설을 단지 타인의 삶을 재현해 놓은 어떤 누군가의 세계 표상으로서 지나치기보다는, 공감과 이입을 통해 나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식한다. 따라서 독자의 소설 이해는 텍스트 속에 형상화된 누군가의 세계를 인식하고 떠올리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자기 경험,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인물에 대한 이입과 같은 추상화 작용을 수반한다.

시공간과 서사성에 주목한 학습 독자의 이해 양상은 ‘회상’을 통한 형상화 기제 발견에 가깝다. 독자 경험 세계의 발현 양태로서 회상은 소설 읽기에서 포착했던 세계의 양상을 떠오르는 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또한, 소설 텍스트에서 각기 다른 요소를 포착하고, 사건을 연합하며 이해하는 작용 속에서 자기 상상력을 바탕으로 의미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때의 상상은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상상”⁷⁾한다는 허구적 상상을 의미한다. 즉 직관의 실제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텍스트 밖의 어떤 대상이나 독자 현실 세계를 넘어선 텍스트 유니버스의 상상적 대상으로 이해를 시도한다. 학습 독자는 텍스트 현실 세계의 시공성과 배경에 주목하여 허구 세계 구성을 시도하였다. 아래의 반응 텍스트를 보자.

이 소설은 전후 소설로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가진 아픔과 상실에 대해 그리고 있다. 형은 그의 심성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전쟁을 겪으며 지독한 적자생존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다. 반면 동생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으나 전후 시대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을 가진 화가이다. [고-병-71-⑥]

실제로 이청준 작가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니까, ‘벌레이야기’는 광주사태 직후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가해자가 용서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지를 생각해서, 그런 절망감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 [고-별-33-⑥]

위 인용은 일반적으로 학습 독자들이 시공간적 배경에 주목하여 인물의 가능 세계를 추론함으로써 텍스트 유니버스를 구체화하는 사례이다. 이때는 독자 현실 세계와 텍스트 현실 세계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 대상을 그려내는 작업이 수행된다. 학습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에서 포착된 사건으로서 텍스트의 현실 세계에 대하여 자신의 선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 유니버스의 배경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였다. 학습 독자는 소설 속의 허구적 시공간과 사건을 끝이끝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 기본적으로 허구 세계는 경험 세계

7) 차봉희 편(1993),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p.22에서는 이저(V. Iser)의 『독서 과정』에 대한 해설을 시도하며, 독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상과 후상의 조건을 변증법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독자의 허구적 상상력이라고 정의한다.

의 모방으로 구성된다는 인식 속에서 독자 유니버스의 시공간, 즉 ‘자연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유니버스에 적용한다.

학습 독자는 텍스트를 현재화하는 기제로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인 담론을 재중심화의 기제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자기 경험 세계에 대한 지평을 바탕으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상호조화적인 독법에서 텍스트 유니버스는 텍스트의 현실 세계와는 조금 다른 맥락 속에서, 독자 유니버스 맥락과의 조우를 통해 재구성된다. 앞서 논의하였던 ‘서사적 추론’을 통한 독서가 바로 이러한 재구성의 계기가 된다. 텍스트 유니버스 내 표면화된 질서와 선별된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잠재적 가능 세계를 감지하는 것은, 서사적 추론을 통해 “세부적 사실관계의 구체화”를 시도하는 행위가 된다.⁸⁾ 이러한 독법은 ‘빈자리 채우기’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학습 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 형태의 허구 세계 구성이란, 독자 현실 세계와 독자 경험 세계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현실 세계를 상호 조화하여 허구 세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아래는 그러한 예시 중의 하나로 텍스트의 대안 세계를 매개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재구성한 반응이다.

실제 세계와 〈병신과 머저리〉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가 바뀔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이다. 전쟁의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동생과 같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현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중략) 예를 들어 만일 필자가 형이었다면, 소설의 결말을 집필한 후 이후 실제 ‘관모’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설을 계속 간직하고, 오히려 새로운 소설을 더 써나갈 것이다. 형은 소설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서 큰 좌절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소설은 그것을 집필하는 과정 그 자체가 가치 있으며,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없더라도 자신의 내면의 기저에 깔려 있는 수많은 고민을 정화하고, 그것에 대해 새롭게 판단하게 할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대-병-23-⑩]

위의 반응은 소설 교육에서 학습 독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양상

8) S. Chatman(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2003),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pp.30-33 참조.

으로 설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공간에 주목한 소설 이해는, 기본적으로 세계의 중층적 구성에 대한 감각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독자 유니버스(특히, 독자의 현실 세계)를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를 조화하고, 이 맥락을 바탕으로 재중심화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 내의 지배 담론으로 타당하게 인식되는 허구 세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생 독자의 시공간 중심의 소설 이해의 지체 요인을 허구 세계 중층성에 대한 감각의 부족으로 제시하고, 대학생 독자의 사례를 근접 발달 영역으로 설정하여 교육 내용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소설의 서사성은 서사를 일으키는 계기이자 “세계에 실감을 부여하는 능력”⁹⁾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된다. 독자는 소설 이해의 과정에서 허구 세계를 이루는 시공간의 중층성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질서를 구성하는 와중에 소설의 서사성을 감각하게 된다. 그러나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 분석 결과, 세계의 중층적 구조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체 요인은 학습 독자가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를 현실의 재현으로만 읽어내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가능 세계 양상을 구성하는 데 한계를 부여한다. 따라서 학습 독자가 가능 세계의 복수성을 전제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요구된다. 독자는 의도적으로 조직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의 중층성에 대한 이해, 세계의 경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참여자와 소설 뾰진성에 주목한 반응

다음으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서, 참여자와 소설 뾰진성에 관한 반응이 제시된다. 이는 “어떤 세계가 누구의 것이며, 왜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세계를 판단하는 작용이다. 이러한 읽기는 주로 텍스트의 주요 인물인 서술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서술자의 신뢰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전문 독자의 읽기를 통해 보았을 때, 독자는 텍스트에 서술된 보여주기와 말해주기에 대하여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 관조적으

9) M. Ryan(2001), *Narrative as Virtual Real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111.

로 서술자를 인식하였다. 즉,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지식이나 믿음 일반에 대한 객관적 추적을 시도하는 것이다. 반면, 학습 독자는 주로 작가와 서술자를 동일시하여 ‘있음 직한’을 넘어 ‘있었던’ 이야기로 읽어내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참여자 분별에 대한 읽기의 지체 요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학습 독자는 주로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인물의 감정과 정서에 기초하여 사건을 이해한다.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참여자에 대한 감각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별레만도 못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별레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은 줄 알았다. 하지만 별레를 의인화 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에 단 한번도 어떤 별레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별레 이야기라고 이름 지은 것일까? 누가 별레인가? 처참히 죽어버린 알람이가 별레인가. 아니면 원수를 진 것도 아닌데 살인을 한 원장인가. 도대체 이 소설은 누구를 별레라고 말하고 있는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가. (중략) 아마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별레이다. [고-별-41-①]

별레이야기는 살해당한 아들을 둔 불쌍한 엄마의 이야기이다. 엄마는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안타까움이 생긴다. 용서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 신이 있다면 악인은 철저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별-1-⑫]

생각해보면 ‘나’에게 공감의 간다. ‘형’은 자신이 소설을 쓴다는 것이 동생에게 밝혀지니 불을 지르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들키는 걸 거부한다. ‘형’은 나에게 머저리 같다고 ‘나’도 ‘형’만큼이나 인생의 내적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전쟁을 직접 겪었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이 더 고통스럽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병-117-①]

위 반응은 학습 독자의 단편적인 감정이입 사례이다. 여기서는 독자의 현실 세계 논리에 기반하여 텍스트 유니버스의 주요 사건을 이해한다. 특히, 자신에게 정서적 감응을 일으키는 인물의 말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인물 세계를 관찰하고, 판단한다. 소설 속 이야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학습 독자는 이야기·텍스트 유니버스 내 인물의 정서를 추론해 세계의 성격을 단언적으로 판단

한다. 허구 세계를 여러 맥락을 통해 구성하기보다는 오롯이 독자 경험 세계에 전-이해로 형상화된 것과의 대조를 통해서만 구성한다. 또한, 소설 속 인물 행위에 대하여 나름의 판단을 시도하며, 그 행위의 원인이나 동기를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추론한다. 다만, 참여자에 대한 판단적 읽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현실 세계와 대안 세계에 대한 의문 제기를 통해 참여자에 대한 중층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반응 텍스트가 학습 독자가 도달해야 할 모범 양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아이와 남편을 한번에 잃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내가 가족을 한번에 앗아간 세상. 이를 원망하고 원통해 하는 한이 서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벌레 이야기〉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벌레 이야기〉의 남편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까지 담담하다. 거기에서 오는 먹먹함이 더 큰 것은 작가가 노린 전략일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 [대-벌-7-㉔]

위 사례는 독자 유니버스의 재형상화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다시 텍스트 유니버스를 재조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설의 이해를 “상상을 통해 현재 시각에 주어져 있지 않은 사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내는 일”로 보면,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수용이 아닌, “여러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의미 부여를 시도하는 표현적 행위”로 볼 수 있다.¹⁰⁾ 텍스트 내에 표현된 인물의 진술에 대한 의문 제기로부터 추상화 작업은 시작된다. 독자는 자기 경험 세계, 자기 현실 세계 맥락을 통해 텍스트의 경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조회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뽕진함이 마련되며, 소설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처럼 참여자에 주목한 소설 이해는 세계의 뽕진함을 바탕으로 텍스트 의미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여러 맥락을 고려한 확장적인 사고 과정이다. 위 인용에서처럼 독서 능력이 전제된 대학생 독자의 경우 뽕진함을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작가와 서술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소설 교육의 결과라기보다는 독자의 독서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발현되는 능력으로 보인다. 따라서 뽕진성에

10) 윤여탁(1999),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문학교육학』 3, 한국문학교육학회, pp.251-253 참조.

주목한 허구성 인식이 독자의 소설 이해 능력을 신장하는 하나의 훈련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교육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 독자가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여러 가능 세계 지점을 포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학습 독자가 텍스트 유니버스를 팝인하게 느낄수록 작가의 자전적 서사로 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텍스트 속의 ‘나’를 관습적으로 저자 혹은 저자의 경험 세계 체계에서 추정한다. 이때 학습 독자의 반응 양상은 ‘연상’에 가깝다. 서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은 허구 세계 구성에서 참여자에 대한 감각을 일으킨다. 이는 흔히 소설의 ‘주제’라고 불리는 것, 즉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 대한 반복된 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있음 직하게’ 느낀다는 것은 작가 혹은 실존하는 누군가의 경험 세계로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현실에 대한 초극과 미지 세계에 대한 현실적 성찰을, 허구 세계의 국면을 빌려 체험한다. 다음의 반응을 보자.

이 작품의 ‘나’는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한 공포가 정신적인 상처를 이루고 있다. 어디서 본 바로는 작가 이청준은 어려서 고생이 많았고, 눈길 속의 ‘내’가 바로 이청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고-눈-171-㉔]

〈병신과 머저리〉는 전쟁을 겪은 두 형제의 이야기이다. 나는 형과 동생 중에 누가 작가를 상징하는지에 주목했다. 특히 글을 쓰면서 고통을 없앤다는 건 작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가능한 생각이다. (줄거리 중략) 작가는 여기서 계속해서 형의 편에 서있다. 관모를 보고 충격을 받고, 소설을 지우는 것은 자신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병-5-㉔]

위 인용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수의 반응에서 짧게는 한 줄이라도 서술자와 작가를 동일시하여 읽는 양상을 보였다. 작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음에도, 허구 세계는 작가의 경험 세계를 투영한 것으로 구성되거나, 작가의 현실 세계 즉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의 의미를 추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대화’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의 학습이 친편일률적으로 작가의 생애사 검토를 동반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서 소설 이해 지체 요인이 발견된다. 소설의

픽진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텍스트에 실현된 세계에 대한 경험이자 의미화라고 한다면, 허구 세계 참여자에 관한 판단은 텍스트와 문화, 사회, 정치, 역사 등 현실의 제반 영역과의 상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 독자는 자기 경험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의 가치를 전이하여 텍스트 유니버스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재중심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독자 유니버스 재형상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③ 담론과 소설 플롯에 주목한 반응

세 번째 양상 범주는 학습 독자의 줄거리 요약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구조적 이해에 관한 것이다. 이는 ‘플롯’에 집중하여, 소설을 읽는 와중에 텍스트 유니버스를 어떻게 배열하여 인식하는지에 주목한 반응이다. 소설 플롯을 판단하는 것은 구조주의 비평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의도나 소설의 필연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이때 플롯은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변화 과정을 통해 ‘개연성’이 담보될 때, 인물과 사건에 필연성이 부여된다. 이 “필연적 계기가 보장될 때 인물의 행위와 사건의 결과가 완성된 하나의 질서체 안으로 포섭”¹¹⁾된다. 따라서 그 줄거리의 요소들, 성격이나 사상을 결합하기 위해 플롯은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습 독자의 줄거리 전개 양상을 살펴봤을 때, 특기할 만한 점은 그들에게 플롯에 대한 스키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독자는 텍스트를 나름의 내적 인지 형식에 따라 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래는 학습 독자의 줄거리 요약 양상이다.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어린 아들이 학원 선생에게 유괴돼 살해된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안정된다. 어느 날 어머니는 종교의 마음으로 범인을 용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사형선고까지 받은 범인은 오히려 종교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심지어 유가족의 행복까지 기도한다. 이런 뻘뻘한 상황에 절망한 어머니는 자살한다.[고-별-9-㉔]

11) R. S. Crane(1952), *Critics and Criticism: Ancient and Moder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병욱 편(2007),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p.262.

줄거리를 나열하겠다. 발단: 나는 고향집에 가서 하루만에 돌아오려고 한다.
 아내는 그런 나를 만류한다. / 전개: 형이 집안을 파산시키고, 나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고생을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붕을 고치겠다고 하여 심기가 불편하다. /
 위기: 아내와 어머니의 말을 엇듣게 되었다. 예전에 갔던 그 집은 이미 팔렸었다는
 것이다. / 절정: 그날 새벽 어머니와 걸었던 눈길을 홀로 돌아왔음을 알게 된다. /
 결말: 나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린다. [고-눈-199-㉔]

대부분의 학습 독자는 위 인용에서처럼 텍스트 유니버스의 핵 사건을 통해 세계 내 주요 쟁점을 포착한다. 텍스트 유니버스의 사건 배열 논리나, 인과에 관해서는 별다른 쟁점을 제기하지 않고, 단순 사건 나열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한다. 이러한 감상에서는 소설 이해가 일어날 수 없다. 위 인용처럼 극단적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여 배열하는 것으로 줄거리를 바라본 독자들은 대부분 소설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중심으로 허구 세계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독자 대안 세계, 텍스트의 대안 세계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이는 텍스트 유니버스를 그저 하나의 대상물로서만 인식한 반응 실패 사례에 해당하며 플롯과 세계 담론을 바탕으로 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체 요인이 된다.¹²⁾

플롯에 대한 감각이 이처럼 단순 사건 나열에 불과하게 된다면 독자 반응 비평이나 수용미학에서 지적하듯 플롯 중심의 텍스트 구조화가 독자의 반응을 오로지 작가의 것과 일치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되며, 이는 소설 이해의 형식적 제약이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지향은 중층적 세계 구성을 통해 기존 플롯을 넘어서 보는 것에 있다. 즉 학습 독자들의 메타적인 소설 읽기를 통해, 기존의 관습화된 플롯을 해체하고, 독자 대안 세계와 독자 현실 세계를 포섭한 새로운 플롯을 재구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된다.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텍스트 내적 인지와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플롯을 통해서사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고, 허구 세계의 작동 원리를 설정하는 것을 통해

12) 양상 분석을 위한 감상문 289편 중 고등학생의 약 54.4%(111편/204편)와 대학생의 약 6%(5편/85편)가 사건의 단순 나열과 짝막한 인상 평가로 반응을 작성하였다. 이때, 감상에서 줄거리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몇몇 사건에 대한 추론, 어떠한 논리 구조의 발견 등 소설 이해의 양상이 담긴 것은 단순 사건 나열에서 제외하고, 소설 이해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인물과 사건 사이의 결합 양상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텍스트 내의 대안 세계, 즉 반사실에 대한 검토도 마련된다. 여기에 이르면 플롯에 대한 감각은 구성주의 문학교육을 표방한 방법론이 되며, 소설 이해에서 플롯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중요한 기제가 된다. 아래는 플롯을 통한 세계 담론에 대한 성찰에까지 도달한 반응 텍스트이다. 이는 학습 독자가 소설 이해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양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

‘형’은 자신의 전쟁에서의 기억을 ‘소설’이라는 장르로 기록한다. 이 소설쓰기는 형과 나의 전쟁체험, 삶에 대한 의미 찾기의 차이를 보여주며 이 소설 줄거리의 핵심에 놓인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단 한 가지, “왜 소설이었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이나 추억, 경험을 글로 옮길 때 수필로 많이 쓴다. 이는 소설의 특징에서 알 수 있는데, 소설에는 허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현실적인 것이나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형’의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허구적인 것이며, ‘형’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소녀의 죽음에 대한 상처를 추스린 것이라 할 수 있다.[대-병-30-㉓]

위 인용에서는 소설의 줄거리를 여러 사건의 나열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인물의 경험 세계와 각기 다른 독자 유니버스에 대한 맥락을 조희하여 하나의 핵 사건(‘소설 쓰기’)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인물의 이야기를 교차하여 평가한다. 더 나아가 인물의 가능 세계에 대하여 추적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새롭게 구성한다. 이러한 플롯 다시 쓰기를 허구 세계 구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고전적 의미에서의 플롯을 극복하게 한다. 학습 독자는 텍스트 내부에서 도식화된 견해를 성찰하여, 이를 플롯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인용을 예로 들면, ‘허구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현실에서 이뤄지지 못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견해가 플롯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텍스트 유니버스 구성 원리가 마련된다.

2.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위한 시사점

여기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전문 독자와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처치 방법을 구상한다. 먼저, 이때 제시할 교육 방법은 학습 독자의 일반적인 소설 읽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되며, 앞서 III장에서 제시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기반으로 도출한 것이다.

(1)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목표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목표는 앞서 논의한 소설 이해의 수행구조와 원리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현실 교육 맥락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¹³⁾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은 문학 작품을 통해 나와 타자가 공유하는 세계를 구성적으로 이해하고, 타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결과적으로 자기 세계에 대한 성찰을 이루고자 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는 소설의 장르적 특질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소설을 소설답게 읽게끔 하는 훈련이기도 하다.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 독자의 문학 능력 신장에 있다. 이때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한 문학 능력은 허구를 만드는 소설 언어에 대한 특수한 감각, 허구 세계의 계기들에 대한 복합적 인식, 새로운 허구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문학 텍스트를 생산,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여타의 언어적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

13) 현행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문학 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함양한다.’, ‘(3)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문제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설 이해 교육도 (1), (2), (3)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상적 소통 능력의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편으로는 “문학 장르의 생산과 수용에 덧붙여지는 능력”이기도 하다.¹⁴⁾ 또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독자 스스로 가능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수행되는 능력이다. 따라서 ‘작가-텍스트-독자’라는 전통적인 서사 소통 구도를 확장하여 ‘텍스트 유니버스, 이야기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 사이의 서사 소통의 구도를 조망하는 작업이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독서에 대한 메타인지 작업이 수행된다. 따라서 인지주의적 사고를 통해 텍스트를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행구조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이때 소설 이해는 학습 독자의 능동적인 읽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달되는 ‘방법적 지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 피터스(R. Peters)에 따르면 방법적 지식을 통한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실천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으로 내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지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고 알 줄 아는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¹⁵⁾ 이에 따라,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가능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지식’을 통해 ‘허구 세계를 메타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를 내용 체계로 설정하고, 세부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발견적 읽기’, ‘세계 재현적 읽기’, ‘세계 판단적 읽기’, ‘세계 성찰적 읽기’를 소설 이해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때 각각의 원리를 수행함으로써 신장할 수 있는 학습 독자의 소설 읽기 능력을 ‘세계 발견 능력’, ‘세계 재현 능력’, ‘세계 판단 능력’, ‘세계 성찰 능력’으로 정의한다. 세계 발견 능력은 세계 구성의 표지 생성과 소설 언어에 대한 메타적 이해를 ‘핵심 아이디어’¹⁶⁾로 설정한다. 독자는 감성적 지각의 작동을 통해 소설 언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수행한다. 독자는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한 표지를 소설 속 표현에 주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세계 재현

14) 우한용 외(2001), 『서사 교육론』, p.227.

15) 신재흡(2022), 『서양 교육철학』, 교육과학사, pp.259-263 참조.

16) 현행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하위 영역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상위 조직자로 위치시킨 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구체적 내용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체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능력은 허구 세계 시공간의 중층성 재현, 소설 서사성에 대한 메타적 이해, 소설 이해를 위한 정보소 추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내용 체계로 설정한다. 세계 판단 능력은 허구 세계 참여자의 목소리 판단과 소설 픽진성에 대한 메타적 이해, 소설 이해를 위한 의미소 전환이 핵심 아이디어가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 성찰 능력은 세계 담론의 체계를 성찰하는 것과 플롯에 대한 메타적 이해, 소설 이해의 완성으로서 해석소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수·학습의 목표를 아래의 표에서처럼 ‘내용 체계(핵심 아이디어)’와 ‘성취 기준(교수·학습 목표)’을 바탕으로, 각각의 역량을 습득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습득 역량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성취 기준 (교수·학습 목표)
세계 발견 능력	세계 구성을 위한 표지 발견	• 텍스트 내의 여러 표현 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 •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한 텍스트 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소설 언어에 대한 메타적 이해	• 감성적 지각을 활용한 소설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 • 일상 언어와 대비되는 소설 언어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세계 재현 능력	세계 시공간의 중층성 재현	•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도출할 수 있다. • 텍스트 내의 여러 이야기 가능 세계를 도출할 수 있다.
	서사성에 대한 메타적 이해	• 허구 세계에 작동하는 서사성을 인식할 수 있다. • 독자 유니버스를 이용하여 이야기 유니버스를 재형상화할 수 있다.
	소설 이해 정보소 생성	• 이야기 유니버스에 형상화된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소설 이해를 위한 정보소를 생성할 수 있다.
세계 판단 능력	세계 참여자의 목소리 판단	•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서술자를 탐색할 수 있다. • 텍스트 유니버스의 서술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을 할 수 있다.
	픽진성에 대한 메타적 이해	• 허구 세계에 작동하는 픽진성을 판단할 수 있다. • 독자 유니버스를 이용하여 텍스트 유니버스를 재형상화할 수 있다.
	소설 이해 의미소 전환	• 이야기 유니버스에서 추출한 정보소와 텍스트 유니버스에 형상화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소설 이해를 위한 의미소로 전환할 수 있다.
세계 성찰 능력	세계 담론의 체계 성찰	• 텍스트 유니버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 텍스트 유니버스 기저 욕망을 추론할 수 있다.
	플롯에 대한 메타적 이해	• 허구 세계에 작동하는 플롯을 도출할 수 있다. • 플롯을 허물기와 플롯 다시 쓰기를 할 수 있다.
	소설 이해 해석소 도출	• 의미소를 바탕으로 독자 유니버스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

<표 4.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목표>

이처럼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목표를 상세하게 설정한 데에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허구 세계 구성’에 대한 성취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허구 세계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성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 [4국05-02]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이 성취 기준은 작품 속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것이지만, 허구적 세계로서 현실 세계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작품 속의 인물·정서·상황·배경·분위기·사건 등을 이해할 때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과 상상, 사실과 허구를 비교하며 생각하게 하고, 허구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밑줄은 인용자)

(㉡) [9국05-05]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된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과 행위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간접 경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밑줄은 인용자)

이때 (㉠)은 소설 작품 속 세계에 대하여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것이지만 허구적 세계이기에 현실 세계와는 구별된다는 인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본 연구의 내용 요소와 공유될 수 있지만, 학습 독자의 허구적 인식 능력을 현행 교육과정에서처럼 초등학교급에 설정하게 되면, 환상이나 동화를 이용하여 현실과 허구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작품 속의 인물, 정서, 상황, 배경, 분위기, 사건을 중심으로 학습 독자가 자기 세계 체계를 바탕으로 허구와 현실을 매개할 수 있는 재중심화는 가능 세계에 대한 감각을 포함하며, 허구 세계의 발견, 재현, 판단, 성찰이라는 고등 수준의 문학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의 배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성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의 경우에는 허구 세계를 전면으로 설정한 성취 기준은 아니지만, 문학 작품을 다양한 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허구 세계 구성의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성취 기준도 허구와 현실의 문제를 구분하는 허구적 인식 능력을 단순히 문학 감상의 결과로만 치부하고 마는 한계가 있다. 허구 세계 구성을 통한 소설 이해는 소설의 해석, 더 나아가 서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학 능력의 신장에 있어 기초가 되면서도 고등 수준의 텍스트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학교급별, 학년별 위계에서 허구 세계 구성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계열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목표를 네 가지의 역량과 11가지의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체화하였다.

더 나아가 <표 4>의 교육 내용을 루브릭(Rubric)¹⁷⁾으로 이해하여 성취 단계를 구분한다면, 이는 평가 준거가 되기도 한다. 문학 능력의 발현은 “읽기, 말하기, 쓰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평가” 될 수 있으며, 그 잠재적 능력이나 숙달까지 관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간접적 평가”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¹⁸⁾ 따라서 문학교육에서의 평가는 학습 목표의 “절대적인 준거에 비추어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준거 지향 평가’ 방식”¹⁹⁾이 더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학습 독자 개별 반응의 검토라는 점에서 개인의 기존 역량과 변화된 역량 사이의 발전 정도를 통해 자기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참조 평가’²⁰⁾를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은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먼저, 학습 독자는 다양한 가능 세계 양상을 기반으로 서사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독자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를 매개로 다양한 유니버스를 대조해 보는 과

17) 루브릭은 평가도구 설계안으로서, 하나의 과제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결과물을 준거에 의해 목록화하고 등급을 결정하고 점수화하기 위한 도구를 말한다.(H. Goodrich(1996), “Understanding rubrics”, *Educational Leadership* 54(4), ASCD, p.14)

18) 김창원(2013), 「문학교육 평가론의 자기 성찰」, 『국어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p107.

19) 홍은숙 외(2011), 『교육학에의 초대』, 교육과학사, p.275.

20) 이는 규준, 준거와 함께 개인의 기존 역량도 평가의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자아 지향’ 평가로서, 감상이 곧 수행이 되는 문학 교실에 적합한 평가 방식이다.(최인자(2009), 「문학 영역의 교실 내 평가 정착을 위한 ‘실제적 평가’의 방향성」,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p.363)

정에서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행위 주체로서 나에 대하여, 세계 속 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을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설 읽기의 인지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2)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방법

여기에서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여 고등학생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²¹⁾ 이때 이론적 기반은 II장에서 논의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개념과 수행구조를 바탕으로 하였고, 절차적 수행은 III장에서 도출한 원리와 IV장의 교육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학습 독자는 이청준의 〈눈길〉의 전문을 읽은 후 해당 교수·학습을 수행하였다. 이때 제시한 소설 이해 교육은 절차적 방법으로 수행되는데, 이 관계는 ‘①소설 언어와 구조 탐색 → ②대상 세계에 대한 객관화(서사성 기반) → ③대상 세계에의 몰입(뫼비우스 기반) → ④대상 세계의 지배 논리 탐색(플롯 기반)’의 틀²²⁾에 따라 구성하였다. ②, ③, ④ 단계에는 독자 세계 체계를 이용하여 텍스트 내의 대안 세계를 모색하도록 유도하였다.²³⁾

21) 교수·학습은 추가실험으로 진행하였다. 교수·학습은 앞서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를 읽고 반응 텍스트를 제출했던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교육 방법의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을 위하여 앞서 반응 양상을 제출했던 동일한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검증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교수·학습 실행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I 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추가실험의 학습 독자 반응 텍스트는 [추-눈-1-④]처럼 표기한다. 이는 [추가실험-눈길-번호-양상 범주]를 의미한다. (양상 범주는 표 4를 따른다.)

순번	수집 시기	자료 수집 대상	활동 내용	연구 자료
추가 실험	2023. 10.	경기도 S고 2학년 25명	-이청준, 〈눈길〉 전문 읽기 후 교육 내용을 적용한 교수·학습 진행 후 반응 텍스트 작성	-감상문 -설문지 -활동 결과지

22) 호창수(2023b), 「메타픽션 읽기의 문학교육적 가능성」, 『국어교육연구』 83, 국어교육학회(since1969), p.344.

이를 통해 ‘독자 유니버스-텍스트 유니버스-재구성된 독자 유니버스’ 사이에서 삼중의 미메시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허구 세계 구성을 통해 학습 독자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 담론을 생성하기 위한 해석소를 획득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중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되며, 독자 유니버스의 인지 도식에 대한 성찰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독자의 삶을 재형상화하는 기제가 된다. 이것이 독자의 재중심화 방법이 된다.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학습 독자들이 본 실험의 양상 분석을 위해 전문을 읽었던 〈병신과 머저리〉에 대한 자기 점검을 실행하였다.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원리 중에서 학습 독자의 양상에서 가장 저조하게 생성된 지체 요인을 중점으로 하여 문학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때에는 별도의 감상문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학습 활동지를 자료로 하여 자신의 기존 감상에서 허구 세계 구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문학 토의는 원리에 관한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기에 추가실험의 비계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또한, III장에서 분석한 전문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과 앞서 대조군으로 설정한 대학생 독자의 이상적 읽기 양상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들은 앞서 자신이 제출한 반응에서 지체 요인을 메타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후 학습 독자는 〈눈길〉을 읽고, 앞서 양상 실험 때와 동일한 질문지에 답변을 작성하였다. 이번에는 본 실험과 달리 감상문을 ‘작성하기 전’에 질문지에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허구 세계 구성에 대한 선이해를 구축한 후 감상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감상문에는 줄거리를 포함하여, 자유연상을 통해 조건 없이 감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양상은 앞서와 달리 전반적으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진행하였고, 특히 원시적 감상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던, 재중심화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가령, 텍스트 유니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하나의 반사실로 제시하는 작업, 독자 유니버스나 세계 체계와 대조하여 텍스트 유니버스를 비판하는 작업, 텍스

23) 각각의 내용에서 학습 독자가 ‘대안 세계’를 구성해보게끔 한다. 이는 반사실적 사고를 통해 허구 세계에서 가려진 정보로 텍스트를 채우되, 독자 세계 체계를 통해 조희했을 때 합당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U. Eco(1979), 앞의 책, p.323을 참조.

트 유니버스 이면의 기저 욕망을 포착하고 독자 유니버스의 맥락과 대조하는 작업 등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했던 결과를 성공적으로 생산해냈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의 세계 발견적 읽기, 세계 재현적 읽기, 세계 판단적 읽기, 세계 성찰적 읽기를 구체화한 교육 방법을 도출²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는 충분히 학습되고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험 결과는 기존 ‘문학 해석 교육’이 추구하는 능동적인 해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기호론적인 사전 이해 작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① 세계 발견적 읽기를 통한 허구 표상의 형성

세계 발견적 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언어와 소설 언어의 대별이다. 학습 독자는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을 통해 텍스트성을 인식한다. 소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내용으로 하지만, 소설 언어라는 특수한 장치를 통해 실재한다는 인식이 생성된다. 독자는 허구적 인식 능력을 통해 허구 세계를 접하고, 이 도식을 통해 허구를 현실로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도출되는 허구 세계 구성은 세계 발견적 읽기를 통해 활성화된다.

이때 학습 독자가 세계 발견적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소설을 소설답게 인식하는 수용 능력의 훈련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문학 작품 자체가 아니라 문학 ‘적(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적인 것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적 소양을 문학적 감성이라 한다면, 텍스트 수용의 방법론으로서 “문학적 감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감성적 지각’”²⁵⁾이라 할 수 있다. 감성적 지각은 나와 나의 삶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논리적으로만은 표현하기 어려운 감성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이다. 소설을 이루는 작가의 표현은 어떤

24) 여기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수행 방법은 호창수(2023a), 「가능 세계 구성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9, 우리말글학회, pp.284-289에서 제시하는 교육 내용을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다.

25) 호창수(2020), 「디지털 시대 문학교육 원리로서 감성적 지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연구소, pp.162-163.

가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일상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조희에서 비롯한다. 이때에는 구체적인 대상을 초월하여 인간의 감각 전반을 자극하는 특수한 감성적 판단이 요구된다.

리쾨르(P. Ricoeur)에 따르면 ‘판단’이란 텍스트를 통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나의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며, 이때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부분과 맞물릴 때 발생하는 인간 사유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⁶⁾ 감성적 지각의 개념이 이러한 판단의 개념을 수용한다고 하였을 때, 독자는 감성적 지각을 통하여 소설 속에 표현된 세계상을 상상한다. 이때에는 세계의 실체를 현실에 대입하여 그 존재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저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어떤 맥락들 속에서 가능 세계로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감성이란 “자아의 내적 상태를 스스로 깨닫고 조율하는 감정 능력으로 지성적 사유를 완성케 하는 중요한 매개이자 자아와 세계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²⁷⁾이라고 할 때, 독자는 자기의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할 힘을 기르기 위해, 자신의 본질 안에 있는 감성을 인지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작용이 바로 ‘감성적 지각’의 작동 기제라 할 수 있는바, 이는 로젠블랫(R. Rosenblatt)이 제기하는 심미적 경험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텍스트에 의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활성화되는 모든 요소에 귀를 기울이면서 “감정과 사고의 융합,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의 융합”을 수행하고, “통합된 감성을 이룩하는 것”²⁸⁾으로서 감성적 지각을 통해 독자는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다움을 향한 소통과 성찰의 가능성이 확장된다.

이처럼 학습 독자는 감성적 지각을 바탕으로 일상 언어와 소설 언어의 차이를 통해 소설의 허구성을 인식한다. 또한, 소설 언어로 표현된 인상적인 문구, 어휘 등을 소설 이해에 주요한 기제로 삼는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교수·

26) P. Ricoeur(1986), *Du Texte a l'Action*, 박병수 외 역(2002),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p.132.

27) 박현이(2014), 「감성 개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p.81.

28) R. Rosenblatt(1978),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김혜리 역(2008), 『독자, 텍스트, 시』, 한국문화사, p.21.

학습에서 학습 독자가 소설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앞서 제시한 세계 발견적 읽기와 관련한 수행 양상과 원리를 학습 독자에게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세계 발견적 읽기 원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교육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 발견적 읽기의 원리>

- (a) 이야기된 사실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묻지 않는다.
- (b) 고유 명사 혹은 대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개체를 취사선택한다.
- (c) 인물 행위의 연쇄를 공간적으로 국한한다.
- (d) 인물의 다음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한다.



<세계 발견적 읽기 교육 방법>: 감성적 지각의 활성화

- ① 학습 독자는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허구 세계의 모습을 작품에 제시된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한다.
- ② 학습 독자는 작품에서 허구 세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를 작품 안과 밖에서 발견한다.
- ③ 학습 독자는 작품에서 허구 세계 속의 언어와 자신의 언어의 차이를 제시한다.

여기서 교육 원리 적용 전의 학습 독자는 주로 (b)를 통한 텍스트 인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기에, 다른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텍스트 바깥의 요소들, 즉 작가 세계의 맥락이 소설 표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②에 대한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c)과 (d)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③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감각을 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의 적용 결과 〈눈길〉의 감상문에서 학습 독자의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 즉 표현상의 특징이나 문체, 작가 세계의 맥락에서 해당 문장을 서술한 이유 등에 대한 반응이 일부 발현되었다. 또한, 두 소설 모두 제목이나 일부 소재에 알레고리가 강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기도 했지만, 〈눈길〉에서 ‘옷케’, ‘눈길’,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에 주목한 반응이 다수 있었다.

노인은 이상하리만큼 옷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다. 그 옷케라도 하나 없으면 이 집을 누가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냐.” 에서 보듯 노인에게 옷케는 소유물 그 이상이다. 내 생각에는 노인은 심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아들의 대체물로 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아기들이 애착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것과 같은데, 잃고 싶지 않은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추-눈-3-④]

위 인용은 소설 속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고, ‘옷케’라는 대상물에 집중하여 해석으로 나아간 사례이다. 이처럼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은 그 자체로 소설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구 세계 구성의 계기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표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자 세계 체계를 대입하여 대상물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재중심화 실현의 가장 단적인 사례가 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허구 표상’이 형성된다.

② 세계 재현적 읽기를 통한 정보소 생성

독자는 소설 언어로 표현된 세계를 접할 때, 텍스트에 혼재한 여러 표지를 이용하여 세계를 하나의 이야기로 도식화한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에 사용된 기법, 특질, 단어, 이미지 등 어떤 것이든 소설의 서사성을 도출하기 위한 표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이야기는 주요 인물의 유니버스에 의해서든, 작가의 장치나 독자의 자율적인 이해 도식에 의해서든 인과관계에 대한 감각을 내포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이야기의 흐름을 세우고, ‘시작-중간-끝’을 향해 가는 이야기 유니버스의 시간적, 공간적 틀을 포착한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세계성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중층적 텍스트 구조를 검토할 수 있으며, 텍스트 현실 세계의 질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층적 세계의 재현 결과로 허구 세계가 구성되며, 소설 서사성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마련된다. 학습 독자의 도달 목표를 아래의 반응 텍스트를 예시로 설정할 수 있다.

〈병신과 머저리〉는 화자인 동생이 형이 쓰는 소설 내용을 추적하여 독자에게 말을 전하는 이중적인 구조이다. 얼핏 보면 동생이 주인공 같지만, 결국 형의 소설 속 내용이 중심이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형의 소설 결말이 형과 동

생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대조를 통해 소설을 쓰는 건 형이 아니라 내가 된다. [고-병-11-㉠] (밑줄은 인용자)

주인공과 어머니가 같이 걸었던 눈길을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어머니는 다시 혼자서 되걸어온다. 함께 눈길을 걸었던 발자국이 선명하다. 어머니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러한 눈길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뜻함이다. 함께 눈길을 걸은 후 어머니와 주인공은 각자의 길을 갔고, 결국 어머니 혼자 되돌아오며 자식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을 때와 현재 그 이야기를 몰래 엿듣는 주인공이 눈물을 몰래 흘렸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치되고 있다. [고-눈-132-㉠]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병신과 머저리〉와 〈눈길〉의 중층적 세계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이다. 심지어 텍스트 유니버스의 중심 이야기에서 도출할 수 없는 인물의 가능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텍스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 독자의 이해 양상에서는 시공간의 중층성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채로 단순한 인상 평가, 즉 텍스트 유니버스에 독자 유니버스를 이입하여 정서적 감응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혹은 독자의 경험조차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화된 타자의 이야기로서 관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는 일종의 ‘사실적 읽기’로서, 독서이론에서 정의하는 “해독(decoding)으로서 읽기”에 불과하다. 로젠블랫은 텍스트 내면의 반향에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개념으로서의 감정이 아닌 텍스트가 신호로 알리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경험적인 읽기이자 ‘원심적 읽기’”라고 정의한다.²⁹⁾ 학습 독자의 일반적인 소설 이해의 원리가 이 원심적인 읽기로 진행되는 경우, 독자의 주의를 세계의 중층성에 대한 감각에 놓이기보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나 기호에 대한 반응에 머무르게 된다.

결국, 원심적 읽기로서만 이루어진 소설 이해는 텍스트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재인하고 회상하는 ‘축어적 이해³⁰⁾’에 머무르게 된다. 텍스트의 세부 내

29) R. Rosenblatt(1978), 앞의 책, pp.48-49.

30) 배럿(T. Barrett)은 독해 기능을 분류하며 ‘축어적 이해(literal comprehension)’의 개념을 세부 내용의 재인 및 회상, 중심 생각의 재인 및 회상, 비교의 재인 및 회상, 인과관계의 재인 및 회상, 인물 특성에 따른 재인 및 회상의 하위 기능으로 이루어진 독해 단계로 분류하였다.(이성영(2008),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용을 단어로 나열한다든지, 비교의 양상으로 추인한다든지, 인물이나 배경에만 집중하여 재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시공간적 배경에 경도된 이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 독자의 원심적 읽기를 바탕으로 얻어진 ‘세계 내 정보소’를 인지주의적 맥락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 내·외부의 의미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가 서사 구조를 포착한 후 의미화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서사의 표면에서부터 심층 구조까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의 세계 구성이 이야기 유니버스에서의 시공간적 맥락과 결합하여 점층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도달하였을 때, 학습 독자의 자기 유니버스와 텍스트 유니버스의 상호 조화를 통한 재중심화가 활성화되며, 세계 재형상화가 수행된다.

이 과정을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먼저, 독자는 발견된 세계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감각한다. 허구 세계의 모든 행위는 가상된 시공간 영역에 고정되는데, 이 시공간의 특성을 텍스트 내적 맥락과 독자 세계 체계에 기반하여 추출한다. 특히, 텍스트 유니버스의 내부에는 텍스트를 이루는 인물들 혹은 텍스트 밖에 위치한 작가라는 존재의 가능 세계, 즉 이야기 유니버스가 서로 혼용되어 얹혀있다. 각기의 이야기 가능 세계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주요 발화자인 서술자의 눈과 입을 통해 상호 공진하며, 이는 구심력의 양상을 띤다. 독자는 이러한 중층적인 텍스트 유니버스의 현실을 자신의 유니버스 이해 도식을 이용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실체화한다. 이것이 세계 재현적 읽기이다. 이렇게 구성된 세계의 이야깃거리는 독자에게 여러 세계 정보소로서 기능하게 된다.

세계 재현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는 시공성 위계화이다. 앞서 학습 독자의 양상 분석에서 밝혀진 소설 이해 지체 요인은 허구 세계의 시공성에 대한 축어적 이해에 천착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적 변환을 통해 ‘세계 넘나들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상해야 한다. 세계 넘나들기는 허구 세계에 혼재한 인물, 독자, 작가, 현실의 가능 세계 양상을 분별하고 이들 사이의 위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학습 독자

로」,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pp.51-80 참조)

가 주목하는 시공간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의 형식이자 인식의 틀”³¹⁾로 기능한다. 학습 독자는 세계 체계로서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과 또 다른 유니버스의 시간, 공간, 문화적 맥락에 의해 만들어진 거리감을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학습 독자가 허구 세계를 의미화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경험하는, 또 인물이 경험하는, 독자 세계 체계가 지배하는 시공간적 맥락에 대한 감각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허구 세계 구성에서 ‘합의’된 논리의 교섭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합의는 세계 구성원 간에 일어난 묵시적인 규약이다. 소설 속의 인물이 겪는 상황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는 배경에 대한 학습자의 의미화는 곧 합의의 지점과 그 과정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 독자는 제시된 정보의 표지를 정확히 의미와 대응시키고, 이를 통해 구성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여 자기 경험 세계 즉, 지식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독(decoding)과 독해(comprehension)의 통합적 관계로 이루어진 독서를 의미하며, 학습 독자가 텍스트의 현사건(現事件)을 다양한 시공간적 표지와 연결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독자의 생애 맥락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비추어 의미를 구성하는 작용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곧 이 맥락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표지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재현적 읽기의 실현을 위해 허구 세계 구성에 작동하는 미메시스 원리를 대입하여 학습 독자의 재형상화를 꾀하였다. 학습 독자는 이전 양상에서 이야기 유니버스의 시공간적 배경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세계를 중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야기 유니버스를 작가 혹은 실재하는 세계의 모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지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세계 재현적 읽기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여 수행하였다.

<세계 재현적 읽기의 원리>

(e) 이야기 유니버스 속 인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포착한다.

31) 고정희(2013),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p.13

- (f) 이야기 유니버스 속의 서로 다른 인물이 속한 시공간을 확인한다.
- (g) 이야기 유니버스의 사건을 회상하고, 어떤 인물의 시공간이 중심이 되는지 확인한다.
- (h) 이야기 유니버스를 특정 인물의 시공간으로 한정할 이유를 세계 체계를 통해 설명한다.



<세계 재현적 읽기 교육 방법>: 세계 시공간 넘나들기

- ④ 학습 독자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시공간을 설명한다.
- ⑤ 학습 독자는 작품에서 또 다른 세계 혹은 같은 세계의 또 다른 시공간이 있다면 이를 설명한다.
- ⑥ 학습 독자는 내가 속한 현실 세계와 작품 속 세계를 비교한다.
- ⑦ 학습 독자는 작품 속 세계의 인물을 그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인물이 희망하는 삶을 추론한다.
- ⑧ 학습 독자는 작품 속 세계의 인물 행동을 묘사하고,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는 시공성 위계화에 초점을 맞춘 ‘세계 시공간 넘나들기’ 방법이며, 학습 독자들이 주로 실패했던 (g)시공간의 중층성 발견, (h)현실 체계 맥락의 조응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학습 독자가 이야기 유니버스 내의 또 다른 가능성, 즉 반사실 세계에 대하여 추론하게끔 하였다. 이때 학습 독자는 ⑤의 사례로서 ‘오 관모’의 입장에서 ‘김 일병 사건’을 추적해 보거나, 반대로 ‘형’을 서술자로 판단하여 ‘동생’을 평가하는 반응을 만들어 내었다. 많은 학습 독자가 ⑦, ⑧보다는 ⑥에 주목한 반응을 쉽게 만들었는데, 지금의 세계 체계에서 〈병신과 머저리〉는 각각 청년층과 장년층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문제로 읽어낸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다. ⑦의 사례로는 ‘동생’의 입장에서 ‘동생’도 머저리가 아닌 ‘병신’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⑧의 사례로 ‘형’이 소설을 불태우지 않고, 결말을 남기고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을 추론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을 적용한 후 학습 독자는 아래와 같이 세계 재현적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눈길」에서 중요한 것이 이 부끄러움의 의미이다. 이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이다. 주인공은 가난이 지닌 부끄러움을 지나치게 회피하려고 하였다. 어쩌서 어머니는 아침 햇살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을까?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자소관 운운한다. 주인공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던 것이다. [추-눈-15-㉔]

위 인용을 교육 원리 적용의 성공 사례로 고른 이유는 이 학습 독자는 앞서 지체 사례로 제시했던 학습 독자³²⁾였기 때문이다. 이 학습 독자는 소설 서사성을 시대적 배경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를 넘어 세계 체계에 대한 복합적 감상을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인물의 세계에 대해서 두 세계의 견해를 서로 견줘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이해의 발달을 보였다. 이 밖에도 학습 독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세계 간 교섭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메타적으로 세계를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야기 유니버스에 산재한 크로노토프와 시공성을 매개로 소설 이해를 위한 정보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세계 판단적 읽기를 통한 의미소 전환

다음으로 허구 세계 참여자에 관한 판단 문제에 있어 학습 독자를 위한 소설 이해 교육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허구 세계 참여자의 견해와 목소리에 대한 독자의 주체적 판단은 결국 소설 뒤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바르트(R. Barthes)의 목소리 조직 개념이 유효하게 작용한다. 그는 텍스트가 구조화되는 흔적을 목소리에서 발견하는데, 이때 목소리는 다섯 가지의 코드가 중첩된 것을 의미한다. ‘경험의 목소리’ (인물의 행동), ‘인격체의 목소리’ (서술자 등 인물), ‘지식의 목소리’ (독자의 세계 체계), ‘진실의 목소리’ (해석학적 체계), ‘상징의 목소리’ (독자의 동시성 시도)³³⁾가 텍스트 속에 혼재되어 있다. 이렇듯 목소리는 항상 외연과 내면의 다른 목소리들로 중첩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개인의 주체적 대상물로서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를

32) [교-병-71-㉔](본 연구, p.146)

33) R. Barthes(1970), *S/Z*, 김용권 역(2006), 『S/Z』, 동문선, pp.34-35.

통해 학습 독자를 위한 목소리 분별, 다중 목소리에 대한 감각을 꺾진성 판단의 내용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중첩된 각각의 목소리를 정보소로 판단하고, 가능 세계로 구성하여, 의미소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인격체의 목소리: 이야기 경험 세계’, ‘경험의 목소리: 텍스트 경험 세계’, ‘지식의 목소리: 독자 현실 세계’, ‘상징의 목소리: 독자 유니버스’가 그것이다. 이는 삼중의 미메시스 구조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재형상화로서 ‘진실의 목소리: 재구성된 독자 유니버스’의 문제는 소설 꺾진성의 계기로써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론적 순환은 결과적으로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인 ‘해석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설의 꺾진성에 대한 인식과 성찰은 독자의 삶에 대한 의미화를 뜻하며, 미적 체험을 통해 언어로 형상화된 작가나 인물의 경험 세계를 조망해 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즉 소설의 여러 표상에 대한 관계 맺기를 통해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에 따른 거리감”을 바탕으로 “서사에 실현된 가치를 경험하는 ‘내적 활동으로서의 사고’를 의미”한다.³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습 독자는 허구 세계의 참여자를 단순히 작가나 독자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가능 세계 속의 존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가 서술자에 대한 위상 재조정을 통해 텍스트 유니버스에 은폐된 지점, 서술자가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그 지체 요인을 해소하고자 한다. 아래의 반응 텍스트가 학습 독자가 현실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양상이 될 수 있다.

벌레 이야기는 하찮은 벌레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 의식 없이 개미를 밟고 지나가듯. 그런 절대적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의식이 감춰진 작품이다. 착한 용서를 강요당한 알람이의 엄마가 죽음을 택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쩌면 강압적인 사회에 대한 소심한 복수 혹은 반발심이 아니었을까? 무덤덤하게 그러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서술자도 무덤덤함으로 신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이다. [대-벌-31-㉡]

34) 듀이는 경험의 본질로 성찰성을 강조한다. 그는 ‘외적 활동으로서의 행위’와 ‘내적 활동으로서의 사고’로서 경험을 제시하는데, 이때 경험은 주체를 재구성하고,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실천적인 개념이다. (J. Dewey(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엄태동 역(2001),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pp.60-64 참조)

위 인용은 서술자의 위상을 재조정하여 텍스트 유니버스에 은폐된 지점을 포착한 사례이다. 여기서는 독자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텍스트가 말해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추론을 시도한다. 이는 서술된 목소리의 재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세계 체계를 바탕으로 인물의 경험 세계를 새롭게 조희하게 된다면 목소리 재형상화를 넘어 독자 유니버스의 재형상화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상한다고 하였을 때, 허구 세계 참여자에 관한 판단은 서사 소통 대상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야기 유니버스의 중심 화자로서 서술자 문제가 호명된다. 이때에는 허구 세계 속 인물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세계 양상의 창조자 혹은 세계의 설명자로서 서술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인물이 만들어 낸 가능 세계 속 이념의 문제와 크로노토프로 추출된 서술자의 이념 문제를 중층적 구도로 조희하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세계 갈등의 양상을 모색하고, 독자 세계 체계와의 동시성 논의를 거쳐 재중심화가 수행된다. 아래는 학습 독자가 참조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가 실은 ‘노인’ 앞에서 자신의 현실적 ‘무능력’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능력’의 세계, 즉 예술의 세계로 ‘매정스럽게’ 도망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 ‘글쟁이’가 아니라, ‘소유’와 ‘지배’와 ‘복수’를 택한 도회지의 우람한 생활인이었다면, ‘나’는 아마도 ‘노인’에게 적어도 가난을 모면할 희망이라도 줄 수 있었을 테지만, ‘나’도, ‘노인’도 각각 자신의 가난을 일종의 업보로서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다.³⁵⁾

위 인용에서 전문 독자는 대안 세계를 구상(“도회지의 우람한 생활인이었다면”)하여 서술자의 위상을 재검토(“‘나’는 아마도 ‘노인’에게 적어도 가난을 모면할 희망이라도 줄 수 있었을”)한다. 이러한 대안 세계 구상은 학습 독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변환될 수 있다. 주로 반영론적인 입장에서 소

35) 안삼환(1988), 「‘빛새’로 유랑하기/ ‘나무’로 서 있기」, 권오룡 편(1999), 『이 청춘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p.248.

설을 학습해 온 학습 독자는 현실적 맥락(시대적·역사적 배경)의 측면에서 텍스트 현실 세계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짙다. 결국, 학습 독자에게는 텍스트에 직접 제시된 표지나 사건이 세계를 인지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서술자의 목소리를 실재하는 것으로 읽어내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믿는 채하기’ 기법을 통해 작가와 서술자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구 세계를 관조적으로 조망하거나, 반사실적 진술로 이루어진 대안 세계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허구 세계 참여자에 관한 판단의 계기를 학습 내용으로 구상하여 학습 독자 스스로 서술자를 조망하고, 그 위상을 조정하도록 교육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텍스트 유니버스의 목소리를 메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목소리를 믿는 채하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믿는 채하기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일원이 되어 텍스트 유니버스의 규칙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 혹은 구체적인 인물의 입장이 되어 그 규칙 속에 임하는 것이 믿는 채하기이다. 이때 서술자의 목소리에 반기를 드는 발화를 구상할 수 있다. 반어적으로 말하거나, 반사실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텍스트 유니버스의 가능성이 새롭게 포착된다. 마찬가지로 믿는 채하는 것은 서술자의 목소리뿐 아니라 시선을 확보함으로써 참여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가 된다. 서술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 은폐하고자 하는 것을 들춰내 보이고 텍스트 유니버스 내 구성원으로 그 허구적 명제에 관하여 판단을 가하는 것, 이것이 세계 판단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신뢰성 판단을 수행한 후 기존 목소리에 대한 감각을 변형한다. 결과적으로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일원이 되어서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 텍스트 유니버스에 실재하는 자들의 목소리, 텍스트 바깥의 목소리를 중첩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목소리는 재형상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경험을 통해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여러 정보소를 믿어 봄으로써 얻게 되는 의문, 은폐 지점, 신뢰성에 대한 의미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포착한 지점을 세계 의미소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의 세계 판단적 읽기의 수행을 위하여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다중시각 확보를 통한 독자의 견해 확장을

피하였다. 학습 독자는 이전 양상에서 서술자를 탐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텍스트 유니버스의 서술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주로 서술자를 작가의 분신으로 읽거나, 상당한 권위를 부여받은 실재 속 누군가의 재현으로 읽는 경향성이 높았다. 이는 목소리 분별, 다중시각 확보의 부족이라는 지체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

<세계 판단적 읽기의 원리>

- (i) 텍스트 유니버스를 관장하는 주요 목소리 포착하기
- (j)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주요 주장을 확인하고, 그 계기를 텍스트 가능 세계에서 찾기
- (k)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에 의해 말해지지 않은 틈을 찾고, 의미화하기
- (l)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신빙성 판단하기



<세계 판단적 읽기 교육 방법>: 세계 참여자 의심하기

- ⑨ 학습 독자는 작품이 누구의 세계를 묘사한 것인지 설명한다.
- ⑩ 학습 독자는 작품 속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것을 구분한다.
- ⑪ 학습 독자는 작품 속 화자의 말이 사실인지 추측한다.
- ⑫ 학습 독자는 작품 속 세계의 인물이 되어 작품 속 화자와 대화한다.
- ⑬ 학습 독자는 현실에서 작품 속 세계에 속한 인물과 같은 대상을 포착한다.

1차 반응에서 학습 독자는 서술자를 발견하더라도, 여러 목소리 속에서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것은 자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i), (k), (l)의 실현을 위해서 세계 참여자를 확장해 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대입하여 서술자에게 대화를 거는 방식의 활동을 구상하였다. 이는 앞서 제기한 믿는 체하기를 통해 독자 유니버스를 텍스트 유니버스와 대조해 보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독자 역시 텍스트 속의 지배 법칙을 추체험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대항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런 목소리 재형상화 체험은 세계 내에 은폐된 지점을 포착하게 해주며, 다양한 맥락에서 세계의 주요 참여자에 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적인 읽기가 된다.

〈병신과 머저리〉에 대한 답변 중에는 ⑩서술자인 ‘나’가 ‘형’의 소설의 결말을 바꾸는 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고, ⑪은 주로 서술자 ‘나’에 대한 의문 제기과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대부분의 학습 독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었다. ⑫에 대해서는 ‘혜인’이 되어 ‘나’의 답답함을 지적하는 사례나 ‘관모’가 되어 ‘형’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사례를 만들어서 텍스트 유니버스 내의 다른 반사실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⑬은 학습 독자들이 보았던 다른 문학 경험의 사례를 상호텍스트적으로 대입하는 사례가 특징적이다. 교수·학습 결과 세계 판단적 읽기를 통한 대안 가능 세계 구성이 제일 많이 발현되었다. 아래는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신뢰성 판단에 성공한 사례이다.

주인공은 내내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자신의 수치심 혹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제3자적 관계로 두는 것은 철저한 거리두기이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어머니에게 ‘빚’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은 자수성가했다는 것이다. 어머니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그래서 어머니를 제3자격인 노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사실 주인공은 내내 어머니가 ‘묵은 빚문서’를 꺼내 놓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어 것이고 회피하게 만든 것이다. [추-눈-20-①](밑줄은 인용자)

이 반응은 텍스트 유니버스 서술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시도로, 두 인물의 경험 세계를 조화하면서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착하여 허구 세계 구성을 기반으로 한 소설 이해의 중심으로 삼는다. 특히, 서술로 서만은 알 수 없는 인물의 세계 견해를 추론함으로써 소설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세계 참여자의 형상화에 대한 계기를 다양한 유니버스 맥락과 대조함으로써 독자 유니버스의 재형상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세계 의미소 전환이 빈번해질수록 학습자의 능동적 해석의 가능성이 커진다.

④ 세계 성찰적 읽기를 통한 해석소 도출

마지막으로 허구 세계 구성의 완성을 통해 도출된 세계 담론에 대하여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적 시사점으로 제시한

다. 독자의 텍스트 재구성 행위에는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플롯에 관한 성찰이 작용한다. 학습 독자는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세계 담론의 계기로서 플롯의 재구성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 유니버스 이해 도식으로서 플롯 만들기(plotting)라는 교수학적 처치를 통해, 지체 요인을 해소하고자 한다. 아래의 양상이 교육 내용의 결과로 제시될 수 있는 반응이다.

이 소설은 줄거리 속에서도 시공간이 변화한다. 시간적으로는 ‘전쟁 때 형’ - ‘병원에서 사고난 형’ - ‘소설 쓰는 형’ - ‘내가 읽은 형 소설’ - ‘결말의 변화’ - ‘소설 불태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는 ‘액자식 구성’의 형태로 전개된다는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병신과 머저리〉는 소설 속 주인공이 소설을 쓰는 구성이다. 그저 소설가가 등장하는 소설로 끝맺을 수도 있겠지만, 〈병신과 머저리〉 속에서는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더 제시함으로써 소설의 주인공의 고통과 그 극복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삶이 다른 형과 동생의 아픔과 극복 의지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삶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며, 그 자체로 구원의 의미를 지닐 때, 〈병신과 머저리〉의 ‘형’이 행하는 구원의 작업을 소설을 읽는 ‘아우’의 눈으로 바라보는 독자는 자신을 단순히 이 청준의 소설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병신과 머저리〉속 아우와 동일시하며 읽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고-병-15-㉔]

위 인용에서는 소설의 구성에 주목하여 텍스트 속 사건을 구조화한다. 먼저, ‘액자식 구성’을 ‘소설 쓰기’라는 크로노토프와 연계하여 이해를 시도하고, 그 결과 독자 세계 체계와의 대조를 통해 재중심화를 시도한다. 독자는 스스로 소설 속 ‘아우’와 동일시하여 소설 이해를 시도하며, 결과적으로 소설 속 ‘형’이라는 존재 찾기 과정에 동참한다. 이러한 사례는 텍스트 속에 혼재한 여러 인물 세계의 시공성을 잘 엮어낸 것으로 플롯 재구성의 좋은 사례이다. 학습 독자는 소설의 전개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회상이나 연상을 통해 주요 사건을 포착하고 줄거리의 열개를 만들어 낸다. 또한, 나름대로 결말을 부여하여 텍스트 유니버스를 종결시킨다. 이때 독자 세계 체계에 존재하는 인과율은 마스터 플롯으로 작동하게 되며,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를 위의 인용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이 도출된다. 학습 독자는 〈병신과 머저리〉의 정보소로 추출한 내용(“형은 괴로워한다.”),

“형은 소설을 쓴다.”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소(“소설 쓰기는 괴로움의 해소 수단이 된다.”)를 도출한 후 텍스트의 대안 세계나 인물의 유니버스를 새롭게 구성(“형의 소설 쓰기는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이다.”)한다. 더 나아가 텍스트 유니버스의 지배 원리(“액자 구성”)를 메타적으로 조망(“액자를 겹쳐보면, ‘형’의 의미 찾기보다 ‘아우’의 의미 찾기가 더 중요하다.”)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는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하여 자신만의 플롯(“‘아우’와 동일시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허구 세계에 대한 성찰적인 읽기를 통해 플롯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서 삼중의 미메시스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위에서처럼 텍스트 유니버스에 내재한 플롯 찾아 읽기를 넘어 플롯 다시 쓰기에 도달하는 것은 소설 이해를 종결하고, 소설 해석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독자 유니버스의 재형상화가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플롯을 기반으로 한 담론 차원의 허구 세계 구성은, ‘플롯 찾아 읽기(형상화된 텍스트 유니버스의 플롯)’, ‘플롯 넘어 읽기(전형상화된 마스터 플롯의 해체)’, ‘플롯 다시 쓰기(재형상화된 독자 유니버스의 플롯)’라는 삼중의 미메시스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학습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에서 가장 큰 지체 요인이 플롯에 대한 감각에서 발생하였다. 상당수의 학습 독자는 단순 사건의 나열을 플롯으로 인식하며,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하여 나와는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세계로 인식한다. 이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지배 담론에 대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텍스트 유니버스의 지배 담론은 독자 세계 체계와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담론으로 재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텍스트 유니버스의 정보 원천에 대한 신뢰성에서부터, 텍스트의 시작과 끝, 인물의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까지, 허구 세계 구성에서 독자 자신의 판단 기회가 대단히 확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독자의 주체적 성찰 행위는 ‘반성적 판단³⁶⁾’을 통해 실현된다.

36) 특수한 현상을 보편적 원리에 포섭한다는 의미의 ‘판단’에서 보편적 원리가 미리 주어져 있다면, 이는 다시 ‘규정적 판단력’이 되며, 이때에는 규정된 보편적 원리에 특수한 현상들을 포섭시킴으로써 현상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행위가 된다. 반면 특수한 현상

이는 상상력을 지성에 순응시킴으로써 텍스트 유니버스에서 ‘선 혹은 참’으로 규정된 것을 선별하는 능동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이때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독자가 자신의 주체성이 누군가에 의해 바라봐지고 있다고 여길 때 발생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 유니버스의 지배 담론, 독자 세계를 지배하는 담론의 영향에 놓인 존재와 상호 교섭 중인 상황이 전제된다. 이러한 주체성은 독자의 대안 세계 상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독자는 반성적 판단을 계기로 하여 텍스트 유니버스의 지배 법칙에 대항할 수 있다. 이는 마스터 플롯 해체하기 혹은 플롯 다시 쓰기를 통해 진행된다. 이는 독자의 유니버스로 텍스트 유니버스를 포섭하는 과정이 되며, 세계 성찰적 읽기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재형상화된 독자 유니버스 안에서 세계 해석소가 도출되며, 소설 이해가 완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성찰적 읽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학습 독자의 유니버스 재형상화를 꾀하였다. 학습 독자는 형상화된 텍스트 유니버스의 지배 담론과 독자 세계 체계의 마스터 플롯을 대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마찬가지로 〈병신과 머저리〉에 적용하였다. 앞선 양상 분석에서 학습 독자들의 플롯 인식은 주로 단순 사건 나열로서 이루어졌고, 다양한 인물의 가능 세계를 추론한 것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지체 요인은 학습 독자의 플롯에 대한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세계 성찰적 읽기의 원리>

- (m) 핵 사건과 주변 사건을 구분하고, 핵 사건의 인과관계 찾기
- (n) 텍스트 유니버스 내 사건 배열의 개연성 판단하기
- (o) 도출된 플롯을 마스터 플롯과 대조하기
- (p) 텍스트 유니버스에 대한 나만의 플롯 다시 쓰기



<세계 성찰적 읽기 교육 방법>: 세계 담론 검토하기

- (14) 학습 독자는 작품 속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타당한지 판단한다.
- (15) 학습 독자는 작품 속 세계에서 다양한 사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16) 학습 독자는 작품 속 세계의 결말을 삭제하거나, 바꿨을 때 어떤 일

그 자체만 놓이게 된다면, 그 판단은 반성적이 되는데, 반성적 판단을 통해 인간은 특수한 현상 속에서 유기적으로 목적론적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I. Kant(1790), *Kritik der Urteilskraft*, 백종현 역(2009), 『판단력 비판』, 아카넷, p.599)

이 있을지 상상한다.

(17) 학습 독자는 작품 속 세계에 반영된 현실 세계의 지배 법칙을 찾는다.

(18) 학습 독자는 현실에서 작품 속 세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설명한다.

학습 독자에게 소설 속 사건의 구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나, (m)인과의 도출이나 (n)개연성 확인, (o)세계 체계와의 대조의 작업은 쉽게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 독자가 자기의 세계를 지배하는 담론을 추론하도록 하기 위한 토의 주제를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허구 세계 속의 인물이 각각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는 담론에 의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추론하게 하였다. 또, 결말을 삭제하거나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그것은 개연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탐색하게 함으로써 대안 세계 생성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교육 방법의 결과 학습 독자는 〈병신과 머저리〉에 대한 허구 세계 구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가령, (14)에 대해서는 전쟁 체험의 경험 유무, 전후 세대와 세대 갈등 문제에 있어 누군가의 고통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반응을 만들거나, (15)에 대해서는 많은 학습 독자가 쉽게 대안 세계를 구성해 냈다. (16)의 경우에서 ‘형이 의료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또는 ‘형이 소설 쓰기를 하지 않았다면’과 같은 현실 논리 속에서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지에 주목한 사례가 있었다. (17)은 쉽게 추론해내지 못했는데, 한 명의 학생이 독자 유니버스의 지배 법칙으로 ‘사람은 유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텍스트 유니버스 내에서도 지배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18)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형’과 같은 행동을 선택하였다. 이렇듯 세계 담론에 대한 감각이 훈련되었을 때, 허구 세계를 가장 풍성하게 구성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학습 독자는 본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줄거리를 요약하고, 감상을 작성하였다. 이때에는 지체 요인에 대한 해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현실 세계에 팽배한 가난의 문제를 〈눈길〉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품위 있게. 한 마을에 소년이 있다. 그는 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가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번다. 방학이 되고 집에 가려고 하니 집이 쫓쫓 망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갈 곳이 없는 소년은 집으로 돌아간다. 팔렸던 집은 그대로이고, 어머니는 버선 발로 소년을 맞이한다. 다음 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와 함께 눈길을 걷는다. (중략) 어머니에게 집은, 옷케는, 눈길은 가난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의연함이다. 그에게 눈에 비친 햇살은 그저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웅졸함일지도 모른다 [추-눈-5-㉓]

위 인용은 〈눈길〉에 대한 반응 텍스트이며, 다수의 학습 독자가 독자 유니버스의 지배 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 유니버스 속의 지배 욕망 혹은 인물의 경험 세계에 대한 조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는 모든 양상 분석 결과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에게 플롯에 대한 감각이 누적된다면 ‘플롯 찾아 읽기-플롯 해체하기-플롯 다시 쓰기’라는 세계 성찰적 읽기가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세계 성찰적 읽기 교육의 결과는 선행 양상 반응 때와는 상당히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시적인 반응 텍스트를 넘어 ‘해석 텍스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허구 세계 구성에 있어 시공간, 참여자, 담론의 중층성에 대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세계 간 교섭, 세계 간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인다. 세계 성찰적 읽기의 결과로 학습 독자는 소설 이해의 해석소를 마련하며, 비로소 소설 해석으로 돌입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학습 독자는 세계 발견적 읽기, 세계 재현적 읽기, 세계 판단적 읽기, 세계 성찰적 읽기의 교육 방법을 통해 소설 이해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자가 소설에 투영된 다양한 이야기 유니버스를 구분하고, 텍스트 유니버스와 독자 유니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설 장치를 인식하는 것은 일종의 재(再)메타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³⁷⁾ 이는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넘어 학습 독자가 구축한 유니버스를 독자 스스로 메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 대한 인지와 지배 담론(지식)의 포착, 이를 통한 독자 유니버스 구성의 단계적 수행으로 실천되는 소설 이해는 소설 언어와 독자의 메타언어,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때

37) 호창수(2023b), 앞의 글, p.340.

소설 이해로서 메타적 인식은 특정한 방향성을 전제하지는 않으며, “서술 주체와 독자로서의 서술 주체를 대비시키면서 독자의 저자성이 강화”³⁸⁾되는 시도가 되기도 한다.

다만, 소설 이해는 곧바로 독자 나름의 해석으로 이어져야만 그 의미를 지닌다. 독자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과정에서 자기 유니버스에 새로운 세계 체계를 들임으로써 재형상화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또 다른 세계와의 교섭을 통해 끊임없는 변증법적 해석의 순환을 일으킨다. 하나의 허구 세계 구성의 결과는 독자의 소설 이해 도식이 되어, 또 다른 세계로 이루어진 소설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비계로서 기능하게 되며, 이것이 소설 해석의 매개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은 소설 해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습 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절차화된 과정으로서 제시되었다. 이는 ‘세계 발견-세계 재현-세계 판단-세계 성찰’을 거쳐 자기 세계의 재구성에 이르는 변증법적인 방법론이 된다. 이러한 소설 이해는 현재의 학습 독자가 “진정한 자기 정체성 형성의 계기”³⁹⁾로 문학을 수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천성을 갖춘 방법이 된다. 결과적으로 학습 독자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통해 또 다른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해석적 순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8) 김성진(2007),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내용 연구: 메타소설화를 통한 수용과 창작의 통합」,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p.162.

39) 윤대석(2014), 「문학 교육에서 바라본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p.122.

V. 결론

이 연구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마련하고, 이를 학습 독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에 대하여 ‘독자가 의미 구성의 주체가 되어 텍스트에 형상화된 시공간, 참여자, 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 세계를 도출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개념, 전제, 수행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을 통해 그 원리를 도출하고자 전문 독자, 고등학생 독자, 대학생 독자로 읽기 양상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실재 속에서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다시 교육적 실천으로 변환하기 위한 노력이다. 결과적으로 이론과 실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실천성을 지닌 문학교육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소설 읽기에서 구성되는 가능 세계의 양상이다. 독자가 구성하는 가능 세계는 ‘사실’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수많은 관념과 의식의 가능성을 생성한다. 독자는 소설의 특정한 관습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의 구성 과정을 보이는 텍스트, 의도적으로 특정 작품을 언급하는 텍스트, 다양한 장치를 통해 메타적인 성격을 띠는 텍스트와 마주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허구와 실재를 복합적으로 지각하는 메타인지로서 허구적 인식 능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독자의 소설 이해에서 발생하는 중층적 세계 구성을 통한 메타인지 사고를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가능 세계 이론’과 ‘인지주의 서사학’을 통해 마련하였고, 이를 소설 교육의 자장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문학 소통론’에 대입하였다. 이는 소설 읽기에서 발현하는 가능 세계 양상(‘가능 세계 이론’)을 서사적으로 구조화(‘인지주의 서사학’)한 후 리콥르의 해석학 논의에 적용(‘문학 소통론’)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소설 읽기에서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양상을 일종의 인지 프레임을 구축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 전개를 위해

‘유니버스’ 개념에 주목하였다. 독자가 구성하는 가능 세계 양상을 이야기 가능 세계, 텍스트 가능 세계, 독자 가능 세계로 나누었고, 이는 독자가 속한 세계에 기반하여 중층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았다. 각각의 가능 세계는 다시 ‘현실 세계’, ‘경험 세계’, ‘대안 세계’라는 세부 양상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중층적으로 구성된 세계의 망을 유니버스 개념으로 포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유니버스, 텍스트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허구 세계 구성의 작동 원리를 라이언(M. Ryan)의 논의를 빌려 ‘재중심화(recentering)’로 정의하였다. 재중심화는 독자가 낯선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때, 자기의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이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독자는 낯선 세계와의 공유 지점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공유 지점에 기반하여 이해를 시도한다. 독자가 포착하는 공유 지점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혹은 추론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이 재중심화의 작동 방식이자, ‘최소 이탈의 원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을 절차적으로 수행되는 인지 과정으로 보았다. 독자는 소설 읽기에서 포착한 여러 요소를 허구 세계 구성을 위한 ‘정보소’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설 이해를 위한 ‘인지소’로 전환한다. 이렇게 전환된 인지소는 결과적으로 소설 이해를 넘어 해석을 위한 ‘해석소’로 도출된다. 이러한 읽기는 독자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주의적 사고의 작동이며, 그 결과 허구 세계는 여러 맥락과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중층적인 유니버스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허구 세계 구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한다는 것은, 독자와 소설 서사 사이의 소통 구도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리코르(P. Ricoeur)의 삼중의 미메시스 개념을 통해 새롭게 정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야기 유니버스, 텍스트 유니버스, 독자 유니버스의 구성은 각각 공간론적, 주체론적, 담론적 읽기로서 수행된다. 이를 통해 ‘시공간’, ‘참여자’, ‘담론’에 기반한 이해를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수행구조로 도출하였다. 시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설 이해는 복수의 시공성을 향한 독자 인식의 확장 문제이며, 허구 세계 재현에 가닿은 것으로 보았다. 참여자 기반의 소설 이해는 서술자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신뢰성 문

제에 관한 것이자, 허구 세계 견해에 관한 판단 문제라고 보았다. 한편, 모든 완결된 이야기는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되며, 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플롯에 기반한 이해를 허구 세계 담론과 체계에 대한 성찰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수행구조를 바탕으로 전문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시공간, 참여자, 담론에 대한 읽기에 앞서 소설 읽기는 일차적으로 소설 언어에 대한 감각을 통해 세계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독자는 이렇게 발견된 세계 구성 계기를 통해 시공간의 질서를 도출하고 세계를 재현하는 읽기를 진행하였다. 이는 크로노토프 생성과 중층적 구도 도출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세계 재현은 독자 세계 체계를 기반으로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소설의 서사성에 대한 인지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독자는 세계 참여자의 견해에 관한 판단을 수행하였다. 이때에는 이야기의 중개자를 탐색하고, 서술자의 위상을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해는 독자의 세계 체계와의 접점을 통해 유니버스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자 소설의 뒤편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독자는 세계 담론의 구조를 도출하면서 세계를 성찰하는 읽기를 수행하였다. 이는 허구 세계를 이루는 사건을 구분하고, 인과를 판명한 후 개연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소설 이해는 독자 유니버스와의 대별을 통해 유니버스를 성찰하는 작업이자, 소설 플롯에 대한 인지 양상이라고 보았다.

전문 독자의 소설 이해 양상을 통해,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원리는 궁극적으로 학습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세계 발견적 읽기’, ‘세계 재현적 읽기’, ‘세계 판단적 읽기’, ‘세계 성찰적 읽기’의 절차적 수행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위의 원리를 기반으로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을 분석하였고,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때 전문 독자의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양상은 그들에게 축적된 독서 경험으로 인하여 특수하게 발현되는 특성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 독자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괴리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독자의 읽기 양상을 함께 분석하여, 이들의 양상이 학습 독자의 근접발달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를 위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의 가능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시사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고, 학습 독자를 위한 실제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였다. 학습 독자는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원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소설 이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독자 유니버스 재형상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소설 이해의 완성과 함께 소설 해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학습 독자의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허구 세계 구성을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소설 이해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속한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낯선 세계에 대해 발견, 재현, 판단,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독자가 소설을 소설답게 읽도록 하는 구체적인 독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다양한 가능 세계 양상을 기반으로 허구적 인식 능력과 서사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 이는 소설 읽기를 ‘서사’ 층위로 확장하여 소설 교육의 새로운 위상을 확보한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소설 해석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 교육을 통해 학습 독자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조망하게 되었다. 텍스트를 매개로 다양한 가능 세계를 생성하고, 대조해 보는 과정에서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행위 주체로서 나에 대하여, 세계 속 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주체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는 문학 소통에서 독자의 실제 위상을 재정립하는 시도이자, 학습자의 내적 성장을 위한 문학교육의 정의적 역할을 제고(提高)한 것이다.

셋째, 허구 세계 구성 중심의 소설 이해의 과정에서 소설 교육 방법론으로의 인지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 독자의 해석 담론과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을 모두 다루면서 두 집단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향을 원리와 교육 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는 이론과 실재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주춧돌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소설 읽기와 소설 교육에서의 읽기를 구분하여 여태까지의 연구와는 차별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방

법은 ‘이론 점검→양상 분석→일반화된 원리 제시→원리의 적용→한계 도출→교육적 가능성 마련→교육 목표 설정→교육의 실행→결과 검토’라는 유기적 절차를 연구에 적용하여 소설 교육 이론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방법을 모든 종류의 소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교육 정전에 해당하는 한 작가의 여러 작품만을 다뤘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군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습 독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위계화와 문학 독서 경험 격차에 따른 위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과 목표를 더 상세화하여 실증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자료

-소설-

- 이청준, 〈벌레 이야기〉, 『비화밀교』, 나남, 1985.
_____, 〈매잡이〉, 『시간의 문』, 중원사, 1993.
_____, 〈병신과 머저리〉, 『시간의 문』, 중원사, 1993.
_____, 〈지배와 해방〉,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축제〉, 『축제』, 열림원, 1996.
_____, 〈소문의 벽〉,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_____, 〈잔인한 도시〉,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_____, 〈퇴원〉,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_____, 〈눈길〉, 『눈길』, 열림원, 2000.

-산문-

- 이청준, 『작가의 작은손』, 열화당, 1978.
_____,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1985.

2. 국내 논저

-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권오룡 편,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권택영 편, 『육망이론』, 문예출판사, 1999.
김경순, 「이청준의 소설언어 형상과 치유적 관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근호, 「소설 텍스트 중층적 읽기의 공간론」, 『독서연구』 19, 한국독서학회, 2008.
- ,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남혁, 「이청준 소설 연구: 자유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0.
- 김병욱 편,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 김상욱, 「소설 담론의 이데올로기 분석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 석,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의 초대』, 김영사, 2010.
- 김성진,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내용 연구: 메타소설화를 통한 수용과 창작의 통합」,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2007.
- 김성진 외, 『현대소설교육론』, 사회평론, 2023.
- 김승환, 「소설텍스트의 현실과 허구를 나누는 선」,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88.
- , 『포스트 모더니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윤식, 『한국 소설사』, 문학동네, 2000.
- 김정은, 「가능 세계 구성의 문학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김창원, 「문학교육 평가론의 자기 성찰」, 『국어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2013.
-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 김치수 편, 『이청준론』, 삼인행, 1991.
- 김태호, 「서사적 사고의 작용 방식 연구: 플롯 구성을 통한 삶의 인식 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 김혜영, 「소설 장르의 허구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 , 「가능 세계와 메타픽션」,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 남지현, 「서사교육의 빅 아이디어와 본질적 질문 연구: 허구성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 노대원, 「서사의 작중인물과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본 인물 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6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 , 『몸의 인지 서사학』, 박이정, 2023.
- 노태훈, 「구보의 픽션: 박태원의 메타픽션」, 『구보학보』 17, 구보학회, 2017.
- 류수열 외, 『문학교육개론Ⅱ』, 역락, 2014.
- 문장원, 「문학교육의 정전으로서의 주해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문교육』 21,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7.

- 박현이, 「감성 개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4.
- 배지연, 『최인훈 소설의 메타적 글쓰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선주원, 「크로노토프를 활용한 타자 인식과 소설교육」, 『국어교육』 116, 한국어교육학회, 2005.
- , 「동화에 나타난 픽진성 이해를 위한 동화교육 방법 연구」, 『청람어문교육』 5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4.
- 손병홍, 『가능 세계의 철학』, 소피아, 2004.
- , 「가능 세계 이론들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 70-3, 범한철학회, 2013.
- 손유경, 「최인훈·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텍스트의 자기반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민정, 「문학 연구의 인지적전환(1):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고전서사학과 인지적 서사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1,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3.
- 송지연, 「화행으로서의 허구의 이론」, 『불어불문학연구』 30-1, 한국불어불문학회, 1995.
- 송희복, 『메타비평론』, 월인, 2004.
- 신경림 외,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신재흡, 『서양 교육철학』, 교육과학사, 2022.
- 여홍상,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 염창권, 「문학교육에서 허구적 세계와 언어의 문제」, 『비평문학』 17, 한국비평문학회, 2003.
- 오세정, 「현대 문화콘텐츠의 서사 세계 연구」, 『기호학연구』 67, 한국기호학회, 2021.
- 오종환, 「허구의 인식적 특성과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 『미학』 27, 한국미학회, 1999.
- 오혜정, 「가능 세계 이론을 통한 허구성 탐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우찬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능 세계, 문학 이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 우한용, 「상상력의 작동구조와 상상력의 교육」,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 , 「문학교육과 허구적 인식 능력」, 『국어교육연구』 14, 국어교육연구소, 2004.
- , 「허구서사의 상상력 작동원리에 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 , 「소설 문체론의 방법 탐구를 위한 물음들」, 『현대소설연구』 33,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 , 『소설 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1.
-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 윤대석, 「문학 교육에서 바라본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2014.
- , 「대청성의 문학 교육 시론」, 『선청어문』 47, 서울대 국어교육과, 2020.
- 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문학교육학』 3, 한국문학교육학회, 1999.
- 이경순, 「다른 세계들, 다른 텍스트들」, 『문학과영상』 3-2, 문학과영상학회, 2002.
- 이경재, 「이청준의 『축제』에 나타난 축제의 복합적 성격 연구」, 『어문학』 145, 한국어문학회, 2019.
-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2014.
-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2007.
- 이성영,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2008.
- 이윤옥, 『다시 태어나는 말』, 문이당, 2005.
- , 『이청준 평전』, 문학과지성사, 2023.
- 이인화, 「소설 교육에서 해석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a.
- , 「소설의 허구 세계에 대한 독자 간 의미 교섭의 실천 체계 연구」,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b.
- 이정엽, 「인지주의 서사학 관점에서 본 게임학 연구: “스탠리 패러블”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 이좌용, 「가능 세계의 존재론」, 『철학』 41, 한국철학회, 1994.
- 이현석, 「이청준 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임경순, 「경험의 서사화 방법과 그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정래필, 「기억 재형상화 원리 중심의 소설 읽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보미, 『플롯 중심의 고전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정상원, 「정신과학적 이해로서의 추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고찰: 문학교육의 전회(Kehre)를 기원하며」, 『한국어문교육』 26, 2018.
- 정익순, 「유토피아와 가능 세계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 『철학탐구』 23,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2008.
- 정진석,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11.
- , 「소설 시점 교육의 사적 고찰과 개선 방향 연구」, 『어문연구』 4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 , 「소설교육에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9-1, 국어교육학회, 2014.

- _____, 「소설교육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수용에 대한 인지서사적 고찰」, 『국어교육』 154, 한국어교육학회, 2016.
- 정향균, 「픽션의 특성과 지위에 관한 고찰」, 『독일문학』 81, 2002.
-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4.
- 조연주 외, 『구성주의와 교육』, 학지사, 1998.
- 조현일, 「리콤피르의 서사이론과 서사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2005.
- 차봉희 편,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 최라영, 「암시된 저자와 (비)신뢰성 문제 고찰」, 『어문학』 133, 한국어문학회, 2016.
- 최성민, 「서사텍스트의 가능 세계에 대한 서사공학적 연구」, 『시학과언어학』 25, 시학과언어학회, 2013.
- 최인자, 「모티프 중심의 서사적 사고력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2003.
- _____,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 이해에 기반한 서사 추론 교육」,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 _____, 「문학 영역의 교실 내 평가 정착을 위한 ‘실제적 평가’의 방향성」,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2009.
- _____, 「내러티브 사고력 중심의 융합교육 방법: 내러티브 발견 학습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81, 청람어문교육학회, 2021.
- 최지현, 「문학 독서의 원리와 방법」,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2007.
- 현길언, 「문제 탐색을 위한 다층적 플롯」, 『이청준론』, 삼인행, 1991.
- 호창수, 「디지털 시대 문학교육 원리로서 감성적 지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연구소, 2020.
- _____, 「가능 세계 구성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9, 우리말글학회, 2023a.
- _____, 「메타픽션 읽기의 문학교육적 가능성」, 『국어교육연구』 83, 국어교육학회, 2023b.
- 홍은숙 외, 『교육학에의 초대』, 교육과학사, 2011.
- 황혜진 「서사 텍스트의 주제 진술 방식 연구」,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2006.

3. 역서 및 국외 논저

- Abbott, P.,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2002,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 Anderson, J. R.,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이영애 역,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Bachelard, G., *The Poetics of Space*, 1957, 한국소설학회 역,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 Bakhtin, M., *Voprosy literatury I esktetika*, 1975,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98.
- Bal, M.,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1978,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 1999.
- Barthes, R., *S/Z*, 1970, 김용권 역, 『S/Z』, 동문선, 2006.
- Booth, W., *The rhetoric of fiction*, 1961,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 Brooks, P., *Reading for the Plot*, 1984, 박혜란 역, 『플롯 찾아 읽기』, 강, 2011.
- Bruner, J.,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2003, 강현석,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2010.
- Chater, N., *The Mind is Flat*, 2021, 김문주 역, 『생각한다는 착각』, 웨일북, 2021.
- Chatman, S. B.,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1978,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1997, 조흥식 외 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5.
- Crow, D., *Visible Signs*, 2003, 서나연 역, 『보이는 기호학』, 비즈앤비즈, 2016.
- Culler, J., *Structuralist Poetics*, Routledge, 1975.
- Daisuke, A., “Narrative structure in the mind: Translating Genette's narrative discourse theory into a cognitive system”, *Cognitive Systems Research* 58, Elsevier Science, 2019.
- Danneberg, H., *Coincidence and Counterfactualit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8.
- Deleuze G., *Logique Du Sens*, 1969,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 Dewey, J., *Art as Experience*, 1934, 박철홍 역, 『경험으로서 예술 2』, 나남, 2016.
- _____, *Experience and education*, 엄태동 역,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2001.
- Dilthey, W.,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1979, 이한우 역, 『체험, 표현, 이해』, 책세상, 2002.
- Eco, U., *Lector In Fabula*, 1979, 김운찬 역,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2009.
- Emmott, C.,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1997.
- Frye, N., *Developing Imagin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Gadamer, H. G., *Wahrheit und Methode: Grundzuge einer philosophischen*

- Hermeneutik*, 1960, 이길우 역, 『진리와 방법 1』, 문학동네, 2012.
- Genette, G., *Narrative Discourse*, 1972, 권택영 역, 『서사 담론』, 교보문고, 1992.
- Goodrich, H., “Understanding rubrics”, *Educational leadership* 54(4), ASCD, 1996.
- Heidegger, M., *Sein Und Zeit*, 1927, 전양범 역,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1992.
- Herman, D., *Narrative Theory and the Cognitive Science*, CSLI Publications, 2003.
- , *Story Logic*,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3.
- Herman, D., etc,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2005.
- Holub, R., *Reception Theory*, 1984, 최상규 역, 『수용미학의 이론』, 예림기획, 1999.
- Ingarden, R., *Das literarische Kunstwerk*, 1965, 이동승 역, 『문학예술작품』, 민음사, 1985.
- Iser, W., *Der Akt des Lesens*, 1974, 이유선 역,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2.
- Kant, I., *Kritik der Urteilskraft*, 1790, 백종현 역,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 Lanser, S., *The Narrative Act: Point of View in Prose Fiction*, 1981,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98.
- Lewis, D., *On the Plurality of Worlds*, Basil Blackwell, 1986.
- Morson, G. S. & Emerson, C., *Mikhai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1990, 오문석 외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 Nünning, A. & Nünning, V., *Neue Ansätze in der Erzähltheorie*, 2002, 조정식 외 역,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18.
- Phelan, J., *Living to Tell about It*,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Phelan, J. & Rabinowitz, P.,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2005, 최라영 역, 『서술이론 I』, 소명출판, 2015.
- ,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2005, 최라영 역, 『서술이론 II』, 소명출판, 2016.
- Polkinghorne, D.,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1983, 김승현 외 역, 『사회과학방법론』, 일신사, 2001.
- Prince, G.,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 of Narrative*, 1982,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예림기획, 2015.
- , *A Dictionary of Narratology*, 1987, 이기우 역, 『서사론 사전』, 민지사, 1992.
- Relph, E., *Place and Placelessness*, 1976,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Ricoeur, P., *Interpretation Theory*, 1976, 김윤성 외 역, 『해석 이론』, 서광사, 1998.
- , *Temps et Récit, Tome 1: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1983, 김한식 외 역,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1999.
- , *Temps et Récit, Tome 3: Le Temps Raconte*, 1985, 김한식 역, 『시간과

- 이야기 3』, 문학과지성사, 2004.
- _____, *Du Texte a l'Action*, 1986, 박병수 외 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 Rimmon-Kenan, S.,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1983,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시학』, 예림기획, 1999.
- Rosenblatt, L. M.,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1978, 김혜리 역, 『독자, 텍스트, 시』, 한국문화사, 2008.
- Ryan, M., *Possible Worl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Theory*,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Indianapolis Press, 1991.
- _____, "Immersion vs interactivity: Virtual reality and literary theory", *SubStance* 28(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Narrative as Virtual Real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 Ryan, M., & Bell, A., *Possible Worlds Theory And Contemporary Narratolo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9.
- Scholes, R. & Kellog, R., *The Nature of Narrative*, 1966,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2007.
- Shulman, L. S.,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 Harvard Education Press, 1987.
- Stokwell, P., *Cognitive Poetics*, 2002, 이정화 외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 Van Manen, M.,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1989, 신경림 외 역, 『체험연구』, 동녘, 1994.
- Walton, K., *Mimesis as Make-Believe*, 1990, 양민정 역, 『미메시스: 믿는 채하기로서의 예술』, 북코리아, 2019.
- Waugh, P., *Metafiction*, 1984, 김상구 역, 『메타픽션』, 열음사, 1989.
- Zerweck, B., "Historicizing Unreliable Narration", *Style* 35(1), Penn State University, 2001.
- Zizek, S., *Ils ne savent pas ce qu'ils font*, 1955,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 Zunshine, L., *Why We Read Fic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2.
- 三浦俊彦, 『虚構世界の存在論』, 1995, 박철은 역, 『허구세계의 존재론』, 그린비, 2013.
- _____, 『可能世界の哲学』, 1997, 박철은 역, 『가능세계의 철학』, 그린비,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Novel Understanding Education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Ho, Changsu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reading fiction as an act of 'building a fictional world' and to derive a principle of 'novel-understanding method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by analyzing the reader's reading pattern. In addition, based on this principle, this study intends to redesign the education for novel-understanding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The reader perceives a novel as a world made up of someone's voice in a specific time and space. The reason why a reader can discover the meaning of life or reflect on life through a novel stems from the sense that there may be a different world from the one in which I live. In other words, reading a novel is a mixture of fictional objects and readers' experiences, which means that the fictional world and the actual world overlap each other. This study focuses on the overlap between these worlds and tries to clarify its meaning based on the cognitive-narratology.

Various 'possible worlds' work in the reader's novel reading process. First, there are the 'the story possible world' in which a character in a novel appears and an event occurs, and 'the textual possible world' in which a narrative action occurs, especially through a person recognized as a narrator. In addition, apart from the novel, it is the 'reader's own possible world' in which the reader rebuilds it through reality. At this time, one possible world that the reader encounters is again divided into several sub-patterns and recognized. For example, the reader's own possible world may sometimes be the 'reader's actual world' as a real fact, or the 'reader's experience world' that the reader remembers experiencing directly in the pas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recognized as a 'reader's alternative world' as inferred through the reader's imagination or counterfactual statements. In this way, the multiple possible worlds are recognized as a combination surrounding the one actual world to which the reader belongs. In other words, the reader's actual world, experience world, and alternative world are intertwined like a network, and this combination can be defined as an extended world concept called the 'reader's universe'. Similarly, the story possible world and the textual possible world are combined into a network of 'actual, experience, and alternative worlds' centered on characters and narrators, respectively, and can be composed of 'story universes' and 'textual universes' respectively. As such, the fictional world build by the reader in the process of reading the novel means that each universe is organized in layers, and the read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novel in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This study sets meta-cognition as a research problem that works in the process of building multiple universes when a reader reads a novel. The possible world that the reader builds in reading a novel becomes a mechanism to create numerous ideas and consciousness beyond the confines of fact. In general, the read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unfamiliar world based on the reader universe that defines

his or her 'world system', which is achieved through 'recentering' and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minimal departure'. Recentering means creating a point of sharing with an unfamiliar world when a reader builds the possible world. This point of sharing is based on what the reader already knows, and this method of building a world is defined as the principle of minimal departure. The building a fictional world made through the reader's recentering is the operation of cognitive thinking and can be defined as a communication structure that operates between the reader and the narrative of the novel. In this study, this communication structure is conceptualized by borrowing Ricoeur's discussion and substituting it into a triple mimesis. This triple mimesis functions as a framework for converting the principle of novel-understanding derived through narratology into the content and specific educational method of novel education theor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focuses on each characteristic by dividing the side surfaces of 'novel text', 'novel reading', and 'novel understanding' to prepare a premise for novel understanding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First, the building a world is based on the 'fictionality' and 'self-reflection' of the novel text. In addition, what constitutes the fictional world is to view reading novels as a dialectical practice between fiction and facts, and at this time, the reader's 'fictional recognition ability' works. In addition, novel understanding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is the result of the reader's 'narrative thinking'.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he performance structure of novel understanding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based on the general discussion of cognitive narrative. This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reader performs the re-interpretation in each universe in relation to the fundamental attributes of the novel, 'narrativity', 'verisimilitude' and 'plot'. First, the reader draws a story universe by paying attention to the event based on the narrativity of the novel, which is affected by the problem of

time and space in which the character acts and makes a statement. The 'spatiotemporality' of the fictional world exists in layer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s, and the reader embraces multiple spatiotemporality into a single story universe. This action is presented as a performance structure called 'the story universe and the inter-layerality of spatiotemporality'.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participants' in the novel, and one of them tells the whole story of the event with a leading voice. The reader judges what is known and hidden in the text through the sense of the participant's voice, and through this, the verisimilitude of the novel is derived. In this process, a plurality of communication positions between the reader and the participant are secured, and this is presented as a performance structure of 'the textual universe and the voice of the participant'. Meanwhile, the reader derives the 'discourse' of the fictional world through the plot of the novel. At this time, the read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discourse based on the dominant logic inherent in his universe. This is called the 'reader universe and discourse system' and is set as the last performance structure. These three performance structures are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understanding patterns of novels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of the reader, and furthermore, serve as a standard for deriving the principles of novel understanding focused on the building a fictional world and designing educatio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we analyze the aspects of novel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readers to seek the principles of novel understanding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First, the reader begins to understand by 'discovering' the fictional world through a sense of 'novel language'. This consists of creating a cover through text objectification and resonance through contrast with everyday language. Subsequently, the reader captures the order of 'spatiotemporality' and 'representation' the fictional world. At this time, the narrativity of the

novel is reviewed through capturing the 'chronotope' in the story universe, deriving the inter-layered structure of the textual universe, and coordination with the reader's own universe. In addition, the reader 'judges' the fictional world based on the view of the 'participants'. The reader's judgment work is done by searching for an intermediary of the story universe, recognizing the intermediary as a narrator of the textual universe, and adjusting its phase. In this process, the reader deduces the verisimilitude of the novel through the contact point with his or her own universe. On the other hand, the reader derives a 'discourse' and 'reflects' the fictional world through it. This aspect is achieved by selecting the 'kernels' in the story universe, organizing the cause and effect of the textual universe, and then confirming the probability. In this process, the reader reconstructs the plot of the novel through a broad distinction from his or her own universe. Through such reading patterns of professional readers, the principle of novel understanding focused on the building a fictional world is derived. This is presented as 'world-discovery reading' focusing on novel expression techniques, 'world-representative reading' through novel narrativity experiences, 'world-judgmental reading' through verisimilitude of novel, and 'world-reflective reading' through novel plot reorganization.

In order to design a novel understanding education focused on the building a fictional world based on the principles of novel understanding established in this way, the target learning readers' understanding pattern is analyzed. At this time, considering that the principle of novel understanding based on the reading patterns of professional readers cannot be directly transferred to learning readers who lack reading experience, the delay factors of the learning readers' understanding patterns are analyzed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prepared to overcome them. The proposed method of education for novel understanding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is a

transformation of the previously suggested principles to suit the learning readers and corresponds to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Specifically, the contents include 'the formation of fictional representations through world-discovery reading', 'creation of "informant" through world-representative reading', 'transformation of "sememe" through world-judgmental reading', and 'derivation of "interpretant" through world-reflective reading'. Through this educational method, learning readers increase their world discovery ability, world representation ability, world judgment ability, and world reflection ability, and successfully understand novels by contextualizing their own universe.

Novel understanding education focusing on reader's building a fictional world is significant in that it enhances narrative thinking through active novel reading by learners, that learners see their lives independently, and that it attempts a cognitive transformation of novel reading.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is a work that secures a new status in novel education through practical principles and methods and lays the foundation for novel interpretation education.

Key Words : novel understanding, fictionality, fictional world, possible world, universe, recentering, world-system, mimesis, spatiotemporality, participants, discourse, narrativity, verisimilitude, plot, learning reader, nove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20-31859